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경제학박사 학위논문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경제학 전공

이 승 은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철 희

이 논문을 경제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경제학 전공
이 승 은

이승은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위 원 장 이 정 민 (인)

부위원장 이 철 희 (인)

위 원 홍 석 철 (인)

위 원 Yoo Joan Paek (인)

위 원 이 영 욱 (인)

국문초록

오늘날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그만큼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중요해졌다. 개인의 인적자본 형성에는 부모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경제학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Burton et al.(2002)이 주장하였듯이 개인의 인적자본 형성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비인지적 요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극단적 양육태도라 할 수 있는 학대는 비록 '아동학대범죄' 수준의 학대가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수준의 학대는 드문 현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학대'는 주제로서의 중요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모의 학대를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부모의 학대가 개인의 성인기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았다. 또한 영향을 미친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Gelbach(2016)의 요인분해를 이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제1장인 서론과 제5장의 맺음말을 제외하고 크게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이후의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서 '부모의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및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후 제3장에서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제4장에서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각 장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제2장에서는 부모의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과거 학대 여부와 부모의 양육 비일관성이었다. 이 때, 과거 학대 여부는 분석에 포함시킨 통제변수로 통제되지 않는 과거의 환경까지 반영한다. 또한 취약계층에서는 아버지의 무직 역시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한편, 부모의 학대는 자녀의 대부분의 비인지적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 영향은 가정환경 변수와 개인특성 변수, 특히 중학교 1~2학년 시기의 비인지적 영역 평균점수까지 통제하였을 때에도 대부분 유의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보다 크게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개인특성변수와 가구특성변수를 통제할 때, 자녀의 대학(2~3년제 대학 포함)에 대해서는 '지속적 학대'가, 4년제 대학에 대해서는 '학대'와 '지속적 학대'가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만 가구특성 변수로 통제되지 않는 과거의 가정특성이 있을 경우 이들 추정치는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중2 성적을 통제할 경우 '학대' 그룹은 여전히 그 영향이 유의한 반면 '지속적 학대' 그룹은 그 유의성을 잃는다. 이는 '지속적 학대' 그룹의 경우 학대가 중학교 이전부터 지속되어왔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포함한 과거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이 중2 성적에 반영되어 대학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요소는 학대를 포함한 과거의 환경을 보여주는 중2 성적 변수였다. 다음으로는 학업 의지를 보여주는 교외학습시간 및 학습활동, 그리고 부모의 양육기술 부족을 보여주는 양육 비일관성 순이었다. 또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지속적 학대' 그룹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이 그룹에 속할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환경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힘'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제4장의 분석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직업 유무나 정규직 여부, 풀타임 근로 여부 및 대기업 근무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근로소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 학대는 원가구 특성까지 통제할 때 자녀의 초기 성인기 월평균 근로소득을 약 13% 감소시켰다. 다만 본 장의 분석 결과는 부모학대의 영향을 과소추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 학대가 자녀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서는 '잦은 직장이동'이 상당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즉,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끈기의 부족(Sujan et al., 2014)이나 감정조절의 어려움 및 낮은 사회성(Maughan & Cicchetti, 2002; Shields & Cicchetti, 1998) 등의 이유로 자주 직장을 옮기게 되고, 이것이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한계점은 바로 표본이탈이다.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한 경우,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나 수감 등의 이유로 사회적 배제 가능성이 커지고, 아울러 표본이탈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본 논문에서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을 때에도 학대 경험이 있으면서 청소년기 성적이 안 좋을수록 표본이탈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한 표본이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가중치를 사용하고, 4장에서는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한 분석도 실시해 보았다. 아울러 결과 분석 시 과소추정 가능성에 유의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내생성 문제이다. 본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들은 응답 대상자들이 청소년일 때 조사·수집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환경적 요소가 이미 학대를 유발하였을 수 있고, 이 학대가 지속되어올 수 있으며, 또 이러한 부분들이 자녀의

청소년기 성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내생성 문제에 유의하고자 2장의 '학대위험을 높이는 요인 분석'에서는 시차 변수를 사용하였고,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에는 성적이나 비인지적 영역 점수 등 조사 초기의 조사 대상자 특성 변수를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또한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있어서는 중학교 성적을 통제하기 이전의 결과는 내생성 문제에 따른 과대추정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하고 중학교 성적은 과거의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등, 해석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이상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우선, '학대'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물질적 투자가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 경제학에서 연구가 이미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부모의 비인지적 영역이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소의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에 더하여, 본 논문과 같은 부모의 비인지적 영역의 영향에 대한 연구까지 축적된다면, 개인의 인적자본 형성 및 성과에 관한 우리의 이해의 범위가 한층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학대를 포함한 부모의 양육태도나 기타 부모의 비인지적 요소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그동안 사회복지학이나 아동학, 심리학 등에서 많이 다루어 왔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은 많은 경우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 또는 성인기 이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였다.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분석방법도 경제학의 분석방법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본 논문에

서는 Gelbach(2016)의 요인분해(decomposition)를 이용하여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으며,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하여 표본이탈 문제를 보완한 분석결과도 제시하였다. 즉, '자녀의 성인기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다 확장된 범위의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과, 학대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기존과 다른 학문 영역(경제학)의 분석방법을 이용한 근거를 더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부모의 자녀 학대'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경제학 논문으로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덧붙여, 본 논문에서는 부모의 학대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관련 손실이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 개략적인 규모를 제시한 바 있는데(2019년 기준 연간 약 17.8조원, 명목GDP의 0.9%), 이는 아동학대 분야의 예산 배분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참고로 아동학대의 사회적 비용에서 피해자의 고용 관련 비용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에 대해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연구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 외에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서도 확인함으로써,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부모의 학대, 대학 진학, 근로소득, 노동시장 성과, 인적자본 형성, 노동생산성, 학대의 사회적 비용, 양육태도

학 번 : 2013-30062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2 장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및
학대가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고찰 ··· 6

제 1 절 서론 ····· 6
제 2 절 선행연구 ····· 8
제 3 절 자료 및 분석모형 ····· 12
3-1. 자료 및 기초통계 ····· 12
3-2. 분석모형 ····· 26
제 4 절 분석결과 ····· 29
4-1. 부모의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분석 결과 ··· 29
4-2.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 46
제 5 절 결론 ····· 52
부록 2-1. 비인지적 영역 관련 설문 문항 ····· 54
부록 2-2.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추가 분석 ····· 58
부록 2-3.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추가분석 ····· 60

제 3 장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 65

제 1 절 서론 ····· 65
제 2 절 선행연구 ····· 66
제 3 절 자료 및 분석모형 ····· 70

3-1. 자료 및 기초통계 ····· 70
3-2. 분석모형 ····· 74
3-3. 기초분석 ····· 79
제 4 절 분석결과 ····· 81
4-1. 진학성과별 분석 결과 ····· 81
4-2. 집단별 분석결과 ····· 91
제 5 절 결론 ····· 106
부록 3-1. 강건성 검증: 로짓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 ···· 109
부록 3-2. 표본이탈 분석 ····· 114
부록 3-3. 재수생 분석 ····· 119
부록 3-4. 통제변수 포함 결과 제시 ····· 120
부록 3-5. 취약계층 제외 분석 ····· 124

제 4 장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 126
제 1 절 서론 ····· 126
제 2 절 선행연구 ····· 127
제 3 절 자료 및 분석모형 ····· 131
3-1. 자료 및 기초통계 ····· 131
3-2. 분석모형 ····· 140
3-3. 기초분석 ····· 144
제 4 절 분석결과 ····· 147
4-1.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 147
4-2.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 151
4-3.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한 분석 ····· 170
제 5 절 결론 ····· 173

부록 4-1. 표본이탈 관련 분석 ····· 178
부록 4-2. 학대경험 여부를 '보통이다'로 답변한 경우에 대한 분석 ····· 183
부록 4-3.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최종학력별) ····· 190
부록 4-4.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추가 분석 ····· 193
부록 4-5. 통제변수 포함 결과 제시 ····· 196
부록 4-6. 취약계층 제외 분석 ····· 198

제 5 장 맺음말 ····· 201

참 고 문 헌 ····· 205

Abstract ····· 224

감사의 글 ····· 230

표 목 차

<표 2-1> 학대변수 기초통계 ····· 17
<표 2-2> 변수 기초통계 1 ····· 17
<표 2-3> 변수 기초통계 2 ····· 18
<표 2-4> 비인지적 영역 항목구성 ····· 20
<표 2-5> 학대변수 기초통계 ····· 22
<표 2-6> 기타변수 기초통계 1 ····· 24
<표 2-7> 기타변수 기초통계 2 ····· 25
<표 2-8>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 32
<표 2-9>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2 · 33
<표 2-10>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소득 하위 30% 대상) ····· 36
<표 2-11>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2
(소득 하위 30% 대상) ····· 37
<표 2-12>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그룹) ····· 39
<표 2-13>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2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그룹) ····· 40
<표 2-14>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아버지 학력 대졸이상 그룹) ····· 42
<표 2-15>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2
(아버지 학력 대졸이상 그룹) ····· 43
<표 2-16>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1 · 49
<표 2-17>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2 · 49
<표 2-18>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1
(2단계) ····· 50

<표 2-19>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2 (2단계) ····· 50
<표 2-20>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1 (3단계) ····· 51
<표 2-21>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2 (3단계) ····· 51
<부표 2-1>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0의 비인지적 영역 관련 설문 문항 ····· 54
<부표 2-2> 각 사건별 관측치 수 ····· 58
<부표 2-3>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사건의 영향 확인) ····· 59
<부표 2-4>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1 (4단계, short) ····· 60
<부표 2-5>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2 (4단계, short) ····· 61
<부표 2-6>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1 (4단계, long) ····· 62
<부표 2-7>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2 (4단계, long) ····· 63

<표 3-1> 학대변수 기초통계 ····· 73
<표 3-2> 진학성과 변수 기초통계 ····· 73
<표 3-3> 개인 및 가구특성 변수 기초통계 ····· 73
<표 3-4> 범주형 변수 기초통계 ····· 74
<표 3-5>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과 대학진학 성과 ···· 80
<표 3-6>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대학진학 성과, 남 ··· 80
<표 3-7>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대학진학 성과, 여 ··· 81

<표 3-8>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 82
<표 3-9>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2 · 84
<표 3-10>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 87
<표 3-11>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2 …… 89
<표 3-12>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해1 …… 90
<표 3-13>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해2 …… 90
<표 3-14>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진학자 한정) …… 92
<표 3-15>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2 (진학자 한정) …… 94
<표 3-16>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해1(진학자 한정) …… 95
<표 3-17>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해2(진학자 한정) …… 95
<표 3-18>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남학생) …… 98
<표 3-19>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2 (남학생) …… 100
<표 3-20>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여학생) …… 101
<표 3-21>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2 (여학생) …… 103
<표 3-22> 성별, 학대그룹별 대학진학 환경점수 …… 104

<표 3-23> 성별, 학대그룹별 대학진학 환경점수가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 (OLS분석 계수) ····· 104
<부표 3-1>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로짓 분석) ····· 109
<부표 3-2>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2 (로짓 분석) ····· 110
<부표 3-3>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3 (로짓 분석) ····· 112
<부표 3-4>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전체) ····· 115
<부표 3-5>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남학생) ····· 116
<부표 3-6>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여학생) ····· 117
<부표 3-7>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재수 여부에 미치는 영향 ····· 119
<부표 3-8>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 120
<부표 3-9>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2 ····· 121
<부표 3-10>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 제외) ····· 124

<표 4-1> 학대변수 기초통계 ····· 137
<표 4-2> 기타변수 기초통계 1 ····· 138
<표 4-3> 기타변수 기초통계 2 ····· 139
<표 4-4>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 유무와 최종학력 ···· 145
<표 4-5>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 유무와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전체) ····· 146
<표 4-6>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 유무와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남성) ····· 146
<표 4-7>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 유무와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여성) ····· 146
<표 4-8>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 149
<표 4-9>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2 ····· 150
<표 4-10>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임금근로자 대상) ····· 151
<표 4-11>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 156
<표 4-12>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2 ····· 157
<표 4-13>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월평균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해 ····· 158
<표 4-14>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남성) ····· 161
<표 4-15>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남성)2 ····· 162
<표 4-16>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여성) ····· 163
<표 4-17>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고졸 이하) ····· 164
<표 4-18>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졸) ····· 165
<표 4-19>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4년제대졸 이상) ····· 165

<표 4-20>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임금근로자) ····· 168
<표 4-21>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임금근로자)2 ····· 169
<표 4-22>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월평균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해 (임금근로자 대상) ····· 170
<표 4-23>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Heckman 2단계 표본선택모형 이용) ·· 172
<부표 4-1> 분석대상에 포함된 경우와 이탈된 경우의 기초통계값 비교 ····· 178
<부표 4-2>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79
<부표 4-3>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성) ····· 180
<부표 4-4>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 ····· 180
<부표 4-5> 추적조사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81
<부표 4-6> 추적조사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성) ··· 182
<부표 4-7> 추적조사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 ··· 182
<부표 4-8> 학대경험 여부 응답별 기초통계값 ····· 184
<부표 4-9>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 185
<부표 4-10>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2 ····· 186
<부표 4-11>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피학대 여부 세분화) ····· 186
<부표 4-12> 추적조사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피학대 여부 세분화) ····· 187
<부표 4-13>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남성) ····· 190

<부표 4-14>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여성) ····· 190
<부표 4-15>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고졸 이하) ····· 191
<부표 4-16>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졸) ····· 191
<부표 4-17>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4년제대졸 이상) ····· 192
<부표 4-18>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월평균 근로소득) ····· 193
<부표 4-19>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월평균 근로소득)2 ····· 194
<부표 4-20>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첫 직장 임금) ····· 195
<부표 4-21>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 196
<부표 4-22>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 제외) ····· 198

그 림 목 차

[그림 3-1]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76

[그림 4-1]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141
[부도 4-1] 학대여부 답변별 비율(%) ····· 184

제 1 장 서론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되면서, 그 대응 방안의 하나로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단시간 내에 저출생 추세를 전환시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 중 노동생산성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할 때까지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기존 경제학에서도 어느 한 개인의 진학이나 노동시장 성과, 기타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다룰 때 대부분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왔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 그 중에서도 자녀 양육 및 교육에의 물질적 투자 정도가 아닌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식으로서의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학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한 소수의 경제학 논문들은(Burton et al., 2002; Kim, 2019; Doepke et al., 2019)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사회경제적 요인 못지 않게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Burton et al.(2002)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경제적 요인 모두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스트레스와 자녀의 행동 둘 다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Kim(2019)은 일관성 있게 훈육할 수 있는 부모의 양육스킬이 자녀의 행동 및 발달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졌던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극단적인 양육태도라 할 수 있는 학대의 경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더 크고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양육태도 중에서

도 학대에 초점을 맞추었다.[1] 결국 본 논문은 부모의 학대를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학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로 아동학이나 복지학, 교육학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내용은 대부분 자녀의 정신적 건강, 비행, 또래 관계, 학교 적응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국한되었으며, 장기적인 진학 성과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 학업성취에 부모의 학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김세원(2021)이 유일하다. 해외에서는 아주 드물게 부모의 학대가 고등교육 진학과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존재하고(McCord, 1983; Covey et al., 2013), 부모의 학대로 국한시키지 않은 일반적인 아동기 학대 및 방임 경험, 또는 트라우마적 경험이 성인기 학력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 더 존재한다(McGloin and Widom, 2001; Macmillan and Hagan, 2004; Zielinski, 2009; Currie and Widom, 2010; Mersky and Topitzes, 2010; Tanaka et al., 2011, Fahy et al., 2017).

그러나 김세원(2021)은 단순히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집단의 대학 진학률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경로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

1) 비록 '학대'가 경제학에서 조금 낯선 주제일 수 있으나, 학대와 관련된 분석을 진행한 후 경제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들은 이전에도 있어왔음. Paxson & Waldfogel(2002)은 부모의 소득과 직업 유무 등 경제적 상황이 자녀 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후,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한부모 여성에게 복지 혜택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주는 직장으로 취업하도록 하는 것은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함. Fahy et al.(2017)은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포함한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이 정년 이전의 노동시장 조기 이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 추진 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함. Robst(2008)는 여성이 남성보다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당한 비율이 높고, 성적학대로 인한 임금 저하 정도도 크므로, 이것이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봄.

으며, 진학 성과의 수준도 대학 진학 여부의 한 가지 기준으로만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해외에서는 관련 연구들이 적은 수나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학대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Currie and Widom, 2010, Tanaka et al., 2011).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두고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 구체적으로는 대학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국내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국내 데이터를 사용한다. 둘째, 아동기나 청소년기 등 학대를 당하고 있는, 또는 당한 직후의 학업성취가 아닌 고등교육 진학 성과 및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학대의 장기적인 영향을 확인한다. 또한 고등교육 진학 성과를 분석할 때는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진학 성과의 수준을 대학 진학 여부와 4년제 대학 진학 여부로 세분화해본다. 셋째, 자녀의 대학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부모의 학대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Gelbach(2016)의 요인분해(decomposition)를 이용하여 확인해본다. 넷째, 개인의 타고난 능력을 일부 반영할 수 있는 학창시절 성적을 포함하여 개인 특성, 부모 및 가구 특성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본 논문은 이용한 데이터의 특성상 자녀가 청소년기일 때의 학대를 주로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이 사용한 패널 조사에서 시기를 특정하여 부모님의 학대 여부를 질문하지는 않았으나 응답자가 청소년일 때 설문을 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학대 경험을 반영하고 있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의 학대 경험이 데이터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단계로서(Covey et al., 2013) 이후 시기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그 중요도가 결코 아동기에 비해 뒤처지지 않으므로[2] 그 나름

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의 학대는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학대를 다룬다. 아동학대의 정의는 시대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보건복지부·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다 심각한 범죄수준의 학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라 칭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는 학대는 ‘아동학대범죄’ 수준의 학대보다는 그 심각성이 덜하나, 여전히 ‘학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동학대 실태조사(보건복지부·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에서는 전문가 조사를 기반으로 제한적 기준의 학대와 포괄적 기준의 학대로 구분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본 논문상의 학대는 제한적 기준과 포괄적 기준의 사이 정도 수준의 학대를 다루고 있다.[3)]

본 논문의 분석을 통해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과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부모의

---

2) Ireland, Smith, & Thornberry(2002)와 Thornberry, Ireland, & Smith(2001)는 청소년기의 폭력 노출 경험은 이전의 아동기에 폭력 노출 경험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이후의 학업 중단이나 범죄, 약물남용, 정신건강 문제 발생을 예측하는 데 있어 아동기 폭력 노출 경험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함.

3) (발생률 비교) 본 논문 중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기준으로 할 때 신체적 학대 발생률 35.4%, 정신적 학대 발생률 41.1%, 전체학대 발생률 46.4%였음.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경우, 아동 응답 기준으로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제한적 기준 적용시 신체적 학대 7.8%, 정서적 학대 11.6%였으며 방임을 포함한 전체학대 발생률 27.5%였음. 또한 포괄적 기준 적용 시에는 신체적 학대 30.3%, 정서적 학대 46.5%, 방임을 포함한 전체학대 발생률 60.3%였음. 이 중 대부분의 학대 행위자가 부모이고(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의 97.3%가 신체적 및 정서적 공격행위자를 아버지나 어머니로 응답), 연간 발생률과 평생 발생률 차이가 신체적 공격의 경우 304명 vs 378명, 정서적 공격의 경우 465명 vs 502명(보건복지부·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인 점을 감안할 때 신체적 학대 발생률은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포괄적 기준과 비슷하고, 정신적 학대 발생률은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포괄적 기준보다 약간 낮음. 한편,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기준으로는 제한적 기준과 포괄적 기준의 중간 정도임.

학대가 국가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노동생산성 저하 관련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부모의 자녀 학대 예방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노동생산성 제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분야에 어느 정도의 사회적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공해줄 것이다.[4] 아울러 본 논문의 분석은 개인의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부모의 양육태도, 나아가 부모의 비인지적 요소까지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크게 다섯 장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제2장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본다. 이후 제3장에서는 앞선 제2장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살펴보며, 제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4) 아동학대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학대 피해자의 생산성 저하 및 미취업 등에 따른 고용관련 비용임(김수정, 정익중,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비용 추정은 델파이 조사법에 의존하고 있음.

제 2 장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및 학대가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고찰
-부모의 자녀 학대를 중심으로-

제 1 절 서론

본 장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와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도 개인의 학업성취나 진학 등 인적자본 형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룰 때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지위 등을 고려해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소 외에 부모의 정서적 상태나 양육방식 역시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이러한 비인지적 요소가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져 왔다.

본 논문은 앞서 제1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부모의 극단적인 양육태도 중 하나인 학대가 자녀의 인적자본, 특히 대학 진학과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간 자녀 학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아동청소년학이나 복지학 등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학대의 영향은 많은 경우 단기적인 영향 및 비인지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되었다. 반면 본 논문은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대학진학 및 취업, 근로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다만 이와 같은 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녀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요인들이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동시에 자녀의 대학 진학이나 노동시장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분석에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본 논문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진학이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해보고자 하는데, 이 때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의 발달 상황은 그 경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사항, 즉 부모의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 및 부모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구들마다 비인지적 영역의 각기 다른 부분에 대한 학대의 영향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본 논문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학대의 개념은 사용한 데이터에 따라 그 정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학대의 영향도 학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게 된다 (Bunting et al., 2018).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주로 청소년기의 학대, 그리고 '아동학대범죄' 수준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학대를 '학대'로 다루게 된다.[5] 그러므로 기존에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이후 본격적인 분석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자녀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 및 부모 학대가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동시에, 이후 제3장 및 제4장에서 사용할 데이터(4장의 경우 유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 분석도 진행해보고자 한다. 즉 본 장의 연구는 이후 제3장 및 제4장에서 진행할 분석의 근거가 되는 기초 분석의 성격을 가진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제2절에서 관련 선행연구를 소개한 뒤, 제3절에서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 및 분석모형을 소개한다. 이후

5)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학대의 구체적인 정의는 각 장의 '자료 및 기초통계' 참고

제4절에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마지막 제5절에서 본 장의 결론을 맺는다.

제 2 절 선행연구

부모의 자녀 학대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학 및 복지학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연구 주제는 주로 부모의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부모의 학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이었다.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부모의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면, 이 요인들은 크게 부모의 정서적 상태, 가정 특성, 그리고 아동 특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부모의 정서적 상태로는 부모의 우울과 스트레스, 부부 갈등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재연, 한지숙(2003)은 어머니가 음주를 할수록, 부부간 결혼 만족도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때 자녀를 학대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영선(2012)은 어머니의 우울이 학령기 이전 자녀 학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일부분 부부갈등 및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어머니의 우울이 부부갈등을 높이고 사회적 지지를 낮춤으로써 자녀 학대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한편 김재엽(2001)은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 또는 여성은 자녀를 학대하는 경향이 높으며,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여성 또한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 외에 부모의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가정 특성으로는 빈곤가정(김광혁, 2006; 김광혁, 김예성, 2008)이나 다문화가정(박명숙, 이재경, 2014)이, 아동 특성으로는 아동의 연령대(이재연, 한지숙, 2003)나 장애 여부(박명숙, 2002), 기질(이주희, 이양희, 2000)등이 지목되었다.

한편 학대의 결과이자 유발 요인이기도 한 '학대의 대물림'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김예정, 김득성(2006)에 따르면 자녀폭력

정도는 아동기 폭력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 김혜영, 석말숙(2003) 역시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이 성격문제[6], 부부갈등,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 학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외에서도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우선 가난과 같은 경제적 상황이 아동학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Paxon & Waldfogel, 2002; Berger & Waldfogel, 2011; Pelton, 2015; Conrad-Hiebner & Byram, 2020). Conrad-Hiebner & Byram(2020)은 '경제적 불안정'과 아동학대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6개의 종단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실, 누적적인 물질적 어려움, 그리고 주거 곤란이 아동학대의 신뢰성 있는 예측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axson & Waldfogel(2002)은 주 단위(state-level)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자녀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가 없고 일하는 어머니를 둔 비율과 부모 모두 일하지 않는 경우의 비율, 그리고 소득이 빈곤선의 75% 이하인 비율 증가는 학대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 알콜 및 약물 중독과 같은 부모의 정신적 문제나 부모 간 폭력(Doyle Jr & Aizer, 2018), 그리고 부모의 아동기 학대경험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져 왔다. 일례로 Assink et al.(2018)이 아동학대의 대물림을 다룬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를 당했던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에 비해 자식을 학대할 확률이 거의 3배 가까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다만 분석결과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보다 정밀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모의 학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부모 학대는 우선 자녀의 정서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혜영, 최해림(2003)이 초등학생 5~6학년 499명을 대상으로 회

6) 분노표출, 분노통제, 예민함, 충동적, 쉽게 좌절, 참을성 등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아동의 공격성과 대인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옥자, 현온강(2005)이 초등학교 4학년 및 6학년 학생 61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낮추고 우울성향을 높임을 발견하였다. 윤혜미(1997)는 628명의 만 10~14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와 방임, 특히 정서적 학대와 애정소홀 및 건강관리 소홀과 같은 방임이 자녀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모의 학대는 자녀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김자영, 2014; 김춘경, 조민규, 2014), 또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익중(2008)이 빈곤아동 904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피학대 경험은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또한 공격성을 높이고 인지학습능력을 떨어트림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학대는 자녀의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나은숙, 정익중(2007)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78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서적 학대가 우울성향을 높이고 자기효능감을 낮춤으로써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방임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 학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 외에 부모의 학대는 비행이나 휴대폰 중독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들도 존재한다. 엄명용(2001)은 일반청소년과 소년원/소년교도소 청소년 등 977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아동기 신체적 학대 경험이 청소년기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재엽 외(2008)는 서울 및 경기도 내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1,140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은 학교폭력 가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7) 단, 신체학대 경험 빈도가 낮고, 신체학대와 다른 학대 간 상관관계 및 중복학대 비율이 높아, 신체학대 영향이 다른 학대유형을 통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음(나은숙, 정익중, 2007).

는데, 간접적인 영향은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민영, 박현선(2017)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6차년도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로부터의 학대 정도가 심각할수록 비행이 증가하고 이 경향은 빈곤가정일 때 더욱 악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익중 외(2006)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아동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의 피학대 경험이 자아존중감 저하,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 학교애착심 감소라는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김경호(2014)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0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2차년도 자료 및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아동학대 경험이 휴대전화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부모의 학대는 자녀에게 부모나 형제 폭력을 유발할 수 있으며(김재엽, 송아영, 2007; 배화옥, 2011), 장기적으로는 양육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는(이미선 외, 2008) 선행연구들도 있다.

해외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을 포함한 전반적인 아동기 학대 경험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에도 피학대 경험이 미치는 영향은 대체적으로 비슷하였다. 우선 아동기 학대 경험은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ardner et al.(2019)은 아동기 피학대 경험과 우울 및 불안장애(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아동학대가 우울 및 불안장애 위험을 높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MacMillan et al.(2001) 역시 아동기 신체적 및 성적 학대 경험이 일생동안의 정신병리적 문제 발생을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Angelakis et al.(2019)은 아동학대와 자살시도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자살 시도율을 2~3배 높인다고 밝혔다.

한편 학대받은 아동은 비행 및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

구 결과도 있으며(Widom, 1989; Currie & Tekin, 2012), 이 외에도 아동기 학대경험이 학업성취 및 교육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Fry et al., 2018; Perez & Widom, 1994), 더 나아가 성인기 경제적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Currie & Spatz Widom, 2010; Bunting et al., 2018). Fry et al.(2018)은 학대를 포함한 아동기의 모든 폭력 경험과 교육성과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아동기 폭력 경험이 학교 졸업, 학업 성취 등 교육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Perez & Widom(1994)은 아동기 학대경험이 청년기(28세)의 IQ 및 읽기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아울러 Bunting et al.(2018)은 아동학대 경험이 성인기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2개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학대는 원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소득과 취업 등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여 부모의 학대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부모의 학대가 대학 진학 이전 시점까지의 비인지적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 논문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이후 제3장 및 제4장에서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대학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선 기초분석이 될 것이다.

제 3 절 자료 및 분석모형

3-1. 자료 및 기초통계

본 장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중1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및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에

걸쳐 조사하여 구축한 데이터로, 2010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3개 패널) 학생 총 7,071명을 대상으로 한다.[8] 이 중 본 장에서 사용할 중1 코호트의 경우 1차 조사 때 2,351명이었으며, 제7차 조사까지 성공한 학생 수는 1,881명이다. 조사내용은 학생들의 발달 사항과 발달 환경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 및 보호자가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본 장에서는 동일하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중1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는 "제3장.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의 연속성을 위해 대학교에 입학한 시기인 제7차 조사까지 성공한 학생들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9]. 이 중 부모님이 계시고, 설문에 응답한 보호자 역시 부모님 중 한 분인 학생들로 제한하였으며[10], 아울러 분석에 사용하는 변수가 결측이 아닌 학생들(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분석: 1,454명, 학대가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1,34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3-1-1. 데이터 및 기초통계: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부모의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분석의 경우 크게 ① 학대 변수와 ② 개인 특성 및 가정환경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우선 학대 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에서는 학대와 관련된 설문이 2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이루어졌다. 그리고 학대와 관련된 질문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예: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

8) 한국아동청소년정책연구원(2017)
9) 단, 표본이탈을 고려하여 제7차 가중치를 기초자료 분석 및 회귀분석에 이용함.
10) '학대가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조사기간 동안 부모 구성이 바뀐 경우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킴.

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네 가지 문항이었다. 이 중 본 분석에서는 응답자의 주관적 요소가 비교적 덜 반영되고, 명백히 학대로 판단될 수 있는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와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의 두 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학대 여부 변수로 사용하였다. 설문에서는 위의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 한 가지로 답변을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이 중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로 답변한 경우를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두 질문 중 하나의 질문에서라도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응답한 경우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대 위험을 높이는 분석에서는 이러한 학대 변수에 대해 2차~3차 시기의 학대여부 변수와 5차~6차 시기의 학대 여부 변수로 나누어 분석에 이용하였는데, 전자의 경우 2차~3차 시기 중 한번이라도 학대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면, 후자의 경우 5차~6차 시기 중 한번이라도 학대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면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본 데이터에서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부모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응답하게 한 설문이었으므로, 정확히 어느 시기에 학대가 있었는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전 시기에는 학대가 있었다고 대답하였다가 이후에는 학대가 없다고 대답한 케이스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응답자들이 응답 시점과 가까운 시기의 부모님의 태도를 근거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조사 초기(2차~3차)와 조사 후기(5차~6차)의 학대 여부로 학대 변수를 구분하였다. 참고로 본 데이터에서는 해당 학대가 아버지로부터 이루어졌는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개인특성 및 가정환경 변수들의 경우 기존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자녀 학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지목되어 온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개인 특성 변수로는 성별, 국영수에 대한 주관적 성적, 공격성 정도, 건강문제 유무 변수를 사용하였다. 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의 성적 변수의 경우, 객관적으로 평가된 실제 점수는 2차 및 3차시기에만 조사가 된 반면 성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는 2차부터 6차시기까지

계속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분석에서는 자신의 과목별 성적에 대해 매우 잘했다, 잘한 편이다, 보통이다, 못한 편이다, 매우 못했다고 평가한 응답에 각각 점수를 부여[11]한 후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 점수를 구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때 이 변수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나, 또 한편으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는 부모님의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쉬우며, 부모가 성적에 따라 자녀를 학대하는 것은 부모 본인의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므로 부모의 자녀 학대 위험 요인을 살펴보는 본 분석에서는 해당 변수를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라 판단되었다. 공격성 변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에서 2~4차와 6~7차에 걸쳐 정서문제의 세부항목으로 '공격성'과 관련하여 질문한 6개의 설문에 대한 답을 이용하였다(부록 201 참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 "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값들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점수를 갖도록 코딩한 후 그 값들의 평균을 구하였다. 따라서 최소 1점부터 최대 4점까지의 값을 가지며, 4점에 가까울수록 공격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격성 정도가 5차에는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의 공격성 정도는 6차 값만 이용한다. 한편 건강문제 유무는 천식, 비염, 아토피 피부염, 비만, 심장질환, 당뇨병, 기타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1차, 4차, 7차 세 번에 걸쳐 조사되었는데, 이상의 질병들 중 한 가지에 대해서라도 4차에 질병이 있다고 답한 경우 건강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가정환경 관련 변수로는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와 보호자 건강상태, 부모의 양육 비일관성, 한부모 여부, 양부모 여부, 다문화가정 여부, 형제자매 유무, 부모 연령, 부모 교육수준, 부모 직업, 연평균 가구소득 변수를 사용하였다.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는 설문을 응답하는 보호자(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로 응답한 응답을 '만족한다=0'(전자 둘)와 '만족하지 못한다=1'(후자 둘)로 단순화시켰다. 보호자 건

11) 매우 잘했다: 95점, 잘한 편이다: 90점, 보통이다: 80점, 못한 편이다: 70점, 매우 못했다: 65점

강상태 역시 보호자가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로 응답한 응답을 ‘건강하다=0’(전자 둘)와 ‘건강하지 않다=1’(후자 둘)로 단순화시켰다. 부모의 양육 비일관성의 경우 양육의 비일관성이 가혹한 체벌(harsh punishment)과 관련이 높다는 Kim(2019)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변수에 포함시켰다. 아동청소년패널 2010에서는 1차, 4차, 6~7차에 부모님의 양육방식이 비일관적인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조사하였는데[12], 이에 대한 응답값을 이용하였다. 과거시기의 양육 비일관성은 1차 자료, 현재 시기의 양육 비일관성은 4차와 6차 자료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평균 가구소득 변수는 12백만원 이하, 12백만원~24백만원, 24백만원~36백만원, 36백만원~48백만원, 48백만원~60백만원, 60백만원~72백만원, 72백만원 초과로 그룹화시켜 사용하였다.

이상의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표는 <표 2-1>~<표 2-3>과 같다[13]. <표 2-1>의 학대변수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우선 학대를 당하지 않은 경우가 57.1%였다. 또한 2~3차 시기에 학대를 당한 경우는 24.5%, 5~6차 시기에 학대를 당한 경우는 6.9%였고, 2~3차 시기와 5~6차 시기 모두 학대를 당한 경우는 11.4%로, 응답자들이 고등학생일 때보다 중학생일 때 학대를 당한 비율이 훨씬 높다. 이 외에 주관적인 국영수 성적 평균 점수는 5~6차, 80점, 2~3차, 81점이었고 공격성 점수(최소 1점~최대 4점,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낮음)는 5~6차 3.1점, 2~3차 2.9점이었다. 보호자가 삶을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5~6차 17%, 2~3차 15%였고, 보호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비율은 5~6차 10%, 2~3차 12%였다. 부모의 양육 비일관성 점수(최소 1점~최대 4점,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비일관성 낮음)는 4·6차 2.9점, 1차 2.7점이었다.

---

12) ①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시고 어떤 때는 안 치신다. ② 부모님(보호자)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신다. ③ 손님이 오거나 외출했을 때, 나에 대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의 세 가지 문항에 대해 각각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중 하나로 응답한 값들을 평균함.

13) 이들 변수는 2차~3차 시기의 학대 여부 변수를 제외하고는 5차와 6차 시기의 변수값을 기준으로 작성됨.

<표 2-1> 학대변수 기초통계

		5~6차 학대 여부		
		학대 x	학대 o	계
2~3차 학대 여부	학대 x	831 (57.1)	101 (6.9)	932 (64.1)
	학대 o	357 (24.5)	166 (11.4)	522 (35.9)
	계	1,188 (81.7)	266 (18.3)	1,454 (100)

<표 2-2> 변수 기초통계 1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학대 여부						
학대 여부(1=학대)	5~6차	1,454	0.18	0.39	0	1
	2~3차	1,454	0.36	0.48	0	1
2. 개인 특성						
성별(1=여성)		1,454	0.49	0.50	0	1
국영수 주관적 성적	5~6차	1,454	79.87	6.01	65	95
	2~3차	1,454	80.63	7.17	65	95
공격성	6차	1,454	3.10	0.52	1	4
	2~3차	1,454	2.85	0.50	1	4
건강문제 유무		1,454	0.48	0.50	0	1
3. 가구 특성						
보호자 건강상태(1=건강x)	5~6차	1,454	0.10	0.29	0	1
	2~3차	1,454	0.12	0.32	0	1
보호자 삶 만족도(1=불만족)	5~6차	1,454	0.17	0.38	0	1
	2~3차	1,454	0.15	0.36	0	1
양육 비일관성(1~4점)	4·6차	1,454	2.87	0.53	1	4
	1차	1,454	2.67	0.66	1	4
한부모 여부(준거=양부모)		1,454	0.01	0.08	0	1
양부모 여부(준거=친부모)		1,454	0.00	0.06	0	1
다문화가정 여부		1,454	0.01	0.11	0	1
형제자매 유무(1=있음)		1,454	0.92	0.27	0	1
4. 사건						
부 실직		1,454	0.01	0.10	0	1
소득 감소		1,454	0.01	0.11	0	1
부모구성 변화		1,454	0.01	0.10	0	1
부모 이혼		1,454	0.01	0.09	0	1

<표 2-3> 변수 기초통계 2

구분		명 (%)	구분		명 (%)
부 연령	~ 40세 이하	3 (0.2)	모 연령	~ 40세 이하	51 (3.5)
	41세 ~ 45세	181 (12.4)		41세 ~ 45세	584 (40.1)
	46세 ~ 50세	774 (53.2)		46세 ~ 50세	650 (44.7)
	51세 ~ 55세	402 (27.7)		51세 ~ 55세	145 (10)
	56세 ~	94 (6.5)		56세 ~	24 (1.7)
	계	1,454 (100)		계	1,454 (100)
부 학력	고졸 이하	603 (41.5)	모 학력	고졸 이하	774 (53.2)
	전문대 졸	157 (10.8)		전문대 졸	194 (13.3)
	대졸 이상	693 (47.7)		대졸 이상	487 (33.5)
	계	1,454 (100)		계	1,454 (100)
부 직업	관리자, 전문가	339 (23.3)	모 직업	관리자, 전문가	239 (16.5)
	사무직	243 (16.7)		사무직	180 (12.4)
	서비스, 판매직	318 (21.9)		서비스 및 판매	323 (22.2)
	생산직 등	512 (35.2)		생산직 등	174 (12.0)
	군인	7 (0.5)		군인	0 (0)
	무직	34 (2.3)		무직	537 (36.9)
	계	1,454 (100)		계	1,454 (100)
연평균가구소득	12백만원 이하	13 (0.9)			
	12백만원~24백만원	81 (5.6)			
	24백만원~36백만원	336 (23.1)			
	36백만원~48백만원	318 (21.9)			
	48백만원~60백만원	379 (26.1)			
	60백만원~72백만원	107 (7.4)			
	72백만원 초과	218 (15.0)			
	계	1,454 (100)			

3-1-2. 데이터 및 기초통계: 학대가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학대가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경우, 크게 ① 학대 변수, ② 비인지적 영역 변수, ③ 개인 특성 및 가정환경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학대 변수의 경우 3-1-1.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분석에서 사용한 학대 변수와 동일하나, 중학교 시기(2~3차)와 고등학교 시기(4~6차)로 나누어서 중학교 시기나 고등학교 시기 중 한 시기에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면 '학대'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중학교 시기와 고등학교 시기 둘 다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지속적 학대'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14] 또한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와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의 두 질문 중 하나의 질문에서라도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응답한 경우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15].

비인지적 영역 변수의 경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에서는 이들 영역에 대해 학습습관, 정서문제, 자아인식, 학교적응,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도로 구분하였다. 이 중 학습습관은 성취가치, 숙달목적 지향성, 행동통제, 학업시간 관리라는 세부변수로, 정서문제는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로, 자아인식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으로, 학교적응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로, 또래애착은 의사소통, 신뢰, 소외라는 세부변수로 나누어진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비인지적 영역 조사항목 변수들을 이용하되,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코드북의 조사항목/척도 출처 및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영역-항목 분류를 아래 표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다.[16]

---

14) '학대' 그룹과 '지속적 학대' 그룹으로 구분한 것은,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을 경우 그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고(Lemmon, 2006; Clemmons et al, 2007; Manly et al., 2001), 일시적으로 학대를 당한 경우와 그 반응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기 위함임.

15) 두 질문 중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만 학대가 있다고 한 경우와 두 질문 모두에 대해 학대가 있다고 한 경우로도 나누어 보았으나, 지속성을 기준으로 한 학대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아 이를 따로 분류하지는 않음.

<표 2-4> 비인지적 영역 항목구성

상위 척도	하위항목		최종 분석항목
자기조절 학습능력	성취가치, 숙달목적 지향성, 행동통제, 학업시간 관리		자기조절학습능력
정서·행동문제 1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정서·행동문제 2	비행		비행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또래애착	의사소통, 신뢰, 소외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휴대전화 의존도			휴대전화 의존도

다만 이 중에서 많은 선행연구가 '정서·행동문제' 및 '학교생활적응'은 하위항목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는 반면,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또래애착'은 하위항목 대신 이들 자체로 분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따라 '정서·행동문제' 및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는 하위항목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또래애착'은 하위항목 대신 이들 상위개념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진로정체감은 아직까지 부모의 학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분석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변수는 각각의 변수 항목들에 연결되는 질문들[17]을 "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값들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점수를 갖도록 코딩한 후 그 값들의 평균을 구한 값이다.[18] 삶의 만

16) 별도 설문 항목인 휴대전화 의존도 항목을 비인지적 영역 항목에 추가함.
17) 부록의 '<부표 2-1> 비인지적 영역 관련 설문 문항' 참고
18) 일례로 '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 한다'는 질문에 대해

족도 역시 삶의 만족도 관련 질문들[19]에 응답한 값들을 평균한 값으로, 1점(만족도 낮음)부터 4점(만족도 높음)까지의 값을 지닌다. 휴대전화 의존도도 1점부터 4점(의존도 높음)까지의 값을 가지며, 비행의 경우 여러 비행 항목들[20] 중 하나라도 비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비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비인지적 영역 변수들은 대학 입학 전까지 누적적으로 발달되어 온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고3 시기인 6차년도 응답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아울러 이들 비인지적 영역 변수들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아동학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온 항목들이다. 부가적으로, 조사 초기(1~2차)의 비인지영역 점수를 통제해보기 위해 1차 및 2차년도의 비인지영역 점수 평균값도 변수로 이용하였다.

개인 특성 변수로는 성별, 중2~중3 국영수 평균점수, 비행 피해경험 변수, 건강문제 유무 변수를 사용하였다. 아동청소년패널 2010에서는 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아닌 실제 점수는 2차 및 3차 시기에만 조사되었는데, 조사 시점(2학기) 이전 학기의 과목별 점수에 해당하는 구간을 응답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중 본 분석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해 구간의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점수로 부여한 후[21], 세 과목의 평균점수를 구하여 학생의 중2~중3 성적을 보여주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외에 비행 피해 경험은 2차~6차 시기 동안 비행 피해 항목[22] 중 한

서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4점, '그런 편이다'는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나는 노는 것을 그만두지 못해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코딩함. 즉,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것임.

19) 부록의 '<부표 2-1> 비인지적 영역 관련 설문 문항' 참고

20)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협박하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삥뜯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성관계, 성폭행이나 성희롱,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

21) 1=96점 이상, 2=95~90점, 3=89~85점, 4=84~80점, 5=79~75점, 6=74~70점, 7=69~65점, 8=64점 이하에 대해 1=97점, 2=92점, 3=87점, 4=82점, 5=77점, 6=72점, 7=67점, 8=62점 부여

22)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심하게 맞기(폭행), 협박당하기, 돈이나 물건 뺏기기(삥뜯기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심한 욕설

항목이라도 피해 경험이 있을 경우 비행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건강문제 유무는 천식, 비염, 아토피 피부염, 비만, 심장질환, 당뇨병, 기타 질병들 중 한 가지에 대해서라도 1차 및 4차 중 한번이라도 질병이 있다고 답한 경우 건강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가정환경 관련 변수로는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와 보호자 건강 상태, 한부모 여부, 양부모 여부, 다문화가정 여부, 부모 연령, 부모 교육수준, 부모 직업, 연평균 가구소득 변수를 사용하였다.[23)]

이상의 변수들 중 학대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표는 <표 2-5>와 같다. 우선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없는 비율은 53.6%, 학대 경험이 있는 비율은 46.4%에 달한다. 5년의 시기 중 한 해라도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학대에 대한 설문 문항이 '멍이나 상처가 남을 정도' 및 구체적 예시가 주어진 '심한 말이나 욕'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수치는 부모의 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결코 드문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46.4% 중에 중학교 시기나 고등학교 시기 중 한 시기에만 학대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0.5%, 두 시기 모두에서 학대를 당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15.9%였다.

<표 2-5> 학대변수 기초통계

(단위: 명, %)

	빈도	(%)
학대 x	721	(53.6)
학대	410	(30.5)
지속적 학대	214	(15.9)
계	1,345	(100)

23) 다만,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분석에서의 결과를 본 분석에서도 이용하기 위해 부모 연령에 대해서는 아버지/어머니가 40세 이하인지 여부 변수를, 부모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고졸 이하인지의 여부 변수와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지의 여부 변수를, 연평균 가구소득에 대해서는 연평균 가구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지(소득 하위 약 30%) 여부 변수를 사용함.

기타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는 <표 2-6>~<표 2-7>과 같다. 우선 비인지적 영역 변수들의 경우 자기조절학습능력부터 삶의 만족도 항목까지는 1점부터 4점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값이 클수록 좋은 의미인데, 이들 변수는 2점 중후반대~3점 초반대의 평균값을 가진다. 휴대전화 의존도의 평균값은 2.28점이었으며(1점~4점 사이의 값을 가지며, 4점이 휴대전화 의존도 가장 높음),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비행 경험이 있는 학생은 31%였다. 개인 특성 변수들의 기초통계 값을 살펴보면 여학생 비율이 49%이며, 중2~중3 국영수 평균점수는 약 79점이었고, 비행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은 20%, 건강 문제가 있는 비율은 64%였다. 가구 특성 변수들의 경우 보호자가 자신의 건강을 좋지 않다고 답한 경우는 19%, 삶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는 28%였고, 다문화가정은 1%였다. 참고로 한부모 가정은 부와 모 특성 변수를 모두 통제변수로 사용함에 따라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양부모 가정(stepfamily)은 1,345명 중 한 명이었다.[24] 한편 자녀가 17세인 4차년도 기준으로 아버지 연령대는 40세 이하인 경우가 1.5%, 어머니는 11.9%였다. 아버지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이 41.3%였으며, 어머니의 경우 대졸 이상이 35%였다. 부모의 직업분류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생산직 등[25]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32%), 서비스 및 판매직(25%), 관리자 및 전문가(24%), 사무직(18%)이 그 뒤를 이었다. 무직인 경우는 1.2%였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 무직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5%), 서비스 및 판매직(22%), 관리자 및 전문가(18%), 사무직(13%), 생산직(12%)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1차~6차까지의 연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36백만원 이하인 경우가 28.9%였다.

24) <표 2-6>의 개인특성 변수 중 비행피해경험과 건강문제 유무 변수, 가구특성 변수는 2차~6차(건강문제 유무 변수는 1차, 4차) 중 한 번이라도 해당 항목에 속할 경우 1의 값을 부여함.

25)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를 포함함.

<표 2-6> 기타변수 기초통계 1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비인지적 항목						
자기조절 학습능력(6차)		1,345	2.65	0.42	1.04	4
정서 문제 (6차)	주의집중	1,345	2.88	0.46	1	4
	공격성	1,345	3.10	0.52	1	4
	신체증상	1,345	3.09	0.58	1	4
	사회적 위축	1,345	2.76	0.69	1	4
	우울	1,345	3.14	0.54	1	4
자아존중감(6차)		1,345	2.94	0.46	1.50	4
자아탄력성(6차)		1,345	2.91	0.41	1.79	4
자아정체감(6차)		1,345	2.69	0.40	1.25	4
학교 적응 (6차)	학습활동	1,345	2.75	0.53	1	4
	학교규칙	1,345	3.04	0.47	1	4
	교우관계	1,345	3.16	0.38	1.60	4
	교사관계	1,345	2.99	0.58	1	4
또래애착(6차)		1,345	3.12	0.43	1	4
삶의 만족도(6차)		1,345	2.91	0.62	1	4
휴대전화 의존도(6차)		1,345	2.28	0.67	1	4
지난 1년간 비행 경험(6차)		1,345	0.31	0.46	0	1
비인지 영역(1~2차 평균)		1,345	2.80	0.28	1.79	3.76
2. 개인 특성						
성별(1=여성)		1,345	0.49	0.50	0	1
중2~중3 국영수 평균		1,345	79.12	10.17	62	97
비행 피해경험		1,345	0.20	0.40	0	1
건강문제 유무		1,345	0.64	0.48	0	1
3. 가구 특성						
보호자 건강상태(1=건강x)		1,345	0.19	0.40	0	1
보호자 삶 만족도(1=불만족)		1,345	0.28	0.45	0	1
한부모 여부(준거=양부모)		1,345	0.00	0.00	0	0
양부모 여부(준거=친부모)		1,345	0.00	0.02	0	1
다문화가정 여부		1,345	0.01	0.07	0	1

<표 2-7> 기타변수 기초통계 2

구분		명	(%)	구분		명	(%)
부 연령 (4차)	~ 40세 이하	20	(1.5)	모 연령 (4차)	~ 40세 이하	160	(11.9)
	41세 ~ 45세	416	(30.9)		41세 ~ 45세	755	(56.1)
	46세 ~ 50세	653	(48.5)		46세 ~ 50세	339	(25.2)
	51세 ~ 55세	219	(16.3)		51세 ~ 55세	80	(6.0)
	56세 ~	38	(2.8)		56세 ~	10	(0.8)
	계	1,345	(100)		계	1,345	(100)
부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6	(2.7)	모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2	(2.4)
	고졸	519	(38.6)		고졸	696	(51.7)
	전문대 졸	138	(10.3)		전문대 졸	147	(10.9)
	대졸	581	(43.2)		대졸	443	(33.0)
	대학원 졸	71	(5.3)		대학원 졸	27	(2.0)
	계	1,345	(100)		계	1,345	(100)
부 직업	관리자, 전문가	317	(23.6)	모 직업	관리자, 전문가	241	(18.0)
	사무직	240	(17.9)		사무직	170	(12.6)
	서비스, 판매직	329	(24.5)		서비스 및 판매	301	(22.4)
	생산직 등	435	(32.4)		생산직 등	164	(12.2)
	군인	7	(0.5)		군인	0	(0)
	무직	17	(1.2)		무직	468	(34.8)
	계	1,345	(100)		계	1,345	(100)
연평균가구소득 (176차)	12백만원 이하	4	(0.3)				
	12백만원~24백만원	73	(5.4)				
	24백만원~36백만원	312	(23.2)				
	36백만원~48백만원	332	(24.7)				
	48백만원~60백만원	294	(21.9)				
	60백만원~72백만원	115	(8.5)				
	72백만원 초과	215	(16.0)				
	계	1,345	(100)				

3-2. 분석모형

3-2-1.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분석: 선형확률모형

본 파트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분석이 간단하지 않은 것은 내생적인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부모가 피학대 경험이 있다거나 폭력성이 높은 경우 이는 부모의 현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녀 학대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Burton et al., 2002) 학대 위험 역시 부모의 측면만이 아닌 자녀의 측면에서도 높아질 수 있지만, 자녀의 현 상태 역시 과거 부모의 양육행동의 결과일 수 있다. 이 또한 예를 들어보면 과거 부모의 학대로 인해 자녀의 발달 상태나 성적이 안 좋을 수 있고, 학대는 지속되거나 부정적인 자녀의 현 상태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이전 시기의 학대 여부 변수와 이전 시기의 자녀 측면의 요소, 그리고 이전 시기 부모 측면의 요소를 통제하였다. 우선 학대 위험요인을 크게 '자녀', '부모', 그리고 '이전 시기의 학대 여부'라는 세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자녀' 측면으로는 자녀의 성적 변수[26]와 공격성 변수, '부모' 측면으로는 보호자의 삶의 만족도 변수와 부모 양육 비일관성 변수, 마지막으로 '이전 시기 학대 여부'로는 2차~3차 시기 학대 여부 변수를 사용하여 5차~6차 시기 학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수식으로 살펴보면 식 (1)과 같다.

이 때 분석모형은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변수들 외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자녀 학대 유발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항목들도 변수에 포함시켰다. 이들 변수는 개인적 특성 변수와 부모 및 가정 특성 변수로 나누어볼 수 있

26) 이 때 고등학교 유형 변수를 함께 통제함.

다. 우선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성별과 건강문제 유무 여부를 포함시켰다. 일반적으로는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아동의 장애 유무 여부를 포함시키나,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에서는 장애 여부가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대신 건강문제 유무 여부 변수를 포함시켰다. 또한 2010년 기준 중1 코호트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조사 대상의 연령은 모두 동일하여 연령은 변수에서 제외시켰다.

부모 및 가정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보호자 건강상태, 부 연령, 모 최종학력, 부 직업, 연평균 가구소득 그룹, 한부모 여부, 양부모 여부(stepparents), 다문화가정 여부, 형제자매 유무 변수를 사용하였다. 다만 부모의 성인기 이전 피학대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에서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변수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ca_i = a + b * child_i + c * parent_i + d * ca_{past\,i} + e * child_{past\,i} + f * parent_{past\,i} + g' X_i + \epsilon_i \quad (1)$$

한편, 부모나 가구 계층별로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감안하여 ① 연가구소득 3,600만원 이하 그룹(전체 표본의 하위 30%), ② 아버지 학력이 고졸 이하인 그룹, ③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인 그룹 각각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또한, 부모님 간 이혼과 같은 특정 사건이 학대 위험을 높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분석도 진행해보았다. 구체적으로 4차에서 5차 또는 5차에서 6차 사이에 ① 아버지의 실직, ② 부모 구성 변화, ③ 부모 이혼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27] 이것이 부모의 학대 위험을 높이는지 다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모형으로 확인해보고 그 결과를 부록 2-2에 제시하였다.

---

27) 부모 구성 변화 및 부모 이혼은 '함께 살고 있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하므로 이혼 대신 별거, 사별일 가능성도 존재함. 단, 타지역 근무 또는 요양, 입원 등의 사유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는 '함께 살고 있는' 것에 해당됨. 부모 구성 변화는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이 친아버지→친어머니인 케이스나 친아버지→친아버지+새어머니, 친아버지→친아버지+친어머니와 같은 케이스까지 모두 포함됨.

3-2-2.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토빗모형 및 로짓모형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는 토빗모형 및 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고3 시기인 6차년도의 비인지적 영역 변수들을 사용하였는데[28], 이들 변수의 구성은 <표 2-4>에 제시되어 있다.

이때, 비행 경험을 제외한 비인지적 영역 변수들은 최소 1점부터 최대 4점까지의 값을 가지므로[29] 토빗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빗모형은 종속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즉 종속변수의 일부가 절단되어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30],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토빗모형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31].

$$y_i^* = \alpha + \beta x_{\text{피학대경험여부}i} + \gamma' X_{\text{통제변수}i} + \epsilon_i \tag{2}$$

$$y_i = \begin{cases} 1, & y_i^* \le 1\text{일경우} \\ y_i^*, & 1 < y_i^* < 4\text{일경우} \\ 4, & y_i^* \ge 4\text{일경우} \end{cases} \tag{3}$$

---

28) 마지막 조사시점인 7차년도 대신 6차년도 자료를 사용한 것은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7차년도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고, 또한 '제3장.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인지적 영역을 피학대 경험이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변수들 중 하나로 보게 되는데, 이때 이 부분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9) 이 때 이 변수들은 순서형 변수가 아닌 연속형 변수임. 일례로 '주의집중'이라는 하위항목에 대해서도 관련된 질문이 7개가 있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 2, 3, 4로 응답하게 함. 본 논문에서는 7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평균하여 이를 주의집중 항목의 점수로 봄. 단, 최소점수가 1점, 최대점수가 4점이므로 ols 대신 tobit 모형을 이용함.

30) 이종구 외(2009)

31) 김민희(2010) 참고

한편, 비행 경험은 경험 유무를 묻는 변수이므로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로짓모형은 종속변수가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경우와 같이 이항변수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수식은 아래와 같다.

$$y_i = \begin{cases} 1, & y_i^* > 0 \text{일 때} \\ 0, & y_i^* \leq 0 \text{일 때} \end{cases} \quad (4)$$

$$y_i^* = \alpha + \beta x_{\text{피학대경험여부}i} + \gamma' X_{\text{통제변수}i} + \epsilon_i \quad (5)$$

이때, ϵ_i는 로지스틱 분포(logistic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참고로,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패널분석 대신 6차년도 비인지적 영역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을 시행한 이유는 비인지적 영역이 1년 이내의 단기적인 시간 동안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발달되기 때문이다.

본 분석의 설명변수는 2차~6차년도 기간 동안의 피학대 경험 여부 변수(학대 x, 학대, 지속적 학대)를 사용하였고, 통제변수로는 개인 특성에 속하는 성별, 중2~중3 국영수 평균점수, 2차~6차기간 동안 조사된 비행피해경험 변수와 부모 및 가구 특성에 해당하는 보호자 건강상태, 보호자 삶의 만족도, 부모 연령, 부모 최종학력, 부모 직업, 한부모 및 양부모(stepparents) 여부, 다문화가정 여부, 가구 연평균 소득, 1~2차 비인지영역 평균값 변수를 사용하였다.

제 4 절 분석결과

4-1. 부모의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분석 결과

분석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는 <표 2-8>~<표 2-9>이다. 우선 자녀의 성적과 공

격성, 그리고 보호자 삶의 만족도 변수만을 포함시킨 <표 2-8>의 (1)번 모형을 살펴보면, 자녀의 성적과 공격성은 모두 부모의 학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변수는 (3)번 모형에서 2~3차 학대 여부 변수를 통제하여도 그 유의성이 유지된다. 그러나 부모 양육 비일관성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는(2, 4번 모형), 자녀의 공격성 변수가 그 유의성을 잃어 이 변수가 부모 양육 비일관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2~3차 시기의 성적 변수를 통제할 경우, 현재 시기 성적 변수의 유의성은 사라지고, 대신 2~3차 성적이 학대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4)~(7)번 모형 기준으로 2~3차 시기에 학대가 있었을 경우 현재의 학대 위험이 14% 높아지고, 부모의 양육 비일관성 점수가 1점 낮아질 때(비일관성 정도가 높아질 때)에는 학대 위험이 1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변수가 학대 위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부모 양육 비일관성 변수의 경우, 1차 시기의 부모 양육 비일관성 변수를 통제하여도 그 영향의 크기와 유의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편, 외국어고나 과학고에 진학한 경우 일반고에 진학한 경우보다 학대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경우에도 학대 위험이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스터고의 경우 학생의 대부분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학비도 면제되는 것에 따른 영향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에서 부모의 학대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 중 2~3차 학대여부 변수와 2~3차 성적 변수, 그리고 외국어고 및 과학고 진학여부 변수의 경우, 이들 변수를 이들 변수 자체로 볼 경우 그 영향의 크기를 과대추정할 위험이 존재한다. 해당 부모와 자녀가 처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의 성과가 좋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좋지 않은 자녀의 성과 때문에 학대가 더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조사 시작 시기 이전에 이미 진행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여, 2~3차 시기의 학대여부 및 성적 변수, 그리고 외고 및 과고 진학여부 변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과거의 환경이 반영되어 있는 요소로 볼 필요가 있다. 이 때 과

거의 환경에는 사회·경제적 요소 외에 부모의 양육기술이나 양육태도와 같은 비인지적 요소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는 (3)번 모형에 부모 양육 비일관성 변수를 추가하자(4번 모형), 2~3차 학대 여부의 영향의 크기가 30% 감소하였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9>의 (1)~(3)번 모형은 <표 2-8>의 (7)번 모형에 개인 및 가구 특성 변수들을 추가해본 결과이다. 이들 변수들을 추가한 경우에도 기존 변수의 영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32]. 새로 추가한 변수 중에서는 아버지가 무직일 때, 그리고 보호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유의수준 10% 하에서 자녀를 학대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2)번 및 (3)번 모형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자녀 학대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만을 모형에 포함시킨 (4)번 모형에서는 해당 변수가 유의하지 않으며, 자녀의 성적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킬 때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의 영향이 유의해진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 때 타고난 능력이나 교육에의 관심 등의 측면에서 자녀의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 학대 위험을 낮추는 부분이 있으나, 이를 통제할 경우 오히려 학대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이 대해서는 어머니 학력이 대졸 이상일 경우 자녀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더 높기 때문일 가능성 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본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로는 확인이 어렵다. 한편, 아버지가 군인일 때에도 학대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가 군인인 케이스는 전체 관측치 중 7명(0.5%)으로 이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 및 부모 특성 변수들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높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가구의 사회경제적 변수들만을 모형에 포함시켜 본 (4)번 모형에서도, 자녀 학대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버지 직업이 관리자 및 전문가인 경우에 대비하여 군인인 경우 및 무직인 경우 만이었다.

32) 단, 외고 및 과고 진학 여부 변수의 경우 (2)번 및 (3)번 모형에서 그 영향의 크기가 상당 수준 증가함.

<표 2-8>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변수		(1) 학대	(2) 학대	(3) 학대	(4) 학대	(5) 학대	(6) 학대	(7) 학대
국영수 주관적 성적		-0.0061***	-0.0052***	-0.0051***	-0.0046**	-0.0046**	-0.0020	-0.0019
		(0.0019)	(0.0019)	(0.0018)	(0.0018)	(0.0018)	(0.0022)	(0.0022)
2~3차 학대 여부 (1=학대)				0.20***	0.14***	0.14***	0.14***	0.14***
				(0.026)	(0.026)	(0.026)	(0.026)	(0.027)
공격성 (1~4점)		-0.083***	-0.025	-0.068***	-0.022	-0.019	-0.020	-0.029
		(0.023)	(0.024)	(0.022)	(0.023)	(0.023)	(0.023)	(0.024)
보호자 삶의 만족도(1=만족x)		0.033	0.020	0.031	0.020	0.012	0.0063	0.0096
		(0.031)	(0.030)	(0.030)	(0.029)	(0.028)	(0.028)	(0.029)
부모 양육 비일관성(1~4점)			-0.23***		-0.19***	-0.19***	-0.19***	-0.19***
			(0.024)		(0.025)	(0.025)	(0.025)	(0.026)
고등학교 유형 (준거= 일반고)	특목고 (예체능)					0.027	0.0051	0.014
						(0.092)	(0.091)	(0.091)
	특목고 (외고,과고)					-0.099***	-0.080**	-0.078**
						(0.037)	(0.037)	(0.037)
	마이스터					-0.13***	-0.13***	-0.13***
						(0.032)	(0.032)	(0.034)
	특성화					0.068**	0.040	0.042
						(0.033)	(0.035)	(0.035)
2~3차 국영수 성적							-0.0044**	-0.0045**
							(0.0019)	(0.0019)
2~3차 공격성								0.026
								(0.025)
2~3차 보호자 만족도								-0.011
								(0.033)
1차 부모 양육 비일관성								-0.014
								(0.018)
상수		0.92***	1.32***	0.72***	1.11***	1.09***	1.25***	1.24***
		(0.17)	(0.17)	(0.16)	(0.16)	(0.16)	(0.17)	(0.18)
관측치 수		1,454	1,454	1,454	1,454	1,454	1,454	1,454
R2		0.025	0.113	0.084	0.143	0.149	0.153	0.155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공격성과 부모 양육 비일관성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과 비일관성이 낮음.

<표 2-9>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2

변수		(1) 학대	(2) 학대	(3) 학대	(4) 학대
국영수 주관적 성적		-0.0018 (0.0022)	-0.0023 (0.0022)	-0.0024 (0.0022)	
2~3차 학대 여부 (1=학대)		0.14*** (0.027)	0.14*** (0.027)	0.14*** (0.027)	
공격성 (1~4점)		-0.031 (0.024)	-0.026 (0.024)	-0.026 (0.024)	
보호자 삶의 만족도(1=만족x)		0.011 (0.029)	0.0061 (0.030)	-0.0078 (0.031)	
부모 양육 비일관성(1~4점)		-0.19*** (0.026)	-0.19*** (0.026)	-0.19*** (0.026)	
고등학교 유형 (준거= 일반고)	특목고 (예체능)	0.018 (0.091)	0.023 (0.096)	0.033 (0.097)	
	특목고 (외고,과고)	-0.079** (0.037)	-0.13*** (0.043)	-0.13*** (0.046)	
	마이스터	-0.14*** (0.035)	-0.13*** (0.037)	-0.12*** (0.038)	
	특성화	0.040 (0.035)	0.038 (0.035)	0.036 (0.035)	
2~3차 국영수 성적		-0.0046** (0.0019)	-0.0050** (0.0020)	-0.0049** (0.0020)	
2~3차 공격성		0.024 (0.025)	0.020 (0.025)	0.023 (0.025)	
2~3차 보호자 만족도		-0.013 (0.034)	-0.020 (0.033)	-0.023 (0.034)	
1차 부모 양육 비일관성		-0.013 (0.018)	-0.014 (0.018)	-0.015 (0.018)	
성별: 여학생		-0.020 (0.022)	-0.019 (0.022)	-0.017 (0.022)	
부 연령 (준거= 46~50세)	~40세		-0.041 (0.23)	-0.040 (0.23)	0.055 (0.21)
	41~45세		0.0041 (0.031)	0.0059 (0.031)	0.0018 (0.035)
	51~55세		0.00092 (0.026)	0.0040 (0.026)	0.0060 (0.027)
	56세~		0.025 (0.050)	0.019 (0.050)	0.025 (0.052)
모 학력 (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0.019 (0.035)	0.024 (0.035)	0.023 (0.038)
	대졸 이상		0.052** (0.026)	0.055** (0.026)	0.023 (0.029)
부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0.043 (0.033)	-0.040 (0.033)	-0.039 (0.036)
	서비스· 판매직		-0.016 (0.035)	-0.016 (0.035)	0.0021 (0.039)
	생산직		-0.019 (0.032)	-0.018 (0.032)	-0.0028 (0.035)

	군인		-0.22***	-0.21***	-0.18***
			(0.068)	(0.067)	(0.032)
	무직		0.17*	0.15	0.21*
			(0.096)	(0.094)	(0.11)
연평균 가구소득 (준거= 36백~48백)	12백만 이하		-0.056	-0.057	-0.049
			(0.10)	(0.11)	(0.14)
	12백만~ 24백만		-0.037	-0.039	-0.039
			(0.050)	(0.051)	(0.053)
	24백만~ 36백만		-0.00051	-0.0037	0.012
			(0.034)	(0.034)	(0.036)
	48백만~ 60백만		-0.0093	-0.011	-0.0099
			(0.032)	(0.032)	(0.033)
	60백만~ 72백만		0.031	0.031	-0.020
			(0.041)	(0.041)	(0.049)
	72백만 초과		-0.040	-0.039	-0.023
			(0.037)	(0.037)	(0.040)
한부모 여부 (준거=양부모)				0.074	0.062
				(0.10)	(0.13)
양부모 여부 (준거=친부모)				0.13	0.092
				(0.18)	(0.19)
다문화가정 여부 (1=다문화)				-0.048	0.0061
				(0.10)	(0.11)
형제자매 유무 (1=없음)				-0.015	-0.018
				(0.043)	(0.047)
보호자 건강상태 (1=건강x)				0.079*	
				(0.040)	
건강문제 유무 (1=건강문제 있음)				0.0039	
				(0.022)	
상수		1.25***	1.33***	1.33***	0.20***
		(0.18)	(0.18)	(0.19)	(0.058)
관측치 수		1,454	1,454	1,454	1,454
R2		0.155	0.167	0.171	0.012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공격성과 부모 양육 비일관성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과 비일관성이 낮음.

주3: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성변수가 다 분석에 포함되었어도 이 변수들은 중3 또는 고1 기준이고 한부모 여부는 모든 조사차수 중 한번이라도 해당할 경우 한부모에 해당하므로, 한부모에 해당하는 관측치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을 수 있음.

<표 2-10>과 <표 2-11>은 연평균 가구소득이 하위 30%인 그룹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2~3차 학대 여부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보다 동일한 항목의 영향의 크기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위험 요인에 대해 학대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아버지가 무직인 경우, 자녀를 학대할 가능

성은 24%~3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그 영향 정도나 유의성이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높았다. 이 외에 소득 하위 30% 그룹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5~6차 성적 변수의 유의성은 과거 성적을 통제하더라도 유의수준 10% 하에서 여전히 유의하였고, 이 외에 아버지 연령이 40세 이하인 경우에는 준거집단(46~50세)보다 자녀 학대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양부모(stepparents)일 때 자녀 학대 위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 하위 30% 그룹 중 부모가 양부모(stepparents)인 경우의 관측치는 3건(0.7%)으로,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표 2-12>와 <표 2-13>은 아버지 학력이 고졸 이하인 그룹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 때에는 자녀의 성적 변수는 학대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대신 자녀의 공격성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학대 위험은 높아지며, 이는 과거의 학대 여부 및 과거의 자녀 및 부모 특성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그 영향이 유의하다. 또한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을 때보다 2~3차 학대 여부 변수의 영향의 크기가 커지는데, 2~3차 학대 여부 변수를 과거의 환경이 반영되어 있는 변수로 본다면 이 그룹에서는 과거의 환경이 학대 위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그룹에서는 소득 하위 30% 그룹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무직일 때 학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 훨씬 크고(27%~34% 증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인 그룹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해보면(<표 2-14>~<표 2-15>), 아버지 학력이 고졸 이하인 그룹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비해 2~3차 학대 여부 영향의 크기는 작고 부모 양육 비일관성의 영향 크기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그룹의 학대 여부는 아버지 학력이 고졸 이하인 그룹에 비해 과거 환경의 영향은 덜 받는 반면, 양육기술의 부족이라 볼 수 있는 양육 비일관성의 영향은 더 크게 받는 것이다. 한편, 아버지 연령이 40세 이하인 경우 학대 위험은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아버지 직업이 관리자나 전문가인 경우에 비해 서

비스·판매직, 생산직일 때 학대 위험이 낮아지는 것은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로 분석 대상이 제한되고 연평균 가구소득도 통제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0>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소득 하위 30% 대상)

변수		(1) 학대	(2) 학대	(3) 학대	(4) 학대	(5) 학대	(6) 학대	(7) 학대
국영수 주관적 성적		-0.0085**	-0.0082**	-0.0075**	-0.0076**	-0.0084**	-0.0069*	-0.0073*
		(0.0038)	(0.0038)	(0.0035)	(0.0036)	(0.0036)	(0.0039)	(0.0039)
2~3차 학대 여부 (1=학대)				0.18***	0.12**	0.11**	0.11**	0.12**
				(0.050)	(0.051)	(0.052)	(0.052)	(0.053)
공격성 (1~4점)		-0.046	0.025	-0.036	0.024	0.030	0.031	0.024
		(0.045)	(0.044)	(0.045)	(0.044)	(0.044)	(0.044)	(0.045)
보호자 삶의 만족도(1=만족x)		0.080*	0.045	0.083*	0.051	0.038	0.037	0.041
		(0.047)	(0.043)	(0.046)	(0.043)	(0.041)	(0.041)	(0.042)
부모 양육 비일관성(1~4점)			-0.30***		-0.27***	-0.26***	-0.26***	-0.27***
			(0.049)		(0.052)	(0.053)	(0.053)	(0.055)
고등학교 유형 (준거= 일반고)	특목고 (예체능)					0.046	0.034	0.038
						(0.14)	(0.14)	(0.14)
	특목고 (외고,과고)					-0.18***	-0.20***	-0.21***
						(0.055)	(0.056)	(0.058)
	마이스터					-0.17**	-0.17**	-0.16**
						(0.066)	(0.066)	(0.072)
	특성화					0.092*	0.073	0.076
						(0.050)	(0.055)	(0.056)
2~3차 국영수 성적							-0.0028	-0.0031
							(0.0033)	(0.0033)
2~3차 공격성								0.025
								(0.048)
2~3차 보호자 만족도								-0.043
								(0.048)
1차 부모 양육 비일관성								0.0044
								(0.033)
상수		0.98***	1.59***	0.81***	1.42***	1.45***	1.56***	1.56***
		(0.31)	(0.32)	(0.29)	(0.30)	(0.30)	(0.32)	(0.33)
관측치 수		418	418	418	418	418	418	418
R2		0.029	0.153	0.077	0.170	0.184	0.185	0.188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공격성과 부모 양육 비일관성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과 비일관성이 낮음.

<표 2-11>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2

(소득 하위 30% 대상)

변수		(1) 학대	(2) 학대	(3) 학대	(4) 학대
국영수 주관적 성적		-0.0072* (0.0039)	-0.0069* (0.0039)	-0.0074* (0.0039)	
2~3차 학대 여부 (1=학대)		0.12** (0.053)	0.12** (0.052)	0.12** (0.053)	
공격성 (1~4점)		0.024 (0.045)	0.0046 (0.043)	0.0021 (0.044)	
보호자 삶의 만족도(1=만족x)		0.041 (0.042)	0.028 (0.041)	0.0073 (0.042)	
부모 양육 비일관성(1~4점)		-0.27*** (0.056)	-0.25*** (0.055)	-0.25*** (0.058)	
고등학교 유형 (준거= 일반고)	특목고 (예체능)	0.038 (0.14)	0.0028 (0.15)	0.0076 (0.16)	
	특목고 (외고,과고)	-0.21*** (0.063)	-0.21*** (0.059)	-0.23*** (0.062)	
	마이스터	-0.16** (0.075)	-0.19*** (0.067)	-0.18** (0.072)	
	특성화	0.076 (0.056)	0.067 (0.054)	0.070 (0.055)	
2~3차 국영수 성적		-0.0031 (0.0033)	-0.0034 (0.0035)	-0.0030 (0.0035)	
2~3차 공격성		0.025 (0.048)	-0.0022 (0.048)	0.0058 (0.048)	
2~3차 보호자 만족도		-0.043 (0.048)	-0.055 (0.048)	-0.071 (0.051)	
1차 부모 양육 비일관성		0.0045 (0.033)	0.0069 (0.034)	0.011 (0.035)	
성별: 여학생		-0.0010 (0.042)	0.0015 (0.042)	0.010 (0.042)	
부 연령 (준거= 46~50세)	~40세		-0.30*** (0.096)	-0.29*** (0.097)	-0.17** (0.075)
	41~45세		0.012 (0.064)	-0.0026 (0.062)	0.018 (0.071)
	51~55세		-0.069 (0.045)	-0.069 (0.045)	-0.058 (0.048)
	56세~		-0.087 (0.069)	-0.11 (0.071)	-0.044 (0.080)
모 학력 (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0.033 (0.079)	0.029 (0.077)	0.054 (0.091)
	대졸 이상		0.094 (0.062)	0.084 (0.061)	0.055 (0.068)
부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0.081 (0.091)	-0.067 (0.091)	-0.12 (0.092)
	서비스· 판매직		-0.12* (0.070)	-0.12* (0.070)	-0.15* (0.080)

	생산직		-0.033	-0.041	-0.058
			(0.063)	(0.063)	(0.072)
	무직		0.27**	0.24**	0.30**
			(0.12)	(0.12)	(0.14)
연평균	12백만		-0.15	-0.14	-0.14
가구소득	이하		(0.12)	(0.13)	(0.14)
(준거=	12백만~		-0.050	-0.058	-0.088
24백~36백)	24백만		(0.053)	(0.054)	(0.056)
한부모 여부				0.089	0.055
(준거=양부모)				(0.12)	(0.14)
양부모 여부				-0.22*	-0.36***
(준거=친부모)				(0.13)	(0.13)
다문화가정 여부				0.18	0.22
(1=다문화)				(0.15)	(0.20)
형제자매 유무				-0.038	-0.093
(1=없음)				(0.083)	(0.094)
보호자 건강상태				0.092	
(1=건강x)				(0.058)	
건강문제 유무				0.013	
(1=건강문제 있음)				(0.039)	
상수		1.57***	1.71***	1.72***	0.36***
		(0.34)	(0.34)	(0.33)	(0.12)
관측치 수		418	418	418	418
R2		0.188	0.239	0.249	0.077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공격성과 부모 양육 비일관성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과 비일관성이 낮음.

주3: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성변수가 다 분석에 포함되었어도 이 변수들은 중3 또는 고1 기준이고 한부모 여부는 모든 조사차수 중 한번이라도 해당할 경우 한부모에 해당하므로, 한부모에 해당하는 관측치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을 수 있음.

<표 2-12>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그룹)

변수		(1) 학대	(2) 학대	(3) 학대	(4) 학대	(5) 학대	(6) 학대	(7) 학대
국영수 주관적 성적		-0.0031	-0.0026	-0.0019	-0.0017	-0.0017	0.00036	0.00054
		(0.0031)	(0.0032)	(0.0029)	(0.0030)	(0.0030)	(0.0032)	(0.0032)
2~3차 학대 여부 (1=학대)				0.24***	0.19***	0.19***	0.19***	0.19***
				(0.037)	(0.039)	(0.039)	(0.039)	(0.039)
공격성 (1~4점)		-0.12***	-0.074**	-0.095***	-0.066*	-0.065*	-0.067*	-0.085**
		(0.036)	(0.036)	(0.034)	(0.034)	(0.034)	(0.034)	(0.037)
보호자 삶의 만족도(1=만족x)		0.048	0.043	0.050	0.046	0.045	0.040	0.047
		(0.039)	(0.037)	(0.036)	(0.035)	(0.035)	(0.035)	(0.035)
부모 양육 비일관성(1~4점)			-0.20***		-0.14***	-0.14***	-0.14***	-0.13***
			(0.035)		(0.036)	(0.036)	(0.036)	(0.038)
고등학교 유형 (준거= 일반고)	특목고 (예체능)					-0.020	-0.044	-0.035
						(0.096)	(0.096)	(0.094)
	특목고 (외고,과고)					-0.12**	-0.11*	-0.097
						(0.058)	(0.057)	(0.060)
	마이스터					-0.15***	-0.15***	-0.15***
						(0.040)	(0.040)	(0.043)
	특성화					0.048	0.025	0.027
						(0.039)	(0.043)	(0.043)
2~3차 국영수 성적							-0.0039	-0.0038
							(0.0029)	(0.0029)
2~3차 공격성								0.046
								(0.034)
2~3차 보호자 만족도								-0.015
								(0.041)
1차 부모 양육 비일관성								-0.034
								(0.026)
상수		0.79***	1.17***	0.52**	0.84***	0.83***	0.99***	0.96***
		(0.27)	(0.27)	(0.24)	(0.25)	(0.25)	(0.29)	(0.29)
관측치 수		631	631	631	631	631	631	631
R2		0.038	0.108	0.129	0.162	0.168	0.172	0.177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공격성과 부모 양육 비일관성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과 비일관성이 낮음.

<표 2-13>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2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그룹)

변수		(1) 학대	(2) 학대	(3) 학대	(4) 학대
국영수 주관적 성적		0.00045 (0.0032)	-0.00025 (0.0032)	-0.00047 (0.0033)	
2~3차 학대 여부 (1=학대)		0.19*** (0.039)	0.18*** (0.040)	0.18*** (0.040)	
공격성 (1~4점)		-0.084** (0.038)	-0.086** (0.035)	-0.086** (0.035)	
보호자 삶의 만족도(1=만족x)		0.047 (0.035)	0.042 (0.036)	0.038 (0.037)	
부모 양육 비일관성(1~4점)		-0.13*** (0.039)	-0.14*** (0.038)	-0.14*** (0.038)	
고등학교 유형 (준거= 일반고)	특목고 (예체능)	-0.036 (0.095)	-0.063 (0.10)	-0.065 (0.10)	
	특목고 (외고,과고)	-0.098 (0.060)	-0.097 (0.066)	-0.100 (0.067)	
	마이스터	-0.15*** (0.047)	-0.14** (0.057)	-0.13** (0.057)	
	특성화	0.028 (0.044)	0.019 (0.045)	0.018 (0.046)	
2~3차 국영수 성적		-0.0037 (0.0029)	-0.0038 (0.0030)	-0.0038 (0.0030)	
2~3차 공격성		0.047 (0.034)	0.041 (0.036)	0.041 (0.036)	
2~3차 보호자 만족도		-0.014 (0.042)	-0.024 (0.043)	-0.027 (0.044)	
1차 부모 양육 비일관성		-0.035 (0.026)	-0.039 (0.026)	-0.038 (0.027)	
성별: 여학생		0.011 (0.033)	0.0069 (0.034)	0.0078 (0.035)	
부 연령 (준거= 46~50세)	~40세		0.33 (0.37)	0.34 (0.38)	0.35 (0.35)
	41~45세		0.044 (0.044)	0.042 (0.044)	0.030 (0.049)
	51~55세		-0.013 (0.037)	-0.013 (0.037)	-0.0021 (0.041)
	56세~		0.0072 (0.068)	0.0065 (0.067)	0.038 (0.066)
모 학력 (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0.032 (0.083)	0.033 (0.083)	0.085 (0.11)
	대졸 이상		0.19 (0.12)	0.18 (0.12)	0.16 (0.12)
부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0.045 (0.063)	-0.047 (0.063)	-0.034 (0.063)
	서비스· 판매직		0.064 (0.058)	0.062 (0.058)	0.044 (0.061)

	생산직		0.071	0.069	0.078
			(0.053)	(0.054)	(0.054)
	군인		-0.16	-0.16	-0.22*
			(0.11)	(0.11)	(0.12)
	무직		0.27**	0.27**	0.34**
			(0.12)	(0.12)	(0.13)
연평균 가구소득 (준거= 36백~48백)	12백만 이하		-0.14	-0.14	-0.093
			(0.11)	(0.11)	(0.13)
	12백만~ 24백만		-0.080	-0.077	-0.080
			(0.057)	(0.057)	(0.064)
	24백만~ 36백만		-0.0071	-0.0071	0.0034
			(0.042)	(0.043)	(0.044)
	48백만~ 60백만		-0.041	-0.042	-0.012
			(0.046)	(0.046)	(0.049)
	60백만~ 72백만		-0.0090	-0.013	0.011
			(0.084)	(0.085)	(0.11)
	72백만 초과		0.037	0.045	0.069
			(0.079)	(0.081)	(0.093)
한부모 여부 (준거=양부모)				0.068	0.064
				(0.14)	(0.16)
양부모 여부 (준거=친부모)				-0.024	-0.15*
				(0.076)	(0.087)
다문화가정 여부 (1=다문화)				-0.024	-0.026
				(0.10)	(0.13)
형제자매 유무 (1=없음)				0.035	0.013
				(0.061)	(0.067)
보호자 건강상태 (1=건강x)				0.0033	
				(0.046)	
건강문제 유무 (1=건강문제 있음)				0.013	
				(0.032)	
상수		0.95***	1.02***	1.00***	0.092
		(0.29)	(0.27)	(0.28)	(0.078)
관측치 수		631	631	631	631
R2		0.177	0.209	0.210	0.040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공격성과 부모 양육 비일관성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과 비일관성이 낮음.

주3: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성변수가 다 분석에 포함되었어도 이 변수들은 중3 또는 고1 기준이고 한부모 여부는 모든 조사차수 중 한번이라도 해당할 경우 한부모에 해당하므로, 한부모에 해당하는 관측치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을 수 있음.

<표 2-14>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아버지 학력 대졸이상 그룹)

변수		(1) 학대	(2) 학대	(3) 학대	(4) 학대	(5) 학대	(6) 학대	(7) 학대
국영수 주관적 성적		-0.0081*** (0.0026)	-0.0069*** (0.0024)	-0.0076*** (0.0025)	-0.0067*** (0.0024)	-0.0069*** (0.0024)	-0.0038 (0.0031)	-0.0039 (0.0031)
2~3차 학대 여부 (1=학대)				0.16*** (0.040)	0.095** (0.038)	0.097*** (0.037)	0.093** (0.037)	0.092** (0.037)
공격성 (1~4점)		-0.049 (0.032)	0.022 (0.034)	-0.042 (0.032)	0.021 (0.034)	0.029 (0.033)	0.029 (0.033)	0.028 (0.034)
보호자 삶의 만족도(1=만족x)		0.071 (0.062)	0.032 (0.059)	0.061 (0.061)	0.029 (0.058)	0.013 (0.057)	0.0051 (0.056)	0.011 (0.056)
부모 양육 비일관성(1~4점)			-0.26*** (0.036)		-0.24*** (0.037)	-0.23*** (0.036)	-0.23*** (0.037)	-0.23*** (0.038)
고등학교 유형 (준거= 일반고)	특목고 (예체능)					0.022 (0.18)	0.00074 (0.17)	0.023 (0.17)
	특목고 (외고,과고)					-0.091* (0.054)	-0.071 (0.053)	-0.071 (0.054)
	마이스터					-0.075* (0.042)	-0.076** (0.038)	-0.062 (0.047)
	특성화					0.11 (0.068)	0.083 (0.067)	0.086 (0.067)
2~3차 국영수 성적							-0.0048* (0.0028)	-0.0048* (0.0028)
2~3차 공격성								0.0057 (0.037)
2~3차 보호자 만족도								-0.036 (0.058)
1차 부모 양육 비일관성								-0.013 (0.027)
상수		0.98*** (0.23)	1.40*** (0.23)	0.86*** (0.23)	1.30*** (0.22)	1.27*** (0.23)	1.42*** (0.24)	1.45*** (0.25)
관측치 수		664	664	664	664	664	664	664
R2		0.027	0.146	0.064	0.158	0.166	0.171	0.172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공격성과 부모 양육 비일관성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과 비일관성이 낮음.

<표 2-15>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2

(아버지 학력 대졸이상 그룹)

변수		(1) 학대	(2) 학대	(3) 학대	(4) 학대
국영수 주관적 성적		-0.0036 (0.0031)	-0.0037 (0.0031)	-0.0032 (0.0032)	
2~3차 학대 여부 (1=학대)		0.083** (0.038)	0.092** (0.039)	0.089** (0.039)	
공격성 (1~4점)		0.026 (0.034)	0.037 (0.035)	0.042 (0.035)	
보호자 삶의 만족도(1=만족x)		0.016 (0.056)	0.020 (0.059)	0.0088 (0.060)	
부모 양육 비일관성(1~4점)		-0.23*** (0.038)	-0.23*** (0.038)	-0.23*** (0.039)	
고등학교 유형 (준거= 일반고)	특목고 (예체능)	0.037 (0.17)	0.039 (0.18)	0.049 (0.18)	
	특목고 (외고,과고)	-0.072 (0.053)	-0.13** (0.063)	-0.13** (0.067)	
	마이스터	-0.074 (0.047)	-0.099 (0.071)	-0.096 (0.075)	
	특성화	0.080 (0.066)	0.095 (0.066)	0.088 (0.065)	
2~3차 국영수 성적		-0.0052* (0.0028)	-0.0063** (0.0028)	-0.0065** (0.0029)	
2~3차 공격성		-0.00098 (0.037)	0.0033 (0.037)	0.0092 (0.038)	
2~3차 보호자 만족도		-0.042 (0.059)	-0.030 (0.059)	-0.033 (0.059)	
1차 부모 양육 비일관성		-0.013 (0.027)	-0.017 (0.026)	-0.017 (0.027)	
성별: 여학생		-0.041 (0.031)	-0.044 (0.032)	-0.040 (0.033)	
부 연령 (준거= 46~50세)	~40세		-0.40*** (0.063)	-0.40*** (0.063)	-0.22*** (0.041)
	41~45세		-0.022 (0.046)	-0.015 (0.045)	-0.015 (0.055)
	51~55세		-0.014 (0.038)	-0.0054 (0.038)	-0.0050 (0.041)
	56세~		0.0048 (0.064)	0.0033 (0.065)	-0.018 (0.087)
모 학력 (준거= 고졸 이하)	전문대 졸		-0.00031 (0.055)	-0.00080 (0.054)	0.027 (0.059)
	대졸 이상		0.052 (0.042)	0.059 (0.041)	0.033 (0.046)
부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0.028 (0.040)	-0.021 (0.040)	-0.0065 (0.044)
	서비스· 판매직		-0.076 (0.046)	-0.077* (0.046)	-0.025 (0.052)

	생산직		-0.082*	-0.083*	-0.055
			(0.046)	(0.046)	(0.047)
	군인		-0.11*	-0.11*	-0.18***
			(0.065)	(0.065)	(0.047)
	무직		-0.0048	-0.037	0.011
			(0.12)	(0.10)	(0.22)
연평균 가구소득 (준거= 36백~48백)	12백만 이하		0.082	0.047	0.076
			(0.20)	(0.22)	(0.35)
	12백만~ 24백만		0.023	0.013	0.024
			(0.10)	(0.10)	(0.11)
	24백만~ 36백만		0.017	0.016	0.060
			(0.056)	(0.055)	(0.066)
	48백만~ 60백만		0.028	0.024	0.0040
			(0.047)	(0.047)	(0.049)
	60백만~ 72백만		0.060	0.062	-0.017
			(0.058)	(0.058)	(0.064)
	72백만 초과		-0.030	-0.027	-0.024
			(0.051)	(0.051)	(0.053)
한부모 여부 (준거=양부모)				0.081	0.036
				(0.18)	(0.23)
양부모 여부 (준거=친부모)				0.28	0.33
				(0.29)	(0.26)
다문화가정 여부 (1=다문화)				-0.031	0.053
				(0.14)	(0.14)
형제자매 유무 (1=없음)				0.0085	-0.0038
				(0.057)	(0.065)
보호자 건강상태 (1=건강x)				0.12*	
				(0.065)	
건강문제 유무 (1=건강문제 있음)				0.022	
				(0.032)	
상수		1.49***	1.56***	1.47***	0.17*
		(0.25)	(0.26)	(0.27)	(0.088)
관측치 수		664	664	664	664
R2		0.174	0.193	0.203	0.012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공격성과 부모 양육 비일관성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과 비일관성이 낮음.

주3: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성변수가 다 분석에 포함되었어도 이 변수들은 중3 또는 고1 기준이고 한부모 여부는 모든 조사차수 중 한번이라도 해당할 경우 한부모에 해당하므로, 한부모에 해당하는 관측치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을 수 있음.

요약하면, 학대 위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① 과거 학대 여부와 ② 부모의 양육 비일관성[33]이었다. 이 때, 과거 학대 여부는 분석에

33) Kim(2019)은 부모의 양육에 있어서의 비일관성을 부모의 양육기술 부족으로 본

포함시킨 통제변수로 통제되지 않는 과거의 환경까지 반영하고 있으며, 이 환경은 사회경제적 요소 외에 부모의 비인지적 특성까지 포함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 비일관성이 학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학력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나 과거 부모의 양육 비일관성 변수를 통제하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포괄적인 학대의 경우에는 학대 여부에 가구의 사회경제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인 인식보다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취약계층에서는 여전히 사회경제적 요소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는데, 일례로 아버지의 무직, 특히 소득 하위 30% 그룹 및 아버지 학력이 고졸 이하인 그룹에서의 아버지의 무직은 유의하게 학대 위험을 증가시켰다. 또한 소득 하위 30% 그룹의 경우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을 때보다 동일 항목의 동일한 변화 정도에 대해 학대 위험이 높아지는 정도가 더 컸다.

본 분석결과가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학대 여부가 현재의 학대 위험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학대의 지속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34]. 둘째, 양육 비일관성으로 대표된 부모의 양육기술 역시 학대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양육 기술이나 학대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부모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과거의 환경적 요소와 학대가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좋지 않은 성과가 학대 위험을 더욱 높일 위험도 존재하므로 학대 가구 및 학대 위험 가구에 대한 개입(조기 부모교육, 위험아동 관리, 피해아동 지원, 양육환경 지원 등)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바 있음.

34) 현재의 양육 비일관성이 학대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의 양육 비일관성과 과거 학대 여부를 통제하였을 때에도 유의하였으므로, 부모 교육을 통해 부모의 양육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은 과거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의 학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

4-2.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표 2-16>~<표 2-17>은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토빗모형(비행 여부의 경우 로짓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로, 이 때 통제변수는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대는 자녀의 대부분의 비인지적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중 한 시기에만 학대를 당했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두 시기에 모두 학대를 당했다고 응답한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는 지속적인 학대를 당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Lemmon, 2006; Clemmons et al, 2007; Manly et al., 2001)와 일치한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정서문제 중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우울, 또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항목 중 학습활동 및 교우관계, 이외에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도, 휴대전화 의존도, 비행 항목에 부모의 학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 학대는 그 영향의 크기가 더욱 크다. 다만, '사회적 위축' 항목과 '자아탄력성' 항목, 그리고 학교 적응 중 '교사관계' 항목은 학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회적 위축'은 대신 '양부모 여부'와 '성별'의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부표 2-4> 참고). 다만 사회적 위축은 보다 어린 시절에 학대의 영향을 받는 영역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는 학대가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가 존재한다(이영애, 정현희, 2017; 김춘경, 조민규, 2014). 반면, '자아탄력성' 항목은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해볼 경우 남학생은 학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데 비해, 여학생은 '지속적인 학대' 그룹에 속할 때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후 제3장에서 대학 진학에 있어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이 남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교사 관계' 항목도 학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상 학교적응

항목은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응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코드북 조사항목/척도 출처 참고)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는 덜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중 특히 학교규칙과 교사관계 항목이 더욱 그러한데, 일례로 학교규칙 항목 관련 문항은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등이며, 교사관계 관련 문항은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등이다. 이런 것이 교사관계에 대해 학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며, 학교 규칙의 경우 부모의 지속적 학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학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오는 이유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정체감의 경우 ‘학대’ 그룹에 속할 때만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학대가 자녀에게 정체감의 혼란을 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로는 확인이 어렵다.

<표 2-17>과 <표 2-18>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학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지목된 요인들 및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성별, 국영수 평균점수, 부모 연령, 부모 직업, 부모 최종학력, 양부모 여부(stepparents)[35], 다문화가정 여부, 형제자매 유무, 연평균 가구소득, 보호자 건강상태, 보호자 삶 만족도, 건강문제 유무, 비행피해 경험)을 모두 통제한 후의 결과이다. 이 때 부모의 연령과 학력, 소득수준은 앞서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 기준을 근거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를 모형에 포함하기 전과 비교하여 비록 영향의 크기에는 변화가 있으나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교우관계는 ‘지속적 학대’ 그룹에 속할 경우 그 영향의 유의성이 사라졌는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교적응에 관한 설문항목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에게는

35) 부모 연령/학력/직업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덜 적합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지속적 학대' 그룹에 속할 때 교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개인 및 가구 특성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일 수 있다. 비행 항목에 대해서도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의 유의성이 사라졌는데, 이 또한 동일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2-20>과 <표 2-21>은 1~2차년도의 비인지영역 평균점수까지 통제한 모형이다. 이 모형을 기준으로 할 때, '지속적 학대' 그룹은 피학대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자기조절 학습능력이 2.3%, 주의집중이 6.1% 낮았고, 공격성 6.3%, 신체증상 7.3%, 우울이 6.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학습활동이 각각 6.0%씩 낮아지며, 또래애착도 4.1% 낮아졌다. 아울러 삶의 만족도가 7.1% 낮아지고 휴대전화 의존도는 7.1% 증가하였다. '학대' 그룹에 속할 경우 또한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우울 등 대부분의 정서문제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또래애착에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그 정도는 '지속적 학대' 그룹의 약 절반 정도였다. 참고로 <표 2-20>과 <표 2-21>의 결과에 대해 통제변수의 계수와 표준오차까지 제시한 표를 부록 2-3에 제시하였다(<부표 2-6>~<부표 2-7>). 또한 이 표들은 부모의 연령, 최종학력, 직업이 모두 포함된 모형의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변수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관측값이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 계수값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들 중 아버지 연령, 어머니 학력, 아버지 직업 정보만 포함한 모형으로 분석을 수행해 보기도 하였다. 해당 결과는 <부표 2-4>~<부표 2-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부모의 학대는 자녀의 대부분의 비인지적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영향은 가정환경 변수와 개인특성 변수, 특히 중학교 1~2학년 시기 비인지적 영역 평균점수까지 통제하였을 때에도 대부분 유의하였으며, 영향의 크기는 성별이나 사회경제적 요인 못지않은 수준이었다. 또한 지속적인 학대일 때 부정적인 영향이 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선행연구(Lemmon, 2006; Clemmons et al., 2007; Manly et al., 2001)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2-16>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1

		자기조절 학습능력	정서문제					자아 존중감	자아 탄력성	자아 정체감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피학대	학대	-0.029	-0.11***	-0.12***	-0.12***	-0.037	-0.12***	-0.085**	0.014	-0.051*
		(0.031)	(0.033)	(0.039)	(0.044)	(0.056)	(0.039)	(0.034)	(0.030)	(0.027)
	지속적 학대	-0.15***	-0.22***	-0.18***	-0.19***	-0.056	-0.18***	-0.18***	0.045	-0.044
		(0.036)	(0.042)	(0.052)	(0.061)	(0.075)	(0.057)	(0.042)	(0.040)	(0.039)
상수		2.68***	2.95***	3.18***	3.19***	2.81***	3.23***	3.00***	2.90***	2.71***
		(0.017)	(0.018)	(0.023)	(0.024)	(0.032)	(0.023)	(0.019)	(0.016)	(0.017)
관측치 수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2-17>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2

		학교적응				또래애착	삶의 만족도	휴대전화 의존도	비행 (로짓)	비행 한계효과[36]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피학대	학대	-0.093**	-0.074**	-0.051*	-0.073	-0.099***	-0.060	0.036	0.30*	0.063*
		(0.039)	(0.037)	(0.028)	(0.045)	(0.032)	(0.050)	(0.059)	(0.16)	(0.034)
	지속적 학대	-0.28***	-0.044	-0.086**	0.0055	-0.16***	-0.20***	0.12**	0.58***	0.13***
		(0.049)	(0.042)	(0.040)	(0.064)	(0.043)	(0.063)	(0.063)	(0.19)	(0.044)
상수		2.82***	3.08***	3.19***	3.03***	3.19***	2.99***	2.24***	-1.00***	
		(0.021)	(0.020)	(0.016)	(0.028)	(0.018)	(0.029)	(0.028)	(0.096)	
관측치 수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36) 비선형모형의 한계효과는 설명변수 값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균값에서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 at the mean)를 구할 수도 있고, 한계효과의 평균값(average marginal effect)을 구할 수도 있음(김보민, 조대연, 2018). 이 논문에서 한계효과는 평균한계효과, 즉 한계효과의 평균값을 사용함.

<표 2-18>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1 (2단계)

		자기조절 학습능력	정서문제					자아 존중감	자아 탄력성	자아 정체감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피학대	학대	-0.0021	-0.10***	-0.15***	-0.17***	-0.050	-0.16***	-0.097***	-0.0098	-0.056**
		(0.029)	(0.033)	(0.038)	(0.043)	(0.056)	(0.037)	(0.034)	(0.030)	(0.027)
	지속적 학대	-0.067**	-0.18***	-0.20***	-0.23***	-0.067	-0.21***	-0.18***	0.0055	-0.043
		(0.034)	(0.041)	(0.052)	(0.062)	(0.076)	(0.056)	(0.043)	(0.040)	(0.038)
국영수 평균(중2~3)		0.014***	0.0072***	-0.00041	-0.00048	0.0053**	0.0027	0.0060***	-0.00083	0.0063***
		(0.0014)	(0.0015)	(0.0019)	(0.0020)	(0.0025)	(0.0017)	(0.0014)	(0.0013)	(0.0012)
성별: 여학생		0.011	-0.012	-0.15***	-0.24***	-0.13***	-0.25***	-0.13***	-0.15***	-0.087***
		(0.025)	(0.028)	(0.035)	(0.038)	(0.050)	(0.034)	(0.031)	(0.026)	(0.024)
상수		1.51***	2.44***	3.36***	3.42***	2.55***	3.31***	2.63***	3.08***	2.27***
		(0.14)	(0.16)	(0.19)	(0.19)	(0.25)	(0.17)	(0.14)	(0.14)	(0.13)
기타 통제변수		부 연령 40세 이하 여부, 모 연령 40세 이하 여부, 부 학력 고졸 이하 여부, 모 학력 고졸 이상 여부, 부 직업, 모 직업, 연가구소득 36백만원 이하 여부, 양부모 여부(준거=친부모), 다문화가정 여부, 형제자매 유무, 보호자 건강 여부, 보호자 삶 만족 여부, 건강문제 유무, 비행피해경험 유무								
관측치 수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2-19>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2 (2단계)

		학교적응				또래애착	삶의 만족도	휴대전화 의존도	비행 (로짓)	비행 한계효과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피학대	학대	-0.051	-0.041	-0.046*	-0.088**	-0.090***	-0.082*	0.081	0.12	0.024
		(0.037)	(0.036)	(0.027)	(0.045)	(0.031)	(0.049)	(0.055)	(0.17)	(0.033)
	지속적 학대	-0.18***	0.0082	-0.061	-0.041	-0.13***	-0.21***	0.16**	0.15	0.028
		(0.046)	(0.042)	(0.039)	(0.064)	(0.044)	(0.062)	(0.064)	(0.21)	(0.040)
국영수 평균(중2~3)		0.017***	0.0066***	0.0053***	0.0035*	0.0051***	0.0024	-0.0071***	-0.023***	-0.0044***
		(0.0017)	(0.0016)	(0.0013)	(0.0021)	(0.0015)	(0.0022)	(0.0024)	(0.0077)	(0.0014)
성별: 여학생		0.079**	0.088***	-0.055**	-0.13***	-0.048*	-0.21***	0.28***	-1.19***	-0.23***
		(0.032)	(0.032)	(0.024)	(0.042)	(0.028)	(0.044)	(0.046)	(0.15)	(0.027)
상수		1.32***	2.46***	2.87***	2.75***	2.82***	2.91***	2.48***	2.04***	
		(0.18)	(0.17)	(0.13)	(0.22)	(0.16)	(0.23)	(0.25)	(0.78)	
기타 통제변수		부 연령 40세 이하 여부, 모 연령 40세 이하 여부, 부 학력 고졸 이하 여부, 모 학력 고졸 이상 여부, 부 직업, 모 직업, 연가구소득 36백만원 이하 여부, 양부모 여부(준거=친부모), 다문화가정 여부, 형제자매 유무, 보호자 건강 여부, 보호자 삶 만족 여부, 건강문제 유무, 비행피해경험 유무								
관측치 수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4	1,344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2-20>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1 (3단계)

		자기조절 학습능력	정서문제					자아 존중감	자아 탄력성	자아 정체감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피학대	학대	0.010	-0.092***	-0.13***	-0.15***	-0.027	-0.14***	-0.082**	0.0043	-0.042
		(0.028)	(0.032)	(0.037)	(0.042)	(0.054)	(0.036)	(0.034)	(0.029)	(0.026)
	지속적 학대	-0.063*	-0.18***	-0.20***	-0.23***	-0.060	-0.21***	-0.18***	0.0096	-0.040
		(0.033)	(0.042)	(0.050)	(0.059)	(0.073)	(0.053)	(0.040)	(0.039)	(0.037)
국영수 평균(중2~3)		0.011***	0.0041***	-0.0034*	-0.0042**	0.000050	-0.0011	0.0028*	-0.0040***	0.0031**
		(0.0014)	(0.0015)	(0.0019)	(0.0019)	(0.0025)	(0.0017)	(0.0014)	(0.0014)	(0.0013)
성별: 여학생		0.034	0.013	-0.12***	-0.21***	-0.088*	-0.22***	-0.10***	-0.13***	-0.061***
		(0.025)	(0.028)	(0.034)	(0.037)	(0.049)	(0.033)	(0.030)	(0.025)	(0.024)
비인지영역 (1~2차평균)		0.38***	0.42***	0.41***	0.51***	0.72***	0.52***	0.44***	0.44***	0.43***
		(0.045)	(0.056)	(0.067)	(0.069)	(0.094)	(0.061)	(0.056)	(0.055)	(0.051)
상수		0.62***	1.47***	2.39***	2.22***	0.87**	2.11***	1.60***	2.06***	1.28***
		(0.18)	(0.20)	(0.24)	(0.26)	(0.35)	(0.23)	(0.20)	(0.19)	(0.17)
기타 통제변수		부 연령 40세 이하 여부, 모 연령 40세 이하 여부, 부 학력 고졸 이하 여부, 모 학력 고졸 이상 여부, 부 직업, 모 직업, 연가구소득 36백만원 이하 여부, 양부모 여부(준거=친부모), 다문화가정 여부, 형제자매 유무, 보호자 건강 여부, 보호자 삶 만족 여부, 건강문제 유무, 비행피해경험 유무								
관측치 수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2-21>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2 (3단계)

		학교적응				또래애착	삶의 만족도	휴대전화 의존도	비행 (로짓)	비행 한계효과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피학대	학대	-0.036	-0.030	-0.034	-0.070	-0.074**	-0.065	0.077	0.12	0.023
		(0.036)	(0.035)	(0.027)	(0.044)	(0.031)	(0.049)	(0.055)	(0.17)	(0.033)
	지속적 학대	-0.17***	0.011	-0.057	-0.036	-0.13***	-0.21***	0.16**	0.15	0.028
		(0.044)	(0.040)	(0.037)	(0.059)	(0.040)	(0.060)	(0.065)	(0.20)	(0.040)
국영수 평균(중2~3)		0.013***	0.0041**	0.0026**	-0.00094	0.0015	-0.0015	-0.0063**	-0.022***	-0.0041***
		(0.0016)	(0.0017)	(0.0013)	(0.0021)	(0.0015)	(0.0022)	(0.0025)	(0.0080)	(0.0015)
성별: 여학생		0.11***	0.11***	-0.033	-0.098**	-0.018	-0.17***	0.27***	-1.20***	-0.23***
		(0.031)	(0.031)	(0.024)	(0.040)	(0.027)	(0.044)	(0.047)	(0.15)	(0.027)
비인지영역 (1~2차평균)		0.49***	0.34***	0.37***	0.61***	0.50***	0.52***	-0.10	-0.17	-0.033
		(0.059)	(0.060)	(0.049)	(0.083)	(0.058)	(0.081)	(0.090)	(0.28)	(0.053)
상수		0.18	1.68***	2.01***	1.34***	1.67***	1.70***	2.72***	2.45**	
		(0.22)	(0.21)	(0.18)	(0.29)	(0.24)	(0.30)	(0.33)	(1.01)	
기타 통제변수		부 연령 40세 이하 여부, 모 연령 40세 이하 여부, 부 학력 고졸 이하 여부, 모 학력 고졸 이상 여부, 부 직업, 모 직업, 연가구소득 36백만원 이하 여부, 양부모 여부(준거=친부모), 다문화가정 여부, 형제자매 유무, 보호자 건강 여부, 보호자 삶 만족 여부, 건강문제 유무, 비행피해경험 유무								
관측치 수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4	1,344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제 5 절 결론

본 장에서는 제3장 및 제4장에서 본격적인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부모의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과거 학대 여부와 부모의 양육기술 부족이라 볼 수 있는 양육 비일관성이었다. 이 때, 과거 학대 여부는 분석에 포함시킨 통제변수로 통제되지 않는 과거의 환경까지 반영하고 있으며, 이 환경은 사회경제적 요소 외에 부모의 비인지적 특성까지 포함한다. 참고로, 취약계층에서는 아버지의 무직 역시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한편, 부모의 학대는 자녀의 대부분의 비인지적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영향은 가정환경 변수와 개인특성 변수, 특히 중학교 1~2학년 시기 비인지적 영역 평균점수까지 통제하였을 때에도 대부분 유의하였으며, 영향의 크기는 성별이나 사회경제적 요인 못지않은 수준이었다. 또한 지속적인 학대일 때 부정적인 영향이 보다 크게 나타났다.

본 장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분석'에서 내생성은 이미 조사 시작 전에 발생하였을 수 있다. 즉, 중학교 이전 시기에 이미 부정적인 환경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또 자녀의 성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시기의 변수는 그 변수 자체가 아니라 이전의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변수로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모 학대 위험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 '과거 학대'에 대해서는 그 유발요인을 본 장에서 분석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분석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통제변수를 추가하게 된다. 둘째, 아동청소년패널 2010의 설문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부모님의 학대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기 때문에, 학대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학대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본 장의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분석에서는 부모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으로 최근의 상황을 가장 많이 반

영할 것이라 보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만 2차 및 3차년도의 학대에 대한 응답은 이전 시기의 학대 여부로, 5차 및 6차년도의 학대에 대한 응답은 현재의 학대 여부로 둠으로써 두 기간 사이에 1년의 간격을 두었다. 셋째, 본 장에서 제시한 결과들은 기존의 선행연구 내용 이외의 새로운 결과들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애초에 본 장을 제3장 및 제4장의 분석을 위한 기초분석으로 구성하여, 본격적인 분석에서 이용할 데이터인 청소년기의 포괄적 학대 데이터에서 기존 선행연구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내생성 문제에 좀 더 유의하여 분석을 진행해본 부분도 있다. 넷째, 피학대 경험은 표본이탈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제3장의 표본이탈분석 참고) 사용한 데이터에는 표본 이탈 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며, 다섯째, 본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논의되는 '아동학대범죄' 수준의 학대가 아닌 포괄적 학대를 다루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장은 부모의 자녀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및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검토하고 제3장 및 제4장에서 이용할 데이터 및 이용할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내용들이 본 논문의 분석에서 사용하는 청소년기 포괄적 학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이후의 분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본 장의 의의가 있다. 아울러 기존에 연구되었던 내용들이라 하더라도 본 장에서는 내생성 문제에 좀 더 유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험요인 분석'에서는 시차변수(lagged variable)를,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중2~3 성적과 중1~2 비인지적 영역 점수를 통제변수에 포함시켰고, 그럼에도 남아있는 내생성 문제들은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교육 및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의 개입의 필요성 등 부모의 자녀 학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부록 2-1. 비인지적 영역 관련 설문 문항

<부표 2-1>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0의 비인지적 영역 관련 설문 문항

구 분		설문 문항
학습습관	성취가치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교생활이 내가 성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생활이 나의 미래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학교 공부는 내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
		학교생활은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숙달목적 지향성	나는 실수를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을 좋아한다
		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
	행동통제	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 한다
		나는 하던 공부를 끝낼 때까지 공부에 집중한다
		나는 공부가 지루해도 계획한 것은 마친다
		나는 노는 것을 그만두지 못해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렵다
		나는 공부를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
	학업시간 관리	나는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공부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한다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시간 계획을 세운다
		나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공부 시간을 확실히 정해둔다
		나는 시험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부한다
정서문제	주의집중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 진다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연필이나 지우개 등, 학용품을 잘 잃어버린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글자를 잘 빠뜨리고 쓰는 편이다
	공격성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신체 증상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속이 자주 메슥거린다
		공부를 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
		입맛이 없을 때가 있다
		자주 피곤하다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있다
		자주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회적 위축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부끄럼을 많이 탄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수줍어한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우울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울기를 잘한다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외롭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일이 힘들다
자아인식	자아 존중감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자아 탄력성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나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을 즐긴다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같은 장소에 갈 때도 늘 가던 길 보다는 다른 길로 가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나는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자아 정체감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다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 받기 쉽다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
	진로 정체감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부모님이 내가 원치 않는 전공학과를 강요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대체로 방향을 정했다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가 있다
		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나는 어떤 직업 분야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
		어릴 때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미래 계획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학교적응	학습활동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학교규칙	학급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교우관계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친구가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준다
	교사관계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졸업한 다음에도 담임선생님을 찾아뵙고 싶다
또래애착	의사소통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신뢰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소외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삶의 만족도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부록 2-2.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추가 분석

본 장에서는 아버지의 실직이나 부모의 이혼과 같은 특정 사건이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일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다만, 해당 사건이 발생한 관측치수가 너무 적어(<부표 2-2> 참고), 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석 결과(<부표 2-3>)에 따르면, 아버지의 실직은 자녀 학대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부모 구성 변화 및 부모님 이혼은 자녀 학대 위험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적은 관측치 수에 따른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일 수도 있지만, 기존에 부모님 간에 갈등이 있다가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게 되면서 자녀에 대한 학대가 감소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부부 간의 갈등 역시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이다(백경숙, 2011; 한지숙, 2003 등).

<부표 2-2> 각 사건별 관측치 수

	부 실직		부모구성 변화		부모님 이혼		계
	x	o	x	o	x	o	
학대 x	1,180	9	1,178	11	1,179	10	1,189
학대 o	260	5	261	4	261	4	265
계	1,440	14	1,439	15	1,440	14	1,454

<부표 2-3>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사건의 영향 확인)

변수	(1) 강도1 학대	(2) 강도1 학대	(3) 강도1 학대
부 실직	0.19 (0.18)		
부 실직* 학대경험 有(2~3차)	0.14 (0.29)		
부모구성 변화		-0.11*** (0.011)	
부모구성 변화* 학대경험 有(2~3차)		0.25 (0.17)	
부모님 이혼			-0.11*** (0.011)
부모님 이혼* 학대경험 有(2~3차)			0.25 (0.17)
학대경험 有(2~3차)	0.21*** (0.026)	0.21*** (0.027)	0.21*** (0.027)
상수	0.11*** (0.011)	0.11*** (0.011)	0.11*** (0.011)
관측치 수	1,454	1,454	1,454
R2	0.071	0.068	0.068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부모구성 변화' 케이스와 '부모님 이혼' 케이스는 1개의 관측치에만 차이가 있어 결과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본 표에서는 결과가 동일한 것처럼 표시됨.

부록 2-3.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추가분석

<부표 2-4>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1 (4단계, short)

		자기조절 학습능력	정서문제					자아 존중감	자아 탄력성	자아 정체감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피학대	학대	0.012	-0.083**	-0.13***	-0.15***	-0.020	-0.14***	-0.081**	0.0049	-0.040
		(0.028)	(0.032)	(0.037)	(0.042)	(0.055)	(0.037)	(0.034)	(0.029)	(0.026)
	지속적 학대	-0.066*	-0.18***	-0.20***	-0.22***	-0.047	-0.20***	-0.17***	0.015	-0.036
		(0.034)	(0.043)	(0.051)	(0.058)	(0.073)	(0.052)	(0.040)	(0.038)	(0.036)
부 연령 40세 이하		0.11	0.096	0.13	0.032	0.18	0.25*	0.25*	0.067	0.19**
		(0.074)	(0.089)	(0.13)	(0.13)	(0.15)	(0.14)	(0.14)	(0.095)	(0.078)
모 학력 대졸 이상		0.00025	-0.040	-0.0016	-0.051	0.016	0.016	-0.0041	0.027	0.0089
		(0.027)	(0.033)	(0.037)	(0.045)	(0.054)	(0.037)	(0.032)	(0.029)	(0.027)
부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0.0050	0.0077	0.019	0.0070	-0.0061	0.035	0.013	-0.0086	-0.072**
		(0.036)	(0.044)	(0.050)	(0.056)	(0.075)	(0.054)	(0.046)	(0.037)	(0.036)
	서비스·판매	-0.0044	-0.0024	0.011	0.061	0.097	-0.021	0.034	0.040	-0.0040
		(0.035)	(0.044)	(0.049)	(0.059)	(0.071)	(0.050)	(0.046)	(0.042)	(0.038)
	생산직	0.017	0.053	0.055	0.043	0.022	0.036	0.0084	-0.0030	-0.018
		(0.035)	(0.041)	(0.048)	(0.054)	(0.063)	(0.046)	(0.043)	(0.036)	(0.035)
	군인	-0.36	-0.013	0.55	-0.24	-0.020	0.086	0.028	0.14	0.052
		(0.36)	(0.16)	(0.34)	(0.24)	(0.26)	(0.20)	(0.16)	(0.18)	(0.086)
	무직	-0.019	0.12	0.085	-0.091	-0.21	-0.034	-0.075	-0.014	-0.050
		(0.081)	(0.080)	(0.16)	(0.23)	(0.24)	(0.17)	(0.10)	(0.085)	(0.085)
연가구소득 36백만 이하		0.036	0.0050	0.026	0.019	-0.061	-0.0012	0.0034	-0.029	0.0087
		(0.028)	(0.033)	(0.040)	(0.044)	(0.057)	(0.040)	(0.031)	(0.030)	(0.028)
양부모(준거=친부모)		0.50***	3.31***	3.69***	0.021	-0.24***	0.52***	-0.57***	0.28***	0.58***
		(0.041)	(0.11)	(0.13)	(0.063)	(0.081)	(0.055)	(0.047)	(0.040)	(0.040)
다문화가정 (1=다문화)		0.37***	0.11	-0.0033	-0.079	0.046	0.074	0.25*	0.18	0.16
		(0.12)	(0.11)	(0.11)	(0.18)	(0.23)	(0.11)	(0.13)	(0.13)	(0.16)
형제자매 (1=없음)		0.0096	-0.017	0.035	0.080	-0.010	-0.0043	0.00022	-0.014	0.0053
		(0.055)	(0.058)	(0.072)	(0.069)	(0.087)	(0.070)	(0.057)	(0.053)	(0.043)
보호자건강 (1=건강x)		-0.026	0.011	-0.070	-0.015	0.041	-0.050	0.027	-0.027	0.035
		(0.030)	(0.038)	(0.046)	(0.049)	(0.060)	(0.042)	(0.036)	(0.033)	(0.032)
보호자 삶 만족: x		-0.020	0.021	-0.030	-0.086**	0.022	-0.045	-0.057*	0.0039	-0.013
		(0.029)	(0.032)	(0.041)	(0.042)	(0.054)	(0.039)	(0.030)	(0.028)	(0.027)
국영수 평균(중2~3)		0.012***	0.0045***	-0.0032*	-0.0042**	-0.000010	-0.0010	0.0026*	-0.0041***	0.0031**
		(0.0013)	(0.0015)	(0.0019)	(0.0019)	(0.0026)	(0.0017)	(0.0014)	(0.0014)	(0.0013)
성별: 여학생		0.033	0.010	-0.12***	-0.21***	-0.085*	-0.22***	-0.10***	-0.12***	-0.061***
		(0.025)	(0.028)	(0.034)	(0.037)	(0.049)	(0.033)	(0.030)	(0.025)	(0.023)
건강문제 (1=있음)		-0.0027	-0.019	-0.016	-0.082**	-0.067	-0.072**	-0.052*	-0.015	-0.018
		(0.026)	(0.028)	(0.036)	(0.038)	(0.048)	(0.035)	(0.030)	(0.026)	(0.025)
비행피해 (1=있음)		-0.022	-0.031	-0.10**	-0.089**	0.024	-0.11***	-0.0078	0.0086	0.091***
		(0.032)	(0.035)	(0.041)	(0.044)	(0.060)	(0.038)	(0.035)	(0.031)	(0.031)

비인지영역(1~2차평균)	0.39***	0.42***	0.41***	0.52***	0.72***	0.52***	0.44***	0.44***	0.43***
	(0.045)	(0.058)	(0.067)	(0.070)	(0.096)	(0.060)	(0.056)	(0.055)	(0.051)
상수	0.62***	1.43***	2.33***	2.18***	0.84**	2.04***	1.62***	2.08***	1.29***
	(0.17)	(0.20)	(0.23)	(0.25)	(0.35)	(0.22)	(0.20)	(0.18)	(0.17)
관측치 수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표 2-5>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2 (4단계, short)

		학교적응				또래애착	삶의 만족도	휴대전화 의존도	비행 (로짓)	비행 한계효과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피학대	학대	-0.037	-0.030	-0.034	-0.073*	-0.075**	-0.066	0.069	0.097	0.018
		(0.036)	(0.036)	(0.027)	(0.044)	(0.031)	(0.049)	(0.055)	(0.17)	(0.033)
	지속적 학대	-0.17***	0.013	-0.062*	-0.023	-0.13***	-0.21***	0.16**	0.17	0.032
		(0.045)	(0.040)	(0.037)	(0.059)	(0.039)	(0.059)	(0.065)	(0.20)	(0.040)
부 연령 40세 이하		0.18	-0.094	0.048	0.0034	-0.050	-0.041	-0.11	-0.38	-0.068
		(0.13)	(0.19)	(0.12)	(0.24)	(0.12)	(0.19)	(0.17)	(0.51)	(0.085)
모 학력 대졸 이상		0.032	0.0036	0.028	0.0075	0.013	0.073	-0.10**	-0.37**	-0.069**
		(0.035)	(0.032)	(0.027)	(0.046)	(0.030)	(0.050)	(0.052)	(0.18)	(0.033)
부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0.027	-0.059	0.034	-0.016	0.038	-0.0071	0.11	-0.15	-0.029
		(0.047)	(0.044)	(0.036)	(0.066)	(0.041)	(0.071)	(0.078)	(0.24)	(0.047)
	서비스·판매	0.030	0.017	0.065*	0.099	0.029	0.054	0.059	0.22	0.045
		(0.048)	(0.044)	(0.036)	(0.064)	(0.041)	(0.065)	(0.073)	(0.23)	(0.046)
	생산직	0.067	-0.066	0.0050	0.038	0.041	-0.011	0.036	-0.43**	-0.080*
		(0.045)	(0.040)	(0.035)	(0.058)	(0.041)	(0.062)	(0.064)	(0.22)	(0.041)
	군인	-0.51	-0.14	0.040	0.50***	0.22	0.23	0.066	1.50**	0.32**
		(0.42)	(0.11)	(0.10)	(0.15)	(0.14)	(0.22)	(0.21)	(0.74)	(0.15)
	무직	0.068	-0.050	-0.018	-0.094	-0.075	-0.15	-0.087	-0.56	-0.10
		(0.13)	(0.16)	(0.091)	(0.16)	(0.089)	(0.17)	(0.12)	(0.61)	(0.10)
연가구소득 36백만 이하		0.076**	-0.033	0.0067	0.048	0.013	-0.014	0.024	-0.18	-0.034
		(0.036)	(0.035)	(0.029)	(0.045)	(0.032)	(0.051)	(0.049)	(0.18)	(0.033)
양부모(준거=친부모)		0.16***	0.0082	0.50***	0.27***	2.99***	-0.30***	-0.47***		-
		(0.049)	(0.048)	(0.040)	(0.064)	(0.10)	(0.069)	(0.072)		
다문화가정 (1=다문화)		0.39**	0.079	0.12	0.41	0.15	0.39***	-0.036	-0.80	-0.15
		(0.18)	(0.11)	(0.15)	(0.28)	(0.13)	(0.14)	(0.18)	(0.79)	(0.15)
형제자매 (1=없음)		-0.031	0.0046	-0.071	-0.015	-0.051	0.094	0.12	-0.25	-0.048
		(0.069)	(0.063)	(0.055)	(0.072)	(0.059)	(0.084)	(0.090)	(0.30)	(0.058)
보호자건강 (1=건강x)		0.021	0.028	0.046	0.081	0.058	0.041	-0.12*	-0.060	-0.011
		(0.045)	(0.043)	(0.036)	(0.054)	(0.038)	(0.056)	(0.062)	(0.19)	(0.035)
보호자 삶 만족: x		-0.018	0.0062	-0.034	0.052	-0.075**	-0.091*	0.0089	0.20	0.039
		(0.038)	(0.035)	(0.028)	(0.045)	(0.031)	(0.047)	(0.052)	(0.17)	(0.034)
국영수 평균(중2~3)		0.014***	0.0041**	0.0027**	-0.0013	0.0015	-0.0015	-0.0065***	-0.023***	-0.0043***
		(0.0016)	(0.0017)	(0.0013)	(0.0021)	(0.0015)	(0.0022)	(0.0025)	(0.0080)	(0.0015)
성별: 여학생		0.11***	0.11***	-0.033	-0.095**	-0.016	-0.17***	0.28***	-1.18***	-0.23***
		(0.031)	(0.030)	(0.024)	(0.040)	(0.027)	(0.044)	(0.047)	(0.15)	(0.027)
건강문제 (1=있음)		0.066**	0.047	0.019	0.034	0.024	-0.063	0.036	-0.14	-0.026
		(0.032)	(0.031)	(0.024)	(0.041)	(0.027)	(0.044)	(0.047)	(0.15)	(0.029)

비행피해 (1=있음)	-0.011 (0.040)	0.024 (0.037)	-0.072** (0.031)	0.057 (0.051)	-0.0059 (0.034)	-0.047 (0.054)	-0.014 (0.055)	0.31* (0.18)	0.060* (0.035)
비인지영역 (1~2차평균)	0.50*** (0.059)	0.34*** (0.060)	0.37*** (0.049)	0.61*** (0.084)	0.50*** (0.058)	0.53*** (0.081)	-0.11 (0.091)	-0.17 (0.28)	-0.033 (0.053)
상수	0.19 (0.22)	1.72*** (0.20)	2.00*** (0.18)	1.38*** (0.29)	1.67*** (0.23)	1.66*** (0.29)	2.77*** (0.33)	2.44** (0.98)	
관측치 수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4	1,344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표 2-6>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1 (4단계, long)

		자기조절 학습능력	정서문제					자아 존중감	자아 탄력성	자아 정체감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피학대	학대	0.010 (0.028)	-0.092*** (0.032)	-0.13*** (0.037)	-0.15*** (0.042)	-0.027 (0.054)	-0.14*** (0.036)	-0.082** (0.034)	0.0043 (0.029)	-0.042 (0.026)
	지속적 학대	-0.063* (0.033)	-0.18*** (0.042)	-0.20*** (0.050)	-0.23*** (0.059)	-0.060 (0.073)	-0.21*** (0.053)	-0.18*** (0.040)	0.0096 (0.039)	-0.040 (0.037)
부 연령 40세 이하		0.096 (0.081)	0.072 (0.094)	0.083 (0.13)	-0.049 (0.13)	0.080 (0.16)	0.17 (0.14)	0.23* (0.14)	-0.0013 (0.097)	0.16** (0.082)
모 연령 40세 이하		0.012 (0.037)	0.047 (0.042)	0.077 (0.054)	0.097* (0.057)	0.14* (0.081)	0.081 (0.059)	0.029 (0.042)	0.081** (0.036)	0.030 (0.037)
부 학력 고졸 이하		0.052 (0.034)	-0.016 (0.036)	-0.055 (0.041)	0.019 (0.047)	-0.021 (0.061)	0.032 (0.042)	0.0044 (0.033)	0.036 (0.031)	0.013 (0.030)
모 학력 대졸 이상		0.022 (0.034)	-0.051 (0.037)	-0.033 (0.042)	-0.054 (0.050)	0.0044 (0.065)	0.011 (0.043)	0.0028 (0.038)	0.043 (0.033)	0.016 (0.032)
부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0.0092 (0.036)	0.0073 (0.044)	0.021 (0.051)	0.0058 (0.057)	-0.0035 (0.075)	0.034 (0.055)	0.016 (0.047)	-0.0097 (0.037)	-0.071** (0.036)
	서비스·판매	0.00024 (0.037)	0.0014 (0.044)	0.022 (0.052)	0.069 (0.060)	0.10 (0.073)	-0.014 (0.051)	0.029 (0.047)	0.041 (0.043)	-0.0074 (0.038)
	생산직	0.0089 (0.036)	0.076* (0.040)	0.086* (0.048)	0.053 (0.055)	0.043 (0.065)	0.047 (0.047)	0.0054 (0.044)	-0.0096 (0.036)	-0.019 (0.035)
	군인	-0.38 (0.35)	-0.045 (0.16)	0.53* (0.31)	-0.29 (0.25)	-0.079 (0.29)	0.035 (0.20)	0.017 (0.16)	0.11 (0.17)	0.035 (0.085)
	무직	-0.017 (0.083)	0.12 (0.076)	0.079 (0.16)	-0.11 (0.23)	-0.24 (0.23)	-0.062 (0.17)	-0.086 (0.10)	-0.032 (0.085)	-0.058 (0.085)
모 직업	사무직	-0.037 (0.046)	-0.051 (0.052)	-0.095 (0.064)	-0.075 (0.069)	-0.12 (0.089)	-0.089 (0.064)	-0.036 (0.051)	-0.028 (0.045)	-0.033 (0.044)
	서비스·판매	-0.024 (0.042)	-0.0089 (0.045)	-0.045 (0.056)	-0.077 (0.061)	-0.029 (0.078)	-0.11* (0.056)	0.020 (0.049)	-0.022 (0.041)	0.0081 (0.038)
	생산직	-0.025 (0.045)	-0.14*** (0.053)	-0.13* (0.069)	-0.13* (0.069)	-0.12 (0.097)	-0.17** (0.066)	0.022 (0.055)	-0.018 (0.056)	-0.021 (0.050)
	무직	0.027 (0.038)	0.028 (0.041)	-0.022 (0.050)	-0.045 (0.057)	-0.027 (0.071)	-0.091* (0.051)	0.00024 (0.048)	-0.0013 (0.036)	0.0029 (0.034)
연가구소득 36백만 이하		0.026 (0.029)	0.0080 (0.033)	0.034 (0.040)	0.018 (0.045)	-0.062 (0.058)	0.00077 (0.040)	-0.0015 (0.032)	-0.037 (0.031)	0.0047 (0.028)
양부모(준거=친부모)		0.51*** (0.051)	3.28*** (0.11)	3.68*** (0.13)	0.036 (0.073)	-0.25*** (0.086)	0.52*** (0.066)	-0.59*** (0.057)	0.29*** (0.049)	0.56*** (0.049)

다문화가정 (1=다문화)	0.37*** (0.12)	0.14 (0.11)	0.022 (0.11)	-0.070 (0.18)	0.064 (0.23)	0.085 (0.11)	0.24* (0.14)	0.17 (0.13)	0.17 (0.16)
형제자매 (1=없음)	0.018 (0.055)	-0.017 (0.059)	0.034 (0.072)	0.089 (0.070)	-0.0021 (0.088)	0.0043 (0.071)	0.0038 (0.057)	-0.0041 (0.053)	0.0089 (0.043)
보호자건강 (1=건강x)	-0.033 (0.030)	0.0060 (0.038)	-0.068 (0.046)	-0.014 (0.049)	0.045 (0.059)	-0.046 (0.041)	0.029 (0.036)	-0.028 (0.033)	0.035 (0.032)
보호자 삶 만족: x	-0.018 (0.029)	0.029 (0.031)	-0.023 (0.041)	-0.082* (0.042)	0.027 (0.054)	-0.042 (0.039)	-0.057* (0.030)	0.0047 (0.028)	-0.013 (0.027)
국영수 평균(중2~3)	0.011*** (0.0014)	0.0041*** (0.0015)	-0.0034* (0.0019)	-0.0042** (0.0019)	0.000050 (0.0025)	-0.0011 (0.0017)	0.0028* (0.0014)	-0.0040*** (0.0014)	0.0031** (0.0013)
성별: 여학생	0.034 (0.025)	0.013 (0.028)	-0.12*** (0.034)	-0.21*** (0.037)	-0.088* (0.049)	-0.22*** (0.033)	-0.10*** (0.030)	-0.13*** (0.025)	-0.061*** (0.024)
건강문제 (1=있음)	-0.00072 (0.026)	-0.017 (0.028)	-0.014 (0.036)	-0.079** (0.038)	-0.060 (0.048)	-0.069** (0.035)	-0.049 (0.031)	-0.011 (0.026)	-0.015 (0.025)
비행피해 (1=있음)	-0.022 (0.032)	-0.032 (0.035)	-0.11*** (0.041)	-0.091** (0.044)	0.019 (0.060)	-0.12*** (0.038)	-0.0096 (0.035)	0.0080 (0.031)	0.090*** (0.031)
비인지영역 (1~2차평균)	0.38*** (0.045)	0.42*** (0.056)	0.41*** (0.067)	0.51*** (0.069)	0.72*** (0.094)	0.52*** (0.061)	0.44*** (0.056)	0.44*** (0.055)	0.43*** (0.051)
상수	0.62*** (0.18)	1.47*** (0.20)	2.39*** (0.24)	2.22*** (0.26)	0.87** (0.35)	2.11*** (0.23)	1.60*** (0.20)	2.06*** (0.19)	1.28*** (0.17)
관측치 수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표 2-7>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2 (4단계, long)

		학교적응				또래애착	삶의 만족도	휴대전화 의존도	비행 (로짓)	비행 한계효과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피학대	학대	-0.036 (0.036)	-0.030 (0.035)	-0.034 (0.027)	-0.070 (0.044)	-0.074** (0.031)	-0.065 (0.049)	0.077 (0.055)	0.12 (0.17)	0.023 (0.033)
	지속적 학대	-0.17*** (0.044)	0.011 (0.040)	-0.057 (0.037)	-0.036 (0.059)	-0.13*** (0.040)	-0.21*** (0.060)	0.16** (0.065)	0.15 (0.20)	0.028 (0.040)
부 연령 40세 이하		0.21 (0.13)	-0.100 (0.19)	0.052 (0.13)	-0.020 (0.24)	-0.085 (0.12)	-0.077 (0.20)	-0.085 (0.18)	-0.42 (0.55)	-0.074 (0.090)
모 연령 40세 이하		-0.050 (0.049)	-0.0031 (0.056)	-0.0043 (0.038)	0.0035 (0.054)	0.050 (0.044)	0.037 (0.064)	-0.038 (0.069)	-0.036 (0.23)	-0.0068 (0.042)
부 학력 고졸 이하		0.085** (0.042)	0.075** (0.038)	-0.0037 (0.030)	0.088* (0.050)	-0.0051 (0.034)	0.011 (0.051)	0.000075 (0.056)	0.054 (0.18)	0.010 (0.034)
모 학력 대졸 이상		0.068 (0.042)	0.040 (0.038)	0.022 (0.032)	0.048 (0.053)	0.011 (0.035)	0.069 (0.059)	-0.10 (0.063)	-0.35* (0.20)	-0.066* (0.037)
부 직업 (관리자, 전	사무직	0.034 (0.048)	-0.059 (0.045)	0.030 (0.037)	-0.010 (0.066)	0.037 (0.041)	-0.0023 (0.072)	0.089 (0.078)	-0.16 (0.24)	-0.031 (0.047)
	서비스·판매	0.027 (0.049)	0.0063 (0.045)	0.070* (0.037)	0.079 (0.064)	0.046 (0.041)	0.065 (0.067)	0.047 (0.072)	0.19 (0.23)	0.039 (0.047)
	생산직	0.048 (0.046)	-0.084** (0.041)	0.0077 (0.035)	0.015 (0.061)	0.039 (0.040)	-0.0074 (0.061)	0.021 (0.064)	-0.47** (0.23)	-0.086** (0.042)
	군인	-0.53 (0.39)	-0.16* (0.092)	0.044 (0.10)	0.48*** (0.16)	0.22 (0.13)	0.21 (0.23)	0.11 (0.20)	1.56** (0.76)	0.33** (0.15)

문개)	무직	0.072	-0.056	-0.011	-0.13	-0.069	-0.16	-0.087	-0.64	-0.11
		(0.13)	(0.16)	(0.092)	(0.16)	(0.089)	(0.18)	(0.12)	(0.61)	(0.099)
모직업	사무직	-0.034	-0.0016	0.035	-0.073	0.030	-0.072	0.18**	0.037	0.0073
		(0.056)	(0.053)	(0.046)	(0.069)	(0.046)	(0.077)	(0.080)	(0.28)	(0.055)
	서비스·판매	-0.0097	0.023	-0.019	0.016	-0.040	-0.074	0.040	-0.055	-0.011
		(0.052)	(0.048)	(0.039)	(0.062)	(0.043)	(0.074)	(0.072)	(0.25)	(0.048)
	생산직	-0.0010	-0.00080	-0.020	0.0049	0.042	-0.049	0.083	0.080	0.016
		(0.056)	(0.058)	(0.046)	(0.077)	(0.050)	(0.079)	(0.090)	(0.29)	(0.056)
	무직	0.012	0.020	0.0079	-0.061	0.040	-0.048	-0.0088	-0.26	-0.050
		(0.046)	(0.041)	(0.036)	(0.060)	(0.039)	(0.070)	(0.069)	(0.23)	(0.044)
연가구소득		0.063*	-0.045	0.010	0.034	0.011	-0.015	0.032	-0.17	-0.032
36백만 이하		(0.036)	(0.036)	(0.030)	(0.046)	(0.032)	(0.052)	(0.050)	(0.18)	(0.034)
양부모(준		0.15**	-0.018	0.52***	0.20***	3.06***	-0.27***	-0.48***		
가=친부모)		(0.062)	(0.059)	(0.047)	(0.078)	(0.11)	(0.086)	(0.082)		
다문화가정		0.38**	0.074	0.12	0.39	0.14	0.39***	-0.050	-0.84	-0.16
(1=다문화)		(0.18)	(0.11)	(0.15)	(0.29)	(0.14)	(0.14)	(0.18)	(0.75)	(0.14)
형제자매		-0.023	0.012	-0.072	-0.0050	-0.046	0.10	0.11	-0.25	-0.048
(1=없음)		(0.069)	(0.063)	(0.054)	(0.073)	(0.058)	(0.085)	(0.091)	(0.30)	(0.058)
보호자건강		0.015	0.024	0.044	0.086	0.053	0.043	-0.12*	-0.034	-0.0065
(1=건강x)		(0.045)	(0.043)	(0.036)	(0.054)	(0.038)	(0.056)	(0.062)	(0.19)	(0.035)
보호자 삶		-0.019	0.0047	-0.033	0.046	-0.073**	-0.090*	0.0019	0.18	0.036
만족: x		(0.038)	(0.035)	(0.028)	(0.045)	(0.031)	(0.047)	(0.051)	(0.17)	(0.033)
국영수		0.013***	0.0041**	0.0026**	-0.00094	0.0015	-0.0015	-0.0063**	-0.022***	-0.0041***
평균(중2~3)		(0.0016)	(0.0017)	(0.0013)	(0.0021)	(0.0015)	(0.0022)	(0.0025)	(0.0080)	(0.0015)
성별:		0.11***	0.11***	-0.033	-0.098**	-0.018	-0.17***	0.27***	-1.20***	-0.23***
여학생		(0.031)	(0.031)	(0.024)	(0.040)	(0.027)	(0.044)	(0.047)	(0.15)	(0.027)
건강문제		0.068**	0.050	0.017	0.042	0.021	-0.061	0.029	-0.14	-0.026
(1=있음)		(0.032)	(0.031)	(0.025)	(0.041)	(0.028)	(0.045)	(0.047)	(0.15)	(0.029)
비행피해		-0.010	0.024	-0.071**	0.054	-0.0042	-0.049	-0.0094	0.32*	0.060*
(1=있음)		(0.040)	(0.037)	(0.031)	(0.050)	(0.034)	(0.054)	(0.054)	(0.19)	(0.035)
비인지영역		0.49***	0.34***	0.37***	0.61***	0.50***	0.52***	-0.10	-0.17	-0.033
(1~2차평균)		(0.059)	(0.060)	(0.049)	(0.083)	(0.058)	(0.081)	(0.090)	(0.28)	(0.053)
상수		0.18	1.68***	2.01***	1.34***	1.67***	1.70***	2.72***	2.45**	
		(0.22)	(0.21)	(0.18)	(0.29)	(0.24)	(0.30)	(0.33)	(1.01)	
관측치 수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5	1,344	1,344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제 3 장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서론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단, 자녀의 학업성취, 대학 진학, 그리고 취업을 비롯한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자녀의 정서적 상태나 비행 등에 대해서는 부모의 우울이나 양육태도와 같은 부모의 비인지적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반면 부모의 비인지적 요인이 자녀의 진학 성과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드문 실정이다.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모의 비인지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우울,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등과 함께 부모의 양육태도를 들 수 있다. 이 중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Burton et al.(2002) 역시 부모의 양육태도는 사회경제적 요인 못지 않게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학대는 부모의 극단적인 양육태도 중 하나로서, 자녀에게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지발달이나 정서적 측면에서도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제2장의 제2절 선행연구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진학이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나마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유아 및 청소년기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일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나은숙·정익중, 2007; 김광혁, 2009 등), 장기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는 자녀의 성인기 시기 고등교육기

관 진학과 졸업, 취업, 임금 등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극히 적은 수의 연구만이 존재한다(김세원, 2021; McCord, 1983; Covey et al., 2013).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비인지적 요인, 그 중에서도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학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중 자녀의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 영향을 미친다면 그 경로는 무엇인지 Gelbach(2016)의 요인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해볼 것이다. 학대를 포함한 부모의 양육태도, 나아가 부모의 비인지적 요인이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과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구가 축적된다면, 개인의 인적자본 형성과 성과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소개하고 본 연구가 갖는 차별점을 제시한다. 이후 제3절에서는 분석에 사용할 자료와 모형을 소개하며, 제4절에서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를 논의하며 결론을 맺는다.

제 2 절 선행연구

국내에서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김미숙·박명숙(2004), 나은숙·정익중(2007), 김광혁(2009), 이호택(2012), 권지은·이은정·노충래(2013), 김세원(2021)이 있다. 이 중 김세원(2021)만 초기 성인기 학업성과인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나머지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먼저, 김미숙·박명숙(2004)은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총 24명에게 기초학습기능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반적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학대 아동의 학

습능력이 일반 아동의 학습능력에 비해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조사대상 아동의 수가 적으며, 검사결과 평균값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학업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나은숙·정익중(2007)은 서울아동패널연구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와 우울성향, 자기효능감,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1차년도 기준) 학생 1,785명이다. 분석 결과 신체학대는 학업성취와 관련이 없고[37], 방임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정서학대는 우울성향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성취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 논문은 피학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복학대의 케이스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김광혁(2009)은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아동 7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가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동학대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학대와 방임이 아동의 자존감을 낮추고 우울·불안을 높이며 이것이 학교적응력을 낮추어 학교성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호택(2012)은 한국청소년패널데이터 초4 코호트의 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가정폭력 목격경험과 학대 경험이 학업성적[38]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

37) 이는 신체적 학대 여부 기준이 “부모님이 나를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부모님이 주위의 물건(재떨이, 그릇, 의자 등)을 던져서 내가 맞았다, 부모님의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았다, 부모님이 휘두르는 몽둥이나 굵은 막대기, 혁대로 맞았다, 부모님이 칼이나 흉기(송곳, 못, 도끼 등)로 나를 찔렀다.”의 5가지 문항으로 그 기준이 극심하여,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너무 적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음. 나은숙·정익중(2007)도 이에 대해 “이러한 결과는 신체학대 총점의 범위 5-21점 중 평균이 5.45(표준편차=1.32)로 변량이 매우 낮고, 전체의 68.8%가 신체학대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빈도가 너무 낮아서 생긴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신체학대와 다른 학대유형 간의 상관관계(정서학대와의 상관관계 .741, 방임과의 상관관계 .444)가 매우 높고 중복학대의 비율이 36.7%로 높아서 신체학대의 영향이 없다기보다 그 영향이 다른 학대유형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p.45-46)고 언급함.

38) 지난 학기 성적 등수의 백분율

과, 가정폭력 목격 경험과 학대 경험 모두 학업성적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성별, 학교 위치, 소득, 사교육비, 자아존중감만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므로, 학생들 개개인의 타고난 학업능력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목격 및 학대 경험 영향의 추정치에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권지은, 이은정, 노충래(2013)는 방임·학대와 학업성적 간의 관계에서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방임과 학대는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우관계는 둘 사이의 매개역할을 하는 반면 교사관계는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김세원(2021)은 “청소년기의 종단적 아동학대 피해경험 정도를 유형화하여, 이들 집단 간 초기 성인기 발달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p.34) 확인하고자 하였다. 데이터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1 코호트의 2차년도~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성장혼합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대경험이 증가하는 집단, 감소하는 집단, 없는 집단의 세 집단 중 학대경험 증가집단과 감소집단이 학대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대학 진학을 비롯한 초기 성인기 발달 결과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국내 연구 중 유일하게 성장기 학대경험과 대학 진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으나, 대학 진학 성과의 기준을 단순히 대학진학 여부에 두었다는 점과 그룹별 대학 진학 여부 평균값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관련 연구를 발전시킬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연구에서는 비록 부모의 학대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피학대 경험이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진학, 그리고 대학에서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소수 존재한다. Duncan(2000)은 210명의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학기 및 4학년 등록률을 추적조사하였는데, 중복학대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성적

학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학대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등록률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Duncan은 아동기 트라우마 경험 연구를 위해 대학생 표본을 사용할 때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이는 건강한 생존자(survivor)들만으로 표본을 구성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McGloin and Widom(2001)은 어릴 적 학대경험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39]을 비교했을 때, 학대경험이 있는 그룹이 고등학교 졸업과 취업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낮은 성과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Macmillan and Hagan(2004)은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폭력 피해경험이 학업적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떨어뜨림으로써 학업 성적과 학력을 떨어뜨리며, 이는 다시 초기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이 외에 Mersky and Topitzes(2010)는 Chicago Longitudinal Study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릴 적의 학대 경험이 초기 성인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 피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 피학대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학력, 소득, 범죄 행위, 행동 및 정신건강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인 초기 성인기의 성과 중 대학 진학에 대해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되, 기존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진학률[40]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 진학 성과의 범주를 대학 진학 여부와 4년제 대학 진학 여부로 세분화함으로써,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진학 성과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내생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의 사회경제적 요인은 물론, 유전적 요인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개개인의 타고난 학업능력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도 상관관계를

39) 성별, 연령, 인종, 가구의 대략적인 사회 계층을 맞추어 매칭함.
40) 본 연구 분석대상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연도인 2016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67.3%, 고교 졸업자 대학진학률은 69.8%임(e-나라지표, 취학률 및 진학률,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의 교육연수와 더불어 개인의 중2 학업성적 변수도 통제변수에 포함시켜 보고자 한다. 이 외에 전학경험, 건강문제 유무, 비행 피해경험 등 추가적으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들 역시 통제변수에 포함시켜 본다. 셋째, 부모의 학대가 대학 진학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경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Gelbach(2016)의 요인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해보고자 한다.

제 3 절 자료 및 분석모형

3-1. 자료 및 기초통계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사용하였던 데이터와 동일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앞서 제2장에서 소개하였듯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에 걸쳐 조사된 데이터로, 2010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세 개 코호트가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중1 코호트의 2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때 7차년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부모님이 계시며, 부모 구성이 조사기간 동안 바뀌지 않은 학생들 중 설문에 응답한 보호자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인 경우(1,463명)를 분석 대상으로 하되,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가 결측인 경우(187명) 및 7차년도에 재수를 하는 학생들(142명)은 제외시켜 총 1,13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차년도 조사 시작 시 중1 코호트 학생수가 2,351명이었으므로 상당 수준의 표본이탈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분석 시 7차년도 기준 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부록 4-2에서 7차년도 조사 성공 케이스 대비 표본이탈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크게 ① 학대 관련 변수, ② 대학진학 성과 변수, ③ 개인 특성(비인지적 영역 변수 포함) 및 가정환경 관련 변수들을 사용하였는데, ①, ③번에 대해서는 제2장의 '3-1. 자료 및 기초통계'에서

해당 변수들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41], 여기에서는 ② 대학진학 성과 변수 및 ③ 개인 특성 변수 중 제2장의 분석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변수인 고3 시기 거주지, 월평균 사교육비, 중학교/고등학교 전학 경험 유무, 주당 교외 학업시간 변수에 대해서만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종속변수로 사용된 대학진학 성과 변수는 7차년도 대학진학 성과이며, 이 성과는 대학 진학 여부와 4년제 대학 진학 여부의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였다. 이 때 재수생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패널조사가 7차년도까지만 이루어졌으므로, 7차년도에 재수를 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 정보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똑같이 재수를 하더라도, 이전 해에 대학진학을 하지 못해서 재수를 하는 경우와 이전 해에 대학 진학이 가능했으나 보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재수를 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재수생을 단순히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케이스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부록 3-3에서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재수 여부에 미치는 영향(비진학 대비)을 분석함으로써, 분석 대상에서 재수생을 제외하는 것이 본 장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개인 특성 변수 중 월평균 사교육비와 주당 교외 학업시간 변수는 2차(중2)부터 6차(고3)까지의 정보를 평균하였는데, 고3에 가까울수록 높은 가중치[42]를 주어 가중평균하였다. 이 외에 고3 시기에 읍면지역, 도지역, 대도시, 수도권 중 어디에 거주하였는지, 중학교 때 및 고등학교 때 각각 전학경험이 있는지의 여부 변수들도 본 분석에서 통제변수에 포함되었다. 참고로, 본 분석은 제2장의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제2장의 분석결과를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부모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제2장의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 기준을 근거로 더미변수화하여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둘째, 본 장의 분석에서 잠재적 경로 변수들로

41) 단, 제2장에서는 국영수 평균점수에 대해 중2~중3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나 본 장에서는 중2 시기의 정보만을 이용함.

42) 2차년도에는 0.1, 3차년도에는 0.15, 4차년도에는 0.2, 5차년도에는 0.25, 6차년도에는 0.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값을 계산함.

사용하고하 하는 일부 비인지영역 변수들이 실제 부모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한 바 있다.

<표 3-1>부터 <표 3-4>까지는 본 분석에서 사용할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나타낸 표이다. 이들 값은 재수생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구한 값이므로, 재수생을 제외시키지 않았던 제2장의 기초통계 분석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우선 학대변수 기초통계값인 <표 3-1>을 살펴보면, 학대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45.7%로, 제2장의 46.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때 중학교 시기와 고등학교 시기 중 한 시기에만 학대를 당한 경우가 29.3%, 두 시기 모두 학대를 당한 경우가 16.3%였다. <표 3-2>에서 진학성과 변수 기초통계값을 살펴보면, 대학에 진학한 비율이 87%이고[43] 4년제 대학에 진학한 비율이 59%이다.

<표 3-3> 및 <표 3-4>에서 개인 및 가구특성 변수의 주요 기초통계값을 확인해보면, 우선 여학생의 비율이 50%로 절반이었다. 중학교 2학년의 국영수 평균점수 평균값은 79.2점이었으며, 중2부터 고3까지 학교를 제외한 곳에서의 주당 학업시간을 가중평균한 평균값은 약 27시간이었다. 또한 학습활동 항목[44](최소 1점~최대 4점)의 평균값은 2.8점이었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대졸 이상인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인 경우(42.1%)가 뒤를 이었으며,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인 경우가 54.7%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33.0%)이 그 다음이었다. 아버지 직업은 생산직인 경우가 가장 많고 이후 서비스 및 판매직, 관리자 및 전문가 순이었으며, 무직은 1.2%였다. 어머니의 경우 무직인 경우가 34.5%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비스 및 판매직이었다. 연평균 가구소득은 3,600만원부터 4,800만원 사이가 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400만원부터 3,600만원까지가 23.8%로 그 다음이었다. 거주지는 수도권에 사는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고, 이후 도 지역 거주, 대도시 거주,

---

43)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6년 기준 고교 졸업자 대학 진학률을 69.8%이므로(e-나라지표), 본 장의 분석은 보다 성과가 좋은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 한편, 피학대 경험이 있으며 성적이 좋지 않을 때 표본이 이탈되었을 확률이 높으므로(부록 3-2. 표본이탈분석 참고), 본 장의 분석결과는 피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과소추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함.

44) 학습활동 항목 변수에 대해서는 제2장의 3-1-2. 데이터 및 기초통계 참고

읍면지역 거주 순이었다. 중2부터 고3까지의 월 사교육비를 가중평균한 평균값은 약 40만원이었고, 1차·4차·6차의 부모 양육 비일관성(최소 1점~최대 4점) 평균점수는 2.8점이었다.

<표 3-1> 학대변수 기초통계

(단위: 명, %)

	빈도수	(%)
학대 x	624	(54.3)
학대	337	(29.3)
지속적 학대	187	(16.3)
계	1,148	(100)

<표 3-2> 진학성과 변수 기초통계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대학진학 여부 (1=진학)	1,148	0.87	0.34	0	1
4년제대학 진학 여부 (1=진학)	1,148	0.59	0.49	0	1

<표 3-3> 개인 및 가구특성 변수 기초통계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성별(1=여성)	1,148	0.50	0.50	0	1
중학교 전학경험 여부	1,148	0.02	0.14	0	1
고등학교 전학경험 여부	1,148	0.02	0.15	0	1
비행 피해경험	1,148	0.20	0.40	0	1
건강문제 유무	1,148	0.65	0.48	0	1
중2 국영수 평균	1,148	79.20	10.46	62	97
교외 학업시간(2차~6차 가중평균)	1,148	26.57	13.85	0	78
학교적응: 학습활동	1,148	2.75	0.53	1	4
보호자 건강상태 평가(1=건강x)	1,148	0.19	0.39	0	1
보호자 삶 만족도(1=불만족)	1,148	0.29	0.45	0	1
양부모 여부(stepparents)	1,148	0.00	0.02	0	1
다문화가정 여부	1,148	0.01	0.08	0	1
형제자매 유무(1=없다)	1,148	0.07	0.25	0	1
사교육비(2차~6차 가중평균)	1,148	39.44	24.17	0	193
부모 양육 비일관성(1·4·6차 평균)	1,148	2.79	0.49	1	4

<표 3-4> 범주형 변수 기초통계

구분		명 (%)	구분		명 (%)
부 연령 (4차)	~ 40세 이하	15 (1.3)	모 연령 (4차)	~ 40세 이하	136 (11.9)
	41세 ~ 45세	380 (33.1)		41세 ~ 45세	655 (57)
	46세 ~ 50세	543 (47.3)		46세 ~ 50세	279 (24.3)
	51세 ~ 55세	177 (15.4)		51세 ~ 55세	67 (5.8)
	56세 ~	33 (2.9)		56세 ~	11 (0.9)
	계	1,148 (100)		계	1,148 (100)
부 학력	고졸 이하	483 (42.1)	모 학력	고졸 이하	627 (54.7)
	전문대 졸	122 (10.6)		전문대 졸	131 (11.4)
	대졸 이상	544 (47.4)		대졸 이상	389 (33.9)
	계	1,148 (100)		계	1,148 (100)
부 직업	관리자, 전문가	255 (22.2)	모 직업	관리자, 전문가	196 (17.1)
	사무직, 군인	204 (17.8)		사무직	150 (13.1)
	서비스, 판매직	285 (24.8)		서비스 및 판매	262 (22.8)
	생산직 등	390 (34.0)		생산직 등	143 (12.5)
	무직	13 (1.2)		무직	396 (34.5)
	계	1,148 (100)		계	1,148 (100)
연평균가구소득 (1~6차)	24백만원 이하	65 (5.6)	거주지 (6차)	읍면지역	162 (14.1)
	24백만원~36백만원	273 (23.8)		도 지역	280 (24.4)
	36백만원~48백만원	297 (25.8)		대도시	248 (21.6)
	48백만원~60백만원	254 (22.1)		수도권	459 (40.0)
	60백만원~72백만원	101 (8.8)		계	1,148 (100)
	72백만원 초과	159 (13.9)			
	계	1,148 (100)			
희망 교육 수준 (본인)	고졸	56 (4.9)	희망 교육 수준 (보호자)	고졸	25 (2.2)
	초대졸	238 (20.7)		초대졸	112 (9.7)
	대졸 이상	761 (66.3)		대졸 이상	848 (73.9)
	미정	93 (8.1)		미정 및 결측	163 (14.2)
	계	1,148 (100)		계	1,148 (100)

3-2. 분석모형

본 분석에서는 대학 진학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LPM)을 사용하였으며[45], 이를 수식으로 나

타내면 아래와 같다.

$$y_i = \alpha + \beta x_{\text{피학대경험 여부}i} + \gamma' X_{\text{통제변수}i} + \epsilon_i \quad (1)$$

대학 진학 여부는 ①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진학 여부와 ② 4년제 대학 진학 여부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각각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는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 유무 여부이다. 분석은 우선 통제변수 없이 부모로부터의 피학대의 영향만을 살펴보았다(1번 모형). 이후 2번 모형에서 성별과 가정환경 변수들(부모님 연령과 최종학력 및 직업, 연평균 가구소득, 중2~고3 시기까지의 평균 사교육비, 고3 시기의 거주지, 다문화가정 여부, 형제자매 유무 여부, 보호자 건강상태, 보호자 삶의 만족도)[46] 를 통제하였다. 이는 앞선 2장의 분석에서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 이전 시기 부모의 학대 여부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므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영유아 및 아동기 자녀 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변수들 중 대학 진학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통제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참고로 부모의 연령, 최종학력, 연평균 가구소득에 대해서는 2장의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분석에서 부모의 학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준을 근거로 더미변수화하였다. 아울러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경험 변수(전학 경험, 비행 피해 경험, 건강문제 유무)도 통제하였다. 참고로 (3)번 모형은 연령, 학력, 직업 변수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 간 상관관계가 높다면 이들 변수가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적절히 추정되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연령은 아버지, 학력은 어머니, 직업은 아버지 변수만 포함시켜 이들 변수의 영향을 확인해 본 모형이다. 또한 (4)번 모형에서는 기존 분석에서 많이 이용되어 온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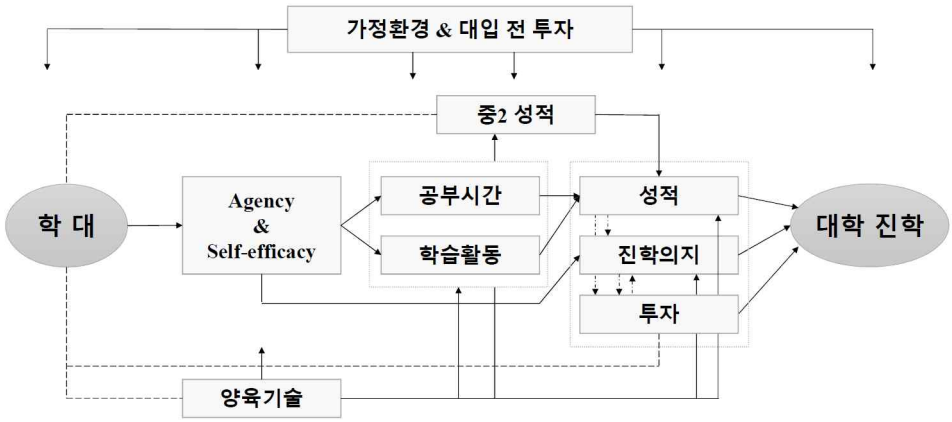
45) Gelbach(2016)의 요인분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선형확률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강건성 검증을 위해 로짓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부록 3-1에 제시함.

46) 참고로 한부모인 케이스는 아버지 특성과 어머니 특성을 모두 통제변수에 포함시킴에 따라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양부모인 경우는 대학 진학에 성공한 1명 밖에 없으므로 이 변수도 통제변수에서 제외시킴.

및 가정환경 변수들만 모형에 포함시켜 보았다.

한편 본 장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면 무엇을 경로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3-1]과 같은 경로를 도식화하였다.

[그림 3-1]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위의 그림에서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중2 성적이다. 학대는 지속성을 가지므로 조사 이전 시기의 학대와도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이전 시기의 학대는 자녀의 이전 시기 학업성취를 낮추게 되는데(이호택, 2012; 권지은 외, 2013), 한국에서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 저하는 이미 대학 진학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Lee & Kim, 2012). 둘째, 학업에의 열의를 보여주는 공부시간, 학습활동 및 진학의지(장래희망 교육수준, 고3 조사) 변수이다. Macmillan & Hagan(2004)은 폭력 피해경험이 자기 효능감을 낮추고, 낮아진 자기효능감은 학업에 대한 시간 및 에너지 투입을 감소시킴으로써 학업성적 및 학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피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 학업에의 열의를 감소시킴으로써 대학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양육기술을 보여주는 '부모의 양육 비

일관성' 변수이다. Kim(2019)은 양육의 비일관성을 양육기술 지표로 사용하였는데, 양육의 비일관성과 가혹한(harsh) 체벌은 매우 연관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양육의 비일관성이 높을 경우 부모가 교육하고자 하는 바(신호)가 자녀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음으로써 자녀의 발달 및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Kim(2019)의 주장을 근거로 '부모의 양육 비일관성' 변수 역시 잠재적 경로 변수로 포함시켰다. 추가적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에서는 장래희망 교육수준을 본인 외에 보호자에게도 조사한 바 있으며, 본 분석에서는 보호자의 잔 장래희망 교육수준 변수도 잠재적 경로 변수로 포함시켜 보고자 한다. 이는 대학 등록금 지원 등 자녀의 대학 진학과 관련한 부모의 투자 의지를 보여주는 변수가 될 것이다.[47]

이에 따라 (5)번부터 (9)번 모형까지는 위에서 언급한 잠재적 경로 변수들(중2 성적, 본인의 장래희망 교육수준, 보호자의 장래희망 교육수준, 주당 교외학습시간과 학습활동 점수, 부모 양육 비일관성 점수)을 (2)번 모형에 각각 포함시켜본 모형이다. 다만 중2 성적은 개인의 타고난 능력 및 중학교 2학년 이전의 환경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중2 성적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모형에 포함시킨 통제변수로 통제되지 않는 환경 및 개인의 타고난 능력 측면은 통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부모의 자녀 학대 여부와 상관관계가 있다면, 피학대경험 변수의 영향은 과대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2 성적 변수의 경우 (6)번 모형부터 (9)번 모형까지 모두 포함시키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10)번 모형에서는 (5)번부터 (9)번 모형에서 각각 추가시켜본 변수들을 모두 포함시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5)번부터 (10)번 모형에서 도출된 결과로는 실제 부모의 학대가 어떠한 경로를 어느 정도로 거쳐 자녀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물론 잠재적 경로변수들을 하나씩 추가로 통제시켜가면서 피학대 여부 변수의 계수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확인하고, 추가시킨 변수가 학대 변수의 영향을 얼만

47) 비록 중학교~고등학교 기간 동안의 사교육비는 통제하였으나, 대학 진학 관련 투자 의지는 이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큼 설명하는지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어느 변수를 먼저 추가시키느냐에 따라 각 변수들의 설명력이 달라지기도 한다(Gelbach, 2016).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Gelbach(2016)의 요인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Gelbach(2016)의 요인분해는 omitted variable bias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를 본 논문의 분석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48], 우선 모형(2)는 기본 모형(base specification model), 모형(10)은 전체 모형(full specification model)이라 하자. 이 때 전체 모형을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 = X_1\beta_1 + X_2\beta_2 + \epsilon \qquad (2)$$

Y: 4년제 대학 진학 확률
X_1: 피학대여부 변수, 상수항, 모형(2)에 포함된 모든 통제변수
X_2: 중2 성적, 장래희망 교육수준(본인), 장래희망 교육수준(보호자), 주당 교외학습시간, 학습활동, 부모 양육 비일관성
ε: 오차항

그리고 일반적인 OLS 가정인 $E[\epsilon_i|X_i] = 0$ 이 성립한다면 $\hat{\beta} \equiv (X'X)^{-1}X'Y$ 이다. 전체모형인 식(2)에서 X_1의 추정계수는 $\hat{\beta}_1^{full}$, X_2의 추정계수는 $\hat{\beta}_2$ 이라 하면, X_2의 모든 편차는 partialled out되므로 $\hat{\beta}_1^{full}$은 β_1 의 일치추정량이 된다. 그러나 X_1만 이용하는 기본모형에서는 $\hat{\beta}_1^{base} \equiv (X_1'X_1)^{-1}X_1'Y$ 가 되며, 여기에 확률적 극한(probability limit)을 취하면 ,

48) Gelbach(2016) 참고

$$plim\hat{\beta}_1^{base} = \beta_1 + plim(X_1'X_1)^{-1}X_1'X_2\beta_2 \quad (3)$$

또는 $\beta_1^{base} = \beta_1 + \Gamma\beta_2 = \beta_1 + \delta$ (4)

가 된다. 이 때 Γ는 X_1의 열에 X_2의 열을 projection 시킨 계수의 행렬이다($X_2=X_1\Gamma+W$, W는 적합 projection 잔차(conformable projection residuals)의 행렬). 따라서,

$$\hat{\delta} = \hat{\beta}_1^{base} - \hat{\beta}_1^{full} = (X_1'X_1)^{-1}X_1'X_2\hat{\beta}_2 \quad (5)$$

가 된다. 즉, $\hat{\delta}$은 추가된 공변량들(covariates)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으로, 식(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omitted variable bias 공식과 동일하다. Γ는, 일례로 X_1 변수 중 학대변수에 관한 것이라면 학대 여부에 따른 X_2 평균값의 차이(gap)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추가된 잠재적 경로변수들이 진학확률에 대해 설명하는 비중을 분해할 수 있다.

3-3. 기초분석

본 파트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 유무에 따라 실제 대학 진학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우선 <표 3-5>를 확인해보면, 피학대경험이 없을 때 4년제 대학 진학률은 가장 높고 비진학률은 가장 낮다. 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중 한 시기에만 부모로부터 학대가 있었다는 응답을 한 경우, 피학대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4년제 대학 진학률은 낮아지고, 비진학 및 2~3년제 진학 비율은 높아진다. 또한 두 시기 모두 부모로부터 학대가 있었다는 응답을 한 경우, 4년제 대학 진학률은 더욱 낮아지고 비진학률은 더욱 높아진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동일하였는데, 비진학과 2~3년제 진학 중에는 남학생은 비진학률이, 여학생은 2~3년제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3-6>~<표 3-7>).

<표 3-5>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과 대학진학 성과

(단위: 명, %)

학대 경험	대학진학 여부			계	
	비진학	2~3년제	4년제		
없음	58 (9.3)	156 (25.0)	410 (65.7)	624 (100)	[54.3]
학대	53 (15.7)	105 (31.2)	179 (53.1)	337 (100)	[29.3]
지속적 학대	40 (21.5)	53 (28.2)	94 (50.3)	187 (100)	[16.3]
계	151 (13.2)	314 (27.4)	683 (59.5)	1,148 (100)	

주1: 괄호 안은 학대경험 정도가 동일한 학생들 중 각 대학진학 성과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계' 열의 [ ] 안의 숫자는 전체 학생들 중 각 학대경험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임.

<표 3-6>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대학진학 성과, 남

(단위: 명, %)

학대 경험	대학진학 여부			계	
	비진학	2~3년제	4년제		
없음	33 (13.7)	50 (21.0)	156 (65.3)	239 (100)	[42.7]
학대	40 (20.4)	53 (26.9)	104 (52.7)	197 (100)	[35.1]
지속적 학대	29 (23.8)	31 (25.3)	63 (50.9)	124 (100)	[22.1]
계	102 (18.3)	135 (24)	323 (57.7)	560 (100)	

주1: 괄호 안은 학대경험 정도가 동일한 학생들 중 각 대학진학 성과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계' 열의 [ ] 안의 숫자는 전체 학생들 중 각 학대경험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임.

<표 3-7>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대학진학 성과, 여

(단위: 명, %)

학대 경험	대학진학 여부			계	
	비진학	2~3년제	4년제		
없음	25 (6.4)	108 (27.7)	256 (65.9)	388 (100)	[66.0]
학대	12 (8.6)	52 (37.6)	74 (53.8)	138 (100)	[23.5]
지속적 학대	10 (16.5)	21 (34.4)	30 (49.1)	61 (100)	[10.4]
계	47 (8.0)	181 (30.7)	360 (61.3)	588 (100)	

주1: 괄호 안은 학대경험 정도가 동일한 학생들 중 각 대학진학 성과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계' 열의 [ ] 안의 숫자는 전체 학생들 중 각 학대경험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임.

제 4 절 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대학 진학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면 그 경로가 무엇인지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4-1. 진학성과별 분석 결과

<표 3-8>~<표 3-9>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2~3년제 대학 포함)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이 때 '학대' 그룹은 부모로부터 학대가 있었다는 응답을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기 중 한 시기에만 한 경우이며, '지속적 학대' 그룹은 부모로부터 학대가 있었다는 응답을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 모두 한 케이스이다. 다른 변수는 통제하지 않고 피학대 경험 변수의 영향만을 확인한 (1)번 모형에서는 '학대' 그룹이 대

학에 진학할 확률이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 학대' 그룹의 경우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12% 감소하였다. 이후 (2)번 모형에서 성별을 포함한 개인특성변수(전학경험, 비행피해경험, 건강문제 유무)와 가구 특성 변수를 통제하자 '학대' 그룹은 부정적인 영향의 유의성이 사라졌다. 이는 '학대' 그룹의 경우, 부모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이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진학에 있어서는 좋지 못한 가정환경에 기인할 가능성을 보여준다.[49] 반면 '지속적 학대' 그룹의 부정적인 영향은 비록 그 정도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하였다. 다만 비록 부모 연령/학력/직업, 가구 소득 및 사교육비, 거주지 등의 가정특성 변수들을 통제하였으나 이것으로 통제되지 않는 개인의 타고난 능력 및 과거의 가정 특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조사 이전 시점의 학대와 성적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고려된다면 학대가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결과보다 다소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참고로 이러한 점은 4년제 대학 진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한편, <표 3-9>의 (5)번 모형에서 중2 성적을 통제할 경우 '지속적 학대' 그룹의 유의성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 학대' 그룹의 경우 학대가 중학교 이전부터 지속되어왔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포함한 과거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이 중2 성적에 반영되어 대학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3-8>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변수		(1) 대학 진학	(2) 대학 진학	(3) 대학 진학	(4) 대학 진학
피학대 (준거=학대x)	학대	-0.064**	-0.032	-0.034	
		(0.027)	(0.025)	(0.026)	
	지속적 학대	-0.12***	-0.076**	-0.082**	
		(0.038)	(0.038)	(0.037)	
성별: 여학생			0.10***	0.099***	0.11***
			(0.024)	(0.024)	(0.023)
부 연령 40세 이하 여부			0.054	-0.013	-0.046
			(0.14)	(0.13)	(0.13)
모 연령 40세 이하 여부			-0.082**		
			(0.041)		

49) 이러한 측면은 '지속적 학대'에서도 일부 존재한다.

부 학력 고졸 이하 여부			-0.033 (0.028)		
모 학력 대졸 이상 여부			-0.040 (0.027)	-0.017 (0.026)	-0.0074 (0.026)
부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군인		0.035 (0.031)	0.033 (0.031)	0.034 (0.031)
	서비스· 판매직		-0.038 (0.038)	-0.039 (0.036)	-0.042 (0.035)
	생산직		-0.024 (0.031)	-0.036 (0.030)	-0.044 (0.031)
	무직		0.066 (0.13)	0.060 (0.14)	0.024 (0.15)
모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군인		-0.00081 (0.040)		
	서비스· 판매직		-0.011 (0.038)		
	생산직		-0.047 (0.048)		
	무직		-0.033 (0.033)		
연평균 가구소득 3,600만원 이하 여부			-0.018 (0.031)	-0.028 (0.030)	-0.049* (0.029)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0.0023*** (0.00071)	0.0023*** (0.00070)	0.0023*** (0.00072)
고3 거주지 (준거= 읍면)	도지역		-0.0030 (0.033)	-0.00069 (0.033)	-0.0024 (0.033)
	대도시		-0.011 (0.035)	-0.010 (0.034)	-0.0072 (0.034)
	수도권		-0.054 (0.041)	-0.050 (0.040)	-0.057 (0.039)
다문화가정 (1=다문화)			-0.22 (0.17)	-0.24 (0.16)	-0.26 (0.17)
형제자매 (1=없음)			0.068** (0.034)	0.078** (0.035)	0.079** (0.034)
보호자건강 (1=건강x)			-0.027 (0.035)	-0.031 (0.035)	
보호자 삶 만족: x			-0.066** (0.030)	-0.068** (0.030)	
중학교 전학경험			-0.082 (0.084)	-0.083 (0.082)	
고등학교 전학경험			-0.066 (0.091)	-0.061 (0.092)	
비행피해 (1=있음)			-0.042 (0.031)	-0.041 (0.031)	
건강문제 (1=있음)			0.0018 (0.023)	0.0057 (0.023)	
상수		0.91*** (0.014)	0.81*** (0.067)	0.75*** (0.062)	0.70*** (0.060)

관측치 수	1,148	1,148	1,148	1,148
R^2	0.019	0.112	0.102	0.080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3-9>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2

변수		(5)	(6)	(7)	(8)	(9)	(10)
		대학 진학	대학 진학	대학 진학	대학 진학	대학 진학	대학 진학
피학대 (준거= 학대x)	학대	-0.024	-0.011	-0.023	-0.021	-0.024	-0.016
		(0.025)	(0.022)	(0.024)	(0.024)	(0.024)	(0.021)
	지속적 학대	-0.050	-0.035	-0.051	-0.046	-0.050	-0.043
		(0.038)	(0.032)	(0.036)	(0.037)	(0.039)	(0.030)
성별: 여학생		0.10***	0.078***	0.099***	0.078***	0.10***	0.067***
		(0.023)	(0.021)	(0.022)	(0.024)	(0.024)	(0.022)
중2 국영수 평균점수		0.0054***	0.0023**	0.0038***	0.0018	0.0054***	0.00024
		(0.0011)	(0.0011)	(0.0010)	(0.0012)	(0.0011)	(0.0011)
장래희망 교육수준 (준거= 고졸)	초대졸		0.76***				0.68***
			(0.046)				(0.050)
	대졸이상		0.78***				0.66***
			(0.046)				(0.053)
	미정		0.60***				0.51***
			(0.062)				(0.064)
장래희망 교육수준 (보호자, 준거= 고졸)	초대졸			0.60***			0.39***
				(0.083)			(0.087)
	대졸이상			0.72***			0.46***
				(0.072)			(0.081)
	미정			0.60***			0.39***
				(0.083)			(0.086)
주당 교외학습시간					0.0065***		0.0039***
					(0.0011)		(0.00096)
학교적응: 학습활동					0.0055		0.0061
					(0.023)		(0.018)
부모 양육 비일관성						0.000074	-0.015
						(0.027)	(0.025)
상수		0.38***	-0.088	-0.11	0.52***	0.38***	-0.23*
		(0.12)	(0.10)	(0.11)	(0.13)	(0.14)	(0.13)
통제변수		부 연령 40세 이하 여부, 모 연령 40세 이하 여부, 부 학력 고졸 이하 여부, 모 학력 대졸 이상 여부, 부 직업, 모 직업, 연평균 가구소득 3,600만원 이하 여부, 월평균 사교육비, 고3 거주지, 다문화가정 여부, 형제자매 여부, 보호자 건강여부, 보호자 삶 만족도 여부, 중학교/고등학교 전학경험 여부, 비행피해 유무, 건강문제 유무					
관측치 수		1,148	1,148	1,148	1,148	1,148	1,148
R^2		0.133	0.366	0.232	0.175	0.133	0.421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10>~<표 3-11>에 제시되어 있다. 아무 변수도 통제하지 않은 (1)번 모형 기준으로 4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은 '학대' 그룹은 13%, '지속적 학대' 그룹은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특성변수 및 가구특성변수를 통제한 (2)번 모형에서도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은 여전히 유의하였다. 단,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진학 분석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영향은 과대추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2)번 모형에 중2 성적을 추가로 통제할 경우(5번 모형) '학대' 그룹의 부정적인 영향은 여전히 유의한 반면, '지속적 학대' 그룹은 그 유의성을 잃는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 학대'보다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이라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표 3-9>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속적 학대' 그룹의 경우 이전 시기부터 당한 학대를 포함한 과거의 부정적인 환경으로 이미 중학교 성적이 저하되고, 이것이 4년제 대학 진학까지 제약할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학대' 그룹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50], 그 정도가 '지속적 학대'에 비해 훨씬 작다. 참고로,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진학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진학보다 4년제 대학 진학에서 그 영향이 더 크고 유의한데, 이는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4년제 대학 진학 여부가 좀 더 높은 변별력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2.의 집단별 분석에서는 4년제 대학 진학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자 한다.

한편, (2)번 모형의 피학대 경험의 영향은 과대추정 가능성이 있는 반면, 중2 성적을 추가로 통제한 (5)번 모형에서의 피학대 경험의 영향은 과소추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학교 성적에는 개인의 타고난 능력뿐만 아니라 과거의 환경도 반영되어 있는데, 이 환경에는 부모의 학대 여부도 포함이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중2 성적을 통제할 경우 이전 시기부터 학대가 이루어진 결과로 중학교 시기의 학업능력이 떨어지

50) '학대' 그룹의 경우에도 피학대 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조사 이전시기에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음.

고, 이로 인해 대학 진학 성과까지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부모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제외가 되어 버린다. 결국 (5)번 모형의 결과는 보수적인 추정치임에도 불구하고 '학대' 그룹의 부정적인 영향이 유의함을 보여준다.

(6)번 모형부터 (9)번 모형까지는 중2 성적 외에 잠재적 경로변수로 설정해 둔 변수들을 (5)번 모형에 각각 추가해본 결과를 보여준다. 이 때 부모의 양육 비일관성과 본인의 장래희망 교육수준은 '학대' 그룹이 4년제 대학 진학에 갖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2 성적을 포함한 잠재적 경로 변수들이 각각 얼만큼씩 설명하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Gelbach(2016)의 요인분해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12>에 제시하였다. 학대가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중 기본 모형(2번 모형)에 비해 전체 모형(10번 모형)에서 추가로 설명된 부분을 100이라 할 때, 이 중 거의 절반 정도를 본인의 장래희망 교육수준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를 받은 경우 진학에 대한 낮은 의지가 4년제 대학 진학을 제약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낮은 양육 비일관성이 자녀의 발달을 저해함으로써 낮은 성과를 가져오는 부분이 18.8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 외에 과거의 부정적 환경을 반영하는 중2 성적과 교외 학습시간 및 학습활동으로 보여지는 낮은 학업의지가 각각 12.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단, 자녀에 대한 보호자의 장래희망 교육수준은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별로 설명해내지 못하였다. '지속적 학대'의 경우 '학대'의 케이스와 거의 유사하나, 부모의 양육 비일관성과 중2 성적, 그리고 주당 교외학습시간 및 학습활동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지속적 학대의 영향을 설명해내고 있었다.

다만, 장래희망 교육수준은 학생들이 고3일 때 조사한 내용으로, 이 시기에는 장래희망 교육수준에 이미 본인의 성적 수준과 과거의 환경 등도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장래희망 교육수준을 제외하고도 동일한 분석을 시행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3-13>과 같다. 이 경우에는 학대를 포함한 과거의 환경을 보여주는 중2 성적 변수가 가장 큰 설

명력을 보였고, 다음으로 학업 의지를 보여주는 교외학습시간 및 학습활동, 그리고 부모 양육 비일관성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기술 부족 순이었다. 또한 중2 성적의 설명력은 '지속적 학대'에서, 부모 양육 비일관성의 설명력은 '학대'에서 더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지속적 학대' 그룹의 경우 학대를 포함한 과거 환경으로 대학 진학이 제약되는 부분이 더 크고, '학대' 그룹의 경우 부모의 낮은 양육기술로 자녀의 발달이 저해되어 대학 진학까지 제약되는 부분이 더 큼을 보여준다.

<표 3-10>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변수		(1)	(2)	(3)	(4)
		4년제 진학	4년제 진학	4년제 진학	4년제 진학
피학대 (준거= 학대x)	학대	-0.13***	-0.096***	-0.095**	
		(0.038)	(0.037)	(0.037)	
	지속적 학대	-0.15***	-0.095**	-0.12***	
		(0.048)	(0.046)	(0.045)	
성별: 여학생			0.028	0.017	0.041
			(0.032)	(0.032)	(0.031)
부 연령 40세 이하 여부			0.17	0.079	0.030
			(0.14)	(0.14)	(0.13)
모 연령 40세 이하 여부			-0.11**		
			(0.050)		
부 학력 고졸 이하 여부			-0.058		
			(0.041)		
모 학력 대졸 이상 여부			0.052	0.095***	0.11***
			(0.042)	(0.037)	(0.036)
부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군인		-0.051	-0.063	-0.065
			(0.047)	(0.047)	(0.048)
	서비스·판매직		-0.092*	-0.12**	-0.13***
			(0.049)	(0.048)	(0.048)
	생산직		-0.058	-0.091**	-0.11**
			(0.045)	(0.044)	(0.045)
	무직		0.14	0.11	0.035
			(0.15)	(0.15)	(0.15)
모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군인		-0.061		
			(0.058)		
	서비스·판매직		-0.085		
			(0.053)		
	생산직		-0.12*		
			(0.061)		
	무직		-0.0020		
			(0.046)		
연평균 가구소득 3,600만원 이하 여부			-0.048	-0.061	-0.099**
			(0.041)	(0.040)	(0.039)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0.0038***	0.0039***	0.0040***
			(0.00090)	(0.00093)	(0.00094)
고3 거주지 (준거= 읍면)	도지역		-0.096**	-0.080*	-0.082*
			(0.048)	(0.047)	(0.047)
	대도시		-0.14***	-0.12**	-0.12**
			(0.049)	(0.049)	(0.049)
	수도권		-0.22***	-0.21***	-0.23***
			(0.053)	(0.053)	(0.053)
다문화가정 (1=다문화)			-0.20	-0.23	-0.27
			(0.18)	(0.16)	(0.18)
형제자매 (1=없음)			0.11*	0.12*	0.13**
			(0.064)	(0.065)	(0.067)
보호자건강 (1=건강x)			-0.072*	-0.069	
			(0.042)	(0.042)	
보호자 삶 만족: x			-0.095**	-0.10***	
			(0.037)	(0.037)	
중학교 전학경험			-0.071	-0.065	
			(0.11)	(0.11)	
고등학교 전학경험			-0.072	-0.066	
			(0.12)	(0.12)	
비행피해 (1=있음)			-0.015	-0.013	
			(0.039)	(0.039)	
건강문제 (1=있음)			0.034	0.040	
			(0.032)	(0.032)	
상수		0.66***	0.65***	0.56***	0.48***
		(0.021)	(0.10)	(0.095)	(0.094)
관측치 수		1,148	1,148	1,148	1,148
R^2		0.019	0.151	0.136	0.110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3-11>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2

변수		(5) 4년제 진학	(6) 4년제 진학	(7) 4년제 진학	(8) 4년제 진학	(9) 4년제 진학	(10) 4년제 진학
피학대 (준거= 학대x)	학대	-0.069**	-0.059**	-0.068**	-0.065*	-0.053	-0.049*
		(0.035)	(0.030)	(0.034)	(0.034)	(0.035)	(0.029)
	지속적 학대	-0.015	-0.0045	-0.019	-0.0020	0.014	0.014
		(0.044)	(0.035)	(0.044)	(0.042)	(0.048)	(0.034)
성별: 여학생		0.014	0.0041	0.0074	-0.028	0.010	-0.017
		(0.031)	(0.026)	(0.030)	(0.030)	(0.031)	(0.026)
중2 국영수 평균점수		0.016***	0.0067***	0.014***	0.0100***	0.016***	0.0038**
		(0.0016)	(0.0014)	(0.0016)	(0.0018)	(0.0016)	(0.0016)
장래희망 교육수준 (준거= 고졸)	초대졸		0.038				0.0062
			(0.032)				(0.035)
	대졸이상		0.68***				0.59***
			(0.038)				(0.044)
	미정		0.43***				0.38***
			(0.060)				(0.060)
장래희망 교육수준 (보호자, 준거= 고졸)	초대졸			0.099*			-0.055
				(0.056)			(0.065)
	대졸이상			0.43***			0.12**
				(0.055)			(0.061)
	미정			0.32***			0.062
				(0.066)			(0.067)
주당 교외학습시간					0.010***		0.0045***
					(0.0014)		(0.0013)
학교적응: 학습활동					0.061**		0.022
					(0.029)		(0.024)
부모 양육 비일관성						0.057	0.032
						(0.038)	(0.031)
상수		-0.54***	-0.33***	-0.73***	-0.40**	-0.69***	-0.35**
		(0.15)	(0.12)	(0.15)	(0.16)	(0.18)	(0.15)
통제변수		부 연령 40세 이하 여부, 모 연령 40세 이하 여부, 부 학력 고졸 이하 여부, 모 학력 대졸 이상 여부, 부 직업, 모 직업, 연평균 가구소득 3,600만원 이하 여부, 월평균 사교육비, 고3 거주지, 다문화가정 여부, 형제자매 여부, 보호자 건강여부, 보호자 삶 만족도 여부, 중학교/고등학교 전학경험 여부, 비행피해 유무, 건강문제 유무					
관측치 수		1,148	1,148	1,148	1,148	1,148	1,148
R^2		0.248	0.505	0.293	0.306	0.250	0.528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3-12>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해1

변수	학대				지속적 학대			
	모형		설명		모형		설명	
	Base	Full	설명된 부분	설명 비중(%)	Base	Full	설명된 부분	설명 비중(%)
학대 여부	-0.096*** (0.037)	-0.049* (0.029)	-0.048 (0.025)	100	-0.095** (0.046)	0.014 (0.034)	-0.109 (0.034)	100
Covariates								
중2 국영수 평균점수	x	o	-0.006 (0.004)	12.5	x	o	-0.018 (0.008)	16.5
장래희망 교육수준 (본인)	x	o	-0.023 (0.019)	47.9	x	o	-0.052 (0.026)	47.7
장래희망 교육수준 (보호자)	x	o	-0.003 (0.004)	6.3	x	o	-0.004 (0.005)	3.7
주당 교외학습시간, 학습활동	x	o	-0.006 (0.005)	12.5	x	o	-0.018 (0.008)	16.5
부모 양육 비일관성	x	o	-0.009 (0.009)	18.8	x	o	-0.017 (0.016)	15.6

<표 3-13>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해2

변수	학대				지속적 학대			
	모형		설명		모형		설명	
	Base	Full	설명된 부분	설명 비중(%)	Base	Full	설명된 부분	설명 비중(%)
학대 여부	-0.096*** (0.037)	-0.053 (0.034)	-0.043 (0.018)	100	-0.095** (0.046)	0.019 (0.044)	-0.114 (0.026)	100
Covariates								
중2 국영수 평균점수	x	o	-0.016 (0.008)	37.2	x	o	-0.048 (0.013)	42.1
주당 교외학습시간, 학습활동	x	o	-0.015 (0.01)	34.9	x	o	-0.043 (0.015)	37.7
부모 양육 비일관성	x	o	-0.013 (0.011)	30.2	x	o	-0.023 (0.02)	20.2

4-2. 집단별 분석결과

<표 3-14>는 대학 진학자들만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4-1에서의 분석과 달리 진학자들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2~3년제 대학이든 4년제 대학이든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요인과, 대학에 진학한다고 했을 때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진학자만 대상으로 할 경우 '학대' 그룹은 4년제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반면, '지속적 학대' 그룹은 유의한 영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 학대' 그룹에 속할 경우 2~3년제 대학 진학 대비 4년제 대학 진학이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학 자체가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51]. 한편, '학대' 그룹에 속할 경우의 영향은 본인의 장래희망 교육수준이나 부모 양육 비일관성 변수를 통제할 때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3-15>).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진학자들만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Gelbach(2016) 요인분해를 실시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16> 및 <표 3-17>과 같다. 이에 따르면, 본인과 보호자의 장래희망 교육수준 변수를 잠재적 경로변수로 포함시킨 경우, 본인의 장래희망 교육수준이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을 제약하는 영향의 약 60%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부모 양육 비일관성이 24%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3 시기 장래희망 교육수준 변수는 학습에 대한 열의 외에 성적과 가정환경 등의 요소를 모두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래희망 교육수준' 변수를 제외한 분석도 실시해 보았다. 이 때에는 부모 양육 비일관성 변수가 부모 학대의 영향을 약 52% 설명하였고, 중2 성적 변수가 29%, 주당 교외시간 및 학습활동 변수가 약 19%를 설명하였다.

---

51) 또한 이 그룹에 속하는 관측치 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볼 수 있음. 실제 (1)번 모형에서 지속적 학대 그룹의 t값은 1.63으로 10% 유의수준 임계값인 1.645에 근접하며, 따라서 지속적 학대 그룹이 영향을 전혀 갖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3-14>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진학자 한정)

변수		(1)	(2)	(3)	(4)
		4년제 진학	4년제 진학	4년제 진학	4년제 진학
피학대 (준거= 학대x)	학대	-0.094**	-0.086**	-0.084**	
		(0.039)	(0.037)	(0.038)	
	지속적 학대	-0.083	-0.054	-0.081*	
		(0.051)	(0.048)	(0.048)	
성별: 여학생			-0.042	-0.050	-0.037
			(0.032)	(0.032)	(0.032)
부 연령 40세 이하 여부			0.17	0.12	0.072
			(0.14)	(0.14)	(0.12)
모 연령 40세 이하 여부			-0.077		
			(0.056)		
부 학력 고졸 이하 여부			-0.045		
			(0.043)		
모 학력 대졸 이상 여부			0.090**	0.12***	0.12***
			(0.040)	(0.035)	(0.035)
부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군인		-0.075	-0.089*	-0.099**
			(0.046)	(0.046)	(0.047)
	서비스·판매직		-0.058	-0.092**	-0.11**
			(0.049)	(0.047)	(0.047)
	생산직		-0.047	-0.077*	-0.090**
			(0.046)	(0.045)	(0.045)
	무직		0.12	0.100	0.024
			(0.16)	(0.16)	(0.16)
모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군인		-0.063		
			(0.058)		
	서비스·판매직		-0.081		
			(0.053)		
	생산직		-0.089		
			(0.063)		
	무직		0.034		
			(0.044)		
연평균 가구소득 3,600만원 이하 여부			-0.045	-0.052	-0.082**
			(0.043)	(0.043)	(0.042)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0.0028***	0.0030***	0.0030***
			(0.00081)	(0.00085)	(0.00087)
고3 거주지 (준거= 읍면)	도지역		-0.11**	-0.092*	-0.095*
			(0.050)	(0.050)	(0.049)
	대도시		-0.16***	-0.14***	-0.14***
			(0.051)	(0.051)	(0.051)
	수도권		-0.23***	-0.21***	-0.23***
			(0.055)	(0.056)	(0.055)
다문화가정 (1=다문화)			-0.053	-0.12	-0.11

		(0.26)	(0.24)	(0.25)
형제자매 (1=없음)		0.069 (0.061)	0.078 (0.063)	0.087 (0.065)
보호자건강 (1=건강x)		-0.082* (0.046)	-0.071 (0.045)	
보호자 삶 만족: x		-0.061 (0.039)	-0.073* (0.039)	
중학교 전학경험		-0.029 (0.12)	-0.018 (0.12)	
고등학교 전학경험		-0.0040 (0.11)	-0.0069 (0.12)	
비행피해 (1=있음)		0.010 (0.040)	0.013 (0.040)	
건강문제 (1=있음)		0.049 (0.033)	0.054 (0.033)	
상수	0.72*** (0.020)	0.84*** (0.075)	0.79*** (0.066)	0.77*** (0.063)
관측치 수	1,004	1,004	1,004	1,004
R^2	0.009	0.123	0.107	0.089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3-15>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2
(진학자 한정)

변수		(5) 4년제 진학	(6) 4년제 진학	(7) 4년제 진학	(8) 4년제 진학	(9) 4년제 진학	(10) 4년제 진학
피학대 (준거=학대x)	학대	-0.072**	-0.053*	-0.068*	-0.071**	-0.053	-0.044
		(0.036)	(0.030)	(0.035)	(0.036)	(0.037)	(0.029)
	지속적 학대	0.014	-0.00064	0.0060	0.023	0.052	0.020
		(0.046)	(0.034)	(0.046)	(0.045)	(0.051)	(0.034)
성별: 여학생		-0.051*	-0.046*	-0.053*	-0.083***	-0.056*	-0.061**
		(0.031)	(0.024)	(0.030)	(0.030)	(0.031)	(0.024)
중2 국영수 평균점수		0.015***	0.0056***	0.013***	0.010***	0.015***	0.0036**
		(0.0017)	(0.0014)	(0.0017)	(0.0019)	(0.0017)	(0.0015)
장래희망 교육수준 (준거=고졸)	초대졸		-0.094				-0.10
			(0.14)				(0.14)
	대졸이상		0.62***				0.56***
			(0.14)				(0.14)
	미정		0.47***				0.43***
			(0.15)				(0.15)
장래희망 교육수준 (보호자, 준거=고졸)	초대졸			-0.14			-0.31
				(0.20)			(0.19)
	대졸이상			0.23			-0.15
				(0.20)			(0.19)
	미정			0.17			-0.18
				(0.20)			(0.19)
주당 교외학습시간					0.0077***		0.0027**
					(0.0015)		(0.0012)
학교적응: 학습활동					0.078**		0.025
					(0.031)		(0.026)
부모 양육 비일관성						0.074*	0.039
						(0.039)	(0.029)
상수		-0.36**	-0.12	-0.39	-0.32*	-0.56***	0.034
		(0.16)	(0.18)	(0.25)	(0.17)	(0.19)	(0.27)
통제변수		부 연령 40세 이하 여부, 모 연령 40세 이하 여부, 부 학력 고졸 이하 여부, 모 학력 대졸 이상 여부, 부 직업, 모 직업, 연평균 가구소득 3,600만원 이하 여부, 월평균 사교육비, 고3 거주지, 다문화가정 여부, 형제자매 여부, 보호자 건강여부, 보호자 삶 만족도 여부, 중학교/고등학교 전학경험 여부, 비행피해 유무, 건강문제 유무					
관측치 수		1,004	1,004	1,004	1,004	1,004	1,004
R^2		0.214	0.519	0.254	0.256	0.219	0.533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3-16>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해1(진학자 한정)

변수	학대			
	모형		설명	
	Base	Full	설명된 부분	설명 비중(%)
학대 여부	-0.086 (0.037)	-0.044 (0.029)	-0.042 (0.027)	100
Covariates				
중2 국영수 평균점수	x	o	-0.003 (0.003)	7.1
장래희망 교육수준 (본인)	x	o	-0.025 (0.022)	59.5
장래희망 교육수준 (보호자)	x	o	-0.001 (0.004)	2.4
주당 교외학습시간, 학습활동	x	o	-0.002 (0.003)	4.8
부모 양육 비일관성	x	o	-0.01 (0.007)	23.8

<표 3-17>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해2(진학자 한정)

변수	학대			
	모형		설명	
	Base	Full	설명된 부분	설명 비중(%)
학대 여부	-0.086 (0.037)	-0.055 (0.036)	-0.031 (0.017)	100
Covariates				
중2 국영수 평균점수	x	o	-0.009 (0.008)	29.0
주당 교외학습시간, 학습활동	x	o	-0.006 (0.009)	19.4
부모 양육 비일관성	x	o	-0.016 (0.01)	51.6

또한 성별에 따라 부모의 학대가 대학 진학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을 대상으로만 분석을 시행해 보기도 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3-18>~<표 3-21>이다. 우선 남학생의 경우(<표 3-18>), 통제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1)번 모형에서는 학대를 당한 경우('학대' 및 '지속적 학대' 그룹 모두) 4년제대학 진학 확률을 각각 13%와 14% 떨어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번 모형에서 개인 및 가구특성을 통제하자 해당 변수의 유의성은 사라졌다.[52]이는 남학생의 경우 부정적인 가정환경이 학대를 유발하고 4년제 대학 진학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표 3-15>), (1)번 모형(대학진학 가능성이 '학대' 그룹은 12%, '지속적 학대' 그룹은 17% 떨어짐)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가구 특성을 통제한 (2)번 모형에서도 학대가 4년제 대학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 정도는 피학대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4년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9.3%('학대' 그룹)~13%('지속적 학대' 그룹) 정도 감소하는 수준이었다.[53]

이처럼 '지속적 학대' 그룹의 부정적인 영향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받은 학대의 강도나 빈도가 더 높았을 가능성과 또는 동일한 수준의 학대를 받았더라도 여학생이 학대에 있어 더 취약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학대를 받은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지속적 학대' 그룹의 개인들 중 피학대 여부를 묻는 문항[54]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비중에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55]. 이후 학대 경험이 있을 경우 더

52) 다만 '학대' 그룹의 경우 t값이 1.63으로 유의수준 10%의 임계값과 큰 차이가 없어, 이 그룹이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갖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53) 표본이탈을 감안하면(부록 3-2 참고), 이 역시 과소추정된 수치일 가능성이 존재함.
54)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55) 물론 이와 같은 설문 응답에 반영되지 않은 학대 강도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

많은 표본이탈이 일어나고 이러한 표본이탈에 성별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표본이탈에 관한 분석도 실시해보았으나(부록 3-2 참고), 표본이탈 역시 남학생은 부모의 학대가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여학생은 표본이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지속적 학대' 그룹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은 성별 간에 학대라는 충격(shock)에 차이가 있었다기보다는 충격에 대한 반응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며, 그 반응이 표본이탈에서의 차이와 4년제 대학 진학 성과 저하 차이라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대로부터 더욱 취약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피학대 경험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간 차이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MacMillan et al.(2001)은 아동기 신체적 및 성적 학대 경험이 정신병리적 문제 발생을 높일 수 있는데, 이 영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해외의 일반적인 피학대 경험이 성인기 사회경제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이루어진 연구 중에는 학대 영향의 성별 간 차이를 언급한 논문들이 있으며, 그 중 Currie & Widom(2010)은 학대 및 방임의 부정적인 영향이 여성에게서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만을 가지고 피학대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이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심각한 신체적 학대 경험은 남성들의 고용확률만 감소시킨다고 주장한 연구(Tanaka et al., 2011)처럼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 장에서는 분석결과에 있어 왜 남녀 차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우선 <표 3-18>과 <표 3-20>의 (2)번 모형 기준으로 각각 $\widehat{y_{male}}$과 $\widehat{y_{female}}$을 구하고, 이를 일종의 대학진학 환경점수로 보았다. 이 때 성별 간 학대그룹별 대학진학 환경점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22>). 그러나 대학진학 환경점수가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살펴보면(<표 3-23>), '지속적 학대' 그룹에 속할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대학 진학에 있어 대학진학 환경점수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학대' 그룹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환경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힘'을 감소시킴으로써 여학생에게 보다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도 자아탄력성 항목의 경우 남학생은 학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데 비해, 여학생은 '지속적 학대' 그룹에 속할 때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표 3-18>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남학생)

변수		(1)	(2)	(3)	(4)
		4년제 진학	4년제 진학	4년제 진학	4년제 진학
피학대 (준거= 학대x)	학대	-0.13**	-0.083	-0.084	
		(0.055)	(0.051)	(0.052)	
	지속적 학대	-0.14**	-0.081	-0.11*	
		(0.064)	(0.063)	(0.061)	
부 연령 40세 이하 여부			0.17	0.076	0.0064
			(0.20)	(0.20)	(0.18)
모 연령 40세 이하 여부			-0.11		
			(0.082)		
부 학력 고졸 이하 여부			-0.098*		
			(0.058)		
모 학력 대졸 이상 여부			0.056	0.11**	0.13**
			(0.059)	(0.054)	(0.053)
부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군인		-0.11	-0.13*	-0.14**
			(0.072)	(0.070)	(0.071)
	서비스·판매직		-0.18**	-0.21***	-0.22***
			(0.073)	(0.069)	(0.071)
	생산직		-0.014	-0.057	-0.075
			(0.066)	(0.063)	(0.067)
	무직		0.021	-0.019	-0.11
			(0.16)	(0.16)	(0.17)
모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군인		-0.029		
			(0.086)		
	서비스·판매직		-0.063		
			(0.077)		
	생산직		-0.052		
			(0.088)		
	무직		0.010		
			(0.067)		

연평균 가구소득 3,600만원 이하 여부			−0.083 (0.061)	−0.097 (0.059)	−0.13** (0.059)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0.0036*** (0.0013)	0.0036*** (0.0014)	0.0037*** (0.0014)
고3 거주지 (준거= 읍면)	도지역		0.018 (0.075)	0.029 (0.073)	0.036 (0.072)
	대도시		−0.088 (0.076)	−0.072 (0.075)	−0.060 (0.074)
	수도권		−0.046 (0.083)	−0.030 (0.083)	−0.044 (0.083)
다문화가정 (1=다문화)			−0.37* (0.22)	−0.37* (0.20)	−0.42** (0.20)
형제자매 (1=없음)			0.12 (0.091)	0.15 (0.093)	0.15 (0.095)
보호자건강 (1=건강x)			−0.14** (0.059)	−0.14** (0.058)	
보호자 삶 만족: x			−0.057 (0.053)	−0.059 (0.054)	
중학교 전학경험			−0.059 (0.16)	−0.081 (0.15)	
고등학교 전학경험			−0.090 (0.17)	−0.090 (0.17)	
비행피해 (1=있음)			0.0023 (0.050)	0.0042 (0.051)	
건강문제 (1=있음)			0.053 (0.048)	0.048 (0.047)	
상수		0.65*** (0.035)	0.66*** (0.11)	0.60*** (0.10)	0.54*** (0.091)
관측치 수		560	560	560	560
R^2		0.018	0.181	0.167	0.134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3-19>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2

(남학생)

변수		(5) 4년제 진학	(6) 4년제 진학	(7) 4년제 진학	(8) 4년제 진학	(9) 4년제 진학	(10) 4년제 진학
피학대 (준거=학대x)	학대	-0.034	-0.042	-0.025	-0.030	-0.022	-0.026
		(0.050)	(0.041)	(0.047)	(0.049)	(0.049)	(0.038)
	지속적 학대	0.020	0.028	0.016	0.023	0.042	0.041
		(0.060)	(0.049)	(0.060)	(0.059)	(0.067)	(0.048)
중2 국영수 평균점수		0.016***	0.0076***	0.014***	0.010***	0.016***	0.0051**
		(0.0023)	(0.0020)	(0.0023)	(0.0025)	(0.0023)	(0.0023)
장래희망 교육수준 (준거=고졸)	초대졸		0.040				0.017
			(0.048)				(0.054)
	대졸이상		0.69***				0.62***
			(0.055)				(0.064)
	미정		0.39***				0.35***
			(0.084)				(0.086)
장래희망 교육수준 (보호자, 준거=고졸)	초대졸			0.12			-0.098
				(0.077)			(0.068)
	대졸이상			0.47***			0.11**
				(0.064)			(0.052)
	미정			0.34***			0.019
				(0.085)			(0.068)
주당 교외학습시간					0.0094***		0.0024
					(0.0022)		(0.0018)
학교적응: 학습활동					0.067*		0.040
					(0.040)		(0.032)
부모 양육 비일관성						0.042	0.027
						(0.058)	(0.046)
상수		-0.62***	-0.44***	-0.85***	-0.52**	-0.74***	-0.50**
		(0.21)	(0.16)	(0.20)	(0.22)	(0.26)	(0.20)
통제변수		부 연령 40세 이하 여부, 모 연령 40세 이하 여부, 부 학력 고졸 이하 여부, 모 학력 대졸 이상 여부, 부 직업, 모 직업, 연평균 가구소득 3,600만원 이하 여부, 월평균 사교육비, 고3 거주지, 다문화가정 여부, 형제자매 여부, 보호자 건강여부, 보호자 삶 만족도 여부, 중학교/고등학교 전학경험 여부, 비행피해 유무, 건강문제 유무					
관측치 수		560	560	560	560	560	560
R^2		0.270	0.546	0.322	0.317	0.272	0.566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3-20>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여학생)

변수		(1) 4년제 진학	(2) 4년제 진학	(3) 4년제 진학	(4) 4년제 진학
피학대 (준거= 학대x)	학대	-0.12**	-0.093*	-0.091*	
		(0.054)	(0.051)	(0.053)	
	지속적 학대	-0.17**	-0.13*	-0.13*	
		(0.074)	(0.068)	(0.067)	
부 연령 40세 이하 여부			0.096	0.032	0.011
			(0.18)	(0.17)	(0.17)
모 연령 40세 이하 여부			-0.11*		
			(0.060)		
부 학력 고졸 이하 여부			-0.033		
			(0.056)		
모 학력 대졸 이상 여부			0.039	0.086*	0.100**
			(0.056)	(0.049)	(0.049)
부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군인		0.018	0.0065	0.010
			(0.061)	(0.064)	(0.065)
	서비스·판매직		-0.0032	-0.036	-0.042
			(0.064)	(0.062)	(0.063)
	생산직		-0.087	-0.12**	-0.13**
			(0.061)	(0.061)	(0.061)
	무직		0.35	0.33	0.29
			(0.30)	(0.30)	(0.25)
모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군인		-0.097		
			(0.074)		
	서비스·판매직		-0.12*		
			(0.070)		
	생산직		-0.20***		
			(0.077)		
	무직		-0.024		
			(0.061)		
연평균 가구소득 3,600만원 이하 여부			-0.0074	-0.021	-0.063
			(0.054)	(0.053)	(0.051)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0.0037***	0.0039***	0.0038***
			(0.0011)	(0.0011)	(0.0011)
고3 거주지 (준거= 읍면)	도지역		-0.20***	-0.18***	-0.17***
			(0.061)	(0.061)	(0.061)
	대도시		-0.17***	-0.16**	-0.14**
			(0.063)	(0.062)	(0.063)
	수도권		-0.37***	-0.36***	-0.36***
			(0.065)	(0.066)	(0.065)
다문화가정 (1=다문화)			-0.18	-0.22	-0.28
			(0.24)	(0.20)	(0.22)
형제자매 (1=없음)			0.088	0.091	0.10
			(0.086)	(0.085)	(0.085)

보호자건강 (1=건강x)		0.021 (0.060)	0.021 (0.061)	
보호자 삶 만족: x		-0.13*** (0.049)	-0.14*** (0.050)	
중학교 전학경험		-0.070 (0.15)	-0.047 (0.15)	
고등학교 전학경험		-0.076 (0.20)	-0.046 (0.20)	
비행피해 (1=있음)		-0.059 (0.060)	-0.059 (0.060)	
건강문제 (1=있음)		0.015 (0.042)	0.031 (0.043)	
상수	0.66*** (0.027)	0.89*** (0.097)	0.77*** (0.077)	0.71*** (0.075)
관측치 수	588	588	588	588
R^2	0.018	0.185	0.161	0.132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3-21>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2

(여학생)

변수		(5) 4년제 진학	(6) 4년제 진학	(7) 4년제 진학	(8) 4년제 진학	(9) 4년제 진학	(10) 4년제 진학
피학대 (준거=학대x)	학대	-0.091*	-0.069	-0.095**	-0.092*	-0.072	-0.069
		(0.048)	(0.045)	(0.048)	(0.047)	(0.049)	(0.044)
	지속적 학대	-0.074	-0.042	-0.060	-0.030	-0.042	-0.0038
		(0.064)	(0.052)	(0.062)	(0.059)	(0.067)	(0.050)
중2 국영수 평균점수		0.017***	0.0068***	0.015***	0.010***	0.017***	0.0038*
		(0.0021)	(0.0021)	(0.0022)	(0.0025)	(0.0021)	(0.0022)
장래희망 교육수준 (준거=고졸)	초대졸		0.027				-0.018
			(0.039)				(0.045)
	대졸이상		0.64***				0.53***
			(0.051)				(0.062)
	미정		0.43***				0.35***
			(0.082)				(0.083)
장래희망 교육수준 (보호자, 준거=고졸)	초대졸			0.098			-0.019
				(0.094)			(0.11)
	대졸이상			0.39***			0.13
				(0.094)			(0.11)
	미정			0.29***			0.095
				(0.10)			(0.11)
주당 교외학습시간					0.011***		0.0061***
					(0.0019)		(0.0018)
학교적응: 학습활동					0.062		-0.0034
					(0.040)		(0.036)
부모 양육 비일관성						0.066	0.043
						(0.046)	(0.041)
상수		-0.46**	-0.24	-0.63***	-0.36	-0.64***	-0.25
		(0.21)	(0.17)	(0.21)	(0.22)	(0.24)	(0.23)
통제변수		부 연령 40세 이하 여부, 모 연령 40세 이하 여부, 부 학력 고졸 이하 여부, 모 학력 대졸 이상 여부, 부 직업, 모 직업, 연평균 가구소득 3,600만원 이하 여부, 월평균 사교육비, 고3 거주지, 다문화가정 여부, 형제자매 여부, 보호자 건강여부, 보호자 삶 만족도 여부, 중학교/고등학교 전학경험 여부, 비행피해 유무, 건강문제 유무					
관측치 수		588	588	588	588	588	588
R^2		0.287	0.490	0.321	0.350	0.290	0.516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3-22> 성별, 학대그룹별 대학진학 환경점수

	남			여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학대 x	259	0.65	0.19	390	0.66	0.20
학대	186	0.53	0.20	137	0.54	0.20
지속적 학대	115	0.51	0.22	61	0.49	0.18

<표 3-23> 성별, 학대그룹별 대학진학 환경점수가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 (OLS분석 계수)

	남			여		
	관측치수	계수	표준오차	관측치수	계수	표준오차
학대 x	259	5.4	0.9	390	5.3	0.8
학대	186	5.9	1.1	137	3.6	1.0
지속적 학대	115	3.4	1.3	61	7.0	2.4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자녀의 대학(2~3년제 대학 포함) 진학에 있어서는 개인특성변수와 가구특성 변수를 통제할 때 '지속적 학대' 그룹만 진학 가능성이 7.6% 감소하였다. 다만 가구특성 변수로 통제되지 않는 과거의 가정 특성이 있으며 이것이 조사 이전 시점의 학대와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면, 본 추정치는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본 영향은 중2 성적을 통제할 경우 그 유의성을 잃게 되는데, 이는 '지속적 학대' 그룹의 경우 학대가 중학교 이전부터 지속되어왔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포함한 과거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이 중2 성적에 반영되어 대학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년제 대학 진학에 있어서는, 개인특성 변수와 가구특성 변수를 통제할 때 '학대' 그룹과 '지속적 학대' 그룹의 부정적인 영향은 모두 유의하였으며 각각 진학 가능성을 9.6% 및 9.5% 감소시켰다[56]. 여기에 중2 성

56)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진학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과대추정 가능성 존재

적을 통제할 경우 '지속적 학대' 그룹은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진학 분석 결과와 같이 그 유의성을 잃지만, '학대' 그룹의 영향은 여전히 유의하였다. 한편,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을 제약하는 주요한 경로는 학생 본인의 '장래희망 교육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장래희망 교육수준에는 학생의 성적 수준과 가정환경 등도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변수를 제외하고 경로를 분석할 경우, 학대를 포함한 과거의 환경을 보여주는 중2 성적 변수가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고, 다음으로 학업 의지를 보여주는 교외학습시간 및 학습활동, 그리고 부모 양육 비일관성 순이었다.

대학 진학자들만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해보면 '학대' 그룹은 4년제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반면, '지속적 학대 그룹은 그 유의성이 10% 유의수준의 경계 지점에 있었다. 이는 '지속적 학대' 그룹에 속할 경우 2~3년제 대학 진학 대비 4년제 대학 진학이 제약을 받기보다 진학 자체가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진학자들만 대상으로 경로 분석을 실시해보았을 때에도 '장래희망 교육수준' 변수가 경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으며, 이를 제외하였을 때에는 부모 양육 비일관성 변수가 가장 설명력이 높고 중2 성적 변수가 그 다음이었다. 성별로 분석해보았을 때는, '지속적 학대' 그룹의 부정적인 영향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크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지속적 학대' 그룹에 속할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환경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힘'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절 결론

본 장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면 어떠한 경로를 매개로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개인특성변수와 가구특성변수를 통제할 때, 자녀의 대학(2~3년제 대학 포함)에 대해서는 '지속적 학대'가, 4년제 대학에 대해서는 '학대'와 '지속적 학대'가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만 가구특성 변수로 통제되지 않는 과거의 가정 특성이 있을 경우 이들 추정치는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중2 성적을 통제할 경우 '학대' 그룹은 여전히 그 영향이 유의한 반면 '지속적 학대' 그룹은 그 유의성을 잃는다. 이는 '지속적 학대' 그룹의 경우 학대가 중학교 이전부터 지속되어왔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포함한 과거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이 중2 성적에 반영되어 대학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요소는 학생 본인의 '장래희망 교육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변수에 이미 학생의 성적과 가정환경 등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 변수를 제외할 경우, 학대를 포함한 과거의 환경을 보여주는 중2 성적 변수가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학업 의지를 보여주는 교외학습시간 및 학습활동, 그리고 부모 양육 비일관성 순이었다. 한편, '지속적 학대' 그룹에 속할 경우 2~3년제 대학 진학 대비 4년제 대학 진학이 제약을 받기보다 진학 자체가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해당 그룹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지속적 학대' 그룹에 속할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환경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힘'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비록 부모 학대가 자녀의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여러 가구 특성 변수들을 통제하였으나, 이들 변수로 통제되지 않는 과거의 가정 특성 및 개인의 타고난 능력이 있으며 이것이 조사 이전 시점의 학대와 진학에 영향

을 미친다면, 본 추정치는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부모의 학대는, 특히 심각한 학대일수록 자녀의 사회적 배제 가능성을 높이며, 이것이 표본 이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부록 3-2의 표본 이탈 분석에서도 피학대 경험이 있고 성적이 낮을수록 이탈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학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은 표본이 본 장의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을 수 있으므로 본 장의 분석결과는 피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과소추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본 장의 분석에서는 학대가 이루어진 정확한 시기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분석에서 사용된 학대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학대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우선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 성과에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분석모형에서 중2 성적을 통제함으로써 그 영향을 보수적으로 추정하였을 때에도 '학대' 그룹은 4년제 대학 진학에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소 외에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비인지적인 측면도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개인의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을 제약한다는 점을 통해 학대가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경로가 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앞서 제2장의 '부모의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 분석에서 취약계층에 속할 경우 아버지의 무직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고, 또한 본 장에서 학대가 자녀의 진학 성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세대를 걸쳐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와 해당 영향에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학대' 그룹과 '지속적 학대' 그룹이 대학 진학 및 4년제

대학 진학을 제약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해 본 분석에서 밝힘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도 제공하였다고 본다.

부록 3-1. 강건성 검증: 로짓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

<부표 3-1>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로짓 분석)

변수		(1)		(2)		(3)		(4)	
		4년제 진학	한계 효과	4년제 진학	한계 효과	4년제 진학	한계 효과	4년제 진학	한계 효과
피학대 (준거= 학대x)	학대	-0.52***	-0.13***	-0.46***	-0.095***	-0.45***	-0.095***		
		(0.16)	(0.038)	(0.17)	(0.036)	(0.17)	(0.037)		
	지속적 학대	-0.64***	-0.15***	-0.45**	-0.093**	-0.55***	-0.12***		
		(0.20)	(0.048)	(0.21)	(0.045)	(0.21)	(0.044)		
성별: 여학생				0.14	0.029	0.088	0.018	0.19	0.041
				(0.15)	(0.031)	(0.15)	(0.031)	(0.14)	(0.031)
부 연령 40세 이하 여부				0.78	0.15	0.36	0.072	0.13	0.027
				(0.60)	(0.10)	(0.62)	(0.12)	(0.54)	(0.11)
모 연령 40세 이하 여부				-0.50**	-0.10**				
				(0.23)	(0.048)				
부 학력 고졸 이하 여부				-0.25	-0.053				
				(0.19)	(0.040)				
모 학력 대졸 이상 여부				0.27	0.056	0.47***	0.098***	0.51***	0.11***
				(0.20)	(0.042)	(0.18)	(0.036)	(0.17)	(0.037)
부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군인			-0.25	-0.051	-0.31	-0.062	-0.31	-0.065
				(0.25)	(0.049)	(0.24)	(0.049)	(0.24)	(0.050)
	서비스·판매직			-0.47*	-0.096*	-0.59**	-0.12**	-0.62***	-0.13***
				(0.25)	(0.050)	(0.23)	(0.048)	(0.23)	(0.049)
	생산직			-0.30	-0.060	-0.44**	-0.091**	-0.52**	-0.11**
				(0.23)	(0.045)	(0.22)	(0.044)	(0.22)	(0.045)
	무직			0.74	0.13	0.55	0.098	0.18	0.034
				(0.74)	(0.11)	(0.72)	(0.12)	(0.66)	(0.12)
모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군인			-0.34	-0.070				
				(0.29)	(0.060)				
	서비스·판매직			-0.42	-0.086				
				(0.27)	(0.055)				
	생산직			-0.58*	-0.12*				
				(0.30)	(0.062)				
	무직			-0.047	-0.0094				
				(0.25)	(0.049)				
연평균 가구소득 3,600만원 이하 여부				-0.20	-0.041	-0.25	-0.053	-0.40**	-0.088**
				(0.19)	(0.040)	(0.18)	(0.039)	(0.17)	(0.039)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0.020***	0.0041***	0.020***	0.0042***	0.020***	0.0043***
				(0.0053)	(0.0010)	(0.0054)	(0.0011)	(0.0054)	(0.0011)
고3 거주지 (준거= 읍면)	도지역			-0.48**	-0.088**	-0.39*	-0.074*	-0.39*	-0.076*
				(0.24)	(0.042)	(0.23)	(0.042)	(0.22)	(0.042)
	대도시			-0.69***	-0.13***	-0.58**	-0.11***	-0.55**	-0.11**
				(0.24)	(0.043)	(0.23)	(0.043)	(0.23)	(0.044)
	수도권			-1.08***	-0.21***	-1.00***	-0.20***	-1.05***	-0.22***
				(0.26)	(0.048)	(0.25)	(0.048)	(0.25)	(0.047)

다문화가정 (1=다문화)			-0.92 (0.86)	-0.19 (0.18)	-1.06 (0.75)	-0.22 (0.16)	-1.19 (0.86)	-0.25 (0.18)
형제자매 (1=없음)			0.59 (0.36)	0.12 (0.074)	0.66* (0.38)	0.14* (0.078)	0.72* (0.39)	0.15* (0.082)
보호자건강 (1=건강x)			-0.34* (0.19)	-0.070* (0.041)	-0.32* (0.19)	-0.067* (0.041)		
보호자 삶 만족: x			-0.43** (0.17)	-0.091** (0.036)	-0.46*** (0.17)	-0.099*** (0.037)		
중학교 전학경험			-0.36 (0.51)	-0.073 (0.10)	-0.32 (0.48)	-0.067 (0.100)		
고등학교 전학경험			-0.29 (0.66)	-0.059 (0.13)	-0.26 (0.64)	-0.053 (0.13)		
비행피해 (1=있음)			-0.080 (0.18)	-0.016 (0.038)	-0.072 (0.18)	-0.015 (0.038)		
건강문제 (1=있음)			0.17 (0.15)	0.034 (0.031)	0.19 (0.15)	0.039 (0.032)		
상수	0.65*** (0.094)		1.17*** (0.40)		0.77** (0.34)		0.47 (0.31)	
관측치 수	1,148		1,148		1,148		1,148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표 3-2>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2 (로짓 분석)

변수		(1)		(2)		(3)	
		4년제진학	한계효과	4년제진학	한계효과	4년제진학	한계효과
피학대 (준거=학대x)	학대	-0.38** (0.19)	-0.069** (0.035)	-0.48* (0.25)	-0.057* (0.030)	-0.40** (0.19)	-0.068** (0.033)
	지속적 학대	-0.072 (0.23)	-0.013 (0.042)	-0.074 (0.30)	-0.0082 (0.034)	-0.10 (0.25)	-0.018 (0.041)
성별: 여학생		0.080 (0.17)	0.014 (0.030)	-0.012 (0.23)	-0.0014 (0.026)	0.037 (0.17)	0.0062 (0.029)
부 연령 40세 이하 여부		0.72 (0.63)	0.12 (0.098)	1.50*** (0.52)	0.14*** (0.039)	1.04 (0.84)	0.16 (0.11)
모 연령 40세 이하 여부		-0.44** (0.22)	-0.080* (0.041)	-0.37 (0.28)	-0.045 (0.035)	-0.42* (0.23)	-0.072* (0.041)
부 학력 고졸 이하 여부		-0.39* (0.21)	-0.071* (0.039)	-0.28 (0.26)	-0.032 (0.030)	-0.30 (0.21)	-0.051 (0.037)
모 학력 대졸 이상 여부		0.035 (0.23)	0.0063 (0.041)	-0.11 (0.27)	-0.013 (0.032)	0.042 (0.23)	0.0071 (0.038)
부 직업 (준거=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군인	-0.27 (0.26)	-0.048 (0.047)	-0.038 (0.34)	-0.0043 (0.039)	-0.36 (0.26)	-0.060 (0.044)
	서비스·판매직	-0.50* (0.27)	-0.091* (0.048)	-0.38 (0.33)	-0.046 (0.040)	-0.53* (0.27)	-0.088* (0.046)
	생산직	-0.23 (0.25)	-0.041 (0.043)	0.045 (0.31)	0.0050 (0.035)	-0.27 (0.26)	-0.044 (0.042)
	무직	0.92 (0.91)	0.14 (0.12)	0.98 (1.25)	0.095 (0.11)	0.91 (0.91)	0.13 (0.11)

모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군인	-0.31	-0.056	-0.57	-0.066	-0.36	-0.061
		(0.31)	(0.056)	(0.41)	(0.047)	(0.31)	(0.053)
	서비스·판매직	-0.27	-0.049	-0.28	-0.031	-0.27	-0.046
		(0.29)	(0.053)	(0.39)	(0.042)	(0.30)	(0.050)
	생산직	-0.36	-0.065	-0.82**	-0.099**	-0.39	-0.067
		(0.33)	(0.061)	(0.42)	(0.050)	(0.34)	(0.059)
	무직	0.034	0.0060	-0.16	-0.017	0.089	0.015
		(0.26)	(0.047)	(0.37)	(0.040)	(0.27)	(0.045)
연평균 가구소득 3,600만원 이하 여부		-0.10	-0.019	0.10	0.012	-0.037	-0.0063
		(0.20)	(0.037)	(0.25)	(0.028)	(0.21)	(0.035)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0.012**	0.0022**	0.018***	0.0020***	0.0079	0.0013
		(0.0054)	(0.00096)	(0.0058)	(0.00066)	(0.0053)	(0.00089)
고3 거주지 (준거= 읍면)	도지역	-0.43	-0.071*	-0.34	-0.035	-0.39	-0.060
		(0.26)	(0.042)	(0.29)	(0.028)	(0.28)	(0.041)
	대도시	-0.71***	-0.12***	-0.84***	-0.092***	-0.85***	-0.14***
		(0.27)	(0.043)	(0.29)	(0.031)	(0.28)	(0.042)
	수도권	-1.01***	-0.18***	-0.95***	-0.11***	-0.97***	-0.16***
		(0.30)	(0.049)	(0.33)	(0.037)	(0.32)	(0.048)
다문화가정 (1=다문화)		-0.66	-0.12	-1.09	-0.13	-0.67	-0.11
		(0.70)	(0.13)	(0.84)	(0.097)	(0.77)	(0.13)
형제자매 (1=없음)		0.65*	0.12*	0.27	0.031	0.60*	0.10*
		(0.35)	(0.063)	(0.37)	(0.043)	(0.34)	(0.058)
보호자건강 (1=건강x)		-0.36*	-0.067*	-0.59**	-0.072**	-0.29	-0.049
		(0.21)	(0.039)	(0.26)	(0.034)	(0.22)	(0.039)
보호자 삶 만족: x		-0.31*	-0.056*	-0.30	-0.036	-0.22	-0.038
		(0.18)	(0.034)	(0.23)	(0.028)	(0.19)	(0.032)
중학교 전학경험		-0.31	-0.056	-1.05*	-0.12*	-0.31	-0.052
		(0.59)	(0.11)	(0.62)	(0.072)	(0.61)	(0.10)
고등학교 전학경험		-0.18	-0.032	-0.070	-0.0081	0.020	0.0033
		(0.59)	(0.11)	(0.84)	(0.097)	(0.62)	(0.10)
비행피해 (1=있음)		0.0022	0.00040	-0.24	-0.028	-0.095	-0.016
		(0.20)	(0.036)	(0.23)	(0.026)	(0.21)	(0.035)
건강문제 (1=있음)		0.18	0.032	0.087	0.010	0.18	0.030
		(0.17)	(0.030)	(0.22)	(0.025)	(0.17)	(0.028)
중2 국영수 평균점수		0.082***	0.015***	0.051***	0.0058***	0.075***	0.013***
		(0.0089)	(0.0013)	(0.011)	(0.0012)	(0.0092)	(0.0013)
장래희망 교육수준 (준거= 고졸)	초대졸			1.60	0.080**		
				(1.18)	(0.039)		
	대졸이상			5.62***	0.75***		
				(1.16)	(0.034)		
	미정			4.30***	0.51***		
				(1.18)	(0.059)		
장래희망 교육수준 (보호자, 준거= 고졸)	초대졸					1.43	0.18**
						(0.87)	(0.083)
	대졸이상					3.37***	0.54***
						(0.84)	(0.074)
	미정					2.83***	0.44***
						(0.86)	(0.082)
상수		-5.11***		-7.31***		-7.51***	
		(0.81)		(1.45)		(1.17)	

관측치 수	1,148	1,148	1,148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표 3-3>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3 (로짓 분석)

변수		(1)		(2)		(3)		(4)	
		4년제 진학	한계 효과	4년제 진학	한계 효과	4년제 진학	한계 효과	4년제 진학	한계 효과
피학대 (준거= 학대x)	학대	-0.38**	-0.069**	-0.33	-0.055	-0.29	-0.052	-0.35	-0.039
		(0.19)	(0.035)	(0.20)	(0.034)	(0.19)	(0.034)	(0.25)	(0.028)
	지속적 학대	-0.072	-0.013	-0.030	-0.0050	0.088	0.016	0.077	0.0080
		(0.23)	(0.042)	(0.24)	(0.039)	(0.25)	(0.045)	(0.31)	(0.032)
성별: 여학생		0.080	0.014	-0.16	-0.026	0.060	0.011	-0.20	-0.021
		(0.17)	(0.030)	(0.18)	(0.030)	(0.17)	(0.030)	(0.25)	(0.027)
부 연령 40세 이하 여부		0.72	0.12	0.74	0.12	0.73	0.12	1.74***	0.15***
		(0.63)	(0.098)	(0.59)	(0.086)	(0.61)	(0.096)	(0.66)	(0.046)
모 연령 40세 이하 여부		-0.44**	-0.080*	-0.34	-0.057	-0.45**	-0.082**	-0.15	-0.017
		(0.22)	(0.041)	(0.23)	(0.039)	(0.22)	(0.041)	(0.31)	(0.034)
부 학력 고졸 이하 여부		-0.39*	-0.071*	-0.39*	-0.066*	-0.39*	-0.072*	-0.25	-0.027
		(0.21)	(0.039)	(0.22)	(0.038)	(0.21)	(0.039)	(0.27)	(0.030)
모 학력 대졸 이상 여부		0.035	0.0063	-0.015	-0.0025	0.021	0.0038	-0.12	-0.012
		(0.23)	(0.041)	(0.23)	(0.038)	(0.22)	(0.040)	(0.28)	(0.030)
부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군인	-0.27	-0.048	-0.19	-0.032	-0.28	-0.049	-0.071	-0.0075
		(0.26)	(0.047)	(0.29)	(0.047)	(0.26)	(0.046)	(0.34)	(0.036)
	서비스·판매직	-0.50*	-0.091*	-0.49*	-0.081*	-0.51*	-0.092*	-0.48	-0.053
		(0.27)	(0.048)	(0.28)	(0.047)	(0.27)	(0.048)	(0.35)	(0.039)
	생산직	-0.23	-0.041	-0.10	-0.016	-0.25	-0.044	0.070	0.0072
		(0.25)	(0.043)	(0.27)	(0.044)	(0.24)	(0.043)	(0.32)	(0.033)
	무직	0.92	0.14	1.13	0.16	0.93	0.14	1.06	0.095
		(0.91)	(0.12)	(0.90)	(0.11)	(0.94)	(0.13)	(1.35)	(0.11)
모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군인	-0.31	-0.056	-0.38	-0.064	-0.32	-0.057	-0.70	-0.076*
		(0.31)	(0.056)	(0.33)	(0.054)	(0.31)	(0.056)	(0.43)	(0.046)
	서비스·판매직	-0.27	-0.049	-0.23	-0.037	-0.28	-0.050	-0.29	-0.030
		(0.29)	(0.053)	(0.31)	(0.051)	(0.29)	(0.053)	(0.41)	(0.041)
	생산직	-0.36	-0.065	-0.43	-0.071	-0.36	-0.065	-0.86**	-0.096**
		(0.33)	(0.061)	(0.35)	(0.058)	(0.33)	(0.061)	(0.44)	(0.048)
	무직	0.034	0.0060	-0.049	-0.0080	0.016	0.0028	-0.17	-0.017
		(0.26)	(0.047)	(0.29)	(0.048)	(0.26)	(0.047)	(0.39)	(0.039)
연평균 가구소득 3,600만원 이하 여부		-0.10	-0.019	-0.11	-0.018	-0.087	-0.016	0.21	0.022
		(0.20)	(0.037)	(0.21)	(0.036)	(0.20)	(0.036)	(0.26)	(0.027)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0.012**	0.0022**	0.0021	0.00034	0.012**	0.0022**	0.0089	0.00095
		(0.0054)	(0.00096)	(0.0060)	(0.00098)	(0.0054)	(0.00095)	(0.0062)	(0.00066)
고3 거주지 (준거= 읍면)	도지역	-0.43	-0.071*	-0.52*	-0.078**	-0.45*	-0.075*	-0.50	-0.047
		(0.26)	(0.042)	(0.27)	(0.039)	(0.26)	(0.042)	(0.31)	(0.028)
	대도시	-0.71***	-0.12***	-0.79***	-0.12***	-0.72***	-0.12***	-1.05***	-0.11***
		(0.27)	(0.043)	(0.27)	(0.040)	(0.27)	(0.043)	(0.31)	(0.030)
	수도권	-1.01***	-0.18***	-1.31***	-0.21***	-1.02***	-0.18***	-1.17***	-0.12***
		(0.30)	(0.049)	(0.31)	(0.046)	(0.30)	(0.049)	(0.35)	(0.036)

다문화가정 (1=다문화)		-0.66 (0.70)	-0.12 (0.13)	-1.11 (0.69)	-0.18 (0.11)	-0.63 (0.69)	-0.11 (0.12)	-1.59* (0.90)	-0.17* (0.096)
형제자매 (1=없음)		0.65* (0.35)	0.12* (0.063)	0.57 (0.35)	0.093 (0.057)	0.64* (0.35)	0.11* (0.062)	0.19 (0.35)	0.020 (0.037)
보호자건강 (1=건강x)		-0.36* (0.21)	-0.067* (0.039)	-0.39* (0.22)	-0.066* (0.037)	-0.37* (0.20)	-0.067* (0.038)	-0.49* (0.27)	-0.056* (0.032)
보호자 삶 만족: x		-0.31* (0.18)	-0.056* (0.034)	-0.22 (0.19)	-0.037 (0.033)	-0.31* (0.18)	-0.057* (0.034)	-0.17 (0.24)	-0.019 (0.026)
중학교 전학경험		-0.31 (0.59)	-0.056 (0.11)	-0.39 (0.70)	-0.064 (0.11)	-0.33 (0.57)	-0.058 (0.10)	-1.02 (0.68)	-0.11 (0.073)
고등학교 전학경험		-0.18 (0.59)	-0.032 (0.11)	0.32 (0.55)	0.053 (0.090)	-0.11 (0.56)	-0.020 (0.10)	0.51 (0.70)	0.055 (0.075)
비행피해 (1=있음)		0.0022 (0.20)	0.00040 (0.036)	0.098 (0.20)	0.016 (0.033)	0.0088 (0.20)	0.0016 (0.035)	-0.23 (0.22)	-0.024 (0.023)
건강문제 (1=있음)		0.18 (0.17)	0.032 (0.030)	0.16 (0.18)	0.026 (0.029)	0.19 (0.17)	0.034 (0.030)	0.13 (0.23)	0.014 (0.024)
중2 국영수 평균점수		0.082*** (0.0089)	0.015*** (0.0013)	0.051*** (0.0100)	0.0084*** (0.0016)	0.081*** (0.0089)	0.015*** (0.0013)	0.031*** (0.012)	0.0033** (0.0013)
장래희망 교육수준 (준거= 고졸)	초대졸							1.49 (1.07)	0.096** (0.048)
	대졸이상							5.27*** (1.05)	0.70*** (0.042)
	미정							4.08*** (1.07)	0.51*** (0.061)
장래희망 교육수준 (보호자, 준거= 고졸)	초대졸							-0.13 (1.37)	-0.020 (0.21)
	대졸이상							1.72 (1.34)	0.23 (0.20)
	미정							1.35 (1.36)	0.19 (0.21)
주당 교외학습시간				0.062*** (0.0099)	0.010*** (0.0015)			0.036*** (0.012)	0.0039*** (0.0012)
학교적응: 학습활동				0.34** (0.17)	0.055** (0.027)			0.15 (0.19)	0.016 (0.020)
부모 양육 비일관성						0.32 (0.21)	0.057 (0.037)	0.21 (0.28)	0.022 (0.029)
상수		-5.11*** (0.81)		-4.59*** (0.93)		-5.96*** (1.00)		-8.48*** (2.13)	
관측치 수		1,148		1,148		1,148		1,148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록 3-2. 표본이탈 분석

본 장의 분석에서는 아동청소년패널 2010의 중1 코호트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1차 조사 시작 시 이들 학생수는 2,351명이었고 7차 조사에 성공한 학생 수는 1,881명이었다. 그러나 2차부터 7차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한 본 분석에서는 7차까지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그 외에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57] 학생들 총 1,1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상당 수준의 표본이탈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균형한 표본이탈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이 때 1차조사 대비 7차 조사까지 표본이탈이 이루어진 것은 분석에서 가중치를 이용하여 보정하였으며, 본 부록에서는 7차 조사 성공자 대비 표본이탈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아무 변수도 통제하지 않은 (1)번 모형에서는 '학대' 또는 '지속적 학대' 그룹에 속할 경우 피학대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표본이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영향 정도는 '지속적 학대' 그룹의 경우에 더 컸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2)번 모형에서 중2 성적을 통제하자 '지속적 학대' 그룹만 유의수준 10% 하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나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피학대 여부가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은 피학대 경험이 있을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보다 표본이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학대경험이 있을 때, 특히 학대경험이 있으면서 성적이 좋지 않을 때 표본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본 분석에서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시한 결과가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영향은 지속적 학대를 당한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나고, 주로 여학생의 경우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 논문의 한계점이라 하겠다.

57) '3-1. 자료 및 기초통계' 참고

<부표 3-4>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전체)

변수		(1)		(2)		(3)	
		표본 이탈	한계효과	표본 이탈	한계효과	표본 이탈	한계효과
피학대 (준거=학대x)	학대	0.29**	0.066**	0.19	0.042	0.25	0.042
		(0.14)	(0.031)	(0.14)	(0.031)	(0.18)	(0.030)
	지속적 학대	0.45***	0.10***	0.29*	0.065*	0.080	0.013
		(0.16)	(0.037)	(0.16)	(0.037)	(0.22)	(0.036)
성별: 여학생				-0.082	-0.018	-0.13	-0.022
				(0.12)	(0.027)	(0.15)	(0.026)
중2 국영수 평균점수				-0.025***	-0.0054***	-0.0075	-0.0012
				(0.0058)	(0.0012)	(0.0077)	(0.0013)
부 연령 (준거=~40세)	41~45세					-0.95*	-0.17
						(0.52)	(0.11)
	46~50세					-0.51	-0.099
						(0.51)	(0.11)
	51~55세					-0.32	-0.064
						(0.53)	(0.11)
	56세~					-0.82	-0.15
						(0.71)	(0.13)
모 학력 (준거=고졸이하)	전문대졸					-0.19	-0.030
						(0.27)	(0.042)
	대졸 이상					-0.057	-0.0095
						(0.18)	(0.030)
부 직업 (준거=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0.16	-0.029
						(0.23)	(0.043)
	서비스·판매직					-0.47**	-0.081**
						(0.22)	(0.037)
	생산직					-0.58***	-0.098***
						(0.21)	(0.035)
	군인					-0.22	-0.041
						(0.85)	(0.15)
	무직					-0.15	-0.029
						(0.61)	(0.11)
다문화가정 (1=다문화)						-0.098	-0.016
						(0.80)	(0.13)
양부모 여부 (준거=친부모)						5.10***	0.84***
						(1.12)	(0.18)
중2 월평균 가구소득 (준거: 6,000만~7,200만)	~1,200만					1.33	0.27
						(0.92)	(0.21)
	~2,400만					0.66*	0.12
						(0.39)	(0.072)
	~3,600만					0.14	0.022
						(0.30)	(0.046)
	~4,800만					-0.0036	-0.00054
						(0.30)	(0.045)
	~6,000만					0.055	0.0084
						(0.31)	(0.047)
	7,200만~					0.57*	0.10*
						(0.31)	(0.053)

상수		-0.78*** (0.081)		1.20*** (0.46)		0.079 (0.86)	
관측치 수		1,720		1,709		1,458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표 3-5>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남학생)

변수		(1)		(2)		(3)	
		표본 이탈	한계효과	표본 이탈	한계효과	표본 이탈	한계효과
피학대 (준거=학대x)	학대	0.057 (0.20)	0.013 (0.046)	-0.040 (0.20)	-0.0091 (0.047)	-0.070 (0.26)	-0.012 (0.045)
	지속적 학대	0.16 (0.21)	0.037 (0.051)	0.020 (0.22)	0.0045 (0.051)	-0.22 (0.30)	-0.036 (0.050)
중2 국영수 평균점수				-0.022*** (0.0085)	-0.0050*** (0.0019)	0.0026 (0.012)	0.00045 (0.0020)
부 연령 (준거=~40세)	41~45세					0.018 (0.86)	0.0025 (0.12)
	46~50세					0.45 (0.84)	0.071 (0.12)
	51~55세					0.88 (0.86)	0.16 (0.13)
	56세~					0.33 (1.06)	0.051 (0.16)
모 학력 (준거=고졸이하)	전문대졸					-0.11 (0.40)	-0.019 (0.065)
	대졸 이상					0.047 (0.30)	0.0080 (0.052)
부 직업 (준거=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0.41 (0.37)	-0.075 (0.065)
	서비스·판매직					-0.45 (0.32)	-0.081 (0.058)
	생산직					-0.48 (0.31)	-0.087 (0.056)
	군인					0.12 (1.28)	0.024 (0.26)
	무직					-1.09 (0.86)	-0.17 (0.10)
다문화가정 (1=다문화)						-0.31 (1.39)	-0.052 (0.24)
중2 월평균 가구소득 (준거: 6,000만~7,200만)	~1,200만					2.75 (1.98)	0.58* (0.32)
	~2,400만					0.94 (0.59)	0.19 (0.12)
	~3,600만					0.042 (0.44)	0.0069 (0.071)
	~4,800만					-0.18 (0.42)	-0.028 (0.066)

	~6,000만					-0.040	-0.0064
						(0.45)	(0.073)
	7,200만~					0.65	0.12
						(0.44)	(0.080)
상수		-0.58***		1.15*		-1.53	
		(0.13)		(0.68)		(1.36)	
관측치 수		851		845		700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표 3-6>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여학생)

변수		(1)		(2)		(3)	
		표본 이탈	한계효과	표본 이탈	한계효과	표본 이탈	한계효과
피학대 (준거=학대x)	학대	0.50***	0.11***	0.42**	0.091**	0.60***	0.099**
		(0.18)	(0.042)	(0.19)	(0.041)	(0.23)	(0.040)
	지속적 학대	0.78***	0.18***	0.65***	0.14***	0.45	0.071
		(0.23)	(0.055)	(0.24)	(0.055)	(0.32)	(0.054)
중2 국영수 평균점수				-0.029***	-0.0061***	-0.019*	-0.0030*
				(0.0077)	(0.0016)	(0.010)	(0.0016)
부 연령 (준거=~40세)	41~45세					-1.61***	-0.31**
						(0.62)	(0.14)
	46~50세					-1.21**	-0.25*
						(0.61)	(0.14)
	51~55세					-1.23*	-0.25*
						(0.64)	(0.14)
	56세~					-1.70*	-0.32*
						(0.95)	(0.17)
모 학력 (준거=고졸이하)	전문대졸					-0.23	-0.035
						(0.35)	(0.052)
	대졸 이상					-0.18	-0.028
						(0.24)	(0.037)
부 직업 (준거=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0.15	0.028
						(0.30)	(0.055)
	서비스·판매직					-0.40	-0.065
						(0.30)	(0.049)
	생산직					-0.71**	-0.11**
						(0.28)	(0.043)
	군인					-0.19	-0.032
						(0.95)	(0.16)
	무직					0.89	0.19
						(0.84)	(0.19)
다문화가정 (1=다문화)						-0.26	-0.040
						(1.12)	(0.17)
양부모 여부 (준거=친부모)						4.66***	0.72***
						(1.17)	(0.18)
중2	~1,200만					0.14	0.019
						(1.57)	(0.23)

월평균 가구소득 (준거: 6,000만~ 7,200만)	~2,400만					0.39	0.059
						(0.53)	(0.081)
	~3,600만					0.26	0.038
						(0.42)	(0.059)
	~4,800만					0.20	0.028
						(0.42)	(0.058)
	~6,000만					0.18	0.025
						(0.42)	(0.059)
	7,200만~					0.47	0.073
						(0.44)	(0.065)
상수		-0.93***		1.33**		1.39	
		(0.10)		(0.61)		(1.05)	
관측치 수		869		864		749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록 3-3. 재수생 분석

본 장에서는 재수생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재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이것이 본 장의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때의 분석은 재수생을 포함한 비진학자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 결과, (1)번 모형에서는 지속적 학대를 당한 경우 재수할 가능성이 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성별과 중2 성적을 통제한 (2)번 모형부터는 유의성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속적 학대는 이전부터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중2 성적을 떨어트림으로써 재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나, 중2 성적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학대가 재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본문상의 분석결과에 적용하면, 중2 성적을 통제하기 전에는 재수가 이후의 대학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학대를 당한 경우 피학대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실질적인 대학 진학 성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학대효과 과소추정).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중2 성적 통제 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표 3-7>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재수 여부에 미치는 영향

변수		(1)		(2)		(3)	
		재수	한계효과	재수	한계효과	재수	한계효과
피학대 (준거=학대x)	학대	-0.34	-0.083	-0.039	-0.0068	-0.63	-0.088
		(0.32)	(0.080)	(0.36)	(0.064)	(0.39)	(0.054)
	지속적 학대	-0.93**	-0.23**	-0.39	-0.070	-0.80	-0.11
		(0.38)	(0.089)	(0.48)	(0.086)	(0.57)	(0.082)
성별: 여성				0.81**	0.14**	0.93***	0.13***
				(0.36)	(0.059)	(0.36)	(0.046)
중2 국영수 평균				0.12***	0.021***	0.086***	0.012***
				(0.017)	(0.0015)	(0.020)	(0.0026)
상수		0.42**		-9.52***		-8.60***	
		(0.21)		(1.40)		(2.29)	
기타 통제변수						기타 통제변수 (가정환경, 개인특성)	
		x		x		부 연령, 모 학력, 부 직업, 가구소득, 형제자매 유무, 거주지, 사교육비	
관측치 수		287		287		284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다문화가정의 경우 모두 재수를 선택했으므로 다문화 가정 여부를 통제변수에서 제외함.

부록 3-4. 통제변수 포함 결과 제시

<부표 3-8>과 <부표 3-9>는 각각 <표 3-10>과 <표 3-11>의 분석 결과를 통제변수까지 포함하여 보여준다.

<부표 3-8>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변수		(1)	(2)	(3)	(4)
		4년제 진학	4년제 진학	4년제 진학	4년제 진학
피학대 (준거= 학대x)	학대	-0.13***	-0.096***	-0.095**	
		(0.038)	(0.037)	(0.037)	
	지속적 학대	-0.15***	-0.095**	-0.12***	
		(0.048)	(0.046)	(0.045)	
성별: 여학생			0.028	0.017	0.041
			(0.032)	(0.032)	(0.031)
부 연령 40세 이하 여부			0.17	0.079	0.030
			(0.14)	(0.14)	(0.13)
모 연령 40세 이하 여부			-0.11**		
			(0.050)		
부 학력 고졸 이하 여부			-0.058		
			(0.041)		
모 학력 대졸 이상 여부			0.052	0.095***	0.11***
			(0.042)	(0.037)	(0.036)
부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군인		-0.051	-0.063	-0.065
			(0.047)	(0.047)	(0.048)
	서비스·판매직		-0.092*	-0.12**	-0.13***
			(0.049)	(0.048)	(0.048)
	생산직		-0.058	-0.091**	-0.11**
			(0.045)	(0.044)	(0.045)
	무직		0.14	0.11	0.035
			(0.15)	(0.15)	(0.15)
모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군인		-0.061		
			(0.058)		
	서비스·판매직		-0.085		
			(0.053)		
	생산직		-0.12*		
			(0.061)		
	무직		-0.0020		
			(0.046)		
연평균 가구소득 3,600만원 이하 여부			-0.048	-0.061	-0.099**
			(0.041)	(0.040)	(0.039)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0.0038***	0.0039***	0.0040***
			(0.00090)	(0.00093)	(0.00094)
고3 거주지 (준거=	도지역		-0.096**	-0.080*	-0.082*
			(0.048)	(0.047)	(0.047)

읍면)	대도시		-0.14*** (0.049)	-0.12** (0.049)	-0.12** (0.049)
	수도권		-0.22*** (0.053)	-0.21*** (0.053)	-0.23*** (0.053)
다문화가정 (1=다문화)			-0.20 (0.18)	-0.23 (0.16)	-0.27 (0.18)
형제자매 (1=없음)			0.11* (0.064)	0.12* (0.065)	0.13** (0.067)
보호자건강 (1=건강x)			-0.072* (0.042)	-0.069 (0.042)	
보호자 삶 만족: x			-0.095** (0.037)	-0.10*** (0.037)	
중학교 전학경험			-0.071 (0.11)	-0.065 (0.11)	
고등학교 전학경험			-0.072 (0.12)	-0.066 (0.12)	
비행피해 (1=있음)			-0.015 (0.039)	-0.013 (0.039)	
건강문제 (1=있음)			0.034 (0.032)	0.040 (0.032)	
상수		0.66*** (0.021)	0.65*** (0.10)	0.56*** (0.095)	0.48*** (0.094)
관측치 수		1,148	1,148	1,148	1,148
R^2		0.019	0.151	0.136	0.110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표 3-9>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2

변수		(1) 4년제 진학	(2) 4년제 진학	(3) 4년제 진학	(4) 4년제 진학	(5) 4년제 진학	(6) 4년제 진학
피학대 (준거= 학대x)	학대	-0.069** (0.035)	-0.059** (0.030)	-0.068** (0.034)	-0.065* (0.034)	-0.053 (0.035)	-0.049* (0.029)
	지속적 학대	-0.015 (0.044)	-0.0045 (0.035)	-0.019 (0.044)	-0.0020 (0.042)	0.014 (0.048)	0.014 (0.034)
성별: 여학생		0.014 (0.031)	0.0041 (0.026)	0.0074 (0.030)	-0.028 (0.030)	0.010 (0.031)	-0.017 (0.026)
부 연령 40세 이하 여부		0.15 (0.13)	0.16** (0.064)	0.18 (0.14)	0.13 (0.12)	0.15 (0.13)	0.17** (0.072)
모 연령 40세 이하 여부		-0.087** (0.043)	-0.047 (0.035)	-0.082* (0.043)	-0.064 (0.040)	-0.089** (0.043)	-0.039 (0.033)
부 학력 고졸 이하 여부		-0.075* (0.040)	-0.039 (0.030)	-0.052 (0.038)	-0.071* (0.037)	-0.076* (0.039)	-0.030 (0.030)
모 학력 대졸 이상 여부		0.0053 (0.041)	-0.012 (0.033)	0.013 (0.040)	-0.0086 (0.038)	0.0015 (0.040)	-0.015 (0.032)
부 직업 (준거=	사무직, 군인	-0.040 (0.046)	-0.0098 (0.039)	-0.050 (0.044)	-0.016 (0.045)	-0.040 (0.045)	-0.0059 (0.038)

관리자, 전문가)	서비스·판매직	−0.083*	−0.053	−0.082*	−0.068	−0.083*	−0.050
		(0.047)	(0.039)	(0.046)	(0.046)	(0.048)	(0.039)
	생산직	−0.034	0.0031	−0.032	−0.010	−0.037	0.0098
		(0.043)	(0.036)	(0.043)	(0.042)	(0.043)	(0.036)
	무직	0.15	0.13	0.13	0.17	0.16	0.13
		(0.16)	(0.12)	(0.14)	(0.15)	(0.16)	(0.11)
모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군인	−0.050	−0.061	−0.061	−0.062	−0.051	−0.071
		(0.055)	(0.046)	(0.054)	(0.054)	(0.055)	(0.046)
	서비스·판매직	−0.050	−0.025	−0.050	−0.042	−0.051	−0.025
		(0.051)	(0.041)	(0.049)	(0.050)	(0.051)	(0.041)
	생산직	−0.061	−0.078	−0.061	−0.070	−0.061	−0.083*
		(0.060)	(0.049)	(0.059)	(0.057)	(0.060)	(0.048)
	무직	0.0091	−0.010	0.011	−0.0062	0.0056	−0.017
		(0.044)	(0.038)	(0.042)	(0.045)	(0.044)	(0.038)
연평균 가구소득 3,600만원 이하 여부		−0.020	0.0071	−0.00055	−0.014	−0.017	0.017
		(0.039)	(0.031)	(0.038)	(0.038)	(0.039)	(0.030)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0.0021**	0.0019***	0.0014	0.00049	0.0021**	0.00093
		(0.00089)	(0.00065)	(0.00087)	(0.00088)	(0.00089)	(0.00066)
고3 거주지 (준거= 읍면)	도지역	−0.075	−0.034	−0.066	−0.081*	−0.077*	−0.040
		(0.046)	(0.034)	(0.045)	(0.043)	(0.046)	(0.033)
	대도시	−0.12***	−0.090**	−0.14***	−0.12***	−0.12***	−0.10***
		(0.047)	(0.035)	(0.046)	(0.045)	(0.047)	(0.034)
	수도권	−0.18***	−0.11***	−0.16***	−0.21***	−0.18***	−0.12***
		(0.053)	(0.042)	(0.051)	(0.050)	(0.053)	(0.041)
다문화가정 (1=다문화)		−0.11	−0.16	−0.078	−0.16	−0.11	−0.15
		(0.13)	(0.13)	(0.12)	(0.12)	(0.12)	(0.14)
형제자매 (1=없음)		0.12**	0.041	0.10*	0.10*	0.12**	0.030
		(0.058)	(0.044)	(0.056)	(0.053)	(0.058)	(0.043)
보호자건강 (1=건강x)		−0.066*	−0.072**	−0.047	−0.069*	−0.067*	−0.063*
		(0.040)	(0.035)	(0.039)	(0.039)	(0.040)	(0.034)
보호자 삶 만족: x		−0.064*	−0.036	−0.046	−0.044	−0.064*	−0.022
		(0.035)	(0.029)	(0.034)	(0.034)	(0.035)	(0.028)
중학교 전학경험		−0.050	−0.14	−0.050	−0.059	−0.054	−0.14
		(0.11)	(0.11)	(0.11)	(0.12)	(0.11)	(0.11)
고등학교 전학경험		−0.047	−0.014	−0.0086	0.033	−0.038	0.037
		(0.11)	(0.095)	(0.10)	(0.10)	(0.10)	(0.083)
비행피해 (1=있음)		0.0025	−0.033	−0.019	0.017	0.0032	−0.034
		(0.038)	(0.030)	(0.038)	(0.035)	(0.038)	(0.028)
건강문제 (1=있음)		0.031	0.0067	0.028	0.026	0.034	0.0077
		(0.030)	(0.025)	(0.029)	(0.029)	(0.030)	(0.024)
중2 국영수 평균점수		0.016***	0.0067***	0.014***	0.0100***	0.016***	0.0038**
		(0.0016)	(0.0014)	(0.0016)	(0.0018)	(0.0016)	(0.0016)
장래희망 교육수준 (준거= 고졸)	초대졸		0.038				0.0062
			(0.032)				(0.035)
	대졸이상		0.68***				0.59***
			(0.038)				(0.044)
	미정		0.43***				0.38***
			(0.060)				(0.060)
장래희망 교육수준	초대졸			0.099*			−0.055
				(0.056)			(0.065)

(보호자, 준거=고졸)	대졸이상			0.43*** (0.055)			0.12** (0.061)
	미정			0.32*** (0.066)			0.062 (0.067)
주당 교외학습시간					0.010*** (0.0014)		0.0045*** (0.0013)
학교적응: 학습활동					0.061** (0.029)		0.022 (0.024)
부모 양육 비일관성						0.057 (0.038)	0.032 (0.031)
상수		−0.54*** (0.15)	−0.33*** (0.12)	−0.73*** (0.15)	−0.40** (0.16)	−0.69*** (0.18)	−0.35** (0.15)
관측치 수		1,148	1,148	1,148	1,148	1,148	1,148
R^2		0.248	0.505	0.293	0.306	0.250	0.528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록 3-5. 취약계층 제외 분석

<부표 3-10>은 취약계층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을 제약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1)번 및 (2)번 모형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이면서 양부모(stepparents)가 아니고 아버지가 무직이 아니며, 소득이 하위 10%에 속하지 않는 관측치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아울러 (3)번 및 (4)번 모형은 기타 사항은 (1)번 및 (2)번 모형과 동일하나 소득이 하위 20%에 속하지 않는 관측치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5)번 모형은 비교를 위해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더라도, 부모의 학대는 여전히 자녀의 대학진학을 제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표 3-10>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 제외)

변수		(1)	(2)	(3)	(4)	(5)
		4년제 진학	4년제 진학	4년제 진학	4년제 진학	4년제 진학
피학대 (준거=학대x)	학대	-0.10**	-0.094*	-0.14***	-0.13**	-0.096***
		(0.049)	(0.049)	(0.052)	(0.052)	(0.037)
	지속적 학대	-0.14**	-0.11*	-0.12*	-0.083	-0.095**
		(0.067)	(0.061)	(0.068)	(0.062)	(0.046)
성별: 여학생		-0.016	-0.012	-0.031	-0.027	0.028
		(0.043)	(0.042)	(0.045)	(0.044)	(0.032)
부 연령 40세 이하 여부			0.41**		0.64***	0.17
			(0.21)		(0.12)	(0.14)
모 연령 40세 이하 여부			-0.15**		-0.14**	-0.11**
			(0.070)		(0.071)	(0.050)
부 학력 고졸 이하 여부			0.12		0.13	-0.058
			(0.078)		(0.082)	(0.041)
모 학력 대졸 이상 여부			0.059		0.056	0.052
			(0.043)		(0.044)	(0.042)
부 직업 (준거=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군인		-0.070		-0.081	-0.051
			(0.051)		(0.051)	(0.047)
	서비스·판매직		-0.14**		-0.13**	-0.092*
			(0.063)		(0.065)	(0.049)
	생산직		-0.016		-0.054	-0.058
			(0.058)		(0.059)	(0.045)
	무직					0.14
						(0.15)

모 직업 (준거=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군인		-0.043 (0.066)		-0.014 (0.067)	-0.061 (0.058)
	서비스· 판매직		-0.078 (0.069)		-0.079 (0.071)	-0.085 (0.053)
	생산직		-0.064 (0.092)		-0.079 (0.095)	-0.12* (0.061)
	무직		-0.012 (0.053)		0.0078 (0.054)	-0.0020 (0.046)
연평균 가구소득 3,600만원 이하 여부			-0.023 (0.070)		-0.082 (0.095)	-0.048 (0.041)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0.0038*** (0.0012)		0.0038*** (0.0012)	0.0038*** (0.00090)
고3 거주지 (준거= 읍면)	도지역		-0.078 (0.072)		-0.094 (0.072)	-0.096** (0.048)
	대도시		-0.16** (0.074)		-0.16** (0.074)	-0.14*** (0.049)
	수도권		-0.16** (0.082)		-0.20** (0.082)	-0.22*** (0.053)
다문화가정 (1=다문화)			-0.42* (0.22)		-0.52** (0.22)	-0.20 (0.18)
형제자매 (1=없음)			0.011 (0.084)		-0.028 (0.092)	0.11* (0.064)
보호자건강 (1=건강x)			-0.089 (0.064)		-0.065 (0.068)	-0.072* (0.042)
보호자 삶 만족: x			-0.071 (0.055)		-0.085 (0.058)	-0.095** (0.037)
중학교 전학경험			-0.039 (0.18)		-0.050 (0.18)	-0.071 (0.11)
고등학교 전학경험			-0.27* (0.15)		-0.20 (0.15)	-0.072 (0.12)
비행피해 (1=있음)			0.042 (0.047)		0.032 (0.048)	-0.015 (0.039)
건강문제 (1=있음)			-0.0089 (0.041)		-0.021 (0.043)	0.034 (0.032)
상수		0.74*** (0.038)	0.78*** (0.098)	0.76*** (0.039)	0.82*** (0.099)	0.76*** (0.079)
관측치 수		639	639	601	601	1,148
R^2		0.015	0.126	0.018	0.137	0.151

제 4 장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서론

본 장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미친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는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제3장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모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비인지적인 요소 역시 사회경제적 요소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앞서 제1장에서 언급하였던 부모의 자녀 학대 예방을 통한 국가적 노동생산성 제고라는 접근도 그 근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내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해외에서는 아주 드물게 존재한다(McCord, 1983; Covey et al., 2013). 다만 해외에서는 부모의 학대로 국한시키지 않은 일반적인 아동기 학대 및 방임 경험, 또는 트라우마적 경험이 성인기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일부 더 존재한다(McGloin and Widom, 2001; Macmillan and Hagan, 2004; Zielinski, 2009; Currie and Widom, 2010; Mersky and Topitzes, 2010; Tanaka et al., 2011, Fahy et al., 2017). 그러나 해외에서도 학대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분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Currie and Widom, 2010, Tanaka et al., 2011).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두고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가 전무한 실정을 고려하여, 국내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국내 데이터를 이용한다. 둘째,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모의 학대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Gelbach(2016)의 요인분해를 이용하여,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잠재적 경로 변수들이 각각 얼만큼씩 설명하는지 확인해본다. 셋째, 개인의 타고난 능력을 일부 반영할 수 있는 학창시절 성적을 포함하여 개인 특성, 부모 및 가구 특성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학대가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본다.

본 장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제2절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차별점을 제시한다. 이후 제3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와 분석모형을 소개한다. 제4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마지막 제5절에서는 결론과 함께 본 논문이 지니는 경제적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은 매우 드물다. 우선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에서는 McCord(1983)와 Covey et al.(2013)의 연구가 존재한다. McCord(1983)는 232명의 남자 아동들을 부모의 양육태도를 기준으로 방임, 학대, 거부, 사랑의 네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후 약 30여년 뒤 이들을 추적조사해본 결과, 청소년 범죄율은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그룹에 비해 방임, 학대, 거부를 당한 그룹이 높았으나, 알콜 중독, 이혼, 직업적 성공 비율은 그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아동이 '학대'를 받았는지의 기준이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신체적 체벌

이었는가'의 여부이므로, 학대 분류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Covey et al.(2013)은 청소년기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학대, 부부간 폭력 목격, 거주지역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결혼, 학력, 취업 여부, 개인소득, 순자산과 같은 성인기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National Youth Survey Family Study(NYSFS)를 사용하였는데, 이 데이터는 미국 전국 단위의 샘플로서 1976~1977년에 11세~17세였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마지막 인터뷰는 2002년과 2003년에 이루어졌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학대는 결혼 여부, 학력, 소득 및 순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업 여부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이들은 통제변수로 성별, 인종, 지역, 양부모(two parent) 여부, 부모의 학력 및 직업을 고려한 부모의 사회적 계층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능력은 통제하지 않았으며, 부모의 학대가 성인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서도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를 더 발전시킬 여지가 존재한다.

이처럼 노동시장 성과에 부모의 학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으나, 부모로부터의 학대로 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학대 경험이나 트라우마적 경험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해외에서 일부 더 존재한다. 먼저 일반적인 피학대 경험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Macmillan(2000)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 폭력 피해 경험이 초기 성인기의 시간당 임금을 약 14% 낮추며, 이는 상당 부분 학력과 직업지위를 매개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Zielinski(2009)에 따르면 학대 경험이 있는 성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직업이 없을 확률이 두 배 높았으며, 신체적 학대와 여러 종류의 학대를 당한 경우 직업이 없을 확률이 각각 140%, 190% 높았다. Currie & Widom(2010)은 신체적, 성적학대 및 방임으로 사법처리된 케이스의 아이들과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없는 아이들을 매치시킨 후, 성인기의 경제적 성과를 비교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초기 성인기에 IQ 점수와 소득이 낮았고, 숙련직 일자리(skilled job)를 가질 확률도 낮았다. 또한 중기 성인기에는 직업이 있거나, 주식, 자동차, 집을 소유할 확률이 낮았다. Tanaka et al.(2011)도 아동기 신체적 및 성적 학대가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심각한 신체적 학대 경험은 아동기 및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통제한 후에도 연간 개인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학력 및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에 의해 일부 매개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어릴 적 피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 McGloin & Widom(2001)은 고등학교 졸업과 취업 부문에서, Mersky & Topitzes(2010)는 학력과 소득, 정신건강 측면에서 낮은 성과를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성적 학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Robst & Smith(2008)와 Robst(2008)가 있는데, Robst & Smith(2008)는 1992 National Health and Social Life Survey(NHSLS)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기에 성적으로 학대받은 경험이 여성의 임금을 낮추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Robst(2008)는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기 성적 학대 경험이 남성과 여성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남녀 임금 차이에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이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어렸을 때 성적 학대를 당한 비율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았고, 성적 학대로 인한 임금 저하 정도도 훨씬 컸다. 이를 바탕으로 Robst(2008)는 아동기 성적 학대 경험이 성별 임금 격차의 한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 학대나 폭력 피해 경험보다 범위를 넓혀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Anda et al.(2004)과 Fahy et al.(2017)이 존재한다. 먼저 Anda et al.(2004)은 9,633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학대와 가정 문제를 포함한 아동기의 8가지 부정적인 경험이 근로자의 업무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은 업무 성과 저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주로 대인관계 문제, 정서적 고통, 신체 증상,

약물 남용을 매개로 하였다. Fahy et al.(2017)은 고령화로 인해 'Extending Working Life' 아젠다가 제기됨에 따라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질병, 방임, 부모로부터의 학대, 부모 부재, 어머니 부재, 부모 이혼, 보호아동 여부)이 정년 이전의 노동시장 조기 이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은 성별, 아동기 정신건강을 통제한 후에도 55세 시점에 영구적인 질병으로 인한 무직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나 방임 경험이 있는 경우, 학력, 성인기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요소를 통제한 후에도 그 영향이 유의하였다.

이처럼 부모로부터의, 또는 일반적인 학대 경험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추가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우선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비록 해외에서는 관련 연구들이 소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학대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Currie and Widom, 2010, Tanaka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차별점을 두어 진행해보고자 한다. 우선 관련 연구가 매우 미흡한 우리나라 사례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이라는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둘째, 부모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전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가구 특성 외에 대학진학 성과, 성과와 관련 있는 직장특성, 비인지영역, 취업관련 자기계발, 잦은 직장이동 여부들도 잠재적 경로변수로 보고 분석에 포함시켰다. 또한 내생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년기의 가정환경 변수들은 물론 개인의 타고난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중학교 성적 역시 통제하였고, 이 외에 성인기의 가구특성 및 노동시장 성과와 무관한 직장특성 변수들을 적절히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하여 표본이탈 문제를 보완해 보았다.

제 3 절 자료 및 분석모형

3-1. 자료 및 기초통계

본 논문은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확인해보기 위해, 국내 데이터인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중3 코호트의 1차(2004년)~12차(2015년) 자료 및 2019년도에 실시한 추적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p.1)”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구축한 데이터이다. 2004년에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는데[58], 학생들 외에 학생의 보호자,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행정가, 학생의 담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도 설문을 실시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후 2015년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2019년에 추가적으로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육고용패널 데이터를 통해 조사대상 학생의 중·고등학교 학교생활, 성적, 가정환경 및 이후의 진학성과와 노동시장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분석을 위해 이 데이터의 2차년도 및 4차년도 기획문항인 ‘부모의 양육태도’ 중 학대 관련 정보와 학생 때의 성적 및 가정환경 정보,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 정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외에도 분석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비인지적 요소에 대한 정보와 취업 관련 자기계발 관련 정보, 2019년 현재의 가구특성 정보들도 사용하였다.

사용한 변수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학대 관련 데이터와 관련하여서는 교육고용패널에서 2차 및 4차년도에 학생들에게 감독, 합리적

58) 참고로, 4차에는 전문계고와 외국어고 및 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패널, 7차에는 2년제대학 졸업자와 4년제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정패널이 추가된 바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2차년도와 4차년도에 조사된 ‘부모의 양육태도’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기존패널 자료만을 사용함.

설명, 과잉 기대, 과잉 간섭, 학대, 애정 등의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 중 학대와 관련된 문항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3개씩으로,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정도 이상으로 벌을 주셨다', '내가 잘못하면 매부터 드셨다', '심하게 때려서 내 몸엔 항상 멍이나 상처가 있었다'의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의 하나로 답변하게 하였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명백히 학대로 판단되는 '심하게 때려서 내 몸엔 항상 멍이나 상처가 있었다'는 문항에 대한 답을 학대 여부로 사용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거나 '그렇지 않다'로 대답한 경우는 학대가 없는 것으로, 이외의 경우에는 학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케이스를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부록 4-2>에 제시하였다.[59] 아울러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분으로부터라도 학대가 있으면 학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2차년도 및 4차년도 중 한 번이라도 학대가 있으면 학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부모의 학대여부에 관한 설문이 조사대상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및 3학년(2차 및 4차년도)인 시기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어느 시기의 경험을 특정하지는 않은 채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물어본 설문이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이전 시기의 피학대 경험 여부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만약 학생들이 최근의 경험에 근거하여 답변을 함으로써 본 논문에서의 피학대 경험 여부가 엄밀히는 청소년기의 피학대 경험 여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단계로서(Covey et al., 2013) 이후 시기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그 중요도가 결코 아동기에 비해 뒤처지지 않으므로[60]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겠다.

---

59) 참고로 2장 및 3장에서 사용한 데이터인 아동청소년패널 2010에서는 학대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네 가지로 응답하게 함.

60) 실제로 Ireland, Smith, & Thornberry(2002)와 Thornberry, Ireland, & Smith(2001)는 청소년기의 폭력 노출 경험은 이전의 아동기에 폭력 노출 경험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이후의 학업 중단이나 범죄, 약물남용, 정신건강 문제 발생을 예측하는 데 있어 아동기 폭력 노출 경험보다 더 중요하다

둘째, 대학 진학 이전 시기의 정보로는 위의 학대 경험 외에도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과 성적(중학교 2학년 2학기 석차백분율), 그리고 가정환경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변수들은 피학대 경험 여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 변수를 통제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Bunting et al.(2018) 역시 아동학대는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기도 하므로, 아동학대와 성인기 빈곤 간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소를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 가정환경 변수들로는 양부모(stepparents) 여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 교육연수 및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정보를 사용하였다.[61] 이 때 가정환경 변수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 조사한 고등학교 1학년 시기(2차년도) 정보가 있는 경우 고1 시기 정보를, 없는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시기 정보를 사용하였다. 또한 자녀에 대한 학대 여부는 자녀에 대한 투자 여부와 무관할 수 없고, 이 둘은 이후의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월평균 사교육비 금액도 함께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셋째, 노동시장 성과로는 조사대상이 되는 개인들이 31세가 된 시기인 2019년 노동시장 이행 추적조사 정보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9년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정규직 여부, 풀타임 근로 여부, 대기업 근무 여부와 월평균 근로소득(로그) 변수를 노동시장 성과 변수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2019년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5년까지 조사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첫 직장의 월평균 임금 정보도 성과 변수로 이용해 보았다. 이 외에 2019년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업종, 소재지, 공공기관 여부와 종사상 지위 정보, 그리고 과거 일자리 수와 현 직장 근무개월수도 분석에 함께 이용하였다.

고 주장함.

61) 부모의 연령/학력/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제2장. 부모의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연령 40세 이하 여부(자녀 고등학교 1학년 시기 기준), 아버지 고졸이하 그룹 여부, 어머니 대졸이상 그룹 여부, 가구소득 하위 30%(본 데이터에서는 월 200만원) 여부 변수를 사용함.

넷째, 성과와 유관한 직장특성 및 과거 일자리 수와 현 직장 근무개월 수 외에도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들로 최종학력과 비인지적 항목 및 취업 관련 자기계발 정보들을 사용하였다. 최종학력은 2019년 추적조사에서 조사된 정보를 바탕으로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대졸 이상으로 그룹화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비인지적 항목들로는 건강상태, 자존감, 행복정도, 타인에 대한 신뢰정도 변수들을 이용하였는데, 건강상태는 2차년도부터 12차년도까지 현재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조사된 정보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자존감은 7차년도부터 12차년도까지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조사된 정보를 평균하여 사용하였으며, 행복 정도는 7차년도부터 12차년도까지 현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0(전혀 행복하지 않다)부터 10(매우 행복하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정보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타인에 대한 신뢰정도의 경우, 10차년도부터 12차년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한 경우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점수를 부여한 후, 이 점수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취업 관련 자기계발 항목들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12차 조사까지의 기간 중에 영어공부를 하였는지, 제2외국어 공부를 하였는지, 자격증이 있는지,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참여 여부 및 소득에 혼인 여부 및 자녀 유무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019년 노동시장 이행 추적조사 당시의 혼인 여부와 자녀 유무,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이용하여 ‘현재 가구 특성’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이 변수는 미혼(이혼 및 사별 포함)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 기혼이며 자녀가 없고 외벌이인 경우, 기혼이며 자녀가 있고 외벌이인 경우, 기혼이며 자녀가 없고 맞벌이인 경우, 기혼이며 자녀가 있고 맞벌이인 경우, 미혼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로 그룹화한 변수이다.

한편, 교육고용패널의 중3 코호트는 조사시작 시기인 2004년에는 조사

대상 학생 수가 총 2,000명이었으나 2019년 추적조사에 성공한 케이스는 753명이었는데, 이 중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었던 경우나 2019년에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분석에 사용할 변수들이 결측인 경우를 제외한 56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이처럼 표본이탈이 많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여, 기초통계 분석 및 회귀분석시 2019년 추적조사 기준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또한 어떠한 특성을 가진 개인에게서 표본이탈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이를 결과 해석 시에 유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록 4-1>에 제시하였다.[62] 아울러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하여 표본이탈문제를 보완하는 분석도 실시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4장 분석결과 중 4-3에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소개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는 <표 4-1>~<표 4-3>과 같다. 우선 학대변수의 기초통계에 대해 살펴보면(<표 4-1>),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16.6%이다. 이 중 아버지로부터만 학대를 당한 경우는 7.5%, 어머니로부터만 학대를 당한 경우는 4.9%였으며, 나머지 4.2%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였다.

<표 4-2>와 <표 4-3>은 학대변수 이외의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개인특성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이 48%를 차지하고 있고, 중2-2 석차백분율 평균은 약 42.5%로, 50%보다 좋은 성적을 보인다. 다음으로 청소년기 가정환경 변수를 살펴보면, 아버지 연령은 자녀가 중학교 3학년인 16세일 때 평균 약 45세, 어머니는 42세였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연수 평균은 각각 12.7년과 11.8년이었다. 아버지 직업을 살펴보면 생산직인 경우가 43.6%로 가장 많았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인 경우가 27%, 서비스 및 판매직인 경우가 18.4%로 그 뒤를 이었다. 아버지가 무직인 경우는 2.8%였다. 어머니

62) 추적조사 성공 케이스 대비 표본이탈 분석과 원표본 대비 추적조사 성공 케이스 분석을 둘 다 실시함. 원표본 대비 추적조사 성공 케이스 분석도 시행한 이유는 추적조사 성공률이 낮아 일부 집단이 아예 표본에서 이탈되어 버린 경우 가중치 보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부분도 해석 상 유의하기 위함임.

의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가 35.6%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및 판매직(28.8%), 생산직(20.2%) 순이었다. 부모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양아버지이거나 양어머니인 경우는 2%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323만원, 조사 대상 개인에 대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원이었다.

조사 대상 개인들의 2019년 기준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그 이상이 63.6%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가[63] 23%,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그보다 낮은 학력을 가진 경우가 13.4%였다. 노동시장 성과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2019년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87%였다. 이 중 정규직 비율은 89%[64], 풀타임 근로 비율은 93%, 대기업[65] 근무 비율은 36%였으며, 월평균 근로소득 평균은 272.8만원, 전반적인 직장 만족도 평균은 3.43점이었다. 한편, 2019년 기준 30대의 실제 고용률은 76%[66], 실제 정규직 비율이 76.3%[67]임을 감안하면, 표본이탈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분석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실제보다 취업성과가 좋은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하며[68], 이는 본 논문의 한계점 중 하나이다.

이 외에 직장과 관련된 기타 변수들에 대해 살펴보면,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율은 13%였다. 또한 업종의 경우 기타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제조업 순이었다. 종사상 지위로는 직업이 있는 개인들 중 상용직 비율이 가장 높았고(81%[69]), 다음이 임시직(8.7%) 순이었다. 자영업자 비율은 고용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합하였을 때 9.5%였다.

---

63) 4년제 대학 중퇴 포함
64) 이 비율은 모수가 전체근로자로, 임금근로자 외에도 본인을 '정규직'이라 응답한 케이스는 '정규직'으로 포함하여 계산한 것임.
65) 종사자 규모가 300인 이상인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함.
6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6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68) 부록 4-1에서도 표본에서 이탈한 집단보다 표본에 포함된 집단에서 피학대 경험이 적고 중학교 성적은 좋았으며 부모가 양부모(stepparents)인 경우가 적고 월평균 소득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69) <표 4-3> 상의 비율 70%는 직장이 없는 개인들까지 모수에 포함시켰을 경우의 비율임.

이 외에 비인지적 영역 관련 변수와 취업 관련 자기계발 관련 변수의 기초통계값은 <표 4-2>에서, 2019년 현재의 가족구성에 대한 기초통계값은 <표 4-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1> 학대변수 기초통계

(단위: 명, %)

	모 학대 x	모 학대 o	계
부 학대 x	467	27	495
	(83.4)	(4.9)	(88.3)
부 학대 o	42	24	65
	(7.5)	(4.2)	(11.7)
계	509	51	560
	(90.9)	(9.1)	(100)

<표 4-2> 기타변수 기초통계 1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개인특성 관련 변수						
성별(여성=1)		560	0.48	0.50	0	1
중2-2 석차백분율(%)		560	42.47	25.61	0.2	100
2. 청소년기 가정환경 관련 변수						
한부모 여부(고1)		560	0.00	0.04	0	1
양부모 여부(고1)		560	0.02	0.15	0	1
부 연령(중3)		560	44.96	3.61	34	62
부 교육연수		560	12.65	2.77	3	21
모 연령(중3)		560	42.08	3.29	35	60
모 교육연수		560	11.81	2.38	0	21
월평균 가구소득(중3, 만원)		560	323.46	179.81	40	1500
월평균 사교육비(중3~고3, 만원)		560	24.94	25.05	0	237.5
3. 노동시장 성과 변수 및 관련 변수						
2019년 직업유무		560	0.87	0.34	0	1
경력 유무(있음=1)		560	0.70	0.46	0	1
직업있는경우	정규직 여부	482	0.89	0.32	0	1
	근로시간(풀타임=1)	482	0.93	0.26	0	1
	직장 형태(공공=1)	482	0.13	0.34	0	1
	대기업 여부(대기업=1)	482	0.36	0.48	0	1
	월평균 근로소득(만원)	482	272.84	108.40	20	1000
	직장 만족도(1점~5점)	482	3.43	0.90	1	5
	현 직장 근무개월수	482	44.62	31.22	1	164
첫 직장 월평균 임금(만원)		383	168.02	78.27	0	500
4. 비인지적 영역 관련 변수						
건강상태(1점~5점)		560	3.73	0.58	1.7	5
자존감(1점~5점)		560	3.82	0.52	1	5
행복정도(0점~10점)		560	6.81	1.36	1.3	10
사람에 대한 신뢰정도(1점~4점)		560	2.61	0.43	1	3.7
5. 취업 관련 자기계발 관련 변수						
영어공부여부		560	1.23	0.42	1	2
제2외국어공부 여부		560	1.70	0.46	1	2
자격증 여부		560	1.41	0.49	1	2
해외연수 여부		560	1.87	0.33	1	2

<표 4-3> 기타변수 기초통계 2

구분		명	(%)	구분		명	(%)
부직업(중3)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0	(26.9)	모직업(중3)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6	(6.4)
	사무직	38	(6.7)		사무직	50	(9.0)
	서비스 및 판매	103	(18.4)		서비스 및 판매	161	(28.8)
	생산직 등	244	(43.6)		생산직 등	113	(20.2)
	군인	9	(1.7)		군인	0	(0)
	무직	16	(2.8)		무직	199	(35.6)
	계	560	(100)		계	560	(1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75	(13.4)	직장소재지	특별시	160	(28.6)
	4년제대졸 미만	129	(23.0)		광역시	115	(20.5)
	4년제대졸 이상	356	(63.6)		시	160	(28.7)
	계	560	(100)		읍, 면	52	(9.4)
					결측(직장 x)	72	(12.9)
					계	560	(100)
업종	농,임,어,광업	6	(1.1)	종사상지위	상용직	392	(70.0)
	제조업	117	(20.9)		임시직	42	(7.6)
	전기,가스,수도업	12	(2.2)		일용직	8	(1.4)
	건설업	17	(3.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0	(3.6)
	금융 및 보험업	15	(2.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6	(4.6)
	기타 서비스업	321	(57.3)		무급가족종사자	0	(0)
	결측(직장 x)	72	(12.9)		결측(직장 x)	72	(12.9)
	계	560	(100)		계	560	(100)
현 가족구성	미혼[주1]+무자녀	390	(69.7)	과거일자리수	없음	157	(28.1)
	기혼+무자녀+외벌이	9	(1.7)		1~2개	155	(27.6)
	기혼+유자녀+외벌이	75	(13.4)		3~6개	144	(25.8)
	기혼+무자녀+맞벌이	12	(2.2)		7개 이상[주2]	32	(5.7)
	기혼+유자녀+맞벌이	71	(12.7)		결측(직장 x)	72	(12.9)
	미혼[주1]+유자녀	2	(0.4)		계	560	(100)
	계	560	(100)				

주1: 이혼 및 사별 포함
주2: 최대 15개

3-2. 분석모형

본 논문에서는 직업 유무, 정규직 여부, 풀타임 근로 여부, 대기업 근무 여부, 월평균 근로소득이라는 다섯 항목의 측면에서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았으며, 분석모형은 OLS 및 로짓모형을 이용하였다. 노동시장 성과 중 직업 유무, 정규직 여부, 풀타임 근로 여부, 대기업 근무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은 로짓모형을 이용하였는데, 이 때 사용한 모형의 수식은 식 (1)과 같다.

$$P = \frac{\exp(\alpha + \beta x_{\text{학대경험여부}} + \gamma' X_{\text{통제변수}})}{1 + \exp(\alpha + \beta x_{\text{학대경험여부}} + \gamma' X_{\text{통제변수}})} \quad (1)$$

이 외에 노동시장 성과 중 월평균 근로소득[70]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분석에서는 OLS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 때 사용한 모형의 수식은 식 (2)와 같다.

$$y_i = \alpha + \beta x_{\text{피학대경험여부}i} + \gamma' X_{\text{통제변수}i} + \epsilon_i \quad (2)$$

위의 분석 시 직업 유무에 대해서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대기업 근무 여부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외에는 직업이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71] 또한 여기에서 정규직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더라도 설문에 본인을 '정규직'으로 응답한 경우 정규직에 포함시켰다.[7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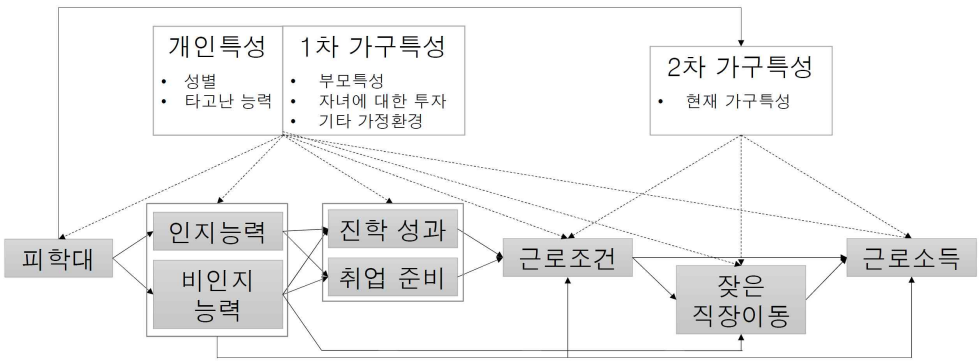
70) 로그 월평균 근로소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로그를 취하지 않은 월평균 근로소득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부록 4>에 제시

71) 직업이 있는 개인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표본을 선택하는 위험을 내포할 수 있으나, <표 4-8>의 (1)번 결과와 같이 본 데이터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피학대경험 여부가 직업유무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72) 참고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정규직 여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경우

노동시장 성과 판단 시점은 노동시장 이행 추적조사가 이루어졌던 2019년이며 이 때 조사 대상자들의 나이는 31세로, 본 연구는 엄밀히는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시점의 노동시장 성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기로 한 까닭은 이전 마지막 조사 차수인 2015년의 경우 조사 대상자 연령이 27세로, 군복무를 마친 남자들의 경우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인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고적으로 월평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19년 이전의 첫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도 분석을 진행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부록 4-4>에 제시하였다.

[그림 4-1]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편,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가 노동시장 성과 중 월평균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경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았다. 우선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월평균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그림 4-1]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즉, 피학대 경험은 인지능력과 비인지능력을 감소시켜 대학진학 성과를 떨어트리고 취업 관련 자기계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취업하는 직장의 근로조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근로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저하된 인지능

에도 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음.

력과 비인지능력은 그 자체로도 근로조건 및 근로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외에 성별이나 타고난 능력과 같은 개인 특성 및 원가구 특성은 피학대 경험이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로에, 현재 가구특성은 근로조건 및 근로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피학대 경험으로 인해 저하된 비인지능력은 직장에의 적응을 어렵게 하며 직장을 자주 옮겨다니게 만들 위험이 있으며, 이는 역시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부모 학대의 부정적 영향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우선 성별과 개인의 타고난 능력으로서의 변수인 중학교 2학년 2학기 성적 변수, 그리고 현재의 가구특성 및 경력 유무, 직장 특성 중 성과와는 무관한 요소들(직장 소재지, 업종, 직장이 공공기관인지의 직장 유형)을 통제한 모형이 (1)번 모형이다. 단, 학대는 지속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성적 변수에도 이미 부모의 학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통제한다는 것은 부모의 학대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보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된다. 이후 (1)번 모형에 청소년기 가구특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형이 (2)번, 이에 더하여 최종학력까지 통제한 모형이 (3)번 모형이다. 참고로, Macmillan & Hagan(2004)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 폭력 피해 경험이 학업성적과 학력을 매개로 초기 성인기 취업여부, 직업지위, 임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3)번 모형에서 최종학력을 통제하였으나, 이미 (1)번 모형에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성적 변수를 통제하였다는 점에서 최종학력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Macmillan & Hagan(2004)은 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피해를 당함으로써 주체성과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며, 낮아진 자기 효능감이 학습에 있어서는 학습에 대한 시간이나 에너지의 투입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고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은 취업 관련 자기계발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변수들(영어공부 여부, 제2외국어 공부 여부, 자격증 유무, 해외연수 여부)을 (2)번 모형에 추가적

으로 통제하였는데, 이것이 (4)번 모형이다. 또한 (2)번 모형에 비인지적 항목인 타인에 대한 신뢰정도, 자존감, 행복정도, 건강상태 변수를 통제한 모형이 (5)번 모형이다. Anda et al.(2004)은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업무 성과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대인관계 문제, 정서적 고통, 신체 증상, 그리고 약물 남용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비인지적 항목 역시 경로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모형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2)번 모형에 종사상 지위, 풀타임 여부, 정규직 여부, 대기업 근무 여부와 같이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이 있는 직업 특성들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형이 (6)번 모형이다. 이는 부모 학대와 관련이 있는 어떠한 요소로 인해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부모 학대가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한 가지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피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 다니던 직장을 쉽게 그만두거나 또는 적응상의 어려움 등으로 직장을 자주 옮기게 됨에 따라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이는 학대를 받을 경우 자기조절능력이 감소하는 것(Schatz et al., 2008; Mezzacappa et al, 2001)에 기인할 수 있다. 우선 학대를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충동성이 높아지기 쉽다(Arens et al., 2012; Oshri et al., 2018). 특히 Sujan et al. (2014)에 따르면 충동성 중에서도 사전 계획의 결여과 끈기의 부족을 보인다고 한다. 아울러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Maughan & Cicchetti, 2002; Shields & Cicchetti, 1998),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감정표현을 하거나 높은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을 보이기 쉽고(Shields & Cicchetti, 1998), 사회성도 떨어질 수 있다(Shields & Cicchetti, 2001). 결국 참을성이나 끈기의 부족으로 인해, 그리고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주 직장을 옮기게 되고, 이것이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교육고용패널 데이터에 현 직장 이전까지의 경력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된 자료가 없으나, 과거 일자리 수가 몇 개인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존재한다. 따라서 학력과 현 직장에서의 근무개월수를

통제함으로써 과거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해 어느 정도 제한을 둔 후[73], 과거 일자리 개수 변수와 함께 과거 일자리 개수 변수와 피학대 여부 변수 간의 교호작용항을 모형에 포함시켜 보았다. 만약 위의 교호작용항이 유의하다면, 피학대 경험이 있을 때 직장 이동이 잦아서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통제변수에 따라 모형(7)~모형(8)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월평균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위에서 살펴본 잠재적 경로변수들이 각각 얼만큼씩 설명을 할 수 있는지 Gelbach(2016)의 요인분해를 이용하여 살펴보았고,[74]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하여 표본이탈문제를 완화시키는 분석도 시행해 보았다.

3-3. 기초분석

기초분석 파트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 유무에 따라 최종학력과 노동시장 성과가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보았다. <표 4-4>는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 유무에 따른 최종학력의 차이를 나타낸 표이다. 학대경험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고졸 이하 및 전문대 졸업 비율이 각각 10.1%p, 4.6%p 높았고, 4년제대학 이상을 졸업한 비율은 14.7%p 낮았다. 즉, 학대경험이 있을 경우 최종학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3) 현 직장에서의 근무개월 수 역시 직장에의 적응 정도를 보여주기도 함.
74) Gelbach(2016)의 요인분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장의 3-2. 분석모형 참고

<표 4-4>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 유무와 최종학력

(단위: 명, %)

	고졸 이하	전문대 졸	4년제대 졸 이상	계
학대경험 무	55 (11.7)	104 (22.2)	309 (66.1)	467 (100)
학대경험 유	20 (21.8)	25 (26.8)	48 (51.4)	93 (100)
계	75 (13.4)	129 (23)	356 (63.6)	560 (100)

<표 4-5>~<표 4-7>은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 유무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전체 표본,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으로 각각 확인해본 결과이다. 우선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월평균 근로소득만 유의수준 1% 하에서 피학대 경험 유무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그 외의 직업 유무나 정규직 여부, 풀타임 근로여부, 임금 근로자 중 정규직 여부, 대기업 근로여부는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학대경험이 있을 경우의 월평균 근로소득 평균은 246.4만원으로 학대경험이 없었을 경우의 278만원 보다 약 11.4% 낮았다.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피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월평균 근로소득이 16.8%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유의수준 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보다 차이의 정도가 더 컸다. 반면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월평균 근로소득은 피학대 경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5>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 유무와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 (전체)

변수			학대경험 무			학대경험 유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검정값
전체		직업 유무: 유	0.87	0.34	465	0.87	0.34	95	-0.05
	직업有	정규직	0.89	0.31	402	0.87	0.34	80	-0.47
		풀타임 근로	0.94	0.25	402	0.89	0.32	80	-1.12
		월평균 근로소득	278.08	111.98	402	246.36	83.81	80	-2.62***
	임금	정규직	0.88	0.33	357	0.86	0.35	74	-0.42
		대기업 근로	0.41	0.49	357	0.32	0.47	74	-1.26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가중치 적용함.

<표 4-6>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 유무와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 (남성)

변수			학대경험 무			학대경험 유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검정값
전체		직업 유무: 유	0.89	0.31	211	0.89	0.31	59	0.04
	직업有	정규직	0.89	0.31	193	0.86	0.35	52	-0.56
		풀타임 근로	0.95	0.22	193	0.90	0.30	52	-0.95
		월평균 근로소득	303.78	117.64	193	252.68	85.30	52	-3.18***
	임금	정규직	0.88	0.33	170	0.84	0.37	48	-0.55
		대기업 근로	0.39	0.49	170	0.33	0.48	48	-0.63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가중치 적용함.

<표 4-7>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 유무와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 (여성)

변수			학대경험 무			학대경험 유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검정값
전체		직업 유무: 유	0.85	0.36	254	0.81	0.40	36	-0.52
	직업有	정규직	0.89	0.32	209	0.89	0.31	28	0.12
		풀타임 근로	0.92	0.27	209	0.86	0.35	28	-0.93
		월평균 근로소득	252.46	99.92	209	230.68	79.48	28	-1.20
	임금	정규직	0.88	0.33	187	0.89	0.32	26	0.23
		대기업 근로	0.43	0.50	187	0.30	0.46	26	-1.22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가중치 적용함.

이상의 기초분석에서 확인한 사항은 첫째, 피학대 경험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최종학력이 낮아지는 관계를 보이며, 둘째, 노동시장 성과 중에서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피학대 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반면, 직업 유무나 정규직 여부, 풀타임 근로여부, 대기업 근로 여부 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피학대 경험 유무에 따른 월평균 근로소득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는 4절에서 회귀분석 결과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 4 절 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회귀분석 결과는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직업 유무, 정규직 여부, 풀타임 근로 여부, 근로소득,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여부, 임금근로자 중 대기업 근무 여부라는 여섯 가지 측면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모의 학대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본다. 이후 두 번째 파트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Gelbach(2016)의 요인분해를 이용하여 살펴보며, 세 번째 파트에서는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하여 표본이탈문제를 보완한 분석결과를 알아본다.

4-1.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표 4-8>은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여섯 가지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본 결과이다. 별도의 통제변수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4)번 모형을 제외하고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4)번 모형은 OLS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직업 여부와 정규직 여부, 풀타임 근로 여부, 대기업 근무 여부에는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월평균 근로소득이 약 9.8% 감소한다.

<표 4-9>는 <표 4-8>의 분석에서 개인특성 변수인 성별과 중학교 성적을 통제한 결과이다. <표 4-8>과 비교하여, 직업 여부부터 대기업 근무 여부까지 부모의 피학대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동일하나, 근로소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가 12%로 증가하였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성적을 통제한 결과라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성적 변수는 개인의 타고난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이 시기까지 개인이 살아온 환경도 반영하고 있다. 이 환경에는 부모의 학대 여부도 포함이 되는데, 만약 중학교 2학년 이전 시기까지 학대를 받아왔고 그로 인해 이 시기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면, 그리고 이렇게 감소된 인지능력이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 효과는 중학교 2학년 성적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의 영향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4-9>의 결과는 보수적인 추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표 4-8>과 <표 4-9>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직업유무 여부나 정규직 여부, 풀타임 근로 여부 및 대기업 근무 여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학 해석은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부모의 신체적 학대는 자녀의 학력, 소득, 순자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취업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 Covey et al.(2013)의 연구처럼, 부모 학대가 실제 이들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나, 불균형한 표본이탈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75]. 부록 1의 <부표 4-2>

75) 실제로 비록 부모로부터의 학대로 한정된 학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Covey

에 따르면 피학대 경험이 있을 때 2019년 추적조사 성공 케이스 대비 표본이탈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부표 4-5>를 참고하면, 추적조사 성공 확률도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있을 때 7~9%, 중학교 2학년 2학기 석차백분율이 10% 증가할 때(성적 하락) 약 1.6%~1.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과 중학교 석차백분율은 1% 유의수준 하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결국 부모의 학대 경험이 있을 때, 특히 부모의 학대 경험이 있으면서 성적까지 좋지 않을 때 더 많은 추적조사 실패가 벌어짐에 따라 부모의 학대 및 낮은 성적으로 노동시장 성과가 좋지 않은 집단이 분석대상에서 많이 제외되고, 이로 인해 부모의 학대가 직업 유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물론 본 분석에서 2019년 기준 가중치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추적조사에 실패한 케이스가 워낙 많아 어떠한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들이 아예 추적조사에서 모두 제외되었다면 가중치를 통한 보정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종속변수가 근로소득일 경우에도 적용이 되며, 따라서 이 논문에서의 분석 결과는 부모 학대가 갖는 부정적인 영향의 일종의 하한이라 볼 수 있다.

<표 4-8>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변수	전체	직업 有			임금근로자	
	(1) 직업 여부 (logit)	(2) 정규직 여부 (logit)	(3) 풀타임 여부 (logit)	(4) 로그 근로소득 (OLS)	(5) 정규직 여부 (logit)	(6) 대기업 여부 (logit)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0.018 (0.36)	-0.21 (0.43)	-0.60 (0.46)	-0.098** (0.050)	-0.19 (0.43)	-0.39 (0.32)
상수	1.91*** (0.17)	2.09*** (0.20)	2.67*** (0.22)	5.55*** (0.025)	1.98*** (0.20)	-0.37*** (0.13)
관측치 수	560	482	482	482	431	431
R^2				0.008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t al.(2013)의 주장과 달리 피학대 경험이 성인기 직업 유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도 존재한다(Zielinski, 2009; Currie & Widom, 2010)

<표 4-9>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2

변수	전체	직업 有			임금근로자	
	(1) 직업 여부 (logit)	(2) 정규직 여부 (logit)	(3) 풀타임 여부 (logit)	(4) 로그 근로소득 (OLS)	(5) 정규직 여부 (logit)	(6) 대기업 여부 (logit)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0.050 (0.38)	-0.20 (0.45)	-0.73 (0.49)	-0.12** (0.052)	-0.14 (0.46)	-0.18 (0.34)
성별: 여성	-0.45 (0.33)	0.0064 (0.36)	-0.43 (0.38)	-0.18*** (0.042)	0.014 (0.36)	0.020 (0.25)
중2-2 석차백분율(%)	-0.014*** (0.0045)	-0.00085 (0.0065)	0.0029 (0.0086)	-0.0017** (0.00070)	-0.0044 (0.0068)	-0.023*** (0.0049)
상수	3.21*** (0.65)	2.11*** (0.64)	3.22*** (0.73)	5.89*** (0.068)	2.12*** (0.64)	0.42 (0.44)
관측치 수	560	482	482	482	431	431
R^2				0.066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한편,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임금근로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여서도 분석을 시행해 보았으며(<표 4-10>), 또한 성별과 최종학력별로 그룹을 나누어서도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부록 4-3). 결과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을 경우에도 부모의 학대는 자녀의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피학대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12% 감소), 정규직 여부, 대기업 근무 여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풀타임 근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와 달리, 유의수준 10% 하에서 약 7.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나누어보았을 경우,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은 1% 수준에서 유의하고 영향의 크기 또한 전체가 분석대상인 때보다 컸지만, 여성에게서는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학력별로 동일한 분석을 시행했을 때에는 부모의 학대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고졸 이하 그룹에서 그 영향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 4년제대학 졸업 이상 그룹이었고[76], 전문대를 졸업한 그룹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성별 및 최종학력별로 부모 학대의 영향이 차이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는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4-10>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임금근로자 대상)

변수	(1) 직업 여부 (logit)	(2) 정규직 여부 (logit)	(3) 풀타임 여부 (logit)	(4) 로그 근로소득 (OLS)	(5) 정규직 여부 (logit)	(6) 대기업 여부 (logit)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0.14 (0.46)	-1.01* (0.53)	-0.12** (0.055)		-0.18 (0.34)
성별: 여성		0.014 (0.36)	-0.52 (0.44)	-0.20*** (0.044)		0.020 (0.25)
중2-2 석차백분율(%)		-0.0044 (0.0068)	0.0053 (0.0097)	-0.0015** (0.00074)		-0.023*** (0.0049)
상수		2.12*** (0.64)	3.54*** (0.85)	5.91*** (0.072)		0.42 (0.44)
관측치 수		431	431	431		431
R^2				0.077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4-2.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본 파트에서는 앞서 확인한 부모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자녀의 성인기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았다. <표 4-11>의 (3)~(6)번 모형에서 경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을 (2)번 모형에 각각 추가로 통제해 보았다. 우선 (1)번 모형은 성

76) 4년제대졸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학대가 로그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의 t값은 1.62로(계수와 표준오차 반올림 전 기준), 유의수준 10%의 임계값에 거의 근접함. 또한 관측치 수가 적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영향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별과 중학교 성적이라는 개인 특성 변수만 통제했던 <표 4-9>의 (6)번 모형에 경로와 무관히 추가적으로 통제가 필요한 변수들을 통제한 모형이다. 이 때 추가적으로 통제한 변수들로는 현재의 가족구성, 경력 유무 여부, 직장 소재지와 업종, 직장 유형(공공기관 여부)이 있다. 이들 변수를 통제했을 때 부모의 학대는 자녀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유의수준 1% 하에서 약 14%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번 모형은 청소년기 원가구 특성을 통제한 모형이다.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과 양부모(stepparents) 여부, 중3 가구소득, 그리고 자녀에 대한 투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3~고3 기간의 사교육비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이들 변수를 통제하자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의 영향은 13%로 (1)번 모형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이 모형에서 통제한 원가구 특성은 부모의 학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녀의 성인기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이를 적절히 통제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Bunting et al., 2018), 본 논문에서는 이 (2)번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두고자 한다. 학대 영향의 크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선행연구 중 Macmillan(2000)이 아동기 및 청소년기 폭력 피해 경험이 초기 성인기의 시간당 임금을 약 14% 낮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외에 Currie & Widom(2010)은 피학대 경험이 피크소득(peak earnings capacity)을 1년에 약 5,000달러 감소시킨다고 한 바 있으며, Tanaka et al.(2011)은 매우 심각한(severe) 학대 경험이 연소득을 약 32.5%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논문의 분석은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며 매우 심각한 학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 수치와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3)번 모형은 많은 경우에 경로변수로 작용한다고 언급되는 (Macmillan, 2000; Tanaka et al. 2011) 최종학력을 (2)번 모형에 추가적으로 통제한 결과이다. 그런데 최종학력을 통제한 후에도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의 영향은 감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최종학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중학교 2학년 성적을 이미 통제한 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최종학력이 근로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다.[77] 일반적으로 학력별 임금수준은 초임이나 동일한 경력의 임금을 비교하여 고학력일수록 임금이 높은 것으로 언급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자들의 연령이 같은 대신 경력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78] 즉,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나 긴 경력을 가진 개인이 있고, 또 최종학력이 4년제대학 졸업이나 신입인 개인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본 분석에서는 데이터 상의 한계로 경력 유무만 통제하였을 뿐 경력 연수는 통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보면 최종학력이 월평균 근로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것은 초기 성인기 노동소득에 대한 결과로, 만약 4년제대학 졸업자의 임금상승폭이 고졸자의 임금상승폭보다 크다면 중기 또는 후기 성인기의 노동소득에 대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노동소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피학대 경험이 최종학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4)번 모형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12차 조사 때까지 개인들의 취업 관련 자기계발 노력에 관한 변수들을 (2)번 모형에 추가적으로 통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기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하였는지, 제2외국어 공부를 하였는지, 자격증이 있는지, 해외연수를 다녀왔는지의 여부에 대한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이 변수들을 통제하자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 여부 변수의 영향은 (2)번 모형 13%에서 12%로 아주 조금 감소하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4)번 모형에 추가한 변수들은 각 개인의 의욕이나 자기 효능감을 반영할 수 있다. 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력 피해로 자기 효능감이 낮아진 개인들은 학습에의 시간 및 에너지 투입을 낮출 수 있는데(Macmillan & Hagan, 2004), 이와 유사하게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도 자기 효능감을 낮춤으로써 자기 계발에의 시간 및

77) 실제로 중2 성적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학력 변수의 통제는 피학대 경험이 로그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변화를 주지 못함.

78) 이 외에 최종학력 수준이 낮으면서 월평균 노동소득이 적은 개인들이 표본에서 많이 이탈하였다면, 그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음. 부록 1에서 중학교 성적이 낮을수록 추적조사 성공률이 낮았음을 확인한 바 있음.

기타 자원 투입을 감소시키고, 이것이 낮은 근로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본 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번 모형은 (2)번 모형에 건강상태와 자존감, 행복정도, 타인에 대한 신뢰도라는 네 가지 비인지영역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형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인지영역 변수들이 부모 학대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지영역 변수들의 매개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소 엇갈리는데, Tanaka et al.(2011)은 심각한 신체적 학대 경험이 소득을 감소시키나, 학력과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상태는 이 영향을 조금밖에 매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반면[79], Anda et al.(2004)는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주로 대인관계 문제, 정서적 고통, 신체 증상, 약물 남용을 매개로 업무 성과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비인지영역 변수들이 경로변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원인을 추측해보면, 비인지적 영역의 단순한 상태보다는 비인지적 영역과 관련한 문제행동이 발현될 때 그 문제행동이 근로소득 등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그러나 본 논문이 이용한 데이터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기는 어렵다.

(6)번 모형은 앞서의 (2)번 모형에 성과와 유관한 직업특성, 즉 종사상 지위와 풀타임 근로 여부, 정규직 여부, 대기업 근무 여부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형이다. 이 때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는 다소 감소하여, 피학대 경험이 있을 경우 어떠한 요소로 인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직업을 갖기 쉽고 이것이 낮은 임금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Macmillan(2000)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 폭력 피해경험이 초기 성인기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 부분 학력과 직업지위를 매개로 한다고 주장

79) 학력과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상태를 통제하기 전에는 심각한 신체적 학대가 연간 소득을 32.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연간 소득을 29.6% 감소시킴.

하였는데, 본 논문과는 학력에 대해서는 결과가 다르지만 직업지위와 관련하여서는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12>의 (2)번 모형은 <표 4-11>의 (2)번 모형에서 과거 일자리 유무(경력 여부) 변수는 제외하고 현 직장 근무개월 수와 함께 과거 일자리 수 및 과거 일자리 수와 피학대 여부 간의 교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이다. 이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키자 피학대 여부 변수의 유의성은 사라지는 대신 피학대 경험이 있으며 과거 일자리 수가 7개 이상인 변수는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해졌다. 구체적으로 학대 받은 경험이 있으면서 과거 일자리 수가 7개 이상인 경우 학대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월평균 근로소득이 50% 감소하였다. 결국 피학대 경험이 있을 경우 끈기의 부족(Sujan et al., 2014)이나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낮은 사회성(Maughan & Cicchetti, 2002; Shields & Cicchetti, 1998) 등의 이유로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게 됨으로써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잠재적 경로 변수 중 주로 잦은 직장 이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의 잠재적 경로변수들이 부모 학대의 영향을 설명하는 비중을 보다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Gelbach(2016)의 요인분해 방법을 본 분석에 적용시켜 보았다(<표 4-13>). 이 때 기본 모형은 (2)번 모형으로, 전체 모형은 (8)번 모형으로 설정하였다.[80] 분석 결과, Gelbach(2016)의 요인분해를 이용한 경우에도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월평균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잦은 직장이동'에 의해 대부분(약 74%)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풀타임 근로 여부가 23%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부모의 학대는 원가구의 가정환경을 포함하여 통제가 필요한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자녀의 초기 성인기 월평균 근로소득을 13% 감소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대부분 잦은

80) 다만, Gelbach(2016)의 요인분해를 실시할 때에는 기본 모형에서 경력여부 변수는 제외함.

직장 이동에 의해 설명되고 있었다. 즉,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끈기의 부족(Sujan et al., 2014)이나 감정조절의 어려움 및 낮은 사회성(Maughan & Cicchetti, 2002; Shields & Cicchetti, 1998) 등의 이유로 자주 직장을 옮기게 되고, 이것이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81] 이는 학대 피해자에게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확인시켜 준다. 참고로 Schatz et al.(2008) 역시 자기조절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개입프로그램이 학대 피해자의 인지기능과 행동기능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표 4-11>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변수	(1) 로그 근로소득	(2) 로그 근로소득	(3) 로그 근로소득	(4) 로그 근로소득	(5) 로그 근로소득	(6) 로그 근로소득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0.14*** (0.047)	-0.13** (0.049)	-0.13** (0.049)	-0.12** (0.050)	-0.13*** (0.048)	-0.093** (0.041)
성별: 여성	-0.15*** (0.041)	-0.15*** (0.040)	-0.15*** (0.040)	-0.17*** (0.039)	-0.11*** (0.041)	-0.15*** (0.036)
중2-2 석차백분율(%)	-0.0014** (0.00067)	-0.00075 (0.00076)	-0.0014* (0.00082)	-0.00030 (0.00080)	-0.00098 (0.00073)	-0.00086 (0.00067)
상수	6.01*** (0.092)	5.90*** (0.13)	6.03*** (0.16)	5.84*** (0.13)	5.67*** (0.25)	5.11*** (0.19)
추가 통제변수	현 가구특성, 성과 무관 직장특성 등	(1)+ 원 가구특성	(2)+ 진학 성과	(2)+ 취업 관련 자기계발	(2)+ 비인지영역	(2)+ 성과 유관 직업특성
	현재 가족구성, 경력 여부, 직장 소재지, 업종, 직장 유형	부모 연령/학력/직업, 양부모 여부, 중3 가구소득, 중3~고3 사교육비	학력	취업 관련 영어공부, 제2외국어 공부, 자격증 여부, 해외연수 여부	건강상태, 자존감, 행복 정도, 신뢰도	종사상 지위, 풀타임, 정규직, 대기업 여부
관측치 수	482	482	482	482	482	482
R^2	0.180	0.224	0.230	0.248	0.250	0.391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81) <표 4-13>의 결과에서는 비인지영역이 경로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분석에서의 비인지영역은 건강상태와 자존감, 행복 정도, 신뢰도를 나타냄. 결국 이러한 유형의 비인지영역은 경로가 되지 못하는 반면, 자기조절능력은 경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12>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2

변수		(7) 로그 근로소득	(8) 로그 근로소득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0.028 (0.066)	0.0038 (0.061)
과거 일자리 수 (준거: 없음)	1~2개	-0.0069 (0.052)	-0.027 (0.051)
	3~6개	-0.035 (0.053)	-0.052 (0.046)
	7개 이상	0.24*** (0.091)	0.15* (0.079)
학대 여부 * 과거 일자리 수	1*(1~2개)	-0.19 (0.12)	-0.084 (0.092)
	1*(3~6개)	-0.12 (0.11)	-0.074 (0.097)
	1*(7개 이상)	-0.50*** (0.17)	-0.40*** (0.14)
현 직장 근무 개월수		0.0034*** (0.00074)	0.0024*** (0.00064)
성별: 여성		-0.19*** (0.040)	-0.16*** (0.038)
중2-2 석차백분율(%)		-0.0012 (0.00071)	-0.0013* (0.00074)
상수		5.57*** (0.14)	5.15*** (0.26)
추가 통제변수		(2)번 모형과 동일 단, 경력 여부 변수는 제외	full[주2] 단, 경력 여부 변수는 제외
관측치 수		482	482
R^2		0.290	0.461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원가구특성 및 (8)번 모형~(11)번 모형에서 각각 통제했던 진학 성과, 취업 관련 자기계발, 비인지영역, 성과 유관 직업특성 변수들을 모두 통제함.

<표 4-13>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월평균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해

변수	모형		설명	
	Base	Full	설명된 부분	설명 비중(%)
학대 여부	-0.118[주1] (0.050)	0.004 (0.061)	-0.122 (0.062)	100
Covariates				
학력	x	o	0 (0.004)	0.0
취업 관련 자기계발	x	o	-0.003 (0.008)	2.5
비인지영역[주2]	x	o	0.003 (0.006)	-2.5
종사상 지위	x	o	-0.005 (0.008)	4.1
풀타임 여부	x	o	-0.028 (0.026)	23.0
정규직, 대기업 여부	x	o	-0.001 (0.008)	0.8
과거 일자리 수[주3]	x	o	0.013 (0.009)	-10.7
학대 여부 * 과거 일자리 수	x	o	-0.09 (0.053)	73.8
현 직장 근무개월 수	x	o	-0.011 (0.01)	9

주1: Gelbach(2016)의 요인분해를 실시할 때에는 기본 모형에서 경력여부 변수를 제외하였으므로, (2)번 모형의 분석결과와 수치에 약간 차이가 있음.
주2: 비인지영역에는 건강상태, 자존감, 행복 정도, 신뢰도 변수가 포함됨.
주3: 이 분석에서 '과거 일자리 수'의 경우, '학대 여부*과거 일자리 수' 부분은 partialled out된 개념임.

다음으로 <표 4-14>~<표 4-16>은 <표 4-11>~<표 4-12>와 동일한 분석을 각각 남성과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월평균 근로소득을 14%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보다 부모 학대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영향은 잦은 직장 이동을 매개로 하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부모 학대가 근로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앞서 여섯 가지 노동시장 성과에 부모의 학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에도, 부모 학대가 남성에게서는 월평균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여성에게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의 영향에 있어 남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우선 동일하게 학대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학대의 빈도나 강도가 다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학대의 충격(shock)이 성별로 상이할 가능성이다. 똑같이 학대가 이루어지더라도 여성에게는 그 빈도나 강도가 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심하게 때려서 내 몸엔 항상 멍이나 상처가 있었다”는 설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답변별 비율(부록 4-2의 [부도 4-1])을 참고하였다. 남성의 경우 학대를 당한, 즉 “보통이다” 이상으로 응답한 케이스 중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9%,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2%,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였다. 여성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3%,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7%였다. 과소보고 가능성 등의 이유로 이 수치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이 수치를 바탕으로 할 때는 부모 학대 영향의 남녀 차이가 학대의 빈도나 강도 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학대의 충격에 대한 반응이 성별로 다를 수 있다. 이 중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성별로 학대에 따른 표본이탈 정도가 다를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부록 4-1의 <부표 4-3>과 <부표 4-4>, <부표 4-6>과 <부표 4-7>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추적조사 성공케이스 대비 표본이탈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부표 4-3>과 <부표 4-4>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경우 둘 다 피학대 여부가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적조사 성공여부의 경우 남성은 피학대 경험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 비해 여성의 경우(<부표 4-7>)

아무 변수도 통제하지 않았을 때 피학대 경험은 유의수준 1% 하에서 추적조사 성공률을 14% 낮춘다. 이 영향은 중학교 성적과 기타 가정환경 변수들까지 통제해도 여전히 유의수준 1% 하에서 유의하고, 영향의 크기 또한 약간만 감소한다(12%로 감소). 결국 부모의 학대가 있을 때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추적조사 실패 케이스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추적조사 실패는 성적이 안 좋을수록 벌어질 확률이 높음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피학대 경험이 있고 중학교 성적이 안 좋았던 개인들의 추적조사 실패 정도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적조사 실패로 인해 여성에게서는 피학대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이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학대의 충격에 대해 표본이탈 외에 실제 반응이 성별로 달랐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례로 직업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부표 4-13>과 <부표 4-14>를 통해 남성과 여성 모두 피학대 여부에 직업유무가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는 해당 학대에 대해 여성이 더 잘 극복할 가능성이다. 실제로 심각한 신체적 학대는 남성들의 고용확률만 유의하게 감소시킨다거나(Tanaka et al., 2011)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의 영향은 일부 남성에게서만 나타나기도 한다(Fahy et al., 2017)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Covey et al.(2013)은 폭력 노출이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는 성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Currie & Widom(2010)은 학대 및 방임이 성인기 사회경제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앞선 3장의 분석에서도 피학대 경험이 진학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여학생에게서 더 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본 분석에서 부모의 학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녀별로 부모의 학대에 따른 추적조사 성공 정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4-14>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남성)

변수	(1) 로그 근로소득	(2) 로그 근로소득	(3) 로그 근로소득	(4) 로그 근로소득	(5) 로그 근로소득	(6) 로그 근로소득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0.17***	-0.14**	-0.14**	-0.13**	-0.14**	-0.14**
	(0.063)	(0.065)	(0.064)	(0.066)	(0.062)	(0.052)
중2-2 석차백분율(%)	-0.00069	-0.00041	-0.0012	0.000080	-0.00042	-0.00072
	(0.00097)	(0.0011)	(0.0013)	(0.0010)	(0.0010)	(0.00095)
상수	5.77***	5.49***	5.64***	5.39***	5.09***	4.83***
	(0.094)	(0.15)	(0.22)	(0.15)	(0.28)	(0.24)
추가 통제변수	현 가구특성, 성과 무관 직장특성 등	(1)+ 원 가구특성	(2)+ 진학 성과	(2)+ 취업 관련 자기계발	(2)+ 비인지영역	(2)+ 성과 유관 직업특성
	현재 가족구성, 경력 여부, 직장 소재지, 업종, 직장 유형	부모 연령/학력/직업, 양부모 여부, 중3 가구소득, 중3~고3 사교육비	학력	취업 관련 영어공부, 제2외국어 공부, 자격증 여부, 해외연수 여부	건강상태, 자존감, 행복 정도, 신뢰도	종사상 지위, 풀타임, 정규직, 대기업 여부
관측치 수	245	245	245	245	245	245
R^2	0.240	0.309	0.316	0.347	0.355	0.425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4-15>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남성)2

변수		(7) 로그 근로소득	(8) 로그 근로소득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0.078 (0.080)	0.034 (0.074)
과거 일자리 수 (준거: 없음)	1~2개	0.023 (0.072)	0.0017 (0.072)
	3~6개	-0.0087 (0.066)	-0.078 (0.068)
	7개 이상	0.39*** (0.12)	0.28** (0.11)
학대 여부 * 과거 일자리 수	1*(1~2개)	-0.29** (0.14)	-0.23* (0.12)
	1*(3~6개)	-0.11 (0.12)	-0.026 (0.11)
	1*(7개 이상)	-0.69*** (0.18)	-0.67*** (0.19)
현 직장 근무 개월수		0.0039*** (0.00088)	0.0024** (0.00100)
중2-2 석차백분율(%)		-0.0015 (0.00093)	-0.00099 (0.0012)
상수		5.25*** (0.19)	4.93*** (0.34)
추가 통제변수		(2)번 모형과 동일 단, 경력 여부 변수는 제외	full[주2] 단, 경력 여부 변수는 제외
관측치 수		245	245
R^2		0.405	0.544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원가구특성 및 (8)번 모형~(11)번 모형에서 각각 통제했던 진학 성과, 취업 관련 자기계발, 비인지영역, 성과 유관 직업특성 변수들을 모두 통제함.

<표 4-16>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여성)

변수	(1) 로그 근로소득	(2) 로그 근로소득	(3) 로그 근로소득	(4) 로그 근로소득	(5) 로그 근로소득	(6) 로그 근로소득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0.032	-0.093	-0.093	-0.093	-0.097	-0.0026
	(0.067)	(0.073)	(0.075)	(0.073)	(0.070)	(0.071)
중2-2 석차백분율(%)	-0.0026***	-0.0015	-0.0014	-0.0014	-0.0015	-0.0015
	(0.00086)	(0.0011)	(0.0011)	(0.0012)	(0.0011)	(0.00096)
상수	5.78***	5.67***	5.66***	5.71***	5.26***	5.01***
	(0.086)	(0.15)	(0.19)	(0.17)	(0.31)	(0.27)
추가 통제변수	현 가구특성, 성과 무관 직장특성 등	(1)+ 원 가구특성	(2)+ 진학 성과	(2)+ 취업 관련 자기계발	(2)+ 비인지영역	(2)+ 성과 유관 직업특성
	현재 가족구성, 경력 여부, 직장 소재지, 업종, 직장 유형	부모 연령/학력/직업, 양부모 여부, 중3 가구소득, 중3~고3 사교육비	학력	취업 관련 영어공부, 제2외국어 공부, 자격증 여부, 해외연수 여부	건강상태, 자존감, 행복 정도, 신뢰도	종사상 지위, 풀타임, 정규직, 대기업 여부
관측치 수	237	237	237	237	237	237
R^2	0.214	0.343	0.343	0.361	0.384	0.522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다음으로 <표 4-17>부터 <표 4-19>는 최종학력별로 부모 학대가 자녀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고졸 이하 그룹에서는 개인의 특성과 현 가구특성, 경력 여부, 성과와 무관한 직장특성을 통제한 (1)번 모형의 경우 부모 학대가 월평균 근로소득을 약 2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영향이 최종학력별 그룹 중 가장 컸다. 이 영향은 원가구특성을 통제할 때 그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유의성도 사라졌다. 이는 고졸 이하 그룹의 경우, 부정적인 원가구 환경이 학대를 일으키고 근로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다만, 고졸 이하 그룹의 표본수가 적고(N=66), 이 그룹에서 추적조사 실패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을 것을 감안하면[82] 실제적으로는 이 그룹에서

82) 부록 4-1에서 성적이 안 좋을수록, 특히 학대 경험이 있고 성적이 안 좋을수록 추적조사 성공률이 낮음을 확인함.

도 여전히 부모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다. 반면 최종학력이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 부모의 학대가 근로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83] 마지막으로 4년제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1)번 모형에서는 부모 학대가 월평균 근로소득을 14% 감소시켰다. 또한 원가구 특성을 통제할 때는 그 유의성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t값이 유의수준 10%의 임계값과 가까운 1.56이고 관측치 수가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모의 학대가 이 그룹에서 월평균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표 4-17>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고졸 이하)

변수	(1) 로그 근로소득	(2) 로그 근로소득	(3) 로그 근로소득	(4) 로그 근로소득	(5) 로그 근로소득	(6) 로그 근로소득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0.25** (0.11)	-0.12 (0.15)	-0.12 (0.15)	-0.065 (0.14)	-0.046 (0.19)	-0.054 (0.16)
성별: 여성	-0.21** (0.095)	-0.27** (0.12)	-0.27** (0.12)	-0.24 (0.14)	-0.45** (0.18)	-0.17 (0.13)
중2-2 석차백분율(%)	0.00088 (0.0028)	-0.0021 (0.0027)	-0.0021 (0.0027)	-0.0019 (0.0029)	0.00012 (0.0028)	-0.0013 (0.0042)
상수	5.88*** (0.36)	7.03*** (0.65)	7.03*** (0.65)	6.92*** (0.73)	6.88*** (0.79)	6.83*** (0.80)
추가 통제변수	현 가구특성, 성과 무관 직장특성 등	(1)+ 원 가구특성	(2)+ 진학 성과	(2)+ 취업 관련 자기계발	(2)+ 비인지영역	(2)+ 성과 유관 직업특성
	현재 가족구성, 경력 여부, 직장 소재지, 업종, 직장 유형	부모 연령/학력/직업, 양부모 여부, 중3 가구소득, 중3~고3 사교육비	학력	취업 관련 영어공부, 제2외국어 공부, 자격증 여부, 해외연수 여부	건강상태, 자존감, 행복 정도, 신뢰도	종사상 지위, 풀타임, 정규직, 대기업 여부

83) 참고로, 전문대졸 그룹에서는 부모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대기업 효과가 있었기 때문임. 대기업 취업 여부에는 부모의 학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있으면서 대기업에 취업한 개인들이 전문대졸이면서 피학대 경험이 있는 그룹의 평균 근로소득을 높여줌.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할 때는 전문대졸 그룹에서도 부모의 학대가 부정적인 영향을 가짐.

관측치 수	66	66	66	66	66	66
R^2	0.516	0.697	0.697	0.735	0.754	0.782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4-18>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졸)

변수	(1) 로그 근로소득	(2) 로그 근로소득	(3) 로그 근로소득	(4) 로그 근로소득	(5) 로그 근로소득	(6) 로그 근로소득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0.030 (0.083)	-0.047 (0.084)	-0.047 (0.084)	-0.039 (0.089)	-0.053 (0.084)	-0.080 (0.088)
성별: 여성	-0.24*** (0.069)	-0.27*** (0.071)	-0.27*** (0.071)	-0.27*** (0.070)	-0.16** (0.077)	-0.24*** (0.063)
중2-2 석차백분율(%)	-0.00058 (0.0013)	-0.00090 (0.0014)	-0.00090 (0.0014)	-0.00021 (0.0015)	-0.00063 (0.0013)	-0.0012 (0.0012)
상수	5.82*** (0.14)	5.86*** (0.23)	5.86*** (0.23)	5.82*** (0.26)	5.23*** (0.47)	4.95*** (0.25)
추가 통제변수	현 가구특성, 성과 무관 직장특성 등	(1)+ 원 가구특성	(2)+ 진학 성과	(2)+ 취업 관련 자기계발	(2)+ 비인지영역	(2)+ 성과 유관 직업특성
	현재 가족구성, 경력 여부, 직장 소재지, 업종, 직장 유형	부모 연령/학력/직업, 양부모 여부, 중3 가구소득, 중3~고3 사교육비	학력	취업 관련 영어공부, 제2외국어 공부, 자격증 여부, 해외연수 여부	건강상태, 자존감, 행복 정도, 신뢰도	종사상 지위, 풀타임, 정규직, 대기업 여부
관측치 수	122	122	122	122	122	122
R^2	0.289	0.397	0.397	0.418	0.465	0.560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4-19>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4년제대졸 이상)

변수	(1) 로그 근로소득	(2) 로그 근로소득	(3) 로그 근로소득	(4) 로그 근로소득	(5) 로그 근로소득	(6) 로그 근로소득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0.14* (0.072)	-0.12 (0.077)	-0.12 (0.077)	-0.12 (0.079)	-0.096 (0.075)	-0.054 (0.058)

성별: 여성	-0.093* (0.053)	-0.073 (0.051)	-0.073 (0.051)	-0.092* (0.050)	-0.035 (0.054)	-0.090* (0.047)
중2-2 석차백분율(%)	-0.0021** (0.0010)	-0.0015 (0.0011)	-0.0015 (0.0011)	-0.00083 (0.0012)	-0.0023** (0.0011)	-0.0016 (0.00098)
상수	6.04*** (0.13)	6.00*** (0.16)	6.00*** (0.16)	5.91*** (0.16)	5.72*** (0.30)	5.03*** (0.28)
추가 통제변수	현 가구특성, 성과 무관 직장특성 등	(1)+ 원 가구특성	(2)+ 진학 성과	(2)+ 취업 관련 자기계발	(2)+ 비인지영역	(2)+ 성과 유관 직업특성
	현재 가족구성, 경력 여부, 직장 소재지, 업종, 직장 유형	부모 연령/학력/직업, 양부모 여부, 중3 가구소득, 중3~고3 사교육비	학력	취업 관련 영어공부, 제2외국어 공부, 자격증 여부, 해외연수 여부	건강상태, 자존감, 행복 정도, 신뢰도	종사상 지위, 풀타임, 정규직, 대기업 여부
관측치 수	294	294	294	294	294	294
R^2	0.192	0.264	0.264	0.287	0.289	0.482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이 외에 <표 4-20>~<표 4-21>은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부모 학대는 원가구특성까지 통제한 (2)번 모형을 기준으로 피학대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월평균 근로소득을 1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보다 영향의 크기가 약간 줄어든 결과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역시 잦은 직장 이동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 4-10>에서와 같이 임금근로자만 대상으로 할 경우 부모의 학대가 풀타임 여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잦은 직장이동과 풀타임 여부, 그리고 기타 잠재적 경로 변수들이 학대의 영향을 각각 얼만큼씩 설명해주는지 확인해보고자 Gelbach(2016)의 요인분해를 임금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도 적용해 보았다(<표 4-22>). 분석 결과,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잦은 직장 이동'과 '풀타임 근로 여부'였다. 이들은 해당 영향을 각각 58%와 41%씩 설명하고 있었다. 한편 부록 4-4에는 로그를 씌우지 않은 월평균 근로소득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경우의 분석 결과(<부표 4-18>~<부표 4-19>)와 2015년까지 이루어

진 조사를 토대로 첫직장 임금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경우(<부표 4-20>)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를 일반 월평균 근로소득으로 하였을 경우 원가구 특성까지 통제한 (2)번 모형 기준으로 부모의 학대는 자녀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36.4만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학대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약 13.1% 낮은 수준으로 로그 월평균 근로소득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와 유사하였다. 또한 과거 일자리 수 및 과거 일자리 수와 피학대 여부 간의 교호작용항, 그리고 현 직장 근무개월 수를 통제하였을 경우 부정적인 영향은 유의성이 사라졌다. 첫 직장 임금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에는 부모 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갖지 않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5년은 조사대상자들이 27세로 이 시기는 4년제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한 남성들이라면 아직 직장에 취업하기 이전일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 학대는 원가구 특성까지 통제할 때 자녀의 초기 성인기 월평균 근로소득을 약 13%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 부분 '잦은 직장이동'이 설명해 주며, 이는 학대 피해자에게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부모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은 남성에게서 더 크고 유의한 반면 여성에게서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있고 성적이 좋지 않은 표본들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이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20>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임금근로자)

변수	(1) 로그 근로소득	(2) 로그 근로소득	(3) 로그 근로소득	(4) 로그 근로소득	(5) 로그 근로소득	(6) 로그 근로소득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0.13*** (0.049)	-0.12** (0.052)	-0.13** (0.052)	-0.12** (0.052)	-0.12** (0.051)	-0.085** (0.040)
성별: 여성	-0.17*** (0.042)	-0.17*** (0.041)	-0.16*** (0.041)	-0.17*** (0.041)	-0.12*** (0.043)	-0.16*** (0.035)
중2-2 석차백분율(%)	-0.0012* (0.00068)	-0.00043 (0.00081)	-0.00076 (0.00088)	0.00023 (0.00083)	-0.00072 (0.00076)	-0.00028 (0.00065)
상수	6.00*** (0.097)	5.87*** (0.13)	5.95*** (0.17)	5.78*** (0.13)	5.60*** (0.26)	4.91*** (0.20)
추가 통제변수	현 가구특성, 성과 무관 직장특성 등	(1)+ 원 가구특성	(2)+ 진학 성과	(2)+ 취업 관련 자기계발	(2)+ 비인지영역	(2)+ 성과 유관 직업특성
	현재 가족구성, 경력 여부, 직장 소재지, 업종, 직장 유형	부모 연령/학력/직업, 양부모 여부, 중3 가구소득, 중3~고3 사교육비	학력	취업 관련 영어공부, 제2외국어 공부, 자격증 여부, 해외연수 여부	건강상태, 자존감, 행복 정도, 신뢰도	종사상 지위, 풀타임, 정규직, 대기업 여부
관측치 수	431	431	431	431	431	431
R^2	0.215	0.257	0.259	0.291	0.287	0.457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4-21>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임금근로자)2

변수		(7) 로그 근로소득	(8) 로그 근로소득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0.026 (0.070)	-0.017 (0.060)
과거 일자리 수 (준거: 없음)	1~2개	-0.0073 (0.051)	-0.047 (0.048)
	3~6개	-0.022 (0.057)	-0.062 (0.048)
	7개 이상	0.23** (0.10)	0.14* (0.087)
학대 여부 * 과거 일자리 수	1*(1~2개)	-0.18 (0.12)	-0.050 (0.091)
	1*(3~6개)	-0.11 (0.11)	-0.0041 (0.097)
	1*(7개 이상)	-0.45*** (0.17)	-0.34** (0.14)
현 직장 근무 개월수		0.0038*** (0.00077)	0.0028*** (0.00067)
성별: 여성		-0.21*** (0.041)	-0.18*** (0.036)
중2-2 석차백분율(%)		-0.00092 (0.00075)	-0.00047 (0.00070)
상수		5.55*** (0.14)	4.87*** (0.28)
추가 통제변수		(2)번 모형과 동일 단, 경력 여부 변수는 제외	full[주2] 단, 경력 여부 변수는 제외
관측치 수		431	431
R^2		0.334	0.537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원가구특성 및 (8)번 모형~(11)번 모형에서 각각 통제했던 진학 성과, 취업 관련 자기계발, 비인지영역, 성과 유관 직업특성 변수들을 모두 통제함.

<표 4-22>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월평균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해 (임금근로자 대상)

변수	모형		설명	
	Base	Full	설명된 부분	설명 비중(%)
학대 여부	-0.117[주1] (0.053)	-0.017 (0.060)	-0.1 (0.064)	100
Covariates				
학력	x	o	0.001 (0.002)	-1
취업 관련 자기계발	x	o	-0.002 (0.009)	2
비인지영역[주2]	x	o	0 (0.006)	0
종사상 지위	x	o	0.003 (0.006)	-3
풀타임 여부	x	o	-0.041 (0.032)	41
정규직, 대기업 여부	x	o	-0.002 (0.008)	2
과거 일자리 수[주3]	x	o	0.017 (0.01)	-17
학대 여부 * 과거 일자리 수	x	o	-0.058 (0.053)	58
현 직장 근무개월 수	x	o	-0.017 (0.013)	17

주1: Gelbach(2016)의 요인분해를 실시할 때에는 기본 모형에서 경력여부 변수를 제외하였으므로, (2)번 모형의 분석결과와 수치에 약간 차이가 있음.
주2: 비인지영역에는 건강상태, 자존감, 행복 정도, 신뢰도 변수가 포함됨.
주3: 이 분석에서 '과거 일자리 수'의 경우, '학대 여부*과거 일자리 수' 부분은 partialled out된 개념임.

4-3.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한 분석

본 장에서는 표본이탈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Heckman의 2단계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한 분석도 시행해 보았다. Heckman의 2단계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할 경우, 우선 Probit 모형을 통해 표본에서 배제될 위험률인

Inverse Mill's Ratio(IMR)가 도출된다(1단계). 이후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OLS식에 이 IMR이 독립변수로 추가됨으로써 표본선택 편의가 보정된다(2단계). 참고로 Heckman의 표본선택 모형이 적절히 구성되기 위해서는 2단계 OLS 추정식에 포함되는 독립변수들의 집합이 1단계 Probit 모형 독립변수들 집합의 부분집합(subset)이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1단계 Probit 모형에서는 표본선택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근로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가 적어도 한 개 이상 포함될 필요가 있다(Wooldridge, 2009). 본 장에서는 이러한 변수로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는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지,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선생님이 있는지의 변수(1차 조사 기준)를 사용하였다. 이는 1차 조사가 학교와 연계되어 진행되었으므로 이 때 학교에 자신이 호의적인 선생님이 있다면, 1차 및 이후의 조사에서 보다 성실하게 응답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외에 표본 포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양부모 여부, 어머니 직업 유무 여부[84], 가출경험 여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경제적 수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한 성실성 변수도 추가하였다[85]. 또한 2단계 OLS 분석에서는 부모의 학대 변수 외에 본 데이터에서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부록 4-5의 (3)번 모형 참고)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 하더라도, 1단계 Probit 모형 분석 시 포함시킬 수 없는 변수들(현 가구 특성, 과거 직장 유무, 현 직장 업종)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표 4-23>은 이러한 Heckman의 2단계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하여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로그 월평균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결과의 비교를 위해 OLS모형을 이용한 추정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IMR을 나타내는 λ 값이 유의하여 표본선택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중치만 적용한 기본 OLS 추정치는 다소 과소추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장의 분석 결과들은 과소추정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84)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도 진행되었으므로, 어머니 직업 유무 역시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봄.

85) 1차 조사 데이터를 이용함.

<표 4-23>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Heckman 2단계 표본선택모형 이용)

변수		(1) Heckman 1단계 (Probit)	(2) Heckman 2단계 (OLS)	(3) OLS (가중치 적용)
		표본 포함	ln(근로소득)	ln(근로소득)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0.25*** (0.089)	-0.14** (0.057)	-0.12** (0.051)
성별: 여성		-0.12 (0.072)	-0.17*** (0.042)	-0.19*** (0.042)
중2-2 석차백분율(%)		-0.0062*** (0.0014)	-0.0027*** (0.00099)	-0.0013* (0.00077)
모 학력: 대졸 이상		-0.30** (0.12)	0.097 (0.078)	0.13** (0.065)
부 직업 (준거= 관리자 등)	사무직	0.13 (0.16)	-0.065 (0.065)	-0.11* (0.057)
	서비스·판매직	-0.0094 (0.11)	0.026 (0.060)	0.026 (0.059)
	생산직	0.035 (0.096)	-0.022 (0.046)	-0.040 (0.050)
	군인	0.14 (0.44)	0.011 (0.12)	0.14** (0.073)
	무직	-0.10 (0.21)	-0.13 (0.085)	-0.11 (0.094)
양부모 여부: 양부모(stepparents)		-0.83*** (0.22)		
모 직업: 무직 여부		-0.14* (0.075)		
중3 가구소득: 하위 30% 여부		0.092 (0.084)		
존경하는 선생님 여부		0.042 (0.093)		
좋아하는 선생님 여부		0.15* (0.087)		
나를 이해해주는 선생님 여부		-0.13 (0.078)		
가출경험 여부		-0.14 (0.16)		
자신의 경제적 수준		-0.058 (0.061)		
학교생활에 대한 성실성		-0.022 (0.049)		
상수		0.48 (0.44)	5.59*** (0.15)	5.89*** (0.072)
Lambda(λ)			0.31* (0.18)	
관측치 수		1,445	482	482
R^2			0.078	0.091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제 5 절 결론

본 장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개인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았다. 우선 부모의 학대는 자녀의 직업 유무나 정규직 여부, 풀타임 근로 여부 및 대기업 근무 여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근로소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 학대는 원가구 특성까지 통제할 때 자녀의 초기 성인기 월평균 근로소득을 약 13% 감소시켰다. 다만 본 장의 분석 결과는 부모학대의 영향을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 학대가 자녀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서는 '잦은 직장이동'이 상당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아울러 부모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크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있고 성적이 좋지 않은 표본들이 여성에게서 더 많이 이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당초 교육고용패널 중 3 코호트 조사시작 인원이 2,000명이었던 데 반해 2019년 추적조사에 성공한 인원은 753명, 실제 분석에 사용된 케이스는 560명으로 많은 표본 이탈이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심한 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 수감이나 자살, 사회적 낙오 등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쉬우며, 이는 표본이탈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여성의 경우는 표본이탈로 피학대 경험의 제대로 된 영향을 추정해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표본이탈과 관련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이 있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많이 이탈되었고, 이에 따라 본 논문의 결과는 과소추정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하여 표본이탈문제를 완화한 분석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둘째, 노동시장 성과를 판단하는 시점이 2019년 한 해로, 이 성과는 일시적인 성과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2019년 이전의 노동시장 성과를 판

단할 수 있는 시점은 조사대상 개인들이 27세인 2015년으로, 이 시점은 아직 상당수의 개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일 가능성이 있다. 셋째, 2019년의 노동시장 성과 역시 이 시점에 조사 대상자들의 나이가 31세로 아직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원가구의 경제적 요건이 좋을 때 노동시장 진입은 충분한 탐색 후 더욱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부모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과소추정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86] 이러한 부분들은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 남겨두며, 추후 본 패널조사의 노동시장 성과 추적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보완이 가능해질 것이다. 넷째, 이용한 데이터 상의 한계로 인해 부모의 학대가 정확히 어느 시기에 이루어진 학대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우며, 학대의 빈도 등은 분석에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의 학대는 그 개념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학대의 개념보다 좀 더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국내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로는 처음으로 부모 학대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피학대 경험이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잦은 직장이동임을 Gelbach(2016)의 요인분해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대 피해자에게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원가구 특성 뿐 아니라 중학교 성적 변수까지 통제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경제학적으로 특징적인 의의를 가진다. 첫째, 저출생 고령화로 노동생산성 제고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부모의 자녀 학대를 감소시키는 것이 노동생산성 제고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부모의 자녀 학대가 극소수만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임을 확인하였으며[87],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86) 일부 분석결과에서는 통제변수의 영향이 통상적인 결과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 많은 부분이 노동시장 성과 판단 시점이 이르다는 점에 기인함.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또한 확인하였다. 아울러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수준의 아동학대보다는 경미한 수준의 학대라 하더라도 이 역시 개인의 인적자본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 학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개략적으로나마 수치로 계산해보면, 우선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2004년 기준 만 15세(중3)에 대한 비용은 해당 인구수 628,225명[88] * 피학대경험 비율 16.6% * 고용률 76%[89] * 피학대로 인한 월 근로소득 감소액 364,000원[90] * 12개월 = 연간 약 3,462억이 도출된다. 또한, 비록 본 연구 결과는 엄밀하게는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본 수치이나, 만약 이 영향 정도가 근로 시점에 따라 큰 차이가 없고 피학대 비율도 연령대별로 비슷하다고 가정한다면 부모의 자녀학대에 따른 국가 전체적인 손실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볼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 36,791,000명[91] * 피학대경험 비율 16.6% * 고용률 66.8%[92] * 364,000원 * 12개월 = 연간 약 17.8조원으로, 이는 2019년 명목 GDP 1,924.5조원의 약 0.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단, 이 수치는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에 따른 비용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본 논문의 결과 수치 또한 표본이탈 등의 문제로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 부모의 자녀학대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관련 손실은 이보다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근로 시점에 따라 피학대의 영향이 같다는 가정은 성립하기 어렵고, 피학대 비율도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기 쉬우므로 생산가능인구 전체에 대한 노동생산성 저하 관련 손실의 크기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학대에 따른 개인의 인적자본 손

87) 피학대경험이 있을 경우 표본이탈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부록 4-1 참고), 실제 피학대율은 본 분석에서 제시한 수치보다도 더 높을 수 있음.
88) 2008년 기준 19세 인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89) 2019년 기준 30~39세 고용률이며 출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90) 2019년 기준이며, 개인적 특성과 현 가구특성 및 성과와 무관한 직장특성 및 원가구 특성까지 통제한 <표 4-11>의 (2)번 수치를 이용함.
91) 2019년 기준 생산가능인구(15~64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92) 2019년 기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이 상당 수준에 이르며, 부모의 자녀학대를 감소시킬 때 국가적으로 상당한 노동생산성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본 논문이 갖는 의의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본 논문이 추가적으로 경제학적 의의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본 논문의 결과가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산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에는 여러 사회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 여기에는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비용, 사법비용 등의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피학대의 후유증에 따른 건강 관리 비용과 문제행동(자살, 알콜 중독, 범죄 등) 비용, 특수교육 비용, 생산성 감소 비용, 이혼 비용 등의 간접 비용까지 포함된다(Peterson et al., 2015; Wang & Holton, 2007; Gelles & Perlman, 2012; 김수정, 정익중, 2016). 아동학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파악하는 것은 아동학대를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과 같은 사회적 자원을 이 부문에 어느 정도 배분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한 연구로는 김수정, 정익중(2016)의 연구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 3,899억원(GDP 대비 0.03%)에서 최대 76조원(GDP 대비 5.1%)으로 추산하였다.[93] 다만 이들은 비용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미비로 인해 다수의 비용산출 결정요인[94]을 대부분 델파이 조사법으로 도출하였다. 한편 이들이 산출한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좀 더 살펴보면, 직접 비용에 비해 간접 비용의 비중이 훨씬 컸고, 특히 고용관련 비용(생산성 저하 비용, 미취업/실직 비용)[95]이 52.6%~ 61.1%[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

93) 최소비용과 최대비용의 차이는 유병율(아동학대 발생률) 차이에 기반하는데, 최소비용 계산 시에는 신고기반 유병율 0.11%를 적용하였고, 최대비용 계산 시에는 『아동학대 실태조사 2011』의 심각한 사례 기준 유병율 25%를 적용함.

94) 아동학대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이용할 비율, 아동학대 후유증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비율, 이혼할 비율, 범죄를 저지를 비율, 기초생활보장을 받게 될 비율, 생산성 저하 및 미취업·실직 비율 등

95) 생산성 저하 비용=2014년 총 아동수 * 평균 연봉(GNI) * 아동학대로 인한 생산성 저하 비율 40%(델파이 전문가 조사) * 유병율, 미취업/실직 비용=2014년 총 아동수 * 평균 연봉(GNI) * 아동학대로 인한 미취업/실직 비율 29%(델파이 전문가 조사) * 유병율

였다. 이 영역의 비용이 아동학대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터키, 영국, 캐나다, 미국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김수정, 정익중, 2016), 이처럼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용 관련 비용을 보다 적절하게 산출할 수 있다면, 이는 아동학대의 전체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학대경험 아동의 이들에 대한 신체적 및 정서적 공격 주요 행위자의 대부분(97.1%[97])이 부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에서 언급한 부모의 자녀 학대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관련 손실을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고용 관련 비용의 근사치로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과소추정 가능성 및 가정 성립의 어려움 등 본 수치가 갖는 한계점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아동학대와 관련된 패널데이터가 장기적으로 축적이 된다면 보다 정확한 비용을 산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96) (최소) 생산성 저하 비용 1,188.3억+미취업/실직 비용 861.5억=약 2,050억, (최대) 생산성 저하 비용 27조+미취업/실직 비용 19.6조=46.6조

97)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11)

부록 4-1. 표본이탈 관련 분석

본 논문에서 이용한 교육고용패널 중3 코호트의 경우 조사대상 학생 수가 1차에서 2,000명이었던 데 비해 2019년 추적조사에 성공한 케이스는 753명, 실제 분석에 사용된 케이스는 560명으로 많은 표본이탈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표본이탈 관련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추적조사 성공 케이스 대비 표본이탈 분석과 원표본 대비 추적조사 성공 케이스 분석을 둘 다 시행하였다. 원표본 대비 추적조사 성공 케이스 분석도 시행한 이유는 추적조사 성공률이 낮아 일부 집단이 아예 표본에서 이탈되어 버린 경우 가중치 보정에 한계가 있어 이러한 부분도 해석 상 유의하기 위함이다.

4-1-1. 추적조사 성공 케이스 대비 표본이탈 분석

분석대상에 포함된 경우와 분석대상에서 이탈된 경우 간의 기초통계값에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다.

<부표 4-1> 분석대상에 포함된 경우와 이탈된 경우의 기초통계값 비교

변수	표본 포함			표본 이탈			t 검정값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피학대경험 여부	0.17	0.38	560	0.25	0.43	144	2.03**
성별: 여학생	0.52	0.50	560	0.44	0.50	193	-1.86*
중2-2 석차백분율	43.63	26.5	560	50.89	26.74	111	2.63***
양부모 여부	0.01	0.12	560	0.26	0.44	186	7.60***
부 연령	45.02	3.80	560	45.06	3.94	154	0.14
부 교육연수	12.50	2.76	560	12.82	2.98	152	1.21
모 연령	42.07	3.36	560	42.27	6.19	176	0.41
모 교육연수	11.64	2.39	560	11.62	2.56	174	-0.12
월평균소득	312.98	177.38	560	271.28	180.74	181	-2.74***
월평균 사교육비	23.41	23.77	560	20.38	23.81	193	-1.53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표 4-1>에 따르면 분석대상에 포함된 경우와 분석대상에서 이탈된 경우는 피학대경험 여부, 중학교 성적, 양부모(stepparents) 여부, 월평균 소득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분석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피학대경험이 적고 중학교 성적은 좋았으며, 부모가 양부모인 경우가 적었고, 월평균 소득이 높았다. 따라서 분석대상 표본은 가정환경 및 성과 측면에서 실제보다 나은 집단을 대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표 4-2>를 통해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부모가 양부모일수록 표본에서 이탈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표 4-2>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1)		(2)		(3)	
	표본이탈	한계효과[98]	표본이탈	한계효과	표본이탈	한계효과
피학대 여부	0.49**	0.086**	0.41	0.043	0.93**	0.056*
	(0.22)	(0.042)	(0.30)	(0.035)	(0.44)	(0.031)
성별: 여학생			-0.37	-0.036	-0.34	-0.017
			(0.26)	(0.025)	(0.40)	(0.020)
중2-2 석차백분율(%)			0.011**	0.0010**	-0.0012	-0.000061
			(0.0049)	(0.00048)	(0.0078)	(0.00039)
양부모 여부					3.79***	0.19***
					(0.61)	(0.031)
부 직업[주2]: 서비스 및 판매					1.62**	0.12*
					(0.75)	(0.062)
상수	-1.46***		-2.53***		-3.98***	
	(0.11)		(0.31)		(1.34)	
기타 통제변수[주3]: 부 연령/학력, 월평균소득, 월평균사교육비	x		x		o	
관측치 수	704		629		584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준거집단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이며, 다른 종류의 아버지 직업은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표본이탈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표에서 생략
주3: 기타 통제변수들은 유의수준 5% 하에서 표본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98) 비선형모형의 한계효과는 설명변수 값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균값에서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 at the mean)를 구할 수도 있고, 한계효과의 평균값(average marginal effect)을 구할 수도 있음(김보민, 조대연, 2018). 본 논문에서는 평균한계효과, 즉 한계효과의 평균값을 이용함.

<부표 4-3>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성)

변수		(1)		(2)		(3)	
		표본이탈	한계효과	표본이탈	한계효과	표본이탈	한계효과
피학대 여부		0.42 (0.28)	0.082 (0.056)	0.49 (0.37)	0.060 (0.049)	1.16* (0.61)	0.071* (0.043)
중2-2 석차백분율(%)				0.012* (0.0067)	0.0014* (0.00075)	0.0091 (0.012)	0.00047 (0.00062)
양부모 여부						3.76*** (1.12)	0.19*** (0.056)
부 직업[주2]	서비스 및 판매					2.24** (1.13)	0.13* (0.079)
상수		-1.24*** (0.15)		-2.63*** (0.39)		-6.11** (2.52)	
기타 통제변수[주3]	부 연령/학력, 월평균소득, 월평균사교육비	x		x		o	
관측치 수		357		311		287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준거집단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이며, 다른 종류의 아버지 직업은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표본이탈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표에서 생략
주3: 기타 통제변수들은 유의수준 5% 하에서 표본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부표 4-4>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

변수		(1)		(2)		(3)	
		표본이탈	한계효과	표본이탈	한계효과	표본이탈	한계효과
피학대 여부		0.41 (0.39)	0.061 (0.064)	0.24 (0.55)	0.020 (0.050)	0.88 (0.83)	0.049 (0.056)
중2-2 석차백분율(%)				0.0095 (0.0075)	0.00075 (0.00060)	-0.0090 (0.013)	-0.00041 (0.00059)
양부모 여부						4.12*** (0.98)	0.19*** (0.044)
상수		-1.69*** (0.16)		-2.81*** (0.40)		-2.99 (1.82)	
기타 통제변수[주2]	부 연령/학력/직업, 월평균소득, 월평균사교육비	x		x		o	
관측치 수		347		318		269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기타 통제변수들은 유의수준 5% 하에서 표본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4-1-2. 원표본 대비 추적조사 성공 케이스 분석

<부표 4-5>에 따르면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중학교 성적이 안 좋을수록 추적조사에 실패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본 분석에서의 데이터는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있으면서 특히 성적이 좋지 않았던 개인들을 과소 반영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본 논문이 부모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과소추정하고 있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참고로, 이러한 현상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표 4-5> 추적조사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1)		(2)		(3)	
		추적성공	한계효과	추적성공	한계효과	추적성공	한계효과
피학대 여부		-0.38***	-0.090***	-0.34**	-0.079***	-0.31**	-0.072**
		(0.12)	(0.028)	(0.13)	(0.030)	(0.14)	(0.032)
성별: 여학생				-0.15	-0.036	-0.15	-0.035
				(0.11)	(0.025)	(0.11)	(0.026)
중2-2 석차백분율(%)				-0.0067***	-0.0016***	-0.0073***	-0.0017***
				(0.0019)	(0.00046)	(0.0022)	(0.00050)
양부모 여부						-0.46	-0.11
						(0.29)	(0.069)
상수		-0.29***		0.11		0.19	
		(0.055)		(0.12)		(0.38)	
기타 통제변수[주2]	부 연령/학력/직업, 월평균소득, 월평균사교육비	x		x		o	
관측치 수		1,721		1,534		1,428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기타 통제변수들은 유의수준 5% 하에서 추적조사 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부표 4-6> 추적조사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성)

변수		(1)		(2)		(3)	
		추적성공	한계효과	추적성공	한계효과	추적성공	한계효과
피학대 여부		-0.23 (0.16)	-0.055 (0.038)	-0.14 (0.18)	-0.034 (0.042)	-0.12 (0.19)	-0.028 (0.044)
중2-2 석차백분율(%)				-0.0081*** (0.0027)	-0.0019*** (0.00064)	-0.0086*** (0.0031)	-0.0020*** (0.00072)
양부모 여부						-0.46 (0.45)	-0.11 (0.11)
상수		-0.27*** (0.080)		0.12 (0.16)		-0.46 (0.56)	
기타 통제 변수 주2	부 학력/직업, 월평균소득, 월평균사교육비	x		x		o	
관측치 수		854		737		682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기타 통제변수들은 유의수준 5% 하에서 추적조사 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부표 4-7> 추적조사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

변수		(1)		(2)		(3)	
		추적성공	한계효과	추적성공	한계효과	추적성공	한계효과
피학대 여부		-0.62*** (0.19)	-0.14*** (0.040)	-0.60*** (0.21)	-0.14*** (0.044)	-0.56** (0.22)	-0.12*** (0.046)
중2-2 석차백분율(%)				-0.0050* (0.0028)	-0.0012* (0.00065)	-0.0056* (0.0031)	-0.0013* (0.00071)
양부모 여부						-0.39 (0.39)	-0.089 (0.090)
상수		-0.30*** (0.076)		-0.077 (0.14)		0.52 (0.51)	
기타 통제 변수 주2	부 학력/직업, 월평균소득, 월평균사교육비	x		x		o	
관측치 수		867		797		746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기타 통제변수들은 유의수준 5% 하에서 추적조사 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부록 4-2. 학대경험 여부를 '보통이다'로 답변한 경우에 대한 분석

본 논문에서는 "심하게 때려서 내 몸엔 항상 멍이나 상처가 있었다"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경우부터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경우를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학대 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경우에는 빈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99] 그러나 교육고용패널에서는 빈도가 아닌 동의 정도를 답변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이가 존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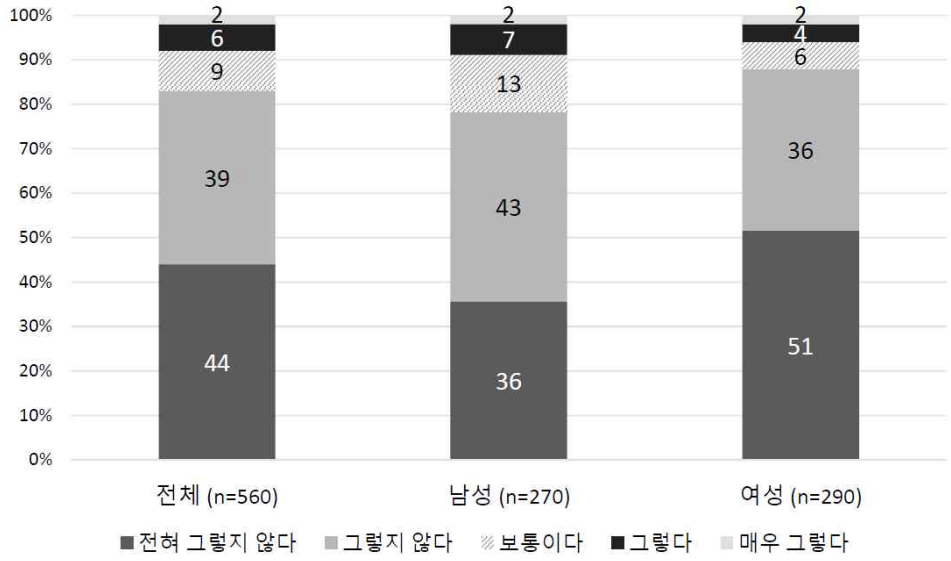
따라서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우선 학대여부에 대한 각 답변별 비율을 살펴보았다([부도 4-1]).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할 때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로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한 응답 중 "보통이다"가 차지하는 비율은 52.9%였다. 이와 더불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그룹과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그룹을 나누어, 그룹별 노동성과 기초통계값을 비교해보고 부모의 학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우선 학대경험 여부 응답별 노동성과 기초통계값을 비교해보면, 학대경험을 '보통'이라고 대답한 경우 학대경험이 없었던 그룹에 비해 월평균 근로소득이 낮았다. 유의수준 10% 기준으로는 대기업 근무 비율도 낮았다. 반면 학대 경험에 대해 '그렇다'거나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그룹은 학대경험이 없었던 그룹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99) 일례로, '전혀 없다 / 1~2회 / 그 이상'이나 '전혀 없다(never) / 때때로(sometimes) / 자주(often)' 등으로 답변이 구성됨.

[부도 4-1] 학대여부 답변별 비율(%)



<부표 4-8> 학대경험 여부 응답별 기초통계값

변수		학대경험 무			학대경험: 보통				학대경험: 그렇다 이상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t 값[주3]	평균	표준편차	N	t 값[주3]
전체	직업 유무: 유	0.87	0.34	465	0.89	0.31	51	0.46	0.84	0.37	44	-0.51
	정규직	0.89	0.31	402	0.84	0.37	44	-0.69	0.90	0.30	36	0.17
	풀타임 근로	0.94	0.25	402	0.86	0.35	44	-1.14	0.92	0.27	36	-0.30
	월평균 근로소득	278	112	402	239	86	44	-2.55**	257	81	36	-1.38
임금 근로자	정규직	0.88	0.33	357	0.83	0.38	40	-0.62	0.89	0.32	34	0.16
	대기업 근로	0.41	0.49	357	0.24	0.43	40	-1.90*	0.43	0.50	34	0.19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가중치 적용함.
주3: 학대경험이 없는 그룹과의 비교 결과임.

<부표 4-9>는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대 경험 여부를 '보통'과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피학대 여부가 '보통'인 경우 근로소득에 유의

수준 5% 하에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피학대 여부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성별과 중학교 성적이라는 개인 특성을 통제했을 경우(<부표 4-10>)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피학대 여부 '보통'의 부정적인 영향이 '그렇다 이상'의 부정적인 영향보다 크고 유의한 원인이 불균형한 표본이탈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분석을 시행해 보았다. <부표 4-11>과 <부표 4-12>는 피학대 여부를 '보통'과 '그렇다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추적조사 성공 케이스 대비 표본이탈 및 원표본 대비 추적조사 성공 케이스(추적조사에서의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인데, 이 경우에도 학대 여부에 대해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그룹이 '보통' 그룹보다 더 많은 표본이탈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부표 4-9>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변수		전체	직업 有			임금근로자	
		(1) 직업 여부 (logit)	(2) 정규직 여부 (logit)	(3) 풀타임 여부 (logit)	(4) 로그 근로소득 (OLS)	(5) 정규직 여부 (logit)	(6) 대기업 여부 (logit)
피학대 여부	보통	0.21	-0.41	-0.83	-0.14**	-0.36	-0.77*
		(0.48)	(0.53)	(0.57)	(0.068)	(0.53)	(0.46)
	그렇다 이상	-0.26	0.10	-0.19	-0.048	0.099	0.079
		(0.48)	(0.63)	(0.59)	(0.057)	(0.64)	(0.41)
상수		1.91***	2.09***	2.67***	5.55***	1.98***	-0.37***
		(0.17)	(0.20)	(0.22)	(0.025)	(0.20)	(0.13)
관측치 수		560	482	482	482	431	431
R^2					0.010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표 4-10>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2

변수		전체	직업 有			임금근로자	
		(1) 직업 여부 (logit)	(2) 정규직 여부 (logit)	(3) 풀타임 여부 (logit)	(4) 로그 근로소득 (OLS)	(5) 정규직 여부 (logit)	(6) 대기업 여부 (logit)
피학대 여부	보통	0.32 (0.48)	-0.40 (0.56)	-0.99 (0.62)	-0.16** (0.071)	-0.31 (0.57)	-0.52 (0.48)
	그렇다 이상	-0.24 (0.50)	0.11 (0.64)	-0.30 (0.61)	-0.070 (0.058)	0.13 (0.63)	0.23 (0.43)
성별: 여성		-0.44 (0.33)	0.0033 (0.36)	-0.44 (0.38)	-0.18*** (0.042)	0.0095 (0.36)	0.0077 (0.25)
중2-2 석차백분율(%)		-0.014*** (0.0045)	-0.00067 (0.0065)	0.0034 (0.0088)	-0.0017** (0.00070)	-0.0042 (0.0068)	-0.022*** (0.0050)
상수		3.21*** (0.65)	2.11*** (0.63)	3.22*** (0.73)	5.89*** (0.068)	2.12*** (0.64)	0.43 (0.44)
관측치 수		560	482	482	482	431	431
R^2					0.068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표 4-11>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피학대 여부 세분화)

변수		(1)		(2)		(3)	
		표본이탈	한계효과	표본이탈	한계효과	표본이탈	한계효과
피학대 여부	보통	0.42 (0.29)	0.072 (0.055)	0.23 (0.40)	0.022 (0.042)	0.82 (0.55)	0.048 (0.039)
	그렇다 이상	0.57* (0.30)	0.10* (0.060)	0.59 (0.39)	0.066 (0.051)	1.05* (0.56)	0.066 (0.045)
성별: 여학생				-0.38 (0.26)	-0.037 (0.025)	-0.35 (0.40)	-0.018 (0.020)
중2-2 석차백분율(%)				0.011** (0.0049)	0.0011** (0.00048)	-0.0012 (0.0078)	-0.000060 (0.00039)
양부모 여부						3.81*** (0.62)	0.19*** (0.031)
부 직업[주2]	서비스 및 판매					1.65** (0.76)	0.12* (0.063)
상수		-1.46*** (0.11)		-2.54*** (0.31)		-3.97*** (1.34)	
기타 통제변수[주3]	부 연령/학력, 월평균 소득, 월평균 사교육비	x		x		○	
관측치 수		704		629		584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준거집단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이며, 기타 직업군은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표본이탈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표에서 생략
주3: 기타 통제변수들은 유의수준 5% 하에서 표본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부표 4-12> 추적조사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피학대 여부 세분화)

변수		(1)		(2)		(3)	
		추적성공	한계효과[100]	추적성공	한계효과	추적성공	한계효과
피학대 여부	보통	-0.48***	-0.11***	-0.42**	-0.096**	-0.33*	-0.077*
		(0.16)	(0.034)	(0.17)	(0.038)	(0.18)	(0.040)
	그렇다 이상	-0.26	-0.062	-0.24	-0.057	-0.28	-0.065
		(0.17)	(0.039)	(0.18)	(0.042)	(0.19)	(0.044)
성별: 여학생				-0.15	-0.036	-0.15	-0.035
				(0.11)	(0.025)	(0.11)	(0.026)
중2-2 석차백분율(%)				-0.0067***	-0.0016***	-0.0073***	-0.0017***
				(0.0019)	(0.00046)	(0.0022)	(0.00050)
양부모 여부						-0.46	-0.11
						(0.29)	(0.069)
상수		-0.29***		0.11		0.19	
		(0.055)		(0.12)		(0.38)	
기타 통제변수[주2]	부 연령/학력/직업, 월평균소득, 월평균사교육비	x		x		○	
관측치 수		1,721		1,534		1,428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기타 통제변수들은 유의수준 5% 하에서 추적조사 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이상의 결과는 피학대 경험 여부가 '보통'인 경우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인 경우에 비해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다고 보여주지만, 실제로 약한 정도의 학대가 심한 학대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심한 학대의 경우에만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한다

100) 비선형모형의 한계효과는 설명변수 값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균값에서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 at the mean)를 구할 수도 있고, 한계효과의 평균값(average marginal effect)을 구할 수도 있음(김보민, 조대연, 2018). 본 논문에서는 평균한계효과, 즉 한계효과의 평균값을 이용함.

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 Tanaka et al.(2011)은 아동기 및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통제했을 때 심각한 신체적 학대는 학대가 없었던 경우에 비해 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각하지 않은 신체적 학대는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ryant & Range(1997)는 심각한 학대를 당한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학대를 당했을 때보다 자살경향(suicidality)이 더 높다고 하였으며, Clemmons et al.(2007)은 학대 정도가 심할수록 더 큰 트라우마 증상을 겪으며, 심각한 정도의 학대는 여러 유형의 학대를 당한 것보다 트라우마 증상의 더 강력한 예측변수가 된다고 하였다. 강정희(2018) 역시 학대 강도가 높아질수록 대인신뢰와 공적시스템 신뢰가 줄어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감안할 때, '보통'의 피학대 경험이 '그렇다 이상'의 피학대 경험보다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은 피학대 경험 여부를 물어보는 설문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자신의 학대경험 정도를 축소하여 응답한 케이스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자신의 피학대 경험을 응답하는 설문에서는 과소보고(underreport)가 종종 목격된다. Femina et al.(1990)은 수치심 또는 부모를 보호하려는 마음 등의 이유로 자신의 학대경험을 과소보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Kalichman(1999; Tajima et al., 2004에서 재인용)은 최근의 부모 학대 여부에 대한 설문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응답자의 두려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더 나아가 Tajima et al.(2004)은 학대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안을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여 과소보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학대경험 여부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실제 피학대 정도가 약한 수준일 수도 있지만, 과소보고한 케이스가 섞여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약한 수준의 학대로 인한 응답인지 또는 과소보고로 인한 응답인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까지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포함시켰다. 기본적으로 학대 문항이 "심하게 때려서 내 몸엔 항상 멍이나 상처

가 있었다"이므로, 이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했을 때 부모의 폭력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통이다"까지 학대에 포함시키고, 본 논문에서의 학대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학대의 개념보다 좀 더 광범위하다는 점을 해석 상에서 유의하고자 한다.[101]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인식되는 학대도 개인의 인적자본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덧붙여 피학대 경험 여부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보통이다"라는 응답부터 학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01) 참고로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11)에 따르면 아동의 연간 신체적 학대 발생률은 제한적 기준(심각한 학대만 포함)으로 7.0%, 포괄적 기준(심각한 학대와 경미한 학대 포함)으로 30.3%인 것으로 나타남. 이 중 대부분의 학대 행위자가 부모이고(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의 97.1%가 신체적 및 정서적 공격 행위자를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응답), 평생 발생률은 연간 발생률보다 조금 더 높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는 점을 감안할 때, 본 논문의 피학대율 16.3%의 기준은 제한적 기준과 포괄적 기준의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부록 4-3.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최종학력별)

<부표 4-13>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남성)

변수	전체	직업 有			임금근로자	
	(1) 직업 여부 (logit)	(2) 정규직 여부 (logit)	(3) 풀타임 여부 (logit)	(4) 로그 근로소득 (OLS)	(5) 정규직 여부 (logit)	(6) 대기업 여부 (logit)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0.062	-0.32	-0.80	-0.17**	-0.30	-0.18
	(0.54)	(0.57)	(0.68)	(0.065)	(0.58)	(0.42)
중2-2 석차백분율(%)	-0.0077	-0.0013	0.011	-0.00063	-0.0056	-0.016**
	(0.0072)	(0.0098)	(0.015)	(0.0011)	(0.010)	(0.0067)
상수	2.46***	2.17***	2.49***	5.67***	2.23***	0.20
	(0.46)	(0.47)	(0.56)	(0.053)	(0.49)	(0.33)
관측치 수	270	245	245	245	218	218
R^2				0.034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표 4-14>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여성)

변수	전체	직업 有			임금근로자	
	(1) 직업 여부 (logit)	(2) 정규직 여부 (logit)	(3) 풀타임 여부 (logit)	(4) 로그 근로소득 (OLS)	(5) 정규직 여부 (logit)	(6) 대기업 여부 (logit)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0.067	0.090	-0.58	-0.011	0.22	-0.12
	(0.51)	(0.65)	(0.62)	(0.071)	(0.66)	(0.52)
중2-2 석차백분율(%)	-0.018***	-0.00089	-0.0030	-0.0030***	-0.0039	-0.030***
	(0.0057)	(0.0082)	(0.0090)	(0.00085)	(0.0085)	(0.0076)
상수	2.50***	2.10***	2.57***	5.56***	2.09***	0.69**
	(0.33)	(0.36)	(0.46)	(0.054)	(0.37)	(0.34)
관측치 수	290	237	237	237	213	213
R^2				0.039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표 4-15>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고졸 이하)

변수	전체	직업 有			임금근로자	
	(1) 직업 여부 (logit)	(2) 정규직 여부 (logit)	(3) 풀타임 여부 (logit)	(4) 로그 근로소득 (OLS)	(5) 정규직 여부 (logit)	(6) 대기업 여부 (logit)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0.039	0.48	-0.58	-0.23**	0.83	-0.68
	(0.76)	(1.00)	(0.81)	(0.10)	(0.98)	(1.02)
성별: 여성	-0.85	1.32	0.48	-0.30***	1.42	1.89**
	(0.60)	(1.03)	(0.86)	(0.098)	(1.03)	(0.75)
중2-2 석차백분율(%)	-0.0065	-0.010	-0.025	-0.0022	-0.019	-0.033
	(0.017)	(0.022)	(0.027)	(0.0022)	(0.024)	(0.022)
상수	3.11**	0.89	3.26	6.15***	0.99	-2.24*
	(1.54)	(2.55)	(2.06)	(0.27)	(2.69)	(1.27)
관측치 수	84	66	66	66	54	54
R^2				0.177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표 4-16>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졸)

변수	전체	직업 有			임금근로자	
	(1) 직업 여부 (logit)	(2) 정규직 여부 (logit)	(3) 풀타임 여부 (logit)	(4) 로그 근로소득 (OLS)	(5) 정규직 여부 (logit)	(6) 대기업 여부 (logit)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0.84	1.45	-0.24	-0.030	1.47	0.68
	(0.75)	(1.12)	(1.34)	(0.079)	(1.11)	(0.57)
성별: 여성	-2.74***	-0.28	-1.46	-0.27***	-0.28	-1.17**
	(0.90)	(0.73)	(1.15)	(0.062)	(0.73)	(0.55)
중2-2 석차백분율(%)	-0.000031	-0.0080	0.046**	-0.0012	-0.0094	-0.015
	(0.0085)	(0.013)	(0.022)	(0.0013)	(0.013)	(0.0096)
상수	6.98***	2.77**	3.27	5.95***	2.67*	1.63
	(1.73)	(1.34)	(2.45)	(0.12)	(1.37)	(1.07)
관측치 수	141	122	122	122	105	105
R^2				0.175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표 4-17>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4년제대졸 이상)

변수	전체	직업 有			임금근로자	
	(1) 직업 여부 (logit)	(2) 정규직 여부 (logit)	(3) 풀타임 여부 (logit)	(4) 로그 근로소득 (OLS)	(5) 정규직 여부 (logit)	(6) 대기업 여부 (logit)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0.37	-0.91*	-0.90	-0.13	-0.86	-0.43
	(0.56)	(0.55)	(0.67)	(0.078)	(0.55)	(0.44)
성별: 여성	0.13	-0.091	-0.47	-0.12**	-0.11	0.16
	(0.42)	(0.44)	(0.49)	(0.055)	(0.44)	(0.31)
중2-2 석차백분율(%)	-0.023***	0.0059	-0.00098	-0.0021*	0.0025	-0.021***
	(0.0072)	(0.0090)	(0.014)	(0.0011)	(0.0096)	(0.0075)
상수	2.57***	2.20***	3.49***	5.81***	2.25***	0.26
	(0.74)	(0.78)	(1.00)	(0.087)	(0.78)	(0.52)
관측치 수	335	294	294	294	272	272
R^2				0.039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록 4-4.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추가 분석

<부표 4-18>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월평균 근로소득)

변수	(1) 근로소득	(2) 근로소득	(3) 근로소득	(4) 근로소득	(5) 근로소득	(6) 근로소득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42.2*** (11.9)	-36.4*** (12.0)	-36.4*** (12.0)	-33.8*** (12.0)	-36.8*** (11.9)	-29.3*** (11.1)
성별: 여성	-44.1*** (10.6)	-43.2*** (10.6)	-40.3*** (10.3)	-48.3*** (10.4)	-35.1*** (11.2)	-42.7*** (10.5)
중2-2 석차백분율(%)	-0.49*** (0.19)	-0.38* (0.20)	-0.55** (0.22)	-0.29 (0.21)	-0.43** (0.20)	-0.39** (0.20)
상수	395*** (26.7)	351*** (33.4)	396*** (43.9)	340*** (33.0)	319*** (75.3)	209*** (42.6)
추가 통제변수	현 가구특성, 성과 무관 직장특성 등	(1)+ 원 가구특성	(2)+ 진학 성과	(2)+ 취업 관련 자기계발	(2)+ 비인지영역	(2)+ 성과 유관 직업특성
	현재 가족구성, 경력 여부, 직장 소재지, 업종, 직장 유형	부모 연령/학력/직업, 양부모 여부, 중3 가구소득, 중3~고3 사교육비	학력	취업 관련 영어공부, 제2외국어 공부, 자격증 여부, 해외연수 여부	건강상태, 자존감, 행복 정도, 신뢰도	종사상 지위, 풀타임, 정규직, 대기업 여부
관측치 수	482	482	482	482	482	482
R^2	0.206	0.256	0.265	0.283	0.270	0.346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표 4-19>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월평균 근로소득)2

변수		(7) 근로소득	(8) 근로소득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3.90 (19.1)	2.71 (19.4)
과거 일자리 수 (준거: 없음)	1~2개	0.91 (15.2)	-3.35 (14.8)
	3~6개	-2.35 (15.5)	-8.69 (13.4)
	7개 이상	56.0** (25.2)	30.3 (21.7)
학대 여부 * 과거 일자리 수	1*(1~2개)	-46.2 (28.8)	-30.5 (26.3)
	1*(3~6개)	-39.2 (29.1)	-30.1 (28.0)
	1*(7개 이상)	-123*** (41.4)	-106*** (39.4)
현 직장 근무 개월수		0.78*** (0.18)	0.59*** (0.19)
성별: 여성		-50.6*** (10.7)	-47.2*** (10.9)
중2-2 석차백분율(%)		-0.48** (0.20)	-0.52** (0.23)
상수		271*** (34.3)	214*** (66.5)
추가 통제변수		(2)번 모형과 동일 단, 경력 여부 변수는 제외	full[주2] 단, 경력 여부 변수는 제외
관측치 수		482	482
R^2		0.304	0.412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2: 원가구특성 및 (8)번 모형~(11)번 모형에서 각각 통제했던 진학 성과, 취업 관련 자기계발, 비인지영역, 성과 유관 직업특성 변수들을 모두 통제함.

<부표 4-20>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첫 직장 임금)

변수	(1) 로그 근로소득	(2) 로그 근로소득	(3) 로그 근로소득	(4) 로그 근로소득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0.028 (0.055)	0.0044 (0.057)	0.0064 (0.057)	0.082 (0.059)
성별: 여성	-0.083 (0.058)	-0.090 (0.059)	-0.089 (0.061)	-0.081 (0.053)
중2-2 석차백분율(%)	-0.0035*** (0.0011)	-0.0043*** (0.0011)	-0.0044*** (0.0011)	-0.0046*** (0.0010)
상수	5.82*** (0.17)	5.73*** (0.19)	5.48*** (0.27)	5.34*** (0.19)
추가 통제변수	성과 무관 직장특성	원 가구특성	진학 성과	성과 유관 직업특성
	직장 소재지, 업종	부모 연령/학력/직업, 양부모 여부, 중3 가구소득, 중3~고3 사교육비	학력	풀타임 여부
취업년도 통제	○	○	○	○
관측치 수	371	371	371	356
R^2	0.250	0.296	0.302	0.373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록 4-5. 통제변수 포함 결과 제시

<부표 4-21>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변수		(1) 로그 근로소득	(2) 로그 근로소득	(3) 로그 근로소득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0.13** (0.049)		
성별: 여성		-0.15*** (0.040)	-0.14*** (0.040)	-0.14*** (0.040)
중2-2 석차백분율(%)		-0.00075 (0.00076)	-0.00098 (0.00075)	-0.0010 (0.00074)
현재 가족 구성 (준거= 미혼+ 자녀X)	기혼+자녀X+외벌이	-0.12* (0.070)	-0.091 (0.072)	-0.10 (0.081)
	기혼+자녀O+외벌이	0.048 (0.067)	0.046 (0.068)	0.045 (0.070)
	기혼+자녀X+맞벌이	0.27** (0.11)	0.28** (0.11)	0.27** (0.11)
	기혼+자녀O+맞벌이	-0.11 (0.088)	-0.11 (0.087)	-0.11 (0.086)
	미혼+자녀O	0.21** (0.091)	0.20 (0.12)	0.18 (0.14)
이전 직장경력 유무: 유		-0.11*** (0.038)	-0.10*** (0.038)	-0.10*** (0.038)
직장 소재지 (준거= 읍면)	특별시	-0.022 (0.071)	-0.032 (0.070)	-0.017 (0.067)
	광역시	0.0075 (0.068)	-0.0072 (0.067)	-0.0028 (0.064)
	시	-0.052 (0.059)	-0.067 (0.059)	-0.060 (0.057)
업종 (준거= 제조업)	농·임·어·광업	-0.042 (0.10)	-0.093 (0.093)	-0.13* (0.073)
	전기가스수도업	-0.033 (0.12)	-0.035 (0.12)	-0.057 (0.10)
	건설업	0.27** (0.13)	0.27** (0.14)	0.27* (0.14)
	금융· 보험업	0.13 (0.14)	0.11 (0.14)	0.11 (0.14)
	기타 서비스업	-0.16*** (0.047)	-0.16*** (0.048)	-0.17*** (0.048)
직장 유형: 공공기관		0.017 (0.058)	0.027 (0.059)	0.021 (0.057)
부 연령: 40세 이하 여부		0.027 (0.074)	0.012 (0.076)	0.042 (0.069)
모 연령: 40세 이하 여부		0.028 (0.050)	0.036 (0.052)	
부 학력: 고졸 이하 여부		-0.032 (0.043)	-0.035 (0.044)	

모 학력: 대졸 이상 여부		0.14* (0.080)	0.14* (0.081)	0.13* (0.071)
부 직업 (준거= 관리자 등)	사무직	-0.057 (0.059)	-0.076 (0.060)	-0.096* (0.056)
	서비스·판매직	0.046 (0.059)	0.035 (0.061)	0.012 (0.060)
	생산직	-0.017 (0.050)	-0.011 (0.051)	-0.039 (0.049)
	군인	0.14 (0.097)	0.15 (0.096)	0.13 (0.091)
	무직	0.0098 (0.10)	0.033 (0.10)	-0.017 (0.093)
모 직업 (준거= 관리자 등)	사무직	0.12 (0.099)	0.11 (0.10)	
	서비스·판매직	0.078 (0.087)	0.078 (0.086)	
	생산직	0.047 (0.092)	0.035 (0.092)	
	무직	0.13* (0.079)	0.13 (0.078)	
양부모 여부: 양부모(stepparents)		-0.24 (0.18)	-0.24 (0.18)	-0.23 (0.18)
중3 월평균 소득: 하위 30% 여부		-0.015 (0.055)	-0.019 (0.055)	-0.013 (0.050)
중3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0.00067 (0.00096)	0.00080 (0.00097)	0.00093 (0.00098)
상수		5.90*** (0.13)	5.87*** (0.12)	5.96*** (0.10)
관측치 수		482	482	482
R^2		0.224	0.212	0.201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록 4-6. 취약계층 제외 분석

<부표 4-22>는 취약계층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를 제약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1)번 모형은 중학교 3학년 때 학생 본인이 자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지 물어보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고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만 분석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2)번 모형은 아버지나 어머니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이면서 양부모(stepparents)가 아니고 아버지 직업이 무직이 아니며 소득이 하위 10%가 아닌 경우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3)번 모형은 (2)번 모형과 동일하나 소득이 하위 20%가 아닌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4)번 모형은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1)번 모형부터 (4)번 모형까지 모두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다만 (2)번 모형과 (3)번 모형은 관측치 수가 너무 적어 통제변수에서 일부 일반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도 존재한다.

<부표 4-22>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초기 성인기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 제외)

변수		(1) 로그 근로소득	(2) 로그 근로소득	(3) 로그 근로소득	(4) 로그 근로소득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여부		-0.15*** (0.054)	-0.20** (0.099)	-0.21** (0.11)	-0.13** (0.049)
성별: 여성		-0.14*** (0.042)	-0.094 (0.065)	-0.064 (0.069)	-0.15*** (0.040)
중2-2 석차백분율(%)		-0.00070 (0.00084)	-0.00076 (0.0012)	-0.00071 (0.0013)	-0.00075 (0.00076)
현재 가족 구성 (준거= 미혼+ 자녀x)	기혼+자녀x+외벌이	-0.16* (0.080)	-0.036 (0.11)	-0.0093 (0.12)	-0.12* (0.070)
	기혼+자녀o+외벌이	-0.0088 (0.074)	0.040 (0.10)	0.054 (0.11)	0.048 (0.067)
	기혼+자녀x+맞벌이	0.30** (0.12)	0.20 (0.47)	-0.41*** (0.13)	0.27** (0.11)

	기혼+자녀0+맞벌이	−0.16 (0.11)	−0.039 (0.18)	−0.058 (0.19)	−0.11 (0.088)
	미혼+자녀0	0.22* (0.11)			0.21** (0.091)
이전 직장경력 유무: 유		−0.12*** (0.041)	−0.077 (0.063)	−0.14** (0.069)	−0.11*** (0.038)
직장 소재지 (준거= 읍면)	특별시	0.0078 (0.061)	0.032 (0.11)	0.025 (0.11)	0.030 (0.058)
	광역시	−0.042 (0.052)	−0.10 (0.083)	−0.16* (0.087)	−0.030 (0.049)
	시	0.048 (0.078)	−0.24* (0.12)	−0.19 (0.13)	0.022 (0.071)
업종 (준거= 제조업)	농·임·어·광업	0.23* (0.12)	0.19 (0.20)	0.31 (0.22)	0.042 (0.10)
	전기가스수도업	0.27* (0.14)	0.27 (0.21)	0.28 (0.22)	0.0092 (0.12)
	건설업	0.36*** (0.14)	0.65** (0.28)	0.85*** (0.26)	0.31* (0.16)
	금융· 보험업	0.33* (0.17)	0.38* (0.23)	0.49** (0.23)	0.17 (0.18)
	기타 서비스업	0.063 (0.11)	0.049 (0.17)	0.12 (0.18)	−0.12 (0.10)
직장 유형: 공공기관		0.0046 (0.063)	−0.048 (0.081)	−0.055 (0.084)	0.017 (0.058)
부 연령: 40세 이하 여부		0.052 (0.084)	0.22 (0.15)	0.28* (0.15)	0.027 (0.074)
모 연령: 40세 이하 여부		0.088 (0.056)	0.013 (0.091)	−0.059 (0.100)	0.028 (0.050)
부 학력: 고졸 이하 여부		0.0021 (0.042)	−0.29* (0.15)	−0.34** (0.14)	−0.032 (0.043)
모 학력: 대졸 이상 여부		0.21*** (0.075)	0.12 (0.096)	0.052 (0.11)	0.14* (0.080)
부 직업 (준거= 관리자 등)	사무직	−0.051 (0.062)	−0.12 (0.089)	−0.14 (0.098)	−0.057 (0.059)
	서비스·판매직	0.059 (0.062)	−0.037 (0.099)	−0.027 (0.11)	0.046 (0.059)
	생산직	−0.032 (0.052)	0.069 (0.085)	0.042 (0.093)	−0.017 (0.050)
	군인	0.035 (0.099)			0.14 (0.097)
	무직	0.015 (0.12)			0.0098 (0.10)
모 직업 (준거= 관리자 등)	사무직	0.14 (0.099)	0.17 (0.12)	0.21* (0.11)	0.12 (0.099)
	서비스·판매직	0.070 (0.087)	0.10 (0.11)	0.10 (0.11)	0.078 (0.087)
	생산직	0.080 (0.093)	0.16 (0.11)	0.13 (0.12)	0.047 (0.092)
	무직	0.16** (0.079)	0.090 (0.10)	0.0032 (0.11)	0.13* (0.079)

양부모 여부: 양부모(stepparents)	-0.042 (0.099)			-0.24 (0.18)
중3 월평균 소득: 하위 30% 여부	-0.016 (0.061)	0.14 (0.12)		-0.015 (0.055)
중3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0.000025 (0.00097)	0.0012 (0.0013)	0.0016 (0.0012)	0.00067 (0.00096)
상수	5.63*** (0.16)	5.57*** (0.22)	5.57*** (0.23)	5.83*** (0.14)
관측치 수	397	149	134	482
R^2	0.227	0.350	0.408	0.224

주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제 5 장 맺음말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대학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장에서 도출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분석 성격을 갖는 제2장에서는 부모의 자녀 학대 위험을 높이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과거 학대 여부와 부모의 양육기술 부족이라 볼 수 있는 양육 비일관성이었다. 이 때, 과거 학대 여부는 분석에 포함시킨 통제변수로 통제되지 않는 과거의 환경까지 반영하고 있으며, 이 환경은 사회경제적 요소 외에 부모의 비인지적 특성까지 포함한다. 참고로, 취약계층에서는 아버지의 무직 역시 학대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한편, 부모의 학대는 자녀의 대부분의 비인지적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영향은 가정환경 변수와 개인특성 변수, 특히 중학교 1~2학년 시기의 비인지적 영역 평균점수까지 통제하였을 때에도 대부분 유의하였으며, 영향의 크기는 성별이나 사회경제적 요인 못지않은 수준이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보다 크게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개인특성변수와 가구특성변수를 통제할 때, 자녀의 대학(2~3년제 대학 포함)에 대해서는 '지속적 학대'가, 4년제 대학에 대해서는 '학대'와 '지속적 학대'가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만 가구특성 변수로 통제되지 않는 과거의 가정 특성이 있을 경우 이들 추정치는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중2 성적을 통제할 경우 '학대' 그룹은 여전히 그 영향이 유의한 반면 '지속적 학대' 그룹은 그 유의성을 잃는다. 이는 '지속적 학대' 그룹의 경우 학대가 중학교 이전부터 지속되어왔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포함한 과거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이 중2 성적에 반영되어 대학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 본인의 '장래희망 교육수준'을 제외할 때,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설명해주

는 요소는 학대를 포함한 과거의 환경을 보여주는 중2 성적 변수였다. 다음으로는 학업 의지를 보여주는 교외학습시간 및 학습활동, 그리고 부모 양육 비일관성 순이었다. 참고로, '지속적 학대' 그룹에 속할 경우 2~3년제 대학 진학 대비 4년제 대학 진학이 제약을 받기보다 진학 자체가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해당 그룹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지속적 학대' 그룹에 속할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환경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힘'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제4장의 분석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직업 유무나 정규직 여부, 풀타임 근로 여부 및 대기업 근무 여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근로소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 학대는 원가구 특성까지 통제할 때 자녀의 초기 성인기 월평균 근로소득을 약 13% 감소시켰다. 다만 본 장의 분석 결과는 부모학대의 영향을 과소추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 학대가 자녀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서는 '잦은 직장이동'이 상당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아울러 부모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크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있고 성적이 좋지 않은 표본들이 여성에게서 더 많이 이탈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각 장의 결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나름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한계점은 바로 표본이탈이다.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한 경우, 수감이나 사회적 낙오 등의 이유로 사회적 배제 가능성이 커지고, 아울러 표본이탈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본 논문에서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을 때에도 학대 경험이 있으면서 청소년기 성적이 안 좋을수록 표본이탈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한 표본이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가중치를 사용하고, 4장에서는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한 분석도 실시해 보았다. 아울러 결과 분석 시 과소추정 가능성에 유의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내생성 문제이다. 본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들은 응답 대상자들이 청소년일 때 조사·수집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환경적 요소가 이미 학대를 유발하였을 수 있고, 이 학대가 지속되어올 수 있으며, 또 이러한 부분들이 자녀의 청소년기 성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내생성 문제에 유의하고자 2장의 '학대위험을 높이는 요인 분석'에서는 시차 변수를 사용하였고,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비인지영역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에는 성적이나 비인지적 영역 점수 등 조사 초기의 조사 대상자 특성 변수를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또한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진학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있어서는 중학교 성적을 통제하기 이전의 결과는 내생성 문제에 따른 과대추정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하고 중학교 성적은 과거의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등, 해석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이상의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부모 학대의 장기적인 영향, 특히 자녀의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다루어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의 학대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무엇인지에 대해 Gelbach(2016)의 요인분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분석 시 통제변수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 경제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의의를 갖는다. 첫째, 부모의 학대가 장기적으로 자녀의 진학 성과 및 노동시장 성과에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부모의 학대가 우리 사회에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제시하며, 부모 학대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노동생산성에 손실을 끼치고 있음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제4장의 결론 파트에서는 비록 매우 대략적인 추정치이기는 하나, 부모 학대로 인한 국가 차원의 연간 노동생산성 저하 관련 손실이 GDP의 0.9% 이상이 될 수 있음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 노동생산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가 된 요즈음,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과 그에 대

한 근거를 제시해줄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학대의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학대의 사회적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대에 따른 고용 관련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셋째, 그동안 경제학에서는 개인의 인적자본 형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룰 때 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고려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등과 같은 비인지적인 요소도 사회경제적 요소 못지않게 개인의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으며, 이를 계기로 인적자본 형성과 관련된 연구 및 이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어 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장

김세원 (2021). 청소년기 아동학대 피해 경험과 초기 성인기의 발달 결과. *청소년문화포럼*, 66, 33-62.

김수정, 정익중. (2016).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한국아동복지학*, (53), 25-50.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Burton, P., Phipps, S., & Curtis, L. (2002). All in the family: A simultaneous model of parenting style and child conduct. *American Economic Review*, 92(2), 368-372.

Covey, H. C., Menard, S., & Franzese, R. J. (2013). Effects of adolescent physical abuse, exposure to neighborhood violence, and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on adult socioeconomic status. *Child maltreatment*, 18(2), 85-97.

Currie, J., & Spatz Widom, C. (2010).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adult economic well-being. *Child maltreatment*, 15(2), 111-120.

Doepke, M., Sorrenti, G., & Zilibotti, F. (2019). The economics of parenting. *Annual Review of Economics*, 11, 55-84.

Fahy, A. E., Stansfeld, S. A., Smuk, M., Lain, D., Van der Horst, M.,

Vickerstaff, S., & Clark, C. (2017). Longitudinal associations of experiences of adversity and socioeconomic disadvantage during childhood with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exit in later adulthood. *Social Science & Medicine*, 183, 80-87.

Ireland, T. O., Smith, C. A., & Thornberry, T. P. (2002). Developmental issues in the impact of child maltreatment on later delinquency and drug use. *Criminology*, 40(2), 359-400.

Kim, J. H. (2019). *The Economics of Parenting Skill and Child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Macmillan, Ross, and John Hagan. 2004. Violence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dolescent victimization, education, and socioeconomic attain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4(2):127 - 58.

McCord, Joan. (1983). A forty year perspective on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7(3), 265-270.

McGloin, J. M., & Widom, C. S. (2001). Resilience among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grown up.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4), 1021－1038.

Mersky, J. P., & Topitzes, J. (2010). Comparing early adult outcomes of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 A prospective longitudinal investig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8), 1086-1096.

Paxson, C., & Waldfogel, J. (2002). Work, welfare, and child maltreat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20(3), 435-474.

Robst, John. (2008). Childhood sexual abuse and the gender wage gap. *Economics Letters*, 99(3), 549-551.

Tanaka, M., Jamieson, E., Georgiades, K., Duku, E. K., Boyle, M. H., & MacMillan, H. L. (2011).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abuse and labor force outcomes in young adults: Results from the Ontario child health study.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0(8), 821-844.

Thornberry, T. P., Ireland, T. O., & Smith, C. A. (2001). The importance of timing: The varying impact of childhood and adolescent maltreatment on multiple problem outcom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4), 957-979.

Zielinski, D. S. (2009). Child maltreatment and adult socioeconomic well-being. *Child abuse & neglect*, 33(10), 666-678.

2장

김경호. (2014). 중학생이 지각한 아동학대의 경험 수준이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학교사회복지*, 29, 95-121.

김광혁, 김예성. (2008). 가족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47-859.

김광혁. (2006). 가족배경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45, 53-74.

김민희. (2010). DEA 와 Tobit 모형을 활용한 충청북도 일반계고등학교 효율성 분석. *한국교육*, 37(3), 105-133.

김보민, 조대연. (2018). 졸업 유예의 취업 및 임금효과 분석.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91-523.

김예정, 김득성. (2006).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6), 141-153.

김자영. (2014).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4(3), 286-316.

김재엽, 송아영. (2007). 가정폭력노출경험과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3), 99-125.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청소년들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6), 31-59.

김재엽. (2001).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7, 1-32.

김춘경, 조민규. (2014). 학대경험 수준에 따른 아동의 정서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 행동장애연구*, 30(4), 267-290.

김혜영, 석말숙. (2003). 아동기 학대적 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개인특성 및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6), 71-97.

나은숙, 정익중. (2007). 아동학대 유형별 우울성향,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4), 35-49.

민인식, 최필선. (2009).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박명숙, 이재경. (2014).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 발생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의 구조적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6(2), 179-202.

박명숙. (2002).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서 장애아동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1, 311-327.

배화옥. (2011). 아동의 학대경험이 형제폭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아동복지학*, (34), 7-28.

백경숙.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와 결혼만족도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2), 181-198.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송민영, 박현선. (2017).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아동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8(4), 195-215.

신혜영, 최해림. (200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95-307.

엄명용. (2001).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가족 내 부모지지 및 감독의 완충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8, 149-178.

유영선. (2012). 모의 우울이 학령전기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부부갈등,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혜미. (1997). 아동의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아동의 부모자녀관계 지각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 95-120.

이미선, 신의진, 박진아, 이경숙. (2008). 불안장애 아동의 애착유형과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및 애착 표상. *재활심리연구*, 15(1), 33-51.

이영애, & 정현희. (2017). 아동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 우울 및 공격성의 다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6), 53-79.

이재연, 한지숙. (2003). 아동과 부모, 가족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 연구. *아동학회지*, 24(2), 63-78.

이종구, 김태진, 권기헌. (2009). 사교육비 지출 패턴과 경감정책의 효과분석 - Tobit Model과 Heckman Selection Model의 활용 -. *한국교육*, 36(2), 189-221.

이주희, 이양희. (2000). 아동 및 부모특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4(2): 113-123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223-244

정익중. (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29(4), 79-95.

조옥자, 현온강. (2005).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141-16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a).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KCYPS 2010) 유저 가이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b).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 1-7차 조사 코드북.*

Angelakis, I., Gillespie, E. L., & Panagioti, M. (2019). Childhood maltreatment and adult suicidality: a comprehensive systematic review with meta-analysis. *Psychological medicine*, 49(7), 1057-1078.

Assink, M., Spruit, A., Schuts, M., Lindauer, R., van der Put, C. E., & Stams, G. J. J. (2018).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 maltreatment: A three-level meta-analysis. *Child abuse & neglect*, 84, 131-145.

Berger, L. M., & Waldfogel, J. (2011). Economic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child maltreatment.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11, 1-31.

Bunting, L., Davidson, G., McCartan, C., Hanratty, J., Bywaters, P., Mason, W., & Steils, N. (2018).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adult poverty - A systematic review of longitudinal research. *Child abuse & neglect,* 77, 121-133.

Burton, P., Phipps, S., & Curtis, L. (2002). All in the family: A simultaneous model of parenting style and child conduct. *American Economic Review*, 92(2), 368-372.

Clemmons, J. C., Walsh, K., DiLillo, D., & Messman-Moore, T. L. (2007). Unique and combined contributions of multiple child abuse types and abuse severity to adult trauma symptomatology. Child maltreatment, 12(2), 172-181.

Conrad-Hiebner, A., & Byram, E. (2020). The temporal impact of economic insecurity on child maltreatment: A systematic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21(1), 157-178.

Currie, J., & Spatz Widom, C. (2010).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adult economic well-being. *Child maltreatment*, 15(2), 111-120.

Currie, J., & Tekin, E. (2012). Understanding the cycle childhood maltreatment and future crime. *Journal of Human Resources*, 47(2), 509-549.

Doyle Jr, J. J., & Aizer, A. (2018). Economics of child protection: Maltreatment, foster car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nnual review of economics*, 10, 87-108.

Fry, D., Fang, X., Elliott, S., Casey, T., Zheng, X., Li, J., ... &

McCluskey, G. (2018). The relationships between violence in childhood and educational outcomes: A global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hild abuse & neglect*, 75, 6-28.

Gardner, M. J., Thomas, H. J., & Erskine, H. E. (2019). The association between five forms of child maltreatment and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hild abuse & neglect*, 96, 104082.

Kim, J. H. (2019). *The Economics of Parenting Skill and Child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Lemmon, J. H. (2006). The effects of maltreatment recurrence and child welfare services on dimensions of delinquency. Criminal Justice Review, 31(1), 5-32.

MacMillan, H. L., Fleming, J. E., Streiner, D. L., Lin, E., Boyle, M. H., Jamieson, E., Duku, E. K., Walsh, C. A., Wong, M. Y., & William, R. B. (2001). Childhood abuse and lifetime psychopathology in a community sampl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11), 1878-1883.

Manly, J. T., Kim, J. E., Rogosch, F. A., & Cicchetti, D. (2001). Dimensions of child maltreat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Contributions of developmental timing and sub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4), 759-782.

Paxson, C., & Waldfogel, J. (2002). Work, welfare, and child

maltreat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20(3), 435-474.

Pelton, L. H. (2015). The continuing role of material factors in child maltreatment and placement. *Child abuse & neglect*, 41, 30-39.

Perez, C. M., & Widom, C. S. (1994). Childhood victimization and long-term intellectual and academic outcomes. *Child abuse & neglect*, 18(8), 617-633.

Widom, C. S. (1989).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44(4901), 160-166.

3장

권지은, 이은정, 노충래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방임과 학대가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 매개효과 분석-. *아동복지학*, 42, 29-54.

김광혁 (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4(2), 27-46.

김미숙, 박명숙 (2004). 아동의 학습능력 저해요인으로서의 학대경험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5(5), 29-40.

김세원 (2021). 청소년기 아동학대 피해 경험과 초기 성인기의 발달 결과. *청소년문화포럼*, 66, 33-62.

나은숙, 정익중 (2007). 아동학대 유형별 우울성향,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4), 35-49.

박세진, 이현숙. (2015).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학생수준 및 학교수준 변인에 대한 다층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교육평가연구*, 28, 499-522.

이호택 (2012). 가정폭력 노출 경험이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교육실천연구*, 11(1), 25-52.

전은옥. (2021).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학습시간, 여가시간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1), 99-112.

Burton, P., Phipps, S., & Curtis, L. (2002). All in the family: A simultaneous model of parenting style and child conduct. *American Economic Review*, 92(2), 368-372.

Covey, H. C., Menard, S., & Franzese, R. J. (2013). Effects of adolescent physical abuse, exposure to neighborhood violence, and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on adult socioeconomic status. *Child maltreatment*, 18(2), 85-97.

Currie, J., & Spatz Widom, C. (2010).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adult economic well-being. *Child maltreatment*, 15(2), 111-120.

Duncan, R. D. (2000). Childhood maltreatment and college drop-out rates: Implications for child abuse research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9), 987-995.

Gelbach, J. B. (2016). When do covariates matter? And which ones, and how much?. *Journal of Labor Economics*, 34(2), 509-543.

Jordan, C. E., Combs, J. L., & Smith, G. T. (2014). An exploration of sexual victimiz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among college women. *Trauma, Violence, & Abuse*, 15(3), 191-200.

Kim, J. H. (2019). *The Economics of Parenting Skill and Child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Lee, Seungeun and Taejong Kim, "What Causes the College Entrance Gap in Korea?"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35 (3), 2012, pp.51~81.

MacMillan, H. L., Fleming, J. E., Streiner, D. L., Lin, E., Boyle, M. H., Jamieson, E., Duku, E. K., Walsh, C. A., Wong, M. Y., & William, R. B. (2001). Childhood abuse and lifetime psychopathology in a community sampl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11), 1878-1883.

Macmillan, Ross, and John Hagan. 2004. Violence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dolescent victimization, education, and socioeconomic attain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4(2):127 - 58.

McCord, Joan. (1983). A forty year perspective on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7(3), 265-270.

McGloin, J. M., & Widom, C. S. (2001). Resilience among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grown up.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4), 1021－1038.

Mersky, J. P., & Topitzes, J. (2010). Comparing early adult outcomes of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 A prospective longitudinal investig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8), 1086-1096.

Tanaka, M., Jamieson, E., Georgiades, K., Duku, E. K., Boyle, M. H., & MacMillan, H. L. (2011).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abuse and labor force outcomes in young adults: Results from the Ontario child health study.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0(8), 821-844.

4장

강정희. (2018). 성장기 학대경험이 성년기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관리학보*, 32(1), 51-74.

김보민, 조대연. (2018). 졸업 유예의 취업 및 임금효과 분석.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491-523.

김수정, 정익중. (2016).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한국아동복지학*, (53), 25-50.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2004)~12차(2015)년도 조사 사용자 지침서*.

Anda, Robert F., et al. (2004) Childhood abuse, household dysfunction, and indicators of impaired adult worker performance. *The permanente journal*, 8(1), 30-38.

Arens, A. M., Gaher, R. M., & Simons, J. S. (2012). Child maltreatment and deliberate self harm among college students: Testing mediation and moderation models for impulsivi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2(3), 328.

Bunting, L., Davidson, G., McCartan, C., Hanratty, J., Bywaters, P., Mason, W., & Steils, N. (2018).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adult poverty–A systematic review of longitudinal research. *Child abuse & neglect*, 77, 121-133.

Bryant, S. L., & Range, L. M. (1997). Type and severity of child abuse and college students' lifetime suicidality. *Child Abuse & Neglect*, 21(12), 1169-1176.

Clemmons, J. C., Walsh, K., DiLillo, D., & Messman-Moore, T. L. (2007). Unique and combined contributions of multiple child abuse types and abuse severity to adult trauma symptomatology. *Child maltreatment*, 12(2), 172-181.

Covey, H. C., Menard, S., & Franzese, R. J. (2013). Effects of adolescent physical abuse, exposure to neighborhood violence,

and witnessing parental violence on adult socioeconomic status. *Child maltreatment*, 18(2), 85-97.

Currie, J., & Spatz Widom, C. (2010).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adult economic well-being. *Child maltreatment*, 15(2), 111-120.

Della Femina, D., Yeager, C. A., & Lewis, D. O. (1990). Child abuse: Adolescent records vs. adult recall. *Child abuse & neglect*, 14(2), 227-231.

Fahy, A. E., Stansfeld, S. A., Smuk, M., Lain, D., Van der Horst, M., Vickerstaff, S., & Clark, C. (2017). Longitudinal associations of experiences of adversity and socioeconomic disadvantage during childhood with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exit in later adulthood. *Social Science & Medicine*, 183, 80-87.

Gelbach, J. B. (2016). When do covariates matter? And which ones, and how much?. *Journal of Labor Economics*, 34(2), 509-543.

Gelles, R. J., & Perlman, S. (2012). *Estimated annual cost of child abuse and neglect*. Chicago, IL: Prevent Child Abuse America.

Ireland, T. O., Smith, C. A., & Thornberry, T. P. (2002). Developmental issues in the impact of child maltreatment on later delinquency and drug use. *Criminology*, 40(2), 359-400.

Macmillan, R. (2000). Adolescent victimization and income deficits in adulthood: Rethink ing the costs of criminal violence from a

life course perspective. *Criminology*, 38, 553 - 588.

Macmillan, R., & Hagan, J. (2004). Violence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dolescent victimization, education, and socioeconomic attain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4(2), 127-158.

Maughan, A., & Cicchetti, D. (2002). Impact of child maltreatment and interadult violence o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bilities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3(5), 1525-1542.

McCord, Joan. (1983). A forty year perspective on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7(3), 265-270.

McGloin, J. M., & Widom, C. S. (2001). Resilience among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grown up.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4), 1021-1038.

Mersky, J. P., & Topitzes, J. (2010). Comparing early adult outcomes of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 A prospective longitudinal investig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8), 1086-1096.

Mezzacappa, E., Kindlon, D., & Earls, F. (2001). Child abuse and performance task assessments of executive functions in boy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2(8), 1041-1048.

Oshri, A., Kogan, S. M., Kwon, J. A., Wickrama, K. A. S.,

Vanderbroek, L., Palmer, A. A., & Mackillop, J. (2018). Impulsivity as a mechanism linking child abuse and neglect with substance use in adolescence and adult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0(2), 417-435.

Peterson, C., Florence, C., & Klevens, J. (2018). The economic burden of child maltreatment in the United States, 2015. *Child abuse & neglect*, 86, 178-183.

Robst, John. (2008). Childhood sexual abuse and the gender wage gap. *Economics Letters*, 99(3), 549-551.

Robst, John, and Stacy Smith. (2008). The effect of childhood sexual victimization on women's income. *Eastern Economic Journal*, 34(1), 27-40.

Schatz, J. N., Smith, L. E., Borkowski, J. G., Whitman, T. L., & Keogh, D. A. (2008). Maltreatment risk, self-regulation, and maladjustment in at-risk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32(10), 972-982.

Shields, A., & Cicchetti, D. (2001). Parental maltreatment and emotion dysregulation as risk factors for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3), 349-363.

Shields, A., & Cicchetti, D. (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4),

381-395.

Sujan, A. C., Humphreys, K. L., Ray, L. A., & Lee, S. S. (2014). Differential association of child abuse with self-reported versus laboratory-based impulsivity and risk-taking in young adulthood. *Child maltreatment*, 19(3-4), 145-155.

Tajima, E. A., Herrenkohl, T. I., Huang, B., & Whitney, S. D. (2004). Measuring child maltreatment: A comparison of prospective parent reports and retrospective adolescent repor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4(4), 424-435.

Tanaka, M., Jamieson, E., Georgiades, K., Duku, E. K., Boyle, M. H., & MacMillan, H. L. (2011).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abuse and labor force outcomes in young adults: Results from the Ontario child health study.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0(8), 821-844.

Thornberry, T. P., Ireland, T. O., & Smith, C. A. (2001). The importance of timing: The varying impact of childhood and adolescent maltreatment on multiple problem outcom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4), 957-979.

Wang, C. T., & Holton, J. (2007). *Total estimated cost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 the United States*. Chicago, IL: Prevent Child Abuse America.

Wooldridge, J. M. (2009).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4th Edition, South-Western Cengage learning.

Zielinski, D. S. (2009). Child maltreatment and adult socioeconomic well-being. *Child abuse & neglect*, 33(10), 666-678.

Abstract

The Effect of Parental Child Abuse on Children's College Entrance and Labor Market Performance

Seungeun Lee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mproving human capital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as has improving labor productivity. Parents have a substantial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an individual's human capital. Accordingly, in economics,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effect of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on an individual's human capital formation. However, as Burton et al. (2002) argued, in addition to a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non-cognitive factors such as parenting attitudes can also significantly affect the formation of an individual's human capital.

"Abuse," in particular, referred to as an extreme parenting attitude can greatly impact children even when it is not at the level of a "child abuse crime". Moreover, this level of abuse, which is less

severe than child abuse crime, is not a rare phenomenon in Korea. In this respect, the importance of “abuse” as a research subject is by no means low. Therefore, this paper approaches parental abuse from the perspective of ‘a factor that affects the formation of children’s human capital’ and examines whether parental abuse affects an individual’s admission into college and labor market performance. In addition, we tried to illuminate the pathways involved, if any, using Gelbach (2016)’s factor decomposition.

This paper consists of three main chapters, excluding the Introduction in Chapter 1 and the Conclusion in Chapter 5. First, in Chapter 2, we examine the “factors that increase the risk of parental abuse” and “the effect of parental abuse on children’s non-cognitive domain”, utilizing a simple initial analysis that will further buttress the subsequent research. Then, in Chapter 3, we analyze the effect of parental abuse on children’s college entrance, while in Chapter 4, we review the impact of parental abuse on children’s labor market performance.

A review of the analysis results from each chapter shows the following. First, in Chapter 2, the most critical factors increasing the risk of parental child abuse are past abuse and inconsistent parenting. In this case, the past abuse reflects the past environment uncontrolled by the control variables included in my analysis. In addition, in the vulnerable class, a father’s joblessness increases the risk of abuse. Moreover, parental abuse negatively affected most non-cognitive domains of children. This effect was still valid even when controlling for the family environment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 variables, including the average score of the non-cognitive domain in the 1st and 2nd Grades of middle school. The negative effect was more substantial with “continuous abuse.”

In Chapter 3, when controlling for individu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variables, “continuous abuse” negatively affected children’s admission to colleges (including 2-3 year colleges), and “abuse” and “continuous abuse” had a negative effect on their admission to 4-year colleges. However, these estimates may be overestimated if there are past household characteristics that are not controlled by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variables. When middle school grades were controlled, the “abused” group still had a significant effect, while the “continuous abuse” group lost its significance. This implies that in the case of the “continuous abuse” group,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abuse has continued since before middle school, and the negative past environment, including abusive environment, negatively affected the children’s college admission, by being reflected in their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The most explanatory factor for the negative effect of parental abuse on children’s admission to a 4-year college was the middle school grade variable, reflecting the past environment, including abuse. The next was “out-of-school learning time” and “time spent on learning activities” which showed a willingness to study. Inconsistent parenting which showed parents’ lack of parenting skills was in order. In addition, the adverse effects from the “continuous abuse” group were more pronounced in female than in male students, which was found to be because the “power to be less affected by the environment” was reduced in female students that belonged to this group.

Finally, the Chapter 4 analysis found that parental abus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children’s early adulthood, whether they were employed, had a full-time job, or worked at a large company. However, it did negatively affect earned income. More specifically,

parental abuse decreased children's average monthly earned income in early adulthood by approximately 13% when controlling for original household characteristics. However, it is necessary to be aware that the analysis results in this chapter may underestimate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 Moreover, "frequent job transfers" explained a large part of the path through which parental abuse affected children's earned income. Suppose children have experienced abuse from their parents. In that case, they often change jobs due to a notable lack of persistence (Sujan et al., 2014), difficulty in controlling emotions, and poor social skills (Maughan & Cicchetti, 2002; Shields & Cicchetti, 1998), negatively affecting earned income.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in the analysis of this paper, the biggest of which is sample attrition. In the case of severe parental abuse, social exclusion was more prevalent due to imprisonment or mental problems such as depression, meaning that the possibility of sample attrition also increased.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sample attrition in this paper, it was found that the likelihood of sample attrition increased with the experience of abuse and poor middle school grades. To mitigate this sampling bias, I used weights in my research, and in Chapter 4, an analysis using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was conducted. Moreover, when analyzing the results, this paper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underestimation.

The second is the problem of endogeneity. The data used in this analysis were surveyed and collected when the respondents were adolescents. Therefore, environmental factors before the start of the survey may have already caused the abuse, and this abuse may continue, and these factors may have affected the child's adolescent performance. To alleviate the endogeneity problem, a lag variable was

used in the “Analysis of the Factors Increasing the Risk of Parental Abuse” in Chapter 2. Also, in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 on children’s non-cognitive domain and labor market performance, characteristic variables such as academic performance and the average score of non-cognitive domains at the beginning of the survey we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In addition,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interpretation in the analysis of parental abuse on children’s college entrance. Moreover, it is stated that the results before middle school grades are controlled for are likely to be overestimated due to endogeneity problems, and that middle school grades reflect past environmental factors.

Despite the above limitations, this paper has significance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is paper empirically confirmed that “abuse” was the parenting attitude that affected the formation and performance of children’s human capital. Much research has already been conducted in the existing economics on the effect of parental socioeconomic factors and material investment on children’s human capital formation. However, studies on the impact of parents’ non-cognitive domain on the construction of children’s human capital are still lacking.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tudies on the effects of parents’ socioeconomic factors, if studies on the impact of parents’ non-cognitive domains, such as this paper, are accumulated, the scope of our understanding regarding individual human capital formation and performance can be further expanded.

Second,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including abuse, on their children has been discussed a lot in social welfare studies, child studies, and psychology. However, in many cases, these studies analyzed the impact on children’s non-cognitive areas or academic achievement before adulthood. Also, the methodology for finding out

the path of influence is different from that of economics. In this paper, I utilize Gelbach (2016)'s factor decomposition to identify how parental abuse affected children's college entrance and labor market performance. I also present the analysis results that supplemented the sampling bias using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in Chapter 4. In summary,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topic of "parental child abuse" in terms of dealing with a broader subject of its "effect on children's economic performance" and adding evidence related to the pathways of the impact of abuse using the analysis method of an alternative academic field.

Furthermore, this paper provided a rough estimate of the national loss related to reduced labor productivity due to parental abuse (approximately 17.8 trillion won per year as of 2019, 0.9% of nominal GDP), which could be used for decision-making on budget allocation for combating child abuse. Notably, even though a victim's employment-related costs account for the most substantial portion of the social costs of child abuse, no study in Korea has estimated this cost using actual data. In addition, by finding out how parental abuse negatively affects their children's entrance into college and their labor market performance, grounds for a policy approach to support abuse victims were also presented.

keywords : child abuse, college entrance, earned income, labor market performance, human capital formation, labor productivity, parenting attitude

Student Number : 2013-30062

감사의 글

하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 심사의 과정을 진행해주신 이철희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심사 때 여러 의견을 주신 이정민 교수님, 홍석철 교수님, 유조안 교수님, 이영욱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있으면서도 엄마를 믿고 기다려준 어린 아들 홍성주와, 기다림이 힘들었을 남편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1월

이승은 올림